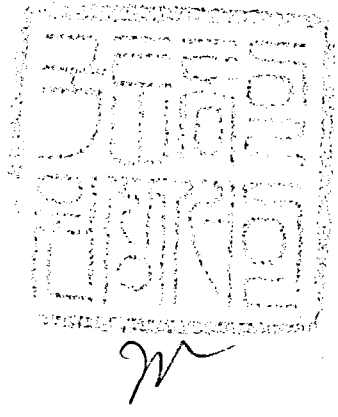
民主統一論

(特別課程)

1973年度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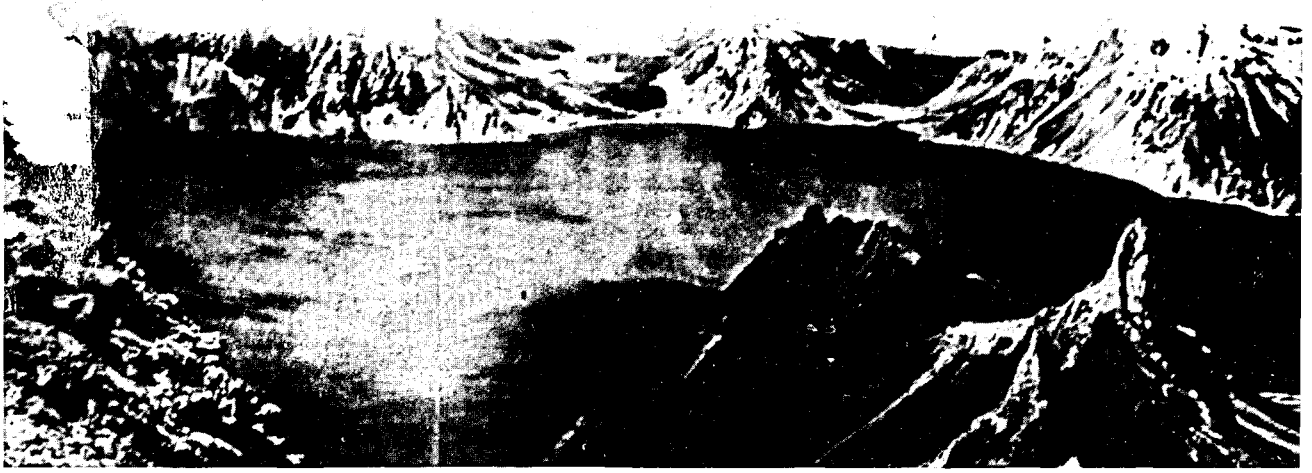


統一研修所

국토통일

1970년 3월 1일

대통령 박정희 의집



국 민 교 육 헌 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 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 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 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目　　次

Ⅰ. 国家目標와 基本施策 …… 7

第1章 国家目標와 政策의 基調 …… 9

1. 国家目標 …… 9

2. 政策의 基調 …… 11

第2章 基本施策 …… 13

1. 基本施策方向 …… 13

2. 維新課業의 遂行 …… 14

3. 国民経済의 高度成長 ……

(第3次経済開発5個年計劃) …… 16

4. 새마을運動 …… 26

Ⅱ. 総力安保 …… 35

第1章 総力安保의 概念 …… 37

第2章 総力安保의 指導要綱 …… 38

Ⅲ. 10月維新의 理念 …… 41

第1章 10月維新의 歷史的 意義 …… 43

1. 民族的 自我発見 …… 43

2. 歷史的 使命 …… 47

第2章 10月維新의 政治哲学的 意義 …… 48

1. 自覚的 自己革新 …… 49

2. 国籍있는 民主理念 …… 51

3. 実践的 行動의 決断 …… 53

1. 憲法의 基礎와 特徵 …… 133
2. 政治制度 …… 137
3. 支配方式 …… 148
第2章 經 濟 …… 157
1. 經濟体制 …… 158
2. 經濟政策 …… 160
3. 經濟現況 …… 167
4. 対外貿易 …… 169
5. 經濟展望 …… 193
第3章 社 会 …… 196
1. 住民生活 …… 196
2. 労動과 報酬 …… 200
3. 住民統制 …… 202
4. 冠婚喪祭 …… 203
5. 文化·芸術·宗教 …… 205
第4章 教 育 …… 208
1. 教育目的 …… 208
2. 教育政策 …… 209
3. 教育体系 …… 210
4. 教育現況 …… 213
第5章 外交 및 軍事 …… 224
1. 外 交 …… 224
2. 軍 事 …… 231
3. 北韓·中共 및 蘇聯의 三角関係 …… 242
第6章 北韓의 脆弱点 …… 250

1・70年代의 統一努力 …… 405
2．現段階 統一政策形成要素抽出의 前提 …… 409
3・現段階 統一接近方案의 理論的 妥当性 検討 …… 414
4・祖国統一의 基本方向 …… 420
第2章 統韓問題와 유엔 …… 431
1．初期段階（建国부터 動乱까지） …… 431
2．第2段階（제네바会談以後 第1共和国末까지） …… 433
3．第3段階（第15次 総会以後 現在까지） …… 435
第3章 分断国의 統一政策 …… 442
1．序 言 …… 442
2．独逸의 統一政策 …… 442
3．越南의 統一政策 …… 448
4．中国의 統一政策 …… 454
5．結 言 …… 457

Ⅸ．統一教育 …… 459

第1章 韓国과 北韓의 政治教育現況 …… 461
第2章 南北対話와 政治教育의 方向 …… 477

Ⅹ．統一을 위한 指導層의 使命 …… 481

第1章 統一政策의 方向 …… 483
第2章 国際政治的 制約 …… 485
第3章 北韓의 挑戦 …… 486
第4章 10月 維新의 綜合的 意義 …… 488
第5章 指導層의 使命 …… 490

Ⅰ. 國家目標와 基本施策

第 1 章　国家目標와　政策의　基調
第 2 章　基本施策

第1章　國家目標와 政策의 基調

1. 国家 目標

一般的으로 多数의 사람(国民)이 生活의 共同的 場所(国土)를 가지고 하나의 規範과 統制(政府)에 従属되어 있는 形態를 国家라고 한다면, 国家는 窮極的으로 国家形成의 主体인 国民을 自由롭고 平和롭게 또 잘 살수 있게 하는데 国家의 終局的인 目標가 設定되어져야 한다. 이것은 곧 国家利益을 追求하는 目標이기도 하다. 国家概念이 警察国家라는 古典的 概念에서 近代国家로 変遷됨에 따라 그 機能은 治安維持, 国土防衛라는 秩序的이고 消極的인 機能에서 보다 積極的인, 即 経済의 発展·成長, 이로 因한 福祉社会의 実現, 또는 文化의 創造, 科学의 開発等 그 機能의 多辺化가 必然的으로 要求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近代国家가 自由·平和·福祉社会의 実現에 그 国家目標를 設定하고 있는 理由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国家目標의 窮極的인 基調는 国民을 위해서 일하여 国民으로 하여금 安楽한 生活을 営為하게 하는 国家를 이룩하려는데 두고, 이를 実現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3大目標를 標榜하고 있다.

첫째, 自由民主主義의 理念下에 国家를 保衛하고 国土를 統一하며 永久的 独立을 保全한다.

둘째, 国民의 自由와 権利를 保障하고 祖国近代化를 推進하므로써 福祉社会를 実現한다.

세째, 国際的 地位를 向上시켜 国威를 宣揚하고 国際平和의 維持에 貢献한다.

回顧컨데, 第2次大戦이 終戦되자 聯合国이었던 美·蘇 両国이 韓半島에서

維持에 貢献하고 있는 것이다.

戦略과 政策의 相関型

第1段階	国家 目的	国家 利益	国家의 理念, 基本的 欲求
		国家 目標	長期目標
		国家 目標	短期目標
第2段階	主要国家問題	国家的 状況判断	短期目標 達成을 위한 主要問題
第3段階	全面戦略決定	国家 政策	短期目標 達成을 위한 行動方針
第4段階	더욱 詳細한決定	国家 戦略	国家政策의 執行을 위한 具体的인 方針
第5段階	具体的인 計劃	Plans와 Programs (機能別)	国家戦略의 遂行을 위한 機能別 計劃

2. 政策의 基調

政策의 理念은 政策을 指導하며 目標에 到達하게 하는 길잡이 구실을 하는 것이다. 現在 우리의 国家政策 理念인 「10月 維新」은 政府와 国民이 一致 団結하여 努力함으로써만 達成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하므로써 国家政策의 終局的 目標인 国土統一과 福祉社会의 実現에 接近할 수 있는 것이다.

政府는 維新課業을 完遂하기 위한 政策의 基調를 다음과 같이 세가지로 設定하고 있다.

첫째는 経済開発에 두고, 総力安保의 基調위에서 経済開発을 持続的으로 追求하여 国力의 物質的 基盤을 拡充한다.

둘째는 精神革命에 두고, 総力安保의 基調 위에서 国民의 精神革命을 誘導하고 民族文化의 中興을 이룩한다.

며 10月維新으로 우리의 民族史에 새로운 章이 열리고 있다.

우리도 남에게 뒤지지 않고 繁栄된 祖国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쌓아온 経験을 土台로 全国民이 한마음으로 뭉쳐 피땀흘려 努力해야 하는 것이다. 維新課業을 継続的으로 遂行하여 維新理念을 着実히 具現하며, 維新秩序의 굳건한 定着 위에 새마을運動의 積極的인 展開로 国民経済의 高度成長을 이룩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80年代初에 国民所得 1,000弗, 輸出 100億弗을 達成하여 福祉社会를 実現하고, 民族의 念願인 栄光된 統一祖国의 建設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今年度 維新施政의 指標는 大略 다음과 같다.

첫째, 政治面에서는 보다 더 能率的이고 浪費 없는, 生産에 直結되는 政治制度를 育成 発展시키고 깨끗하고 明朗한 政治風土를 造成하여 民主主義의 韓国的 土着化에 注力한다.

둘째, 外交面에서는 激変하는 国際情勢에 適応하는 能動的이고 伸縮性 있는 自主実利 外交를 展開하여 国家利益의 極大化에 努力한다.

세째, 国防面에서는 装備의 現代化, 軍의 精鋭化, 豫備軍의 戦力化를 期하고, 軍의 보다 経済的인 運営과 組織的이고 計劃的인 科学化를 推進하여 人的·物的 潜在戦力을 強化하므로써 国防에 絶対 必要한 軍事力을 維持한다.

네째, 経済面에서는 中断없는 開発과 建設을 통하여 祖国의 近代化를 推進하고, 企業과 個人等 모든 経済活動이 私的 利益과 더불어 国家·社会利益의 実現에 主眼을 두는 経済倫理를 確立하는 한편, 特히 物価安定, 科学技術의 革新, 内資動員의 極大化에 力点을 둔다.

다섯째, 教育面에서는 国民教育憲章의 汎国民的 生活化로 愛国하는 価値観形成에 注力하고 安保教育体制를 強化하면서 国民総和에 의한 自主力量 培養의 精神的 教育基盤을 確立하는 한편, 特히 民族史観에 立脚한 国家観의 定立과 国籍있는 教育에 力点을 둔다.

여섯째, 社会面에서는 国家安保와 国民의 団結을 害치는 社会의 모든 非

(3) 社会的인 面에서는 모든 社会的인 不条理를 除去하고 国民紀綱을 確立해 나가는 것이다. 아직도 우리 社会에는 奢侈, 浪費, 頽廃風潮等 많은 不条理 現象이 남아 있다. 経済建設과 精神啓発은 別個의 問題가 아니라 経済建設과 併行해서 精神啓発을 促進해야 하고, 또 精神啓発이 되어야만 経済建設도 促進될 수 있는 것이며, 自我의 発見이야말로 精神啓発과 経済開発을 加速化시키는 原動力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힘을 合쳐서 非能率과 不条理, 頽廃와 浪費가 스스로 자취를 감추고, 合理와 能率, 誠実과 勤勉이 뿌리를 박는 아름다운 生活風土를 이룩해 나가야 한다.

(4) 10月維新은 스스로의 힘으로 民族의 繁栄과 平和統一을 이룩하는 것이다. 国際情勢가 急速度로 変貌하는 情勢속에서 強大国들 틈에 끼어사는 弱小国들은 그들 스스로의 平和를 追求하고 進路를 開拓하는데 있어, 그들 스스로의 슬기로운 判断과 処身이 있어야 한다.

스스로의 힘으로 民族의 繁栄과 平和統一을 이룩하는데 있어, 民族自主性이 強調되는 것은 当然하나 自主性을 強調하는 것이 国際的으로 排他的이거나 閉鎖的으로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美·日等 自由友邦과 互恵平等의 原則에 立脚, 友好関係를 増進하고 協調를 拡大해 나가야 한다.

또한 韓半島의 将来에 관한 問題는 결코 列強이나 国際潮流가 解決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主体的인 努力과 自主的인 決断에 의해서만 解決될 수 있는 것이다.

南北対話의 推進은 첫째로 南北間의 緊張을 緩和해서 戦争의 再発을 未然에 防止하며, 둘째로 南北対話를 통해 漸次的으로 不信을 解消하고 誤解를 풀어, 同質性을 되찾기 위해 共同의 広場을 넓혀 가서 窮極的으로는 平和統一의 길을 摸索해 보자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7·4共同声明前의 韓半島情勢는 언제, 어디서, 어떤 形態로 戦争이 일어날지 豫測하기 어려울 程度로 緊張이 高潮되어 있었다. 戦争이 再発하는 경우, 누가 이기고 지기에 앞서 그동안 이룩해 놓은 経済建設이 하루 아침에 水泡化할 뿐만 아니라 国際的으로 韓民族의 羞恥를 免할 수 없는 것이다.

国民総生産 및 経済成長率
(1970年 価格基準)

区 分	単位	1961	1966	1971	1972	倍数72/61
					(70年価格)	
国民総生産	億원	11,845	17,192	28,268	30,236	2.6
	億弗	24	38	82	98	4.1
1人当GNP	弗	94.9	130.8	257	303	3.2
経済成長率	%	4.8	12.4	9.2	7.0	—
			(62～66) 7.8	(67～71) 10.5		
			(62～71) 9.2			

(2) 工業化의 進展

一般的으로 여러 産業中에서 農業, 林業, 水産業 等 1次産業이 工業等 其他産業보다 国民経済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크면 클수록 그 나라는 後進性을 벗어 나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産 業 構 造
(経常価格基準) (単位 : %)

区 分	1960	1966	1971	1972	60/72対比
国民総生産	100.0	100.0	100.0	100.0	—
農林・水産業	36.9	36.1	28.9	28.2	-8.7
鉱・工業	15.7	19.6	22.8	24.3	8.6
(重工業 / 軽工業)	(28.7 / 71.3)	(33.2 / 66.8)	(32.5 / 67.5)	(33.0 / 67.0)	(4.3 / -4.3)
社会間接資本및其他	47.4	44.3	48.3	47.5	-0.5

1971……1,352.0百弗

1972……1,807.0 〃

이 같은 商品輸出의 增加는 輸出第一主義로 一貫한 政府의 綜合的이고 積極的인 輸出振興策과 企業家 및 国民全体의 努力의 総和로 이룩된 것이다.

(4) 農業開発의 推進

지난날 農林·水産業은 年平均4%의 率로 成長하였으며, 이中 水産業은 継続 10% 水準의 着実한 成長을 보였으나, 農業部門은 年次別 成長에 있어서 甚한 変動을 보였다.

農業開発은 工業成長 為主의 政策에 따라 相対的으로 低調한 実績을 보였으나, 1968年부터 本格的으로 農業開発에 重点이 두어져 高米価 政策의 実現, 水利施設의 大大的인 開発, 農漁民 所得増大 特別事業等의 施行으로 農業部門에의 投資가 크게 拡大되고 있으며, 1972年부터는 農·工間의 隔差解消를 위한 새마을事業의 展開로 農業部門의 開発은 더욱 促進되고 있다.

(5) 投資와 貯蓄

投資率은 1960年의 10.9%에서 1972年에는 20.9%로 크게 増加되었다. 이와 같이 높은 投資率의 提高는 国内貯蓄의 増加와 海外貯蓄의 円滑한 調達에 의하여 可能하였다.

貯蓄과 投資率

(単位:%)

年度別	投資率	国内貯蓄率	海外貯蓄率
1960	10.9	2.4	8.5
1966	21.7	13.2	8.5
1971	26.1	14.6	11.5
1972	20.9	15.3	5.6

1人当国民所得 1,000弗, 輸出 100億弗의 福祉社会 実現을 目標로 推進되고 있다.

(1) 農漁村経済의 革新的 開発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農業部門의 相対的인 低調에서 脱皮하여 農·工間의 隔差를 줄이고 名実共히 農·工併進을 具現하기 위하여 第3次 5個年計劃에서는 農漁村経済의 開発을 첫째의 重点方向으로 設定하였다.

農業部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두가지 課題는 食糧의 自給自足과 生活環境 改善에 力点이 두어지고 있다.

(가) 主穀의 自給

主穀을 自給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 国民의 오랜 念願으로 되어 있으나 좀체로 実現되지 못하고 있다.

主穀의 自給은 農業増産을 通한 農民의 所得増大에 効果가 클 뿐만 아니라 糧穀導入에 所要되는 莫大한 外貨를 節約할 수 있다는 面에서도 国民経済上 重要性을 갖는 것이므로, 政府는 1976年까지 기어코 主穀의 自給을 이룩하겠다는 目標아래 統一벼의 普及, 農業用水開発, 農業機械化와 耕地整理에 特히 力点을 두어 推進하고 있다.

統一벼의 普及을 全国에 45萬町歩까지 拡大하여 段当 収穫量을 끌어올리는 한편 農業用水開発을 積極化하여 76年까지는 全国 117萬 6千町歩의 논에 完全히 水利施設을 갖추도록 推進하고 있다. 또한 耕地整理는 可能面積 58萬 8千町歩中 76年까지 75%, 79年까지 100% 整理를 目標로 推進하고 있으며, 動力耕耘機, 噴霧機, 揚水機, 脱穀機等 農業機械의 普及도 크게 拡大해 나가고 있다.

(나) 生活環境의 改善

農漁村의 生活環境 改善事業은 새마을運動을 통하여 集約的으로 推進되고 있다. 새마을運動은 지붕改良, 農路整備, 簡易上水道 等 環境改善事業과 아울러 農漁民의 所得増大와 直結되도록 推進되어가고 있다. 새마을運動은 이제 5千年間 젖어온 우리 農村의 精神構造의 改革運動으로까지 昇華発展되

等을 強力히 推進해 나갈 것이다.

短期的으로는 世界経済의 好況과 世界交易量의 増大에 따라 우리의 商品輸出은 楽観視되고 있으나, 長期的으로는 労動力, 労賃 等 有利点의 減少와 先進国의 新保護主義的 傾向, 開発途上国間의 競争等으로 世界市場에서의 競争이 더욱 熾烈해질 것으로 展望되므로 生産性의 向上을 통한 原価切下를 期하므로써 国際競争力을 強化시켜 나가도록 努力하고 있다.

한편, 貿易外受入의 増大를 위하여 外航船舶의 拡充으로 運賃受取를 増大시키고 航空路線의 拡充과 観光施設을 拡充改善하여 外国 観光客을 積極誘致해 나갈 것이며, 特히 越南으로부터의 外貨収入減少에 対処하여 東南亜에 대한 技術 및 建設用役의 進出을 積極 支援해 나가고 있다.

(3) 重化学工業의 建設

輸出増大의 先導的 役割을 担当하게 될 重化学工業의 育成을 위해서는 重工業部門의 生産増加는 勿論, 그 聯関産業 및 系列産業의 生産도 促進하여 工業構造를 高度化해 나갈 것이며, 工業規模의 国際単位化를 積極推進해 나갈 것이다. 石油化学, 鉄鋼, 機械工業 等에 力点을 두어 石油化学系列工場은 建設中인 工場外에 新規工場의 建設과 既存工場의 拡張을 併行해 나갈 것이며, 浦項綜合製鉄工場은 73年 上半期의 竣工에 이어 76年까지는 260萬㎜으로 拡張을 끝낼 것이다. 또한 自動車의 国産化率을 100%로 提高시키고 造船工業을 크게 拡大해 나갈 것이다.

特히 5大 重工業工場(伸銅工場, 大単位造船所, 鋳物銑工場, 特殊鋼工場, 重機械工場)의 建設을 75年까지 完了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70年代의 目標를 成功的으로 達成하기 위하여

① 経済成長率은 72～76…… 9.5%

77～81…… 11.0%의 高度成長을 이룩할 것이며,

② 이를 위한 総投資所要額은 経常価格으로

72～76…… 6兆5,500億원

77～81…… 16兆5,780億원의 資金을 投資할것이다.

投資 및 財源調達

(経常価格基準)

区 分	単位	1971	1972	1973	1976	1981	倍数(81/71)
総 投 資	億원	8,054	8,055	11,098	18,114	45,903	5.7
(投 資 率)	(%)	(26.1)	(20.9)	(24.8)	(27.0)	(31.8)	(-)
国 内 貯 蓄	億원	4,514	5,905	7,697	15,296	46,336	10.3
(国内貯蓄率)	(%)	(14.6)	(15.3)	(17.2)	(22.8)	(32.1)	(-)
海 外 貯 蓄	億원	3,540	2,150	3,401	2,818	-433	-
(海外貯蓄率)	(%)	(11.5)	(5.6)	(7.6)	(4.2)	(-0.3)	(-)

다. 1980年代初의 우리의 経済 모습

(1) 72年에 国際収支가 크게 改善되고 生産活動이 回復되기 始作하였으며, 対内的인 인프레 要因이 除去되는 等 成長制約 要因이 크게 克服됨으로써 73年부터 経済成長은 加速化될 것이다.

이리하여 우리 経済는 앞으로 高度成長을 持続할 것이며, 81年에는 1人当 G.N.P가 1,000弗 水準에 이르게 될 것이다.

(2) 81年에 所得이 1,000弗 水準에 達하고 輸出이 100億弗을 넘게 됨으로써 国際収支는 赤字에서 黒字로 転換하게 될 것이며, 農·工의 均衡的인 発展이 이룩되어로써 成熟된 経済에 이르게 될 것이다.

(3) 81年의 国民総生産은 経常価格으로 14兆4,000億원 水準이 되어 71年의 3兆1,500億원의 約4.6倍로 拡大되며, 弗貨로는 71年의 82億弗에서 81年에 361億弗로 拡大될 것이다.

(4) 人口増加는 家族計劃事業의 継続推進으로 1.3%까지 抑制될 것이며, 総人口는 71年의 3,180萬名에서 81年에는 3,670萬名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할 수 있는 일은 部落이 総動員되어 하면서 힘이 모자라는 것을 政府에 要請하면 이를 도와 주겠다』고 前提하면서, 새마을運動을 提唱하기에 이르러 처음으로 싹트기 始作했던 것이다.

이와 같이 하여 始発 推進된 새마을 運動은 不過 2年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 全国的인 汎国民運動으로 昇華 発展되고 있다. 더우기 오늘의 새마을運動은 安定과 繁栄, 그리고 統一을 志向하는 「10月維新」의 核心的 課題로서 그 意義는 더욱 큰 것이다.

가. 새마을運動의 意義와 本質

새마을運動의 意義와 本質은 무엇인가? 새마을運動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잘 살기 運動이며, 勤勉·自助·協同精神을 바탕으로 한 精神啓発運動이고, 이를 生活化하는 行動哲学인 것이다. 따라서 새마을運動은 経済開発과 精神啓発의 併行運動으로서 国家発展과 民族中興, 그리고 祖国의 平和統一을 期約하는 것을 그 窮極의 目標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새마을運動의 本質은,

첫째, 잘 살아 보자는 意慾과 그 意慾을 実現하기 위한 勤勉·自助·協同의 努力에서부터 出発하여야 한다. 따라서 새마을 運動은 住民 스스로의 自発的인 意慾으로 展開되어야 하는 것이다. 새마을運動은 무엇보다도 먼저 貧困으로부터 解放되고 所得의 増大로 富裕해져서 文化生活을 享有하고, 이웃과 相扶相助하는 살기 좋은 마을을 이룩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오늘의 生活에만 満足하지 말고 来日과 우리의 後孫을 위해서 보다 잘 사는 내 고장, 繁栄된 내 祖国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잘 살기 運動으로서의 새마을 運動은 自助的인 地域社会開発運動을 그 本質의 하나로 하고 있다. 잘 살기 위해 내 마을, 내 고장을 가꾸는 地域社会開発은 바로 내 나라를 가꾸어 내 겨레가 잘 살게 되는 祖国近代化를 위한 実践運動이다.

세째, 새마을運動은 잘 살기 運動과 地域社会開発運動을 志向하므로써 結果的으로 福祉와 文化의 恵沢을 全国的으로 均霑시키는 것을 意味한다.

推進力의 基盤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마을運動의 또 하나의 基本的인 方向이 되어야 한다. 모름지기 民間主導의 社会開発이나 経済開発에는 반드시 住民의 精神啓発이 先行되어야 한다. 이처럼 精神啓発의 重要性이 큼에도 不拘하고 이제까지의 새마을運動이 住民들의 地域社会開発에서부터 始作되었다는 것은 우선 地域社会開発이라는 可視的인 効果와·成果를 스스로 体得케 하므로써 보다 더 自発的이고 意慾的인 새마을精神이 誘発되게 하기 위한 方便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세째, 새마을運動은 所得増大를 志向하는 経済開発運動이어야 한다. 잘 살기 위한 運動으로서의 새마을運動이 地域社会開発과 精神啓発을 志向하는 運動이라는 것은 窮極的으로 우리 社会가 伝統的으로 물려 받은 貧困으로부터 解放되어 잘 살아 보려는데 그 目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새마을運動의 또하나의 基本方向은 所得増大에 直結되어야 한다.

所得을 増大하는 経済開発이 成就되었을 때 새마을運動은 그 実効를 거둘 수 있는 것이며, 이는 나아가서 祖国近代化와 民族中興을 期約하고 国力을 培養함으로써, 우리의 念願인 祖国의 平和統一을 앞당기는 原動力이 되는 것이다. 실로 새마을運動은 国家発展의 原動力이 되는 所得増大를 期하는 方向으로 推進 展開되어야 한다.

다. 새마을運動의 発展過程

第1段階(初期段階)의 새마을運動은, 70年 4月을 起点으로 推進된 部落単位의 国土保存計劃이었다. 이는 事実上 새마을運動의 準備期間이었으며 試験段階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 期間은 새마을精神의 胚胎期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第2段階의 새마을運動은, 70年 11月부터 71年 5月까지에 걸쳐 実質的으로 実施한 새마을 가꾸기 事業이라 할 수 있다. 이 期間에 政府는 全国 33,267個의 里洞部落에 洋灰 335袋씩을 支援하여 国土保存과 生活環境改善을 위한 10個의 指定事業을 重点的으로 推進하였던 것이다. 이 1次事業을 통하여 우리는 勤勉·自助·協同하는 새마을精神에 透徹한 마을은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길을 開拓할 수 있다는 教訓을 얻었고, 이러

第3段階의 새마을運動은, 71年 10月부터 始作된 72年度의 2次事業期間이다. 이 期間에 새마을運動은 挙族的 国民運動으로 転換하게 된 것이다. 事業 対象部落도 1次事業에서 뚜렷한 実績을 보인 16,600個의 部落으로 縮小했으며, 支援規模도 顕著하게 늘려 部落単位로 洋灰 500袋, 鉄筋 1噸씩을 支援했다. 이러한 支援으로 環境改善事業을 推進하는 한편 農漁民 所得増大事業과 이 運動의 基調가 되는 새마을 精神의 啓発運動을 併進함으로써 農漁民 뿐만 아니라 都市民들까지도 積極 参与하는 名実相符한 汎国民運動으로 発展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 期間은 새마을運動이 環境改善, 精神啓発 및 所得増大를 図謀하여 本格的인 国民運動으로 定立된 期間이라고 할 수 있다.

第4段階 事業은, 지금까지의 새마을運動 成果를 検討하여 지난 11月에 確定한 73年度의 새마을運動計劃에 따라 앞으로 展開될 事業이 될 것이다. 73年度의 새마을運動의 永続化에 主眼을 두고 있음이 特徴이라 하겠다. 이는 이미 実施하여 왔던 環境改善과 所得増大 및 精神啓発을 더욱 有効하게 推進하여 永続化의 基盤을 더욱 다져나가는 한편, 새마을運動의 永続化를 目標로 하는 綜合的인 体系化와 汎国民運動으로의 極大化, 그리고 生産과 所得増大를 그 骨子로 하여 推進하게 된다.

라. 새마을 事業의 成果

72年度의 새마을運動만 하더라도 全国 33,267個의 里洞中 그 切半에 該当하는 16,600個 里洞이 政府의 支援下에 環境改善事業과 所得増大事業을 積極 推進했으며, 6,108個 里洞이 自発的으로 政府의 支援을 받지 않고 새마을運動을 展開하므로써 都合 22,708個의 里洞이 새마을運動을 展開했던 것이다.

그 中 内務部가 主管하는 環境改善事業인 새마을 가꾸기事業에 国費 20億원, 地方費 16億원 合計36億원을 投入하였고, 여기에 自体資金과 労力負担 263億원, 寄附 및 喜捨金 17億원 等을 合하면 無慮 316億원이 投入된 것이다.

農·工並進의 面単位 새마을工場이 完成되면 帰農趨勢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現在 政府는 全国 770個 邑·面을 対象으로 오는 76年까지 1個 邑·面에 1個工場씩의 새마을工場 建設計劃을 推進中에 있는데, 이 計劃으로 73年에는 10萬名, 76年에는 60萬名의 農村 遊休労動人口가 就業하게 되어 農村人力의 開発은 勿論, 農村所得増大에 莫大한 寄与를 하게 된다.

要컨데 새마을運動은, ① 国民에게 「우리도 하면 된다」는 自信과 信念을 일깨워 주었고, ② 農村近代化의 基盤을 構築하였으며, ③ 이로 因한 生産基盤의 拡充은 営農方式의 改良에 一大 変革을 가져 왔고, ④ 協同労作에서 비롯된 農村 遊休労動力의 減少와 農閑期의 追放 및 帰農現象의 漸増, ⑤ 営農 및 土木技術의 革新的 普及, ⑥ 均衡社会発展의 基盤 造成, ⑦ 農漁民의 文化生活 向上과 이에 따른 矜持와 自信의 鼓吹等을 이룩했다. 이와 같이 새마을運動의 成果는 外形的이며 物質的인 開発成果에 그치지 않고, 그 보다도 새마을精神의 精神啓発이라는 無形의 成果야 말로 依存과 退嬰과 安逸 속에 파묻혀 自己発展의 意慾을 잃고 가난과 停滞의 前近代的 諦念의 生活에 젖어 있던 우리에게 自己奮発의 새로운 意慾과 信念을 蘇生시켜 준 값진 成果라 아니 할 수 없다.

마·維新課業으로서의 새마을運動

새마을運動은 그 本質과 発展過程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祖国의 安定과 繁栄, 그리고 統一을 志向하는 10月維新의 理念과 一致되는 것으로서 이 運動은 마땅히 維新課業의 核心的인 課題로 推進되어야 한다. 새마을運動이 志向하는 잘 살고 祖国을 近代化하고 統一을 成就하려는 目標는, 国力을 培養하고 組織化하며 平和的 祖国統一을 위한 民族主体性을 形成하고, 韓国的 民主主義를 定立·発展시키고 国土와 資源을 綜合開発하여 祖国의 近代化를 促進시키며, 不条理와 非能率을 剔決하여 社会改革을 이룩함을 目標로 하는 10月維新과 一致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새마을運動은 維新課業의 推進 바로 그 自体라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Ⅱ. 總　力　安　保

第 1 章　總力安保의 槪念

第 2 章　總力安保의 指導要綱

第1章 総力安保의 概念

1. 総力安保의 目的

오늘날 우리의 国内外情勢를 돌이켜 볼 때,

첫째, 北韓은 戰争準備를 完了하여 南侵의 機会만을 노리고 있고,

둘째, 밖으로는 戰争이 일어났을 때 유엔이나 自由友邦国이 従前처럼 우리를 도을 수 있을는지 分明치 않고,

세째, 이러한 状況속에서 안으로는 社会紀綱이 解弛되고, 放心·安逸한 생각과 奢侈·浪費하는 生活이 퍼져 가고 있다.

따라서 急変하는 国内外情勢에 비추어 볼 때, 지금 나라 안은 매우 危険한 事態下에 놓여 있다. 戰争一歩前의 現時点에서 防備는 充分하지 못하고, 友邦의 도움은 우리가 願하는 대로 받을 수도 없는 実情이다. 우리는 힘을 합쳐 눈앞의 危険으로부터 나라를 救하고, 나 스스로를 지키지 않을 수 없는 緊迫한 現実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北韓이 侵略할 機会를 주지 않고 또 侵略하더라도 一撃에 물리칠 수 있도록 모든 態勢를 時急히 갖추어야 한다.

이리하여 侵略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国民의 生命과 財産을 지키고 民主主義를 지켜 自由와 平和를 永遠히 누리자는 곳에, 総力安保의 目的이 있다. 国家가 亡하면 나 自身도 財産과 自由도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総力安保는 結局 나 自身을 지키자는 것이다.

2. 総力安保의 性格

北韓은 軍事侵略만이 아니라 間諜을 浸透시켜 施設을 破壞하고 秩序를 어지럽히고 政府와 国民을 離間하고 国民精神을 解弛시키는 等 多様한 侵

힘을 合치고, 自己 스스로를 다듬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1. 自助하는 精神

스스로를 돕는 自助精神을 가져야 한다. 自然을 開拓하고 未来를 設計하고 自身의 힘으로 苦難을 克服하는 勇気와 智慧를 지녀야 한다.

2. 自立하는 意志

스스로를 決定하는 自立의 意志를 가져야 한다. 스스로 생각하여 決定하고 스스로의 生活을 남의 도움없이 꾸고 나가야 한다.

節約과 倹素를 生活하는 信条로, 合理와 責任을 생각하는 信条로 삼아 안으로는 家計를 自立하고, 밖으로는 社会와 国家를 自立케 하는데 寄与해야 한다.

3. 自主하는 姿勢

남에게 依存하거나 남에게 責任을 돌려서는 안된다. 自己의 일은 어떠한 苦難과 逆境이 있을지라도 自主的으로 運命을 開拓해 나가야 한다.

自己의 일에 대해 責任을 져야 하고, 自己가 属해 있는 社会와 国家에 대하여 또한 責任을 질 줄 알아야 한다.

4. 協同하는 行動

人間은 社会的 動物이다. 따라서 文化를 創造하고 社会를 発展시키고 福祉를 누리고 国家를 보살피는 일들은 혼자 힘으로 될 수는 없다. 여기에는 個個人이 힘을 모아 서로 協同하고 相扶相助하는 行動이 따라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가 属해 있는 社会와 国家에 대한 共同의 運命을 가지고 믿음과 사랑으로 団結하고 協同하여야 한다.

Ⅲ. 10月維新의 理念

第1章 10月維新의 歷史的 意義

第2章 10月維新의 政治哲学的 意義

第3章 韓国的 民主主義의 土着化

第1章 10月維新의 歷史的 意義

지금으로부터 100餘年前인 1870年代에 우리나라는 밀려드는 外勢 앞에 挫折할 것이냐, 아니면 萬難을 克服하고 自主的으로 祖国의 近代化를 이룩하느냐 하는 緊迫한 民族史的 決断을 내려야했다.

그러나, 벅찬 対外的 挑戰에 適応할만한 꾼질긴 主體的 意志도 対内的 態勢의 整備도 갖추지 못한 채 他律的 歷史의 흐름에 휩쓸리고 말았다.

歷史 속에는 때때로 機会가 있으며, 歷史의 創造를 위한 時運이 있는 法이다. 그러나 自律的인 歷史創造의 時運이 무르 익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맞이할 態勢가 갖추어져 있어야 하고, 総和를 얻은 国力으로서의 人和가 이루어져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20世紀에 들어 오면서 韓民族이 世界史의 舞臺에 雄飛할 수 있는 두 번째의 好機를 맞이하고 있다. 歷史創造의 好機란 安易하게 어지는 機会가 아니다. 産苦의 陣痛이 없이는 새 生命의 誕生이 不可能하듯이, 보다 富強한 民族国家가 되기 위한 體制改革에는 뼈 아픈 陣痛이 따른다.

国民教育憲章의 첫머리에 宣言된 바와 같이 『우리는 民族中興의 歷史的 使命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維新의 世代이다.

歷史는 우리 民族에게 自己革新과 體制維新으로 再誕生하여 70年代의 繁栄된 統一 民族国家를 建設하는 使命을 賦課한 것이다.

1. 民族的 自我 発見

10月維新은 體制를 改革하여 激動하는 内外情勢속에서 民族的 自我를 発見하려는 데 그 참뜻이 있을 것이다. 勿論 그 前進的 改革은 朴大統領의 主導로 비롯된 것이지만, 이는 결코 짧은 時日에 가다듬어진 着想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10月維新에 따른 體制改革은 결코 友邦国의 対外政策에 対한 反撥이나 自由民主主義의 抛棄를 意味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内外情勢 激動期에 우리 나름의 対応體制가 必要하지 않느냐는 国民与論이 抬頭됨에 따라, 政界 指導層은 마땅히 大衆의 散漫한 問題 意識을 具體的인 実践的 指針으로 集約하여 闡明해야 했다。

結局 1972年 11月 21日 国民投票에서 全国 有権者들의 絶対的인 支持를 確保한 維新憲法을 国政의 새 기틀로 삼아 祖国의 平和的 統一을 指向하고, 韓国民主主義의 土着化를 展望하면서 国力의 組織化와 能率의 極大化를 期約하게 된 것이다。

『新生国은 停止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世界의 通念이거니와, 特히 우리나라는 끊임 없이 改革해야만 生存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함으로써 祖国 近代化와 平和統一을 이룩하여 中進 上位国 水準에서 떳떳하게 国際社会의 一員으로 登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自體力量에 依存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進路는 우리 스스로가 決定할 수 밖에 만 道理가 없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自主·独立 国民에게 要請되는 当然한 資質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過去에 西欧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가리켜 変化를 모르는 東方속의 〈隠者의 나라〉라고 불러 온 이미지를 改革하는 데는 실로 100餘年의 陣痛이 必要했던 것이다。 우리의 歷史는 〈民族의 底力〉에서 強調되었듯이, 『19世紀 末葉부터 20世紀 中葉에 이르는 近世 100餘年은 暗影의 時期였고 退嬰의 時期였으며 受難의 時期』였다。 그리고 『그 不幸의 原因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世界史의 激動的인 一大 転換期에 処하여 여기에 対処하는 方案을 그르쳤던 우리 自身의 不敏과 力量不足』에 있었음이 明白했다。

지난 날의 쓰라렸던 歷史 속에서 教訓과 警鐘을 찾아낸다면 무엇보다도 重要한 課題는, 우리나라에 다시는 「힘의 真空 状態」가 造成되지 않도록 우리의 国力을 増強해야 한다는 것이다。 近世 100年의 不幸한 歷史

2. 歷使的 使命

5·16革命은 民族中興, 즉 祖国近代化라는 一大 転換期의 到来를 確認케 했고, 특히 経済의 自立的 成長과 工業化를 위한 基盤 造成 그리고 모든 分野에 걸친 国力 増強을 위한 政治行政力의 再整備 強化는 国民의 마음 속에 自身과 自主 意識을 일깨워 놓았다.

朴大統領은 1963年의 著書 〈国家와 革命과 나〉에서 우리는 過去를 回顧하고 反省하고 批判함으로써 새로운 文化와 進歩를 이룩하는 方向을 設定해야 한다고 強調하면서, 지난 날의 歷史에서 보는 수치스러운 否定的 要因으로,

① 事大主義와 他律作用

② 党争

③ 自主·主體意識의 貧困

④ 経済向上에 対한 創意的인 意慾이 없었던 点

등을 指摘 하였다.

5·16革命은 모든 過去의 悪循環을 断切하고, 歷史의 自律的 発展을 내다볼 수 있는 民族中興의 契機를 마련했다.

朴大統領은 1971年에 『이제부터는 지난 날의 外国依存的 事大主義, 悲観的인 自嘲·自虐을 永遠히 克服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民族中興의 大前進 앞에 온갖 挑戰이 그치지 않았다. 経済建設의 隘路, 共産 北韓의 好戰路線에 따른 韓半島의 緊張 状態, 国際情勢의 激動뿐만 아니라 우리 内部에 自由의 이름으로 非生産的 混乱이 惹起되고, 国民意識이 分裂될 可能性이 尚存했던 것이다.

主體的 前進姿勢가 定立되고, 韓半島의 緊迫했던 危機状況이 同族相残을 避하려는 努力으로 平和統一 接近을 위한 〈対話있는 対決〉로 急旋回한 南北関係의 新局面이 우리側의 主導에 의해 展開되기 始作한 것이다. 이것은 ① 그 동안의 経済開発과 自主 国防·建設에서 얻은 自信과 ② 歷史的 省察에서 우러 나온 民族 自主意識의 成長에 立脚하는 것이다.

한다。 우리는 歷史의 創造者를 우리 밖의 다른데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 周辺에서는 激変하는 歷史의 大勢에 몸을 맡기려는 흐름과, 大勢의 激浪 속에서도 배를 自己가 願하는대로 航進시키려는 進取的인 두 갈래의 흐름으로 크게 갈리고 있다。

前者는 歷史 創造의 圈外에서 事態의 進展을 지켜 보기만 하려는 傍観者요 스스로 흐름에서 離脱하려는 非歷史的인 흐름이라고 한다면, 後者는 萬難을 克服하고 運命의 勝利者가 되려는 主體的 歷史創造의 흐름이다。

1. 自覚的 自己革新

10月 維新이 70年代 民族史의 一大 転機를 마련하고 民族 中興의 밝은 未来를 期約하는 躍進의 발판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안팎 環境의 変化에 견디어 낼 수 있는 対内體制의 強化를 위해 과감한 自己 革新부터 着手하지 않으면 안된다。

10月 維新의 政治哲学的 意義는 피나는 自己 革新의 決断에서 우러나고, 그것이 近代化運動의 참신한 活力素가 되게 하자는 歷史的 英断인 데 있다。 오래 고인 물은 쉬 썩듯이, 政治 現象도 낡은 自己를 脱皮하려는 과감한 自己維新의 끊임 없는 努力이 前提되지 않을 때는 必然的으로 衰退하고 早老症마저 걸들인다。 国家 発展에 新鮮한 大革新의 気運을 일으켜 国乱 克服의 改革的 基盤을 굳히려는 데서 10月維新이 展開되었던 것이다。

모든 変革은 밖으로부터 自然発生的으로 일어 난다는 낡은 観念을 버리고, 真正한 改革은 自覚的인 自己 改革이라는 先覚者的 所信에 10月維新의 政治 哲学的 根拠가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10月維新은 그것을 決意하고 参与하는 사람들에게 〈無限 責任〉이라는 総體的이고 歷史的인 使命感을 賦課한다。

그러나, 하나의 改革意志는 過去의 経験과 自信에서 우러나는 法이다。 10月維新은 지난 60年代 韓国経済의 飛躍的 発展이라는 発展論的 體験을

2. 国籍있는 民主 理念

그 동안 自由와 民主의 政治理念은 土着化의 겨를도 없이 〈直輸入〉된데 問題가 있는 것이다. 8·15解放과 더불어 우리는 日帝 植民地 統治의 他律的 規律과 숨 막히는 重圧下에서 하루 아침에 풀려났으나, 伝統的 規範의 急速한 崩壊 過程에서 一種의 精神的 無重力 状態를 겪었고, 이 空白에 가장 세차게 밀려 들어 온 것이 世界에서도 가장 富強한 나라 美国의 文物制度 였다.

解放의 感激 속에서 우리는 西欧의 自由民主主義를 制度的으로 導入하여 施行하면 우리도 그들처럼 잘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時節이 있었다. 精神史面에서 되돌아 볼 때 이 現象은 아무런 準備도 없이 極度의 圧迫에서 極端의 自由로 転換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精神的 無重力状態, 精神的 無国籍状態를 免하기 어려웠다.

이제 우리는 過渡期의 惰性을 勇気있게 박차고 韓国的 自由와 民主理念의 〈国籍〉을 되 찾고, 外来의 価値観과 理念을 우리 體質과 風土와 文化伝統위에 土着化해야 할 때를 맞이 하였다.

우리들은 自由와 民主理念을 말로만 強調하면 그만큼 우리도 富強하고 自由로울 수 있는 것처럼 錯覚하면서 오랜 歳月을 보내 왔던 것이다. 그러나, 西欧式 民主主義란 近代 市民社会에 알맞는 政治 運営方式이라고 한 막스웨버의 말을 引用할 것도 없이 大衆的 貧困, 大衆的 失業이 存在하는 社会 経済的 風土에서는 自由民主主義가 쉽사리 定着할 수 없었던 것은 勿論이다.

우리는 비로소 60年代에 4·19義挙와 5·16革命이라는 커다란 政治 変動을 겪음으로써, 韓国的 自由와 民主理念의 土着化를 위해서는 반드시 経済 建設이라는 土壌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切実히 깨닫기 始作했다. 그것은 바로 60年代의 汎国民的 覚醒이었다.

더우기 70年代에 접어들면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벅찬 課題가 提示되었다. 오늘날 勢力均衡의 再編成을 模索하는 列強間의 多角外交, 그

早速히 農工間의 発展隔差를 줄이기 위한 経済運動일 뿐 아니라, 勤勉·自助·協同의 새마을精神에 의한 気風 振作으로 総體的 社会紀綱, 国民的 精神姿勢를 確立하기 위한 精神革命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底流에 흐르는 것은 一貫하여 民族主體 意識에 바탕을 둔 実践的 愛国心이며, 近代化 意識의 主體化, 生活化, 内面化의 志向이라고 할 수 있다.

3. 実践的 行動의 決断

韓国의 現実과 来日을 傍観하지만 말고, 祖国의 現実을 내것으로 받아 들여 이를 洞察하고 民族中興의 理想을 기어이 実現해야 겠다는 熱誠과 創造的 知性으로 行動할 때, 우리는 오늘을 우리 責任下에 사는 維新의 世代로서 時局에 대한 正確한 認識을 歴史와 民族에 대한 厳粛한 使命感으로까지 凝結시킬 수 있을 것이다.

自由 民主主義는 우리가 아끼고 継続 가꾸어 나가야 할 価値이며 資産이다.

그러나, 트뤼도 캐나다首相이 1970年 퀴벡州 分離 独立運動者들의 테러騒擾事態에 즈음하여 〈戦時등에 있어서의 特別措置法〉에 의해 強力한 公共秩序維持規則〉을 制定 公布하면서 喝破한 바와 같이 「民主主義 政治體制란 그自體를 防御할 準備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至極히 弱한 制度」인 것이다.

이처럼 體制改革의 照準은 恒常 自存과 自立에서 自己発展을 追求하는데 두어야 한다. 栄光을 謳歌하던 프랑스가 第4共和国下에서 빈번히 政権이 바뀌고 経済가 沈滞하여 3等国으로 転落했던 当時, 마침내 알제리 叛乱의 소용돌이 속에서 登場한 드골 将軍의 歴史的 洞察力에 의한 強力한 国家元首의 非常大権을 規定한 第5共和国 憲法下에서 이를 制御装置로 삼아, 모처럼 政治安定을 回復하고 国力을 되찾아 国際政治 舞臺에서 列強 口実을 하고 있는 現代史의 새 局面을 우리는 보아 왔다.

外来의 借用文化는 主體的 愛容의 過程에서 調節되고 適応되면서 그것을 받아 들이는 社会 속에서 融和되어 文化 統合을 達成한다. 그 때에는 本

性 위에 平和 統一을 이룩해야 할 우리로서 다지고 土着化시켜야 하는 韓国의 政治 現実 속에서 自由의 享有를 追求하는 〈韓国民主主義〉 実體 사이에는, 分明히 우리가 克服해야 할 問題点들이 많이 있었다고 生覚된다.

国家 非常事態 宣言을 契機로 発展되어 온 一連의 政治 方向은 우리 国家와 国民이 直面한 挑戦과 課題들을 우리의 힘으로 具體的으로 克服해 나가기 為하여, 〈自由民主主義〉 一般論과 韓国 民主主義의 実體 사이의 観念的 乖離를 可能한 限 좁힘으로써 우리의 自由와 平等 및 民主的 生活方式을 하루 速히 제 자리에 土着시키기 위한 主體的 志向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経済建設과 自主国防 그리고 이를 底力으로 한 民主政治 運営도 우리의 主體的 精神을 바탕으로, 우리의 自力으로 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것이 곧 経済自立·国防自立·政治自立이다.

10月維新은 対外依存이라는 낡은 観念에서 벗어나서 歴史의 主人公은 바로 우리들 自身이라고 自覚하고 決意하는 主體化의 革新運動이라는 데 그 歴史的 意義가 있다. 機会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므로 自己體制의 改革 및 強化의 好機는 이를 놓치지 않고 適機에 実践할 때 우리것이 된다는 〈実践的 行動의 決断〉이라는 点에서 그 政治 哲学的 意義를 発見해야 할 것이다.

第3章 韓国的 民主主義의 土着化

維新憲法 前文은 「自由民主的 基本秩序를 더욱 鞏固히 하는 새로운 民主共和国」 建設을 다짐하고 있다. 旧憲法의 該当 部分은 「새로운 民主共和国」建設이라는 表現에 그쳤던 것이다.

여기서 明白하게 나타났듯이 10月維新은 결코 韓国 実情에 疎遠한 一部外国人의 誤解처럼 自由 民主主義를 저버린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10月維新 宣言에 闡明된 것처럼 「自由 民主主義를 더욱 健全하

그러면, 어떤 理由로 西欧 先進国에서는 잘 運営되는 代議制 民主政治의 源型이 新生 開発途上国家에서는 混乱과 蹉跌이 쉽사리 招来되었을까. 한마디로 그것은 政治風土가 같지 않은데다가, 急激히 移植된 外来制度라는 事情때문이었다. 다시 말해서 民主政治의 精神的·経済的인 条件의 形成이 新生国에서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데 基因한다. 이와 같은 条件差를 念頭에 둔 朴大統領은 이미 1962年에 「西欧의 이러한 自由 民主主義는 比較的 経済繁栄을 享有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그 実効를 거둘 수 있는 것이지만, 더 없이 切迫하고도 어려운 많은 問題를 짊어지고 있고 또한 그것을 곧 処理하지 않으면 안될 아시아에 있어서는 自由民主主義의 길은 事実上 荊克의 길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問題와 더불어 특히 共産主義의 圧力은 難題이기는 하나, 보다 根本的인 것은 아시아人은 무엇보다도 먼저 経済的 平等을 樹立하고 그 위에서 더 한층 平等한 政治機構의 発展을 이룩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朴大統領은 「後進民主国家에서 民主主義를 再確立하는 길은 長期的인 経済開発計劃과 国民所得의 向上이라는 二律背反的인 原則을 充実히 調和시켜 終局的으로는 国民福祉, 특히 国民 個個人의 福祉 向上에 도움을 주는데 있어야 된다」고 強調하였다.

요컨데, 自由民主主義를 守護하되 그것을 이땅에 뿌리 박게 하려면 経済開発을 包含한 条件形成이 不可欠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過渡的으로 우리나라 実情에 맞게, 다시 말해서 国力의 組織化, 効率의 極大化를 阻害하지 않는 自由民主主義의 育成·確立이 必要하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民族 自主意識에 비추어 国籍없는 無条件 模倣을 止揚하고, 우리의 歷史와 伝統속에 韓国的인 民主主義의 씨앗을 뿌리려는 姿勢를 가다 듬어야 할 것이다.

2. 民主主義의 土着化 方途

西欧式 代議制 民主政治를 自動車에 비유한다면 그 運転能力은 精神的 条件이라 하겠고, 그 所有와 整備를 可能하게 하는 것은 経済的 条

⑧ 共産主義 威脅에 対処해야 하는 安保問題의 提起

⑨ 西欧式 民主主義는 急激히 導入된 外来의 것이라는 否定的인 事情이런 것이 아직 尚存하고 있다.

더우기 우리나라는 国土両断 条件下에 共産體制와 対峙하고 있는 関係로 以上의 問題提起가 보다 더 深刻性을 띠게 된다. 요컨데 이는 政国安定과 国論統一을 促求하는 名分이 恒常 存在하고 있음을 뜻한다.

解放 後 韓国政治史에 汚点을 남긴 派争과 混乱, 堕落選挙의 弊風 등을 개탄하면서 주로 政治人만 自覚하면 되지 않느냐고 指適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政治人을 選出하는 有権者들이 적지 않으며 堕落選挙에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우리는 従前의 弊風이 오랫동안 通用될 수 있었던 政治 風土를 마땅히 反省해야 할 것이다.

이 땅에 民主主義를 土着시키는 方途는 무엇일까. 그것은 앞서 풀이한 바와 같은 〈条件〉 形成이 가장 重要하다. 그러나 이 条件形成은 결코 一朝一夕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巨視的인 目標로 設定되는 것이다.

于先 自立経済와 自主国防을 建設해야 하는 当面한 国家的 需要를 充足시키기 위해 国力의 組織化, 効率化 極大化를 沮害하지 않도록 自由 民主主義를 基調로 삼으면서 그 一部 図式을 우리 実情에 알맞게 改革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国力 増強에 따른 民主政治의 条件이 차츰 튼튼하게 形成되고 前進을 継続하게 될 것이다.

勿論, 이 경우 自由 民主主義의 理念과 基本 価値가 所重히 守護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우리나라는 維新憲法 第一条에도 明示된 바와 같이 民主共和国이다. 民主政治의 古典時 定義로서 가장 卓越한 것은 링컨의 要約的 説明인데 그는 「国民의, 国民에 의한 国民을 위한 政治」라고 하였다.

自由民主主義에서는 특히 두번째 指摘이 実質的으로 소중한 核心이라고 하겠다. 卓越한 指導力은 그 正当性의 根拠가 国民의 支持에 의해 確保되고 恒常 民意를 尊重하면서 中断없는 前進을 継続할 때 비로서 바람직

Ⅳ. 國際情勢와 韓國

이 內容中 第2章과 第4章은 任員班用이며
第3章은 政訓將校班·非常計劃官班用 임.

第1章 戰後 国際政治의 変遷過程
第2章 最近 国際情勢動向과 韓国安保
第3章 強大国의 世界戰略과 韓国安保
第4章 第三의 国際経済原理와 韓国経済

第1章 戦後 國際政治의 変遷過程

第2次大戦 直後부터 53年頃까지는 美·蘇만이 国際政治를 左右하는 原動力이었고 이 両大国을 中心으로 하여 冷戦이 発展하였으며, 旧大国은 이제 美·蘇의 周辺国家로 되어 美·蘇의 「両極構造」가 形成되었다.

1954年부터 62年까지의 期間은 冷戦으로부터 共存에의 過渡期로서, 国際政治는 緊張과 緩和를 거듭하였다. 또한 美·蘇를 盟主로 하는 「両極構造」가 維持되고 있긴° 했으나 이 両超大国도 各己의 同盟諸国이나 中立諸国에 대하여 옛날처럼 命令을 내릴 수 없게 되었다. 1962年의 쿠바危機는 美·蘇争覇戦의 頂点이라 하겠으며 「両極構造」로부터 「多極構造」에의 分水嶺이었다. 이리하여 쿠바危機後 漸次 共存이 定着하였고 世界各国은 제각기 独自의 国家利益에 依拠하여 独自的인 外交政策을 追求하게 되었다. 이제 国際政治의 基調는 軍事的으로는 如前히 美·蘇의 「両極構造」이나 政治的으로는 多数国家에 依한 힘의 均衡이라 할 「多極構造」로 変해 왔다.

1. 冷戦의 発展 (1945～53)

冷戦開始의 公式声明은 47年 3月 트루만·독트린의 発表였다. 즉 트루만大統領은 共産勢力의 進出로 威脅을 받고 있던 그리스 및 터어키를 援助하고 共産主義의 侵略에 対抗하여 自由諸国에 軍事援助를 提供할 것을 約束하였다. 또한 6月에 마아샬·플랜이 発表되어 西欧諸国에 対한 美国의 経済援助가 大大的으로 実施되었다. 나아가서 美国은 「対蘇封鎖政策」을 展開하여 9月에 美洲 21個国에 依한 全美相互援助条約이 調印되고 48年 3月에 西欧聯合이 結成되었으며, 이를 基礎로 하여 49年 4月에 美国을 盟主로 하는 北大西洋条約機構가 成立하였다.

東西対立으로까지 発展한 理由는 自由主義 対 共産主義라고 하는 이데올로기的 対立이며, 또한 資本主義 対 社会主義라고 하는 体制的 対立을 根底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戦争直後 西欧諸国의 国家利益은 무엇보다도 経済復興이었기 때문에 資本主義의 盟主인 美国의 援助를 必要로했고, 東欧諸国의 国家利益은 独逸報復主義로부터의 防衛에 있었기 때문에 社会主義의 祖国인 蘇聯의 後援을 必要로 하게 되었는데, 여기에 美·蘇를 中心으로 하는 「両極構造」가 形成된 것이다.

2. 冷戦에서 共存으로 (1954 ~ 62)

54年 1月 아이젠하워-덜레스 美政府는 大量報復政策을 提唱하여 世界에 걸쳐 蘇聯과 中共에 対한 包囲線을 펴고 核全面戦争의 威脅에 依하여 共産勢力의 進出을 抑制하려고 하였다. 이에 対抗하여 말렌코프政権은 이 包囲線을 突破하기 위해 「平和攻勢」를 취했다.

유럽에서는 54年 8月 欧洲防衛共同体条約이 流産된 後 西独의 NATO 및 西欧聯合에의 加入과 2年間에 50萬의 軍備가 実現되었다.
아시아에서는 9月에 東南亜条約機構, 12月에 美·中相互防衛条約, 55年 2月에 바그닷드条約이 締結되어 自由陣営의 共産主義包囲政策은 더욱 進展하였다. 이에 対抗하여 55年 2月에 成立한 불가닌-흐루시쵸프政権은 5月에 東欧 8個国의 会議를 열어 바르샤바条約機構를 結成하여 共産陣営의 軍事協力体制를 結成하여 共産陣営의 軍事協力体制를 더욱 強化하였다.

東西冷戦은 美·蘇文化交換協定의 調印, 核実験停止会議와 奇襲防止会議의 開催, 核実験의 一方的 停止 등에 의하여 緩和의 傾向을 보이는 한편 中東紛争, 베를린問題, 알제리아叛乱, 台湾海峡의 危機등으로 如前히 対立을 露呈하였다. 특히 58年 11月 蘇聯이 西方勢力의 西베를린撤収를 要求하여 이 베를린問題가 62年의 쿠바危機까지 満4年間에 걸쳐 最大의 争点으로 되었다. 또 한가지 重要한 것은 58年 7月末 蘇·中共 首脳会談이 北京에서 열렸을 때, 흐루시쵸프는 中共이 蘇聯의 核미사일優位를 背景으로 하

後 東西関係를 好転시키게 되었다고 하겠다.

3. 共存의 定着 (1963～70)

쿠바危機를 契機로 하여 東西間의 緊張은 서서히 緩和되어 갔다. 63年 6月에 美·蘇直通通信協定, 8月에 美·英·蘇의 部分核禁条約이 調印되었다. 이러한 美·蘇接近 특히 美·蘇의 核独占에 仏·中共 両国은 反撥하여 部分核禁条約을 非難하였다. 이보다 앞서 62年 12月에 美·英은 나소協定을 締結하여 NATO에 대한 多角的 核戦力創設의 方針에 両国이 協力하기로 約束하였는데, 仏은 이를 美·英·仏 三頭指導下에 둘 것을 要請하였으나 美·英이 이를 拒否하자 63年 1月 드골大統領은 나소協定에 不参하고 英国의 EEC加入拒否를 表明하였으며 6月에 NATO로부터의 仏大西洋艦隊撤収를 通告하여, 美·仏関係는 反目하였다.

또한 中·蘇間에는 激烈한 批判応酬가 있었으며 7月의 모스크바会談도 決裂되었다. 이와같이 쿠바危機後 美·蘇의 両極化時代는 終焉을 告하고 多元化現象이 顕著하게 되었다.

63年 11月 케네디가 暗殺되고 64年 10月 흐루시쵸프가 突然 解任되었으나 美·蘇協調는 継続되었다. 이「美·蘇에 의한 平和」에 대한 挑戦은 64年 1月의 仏·中共外交関係의 樹立과 10月 中共의 1次核実験成功이었다. 64年 8月의 통킹湾事件을 契機로 美国의 越南戦争介入이 拡大되어갔다. 美国과 越盟을 支援하는 蘇聯間의 関係는 凍結状態로 되고 民族闘争을 支援하는 中共과는 戦争一歩直前의 状態로 되었으나, 中共이 蘇聯의 越盟에 대한 共同行動을 拒否하여 美·蘇·中共은 三巴葛藤을 継続하였다. 또 65年 9月에 勃発한 印·파戦争에 있어서도 印度에 最後通牒을 発한 中共과는 対照的으로 美·蘇両国은 中立的 態度를 취하여 戦争拡大를 抑制하였다.

그 後 蘇聯은 美国의 越南軍事行動을 非難하였지만, 核戦略의 優位性을 保持하기 위해 核不拡散과 宇宙利用의 面에서 対美協調를 推進하였다.

특히 69年에는 美·蘇間의 戰略武器制限会談(SALT)이 開始되었고 中·蘇国境의 武力衝突(다만스키島事件등)이 激化하였으며 11月의 닉슨·佐藤 共同声明으로 沖繩施政権返還에 관한 合意를 보게 되었다.

이렇듯 美·蘇는 戰後 各己 自由陣営과 共産陣営의 指導国으로서 그 陣営을 形成하고 이끌어왔으나 美·蘇의 陣営対立은 修正을 면치 못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現象을 흔히 国際政治의 多元化라는 말로써 表現하고 있다. 多元化를 가져오게 된 主要原因을 들면, ①美·蘇間의 平和共存이 漸次 定着되어 간 것, ②自由陣営内에서 英·仏·西独·日本등이 戰争의 打撃에서 復興하여 自主政策을 追求하게 된 것, ③共産陣営内에서도 蘇聯과 指導権을 다투어 独自의 核開発을 推進하고 自立政策을 遂行하고 있는 것, ④美·蘇 超大国의 核戰力은 그 破壞力이 너무도 엄청나서 政治的 影響力으로서의 効果에 限界가 생기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4. 70年代 国際秩序의 全般的 趨勢

70年代에 들어와서도 美·蘇는 戰略的 核武器의 優位性을 独占的으로 維持함으로써 世界国家로서의 既往의 地位를 維持할 必要가 있다는데 利害를 같이하고 있다. 즉 陣営을 이끌고 다님으로써 생기는 附随的인 負担에서는 相対的으로 벗어나되 第2次大戰 以後에 形成된 世界的 勢力均衡의 現状은 維持함으로써 世界的 強大国으로서의 地位는 지켜나가겠다는 点에서 美·蘇는 政策上의 一致를 보고 있다.

그리고 過去 20餘年間의 歷史는 社会体制를 달리하는 国家들의 政治観의 対立이라는 状況을 빚어 놓았기 때문에 陣営対立의 結果로 社会体制는 対立的인 基本的 緊張関係를 継続 가지고 있다. 이러한 状況에서 오늘날의 武器体系의 性格上 資本主義的 社会経済体制를 갖는 나라들은 그 体制를 지키기 위하여, 또 社会主義的 社会経済体制를 갖는 나라들도 亦是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窮極的으로는 美国 또는 蘇聯의 核武器에 依存하지 않을 수 없는 処地에 놓여 있다. 이러한 状況을 가리켜 헨리·키신저

経済政策을 遂行해 나가면서도 後進諸国에 대하여는 強大国의 利益保全을 위해 自進해서 自己犧牲을 甘受해 달라는 式으로 強要하고 있다.
이리하여 生存과 繁栄을 위한 実利追求라는 国際環境下에서 後進弱小国들도 先進強大国들의 恩慧와 慈悲에의 全的인 依存状態를 벗어나려는 自主努力의 一環으로 自立·自助의 経済施策과 自主国防등에 力点을 두고 熾烈한 貿易競争에 積極 뛰어들지 않을 수 없는 処地에 놓이게 되었다. 全般的으로 보아 経済的 側面에서도 世界各国은 冷戰体制에서의 敵対関係를 解消시키면서 経済活動領域을 拡大하여 共存競争의 길을 追求하게 될 것이다.

軍事的인 面에서는, 世界各国을 大体로 紛争을 軍事的 方法보다는 오히려 政治·外交的 方法, 즉 平和的 方法에 의해 解決하려는 傾向을 보여주고 있다. 그 理由는 主로 武力에 의한 紛争解決의 困難性, 軍事費支出이 財政에 미치는 莫大한 影響, 그리고 経済的 繁栄과 実利追求를 優先的으로 考慮해야 할 政策上 必要때문이다. 따라서 現状維持를 통한 長期的 軍事安定 나아가서 軍事費의 財政에 미치는 重圧을 克服하여 繁栄과 実利追求의 方向으로 政策을 転換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強大国들은 直接 援助介入을 통해 国際責任地域을 拡大하려고 하던 既往의 政策을 修正하여 国際責任地域의 縮少, 直接介入要因의 除去, 軍事同盟体制의 性格転換, 軍縮을 위한 努力, 紛争地域 특히 分断国群에서의 武力競争要因의 除去와 緩和를 一般政策으로 삼고 있다.

外交的인 面에서는, 両極体制의 崩壞와 多極体制에의 転換, 緊張緩和와 軍事的 依存度의 相対的低下, 紛争의 政治·外交的 解決主義, 実利의 優先 등의 一般的 趨勢下에 群小国들도 그 存立과 活路打開를 위한 政策選択의 幅이 拡大·多様化되었고 多角的 方法에 의한 自主·自立이 切実히 要求되는 状況에 이르렀다.

家로서의 超大国役割을 勘当해 왔다. 그리하여 世界分割支配体制를 위해 美·蘇는 競争속의 協力的 共存姿勢를 펴가는 한편 美·蘇間의 直接的 衝突을 回避하고 自国의 絶対 聖域化를 꾀하면서 世界情勢動向의 全般에 걸친 統制政策을 実施하는 것인데 이 点에 있어서 美·蘇는 그들의 世界外交·戦略目標 및 政策方向決定에 共同努力을 取하며 따라서 共通分母를 発見하게 되는 것이다.

美·蘇에 다음 가는 勢力国家들로서 中共과 日本 그리고 프랑스를 為始한 유럽勢力国家들이 登場했다. 오늘의 이와같은 世界政治 勢力版図를 指称하여 4強 또는 5極時代라고도 하고 통털어서 多極化体制로 表記하기도 한다. 이들 4～5個 勢力国家들을 묶어서 「強大国」으로 理解하는 것이 오늘의 通念이다. 故로 現今의 世界政治秩序는 곧 「強大国政治構造」에 依해서 支配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나·強大国 世界戦略動向은 무엇이 어떻게 変化했는가

第2次世界大戦後의 世界情勢変動起伏과 戦略的 環境変化는 冷戦史의 美·蘇 両極化 陣営政治秩序로부터 始発하여 共存時代의 秩序確立 必要性을 切実히 体験하면서 이제는 緊張緩和와 平和的 共存繁栄時代의 巨歩를 내디딘 多極化体制가 定着하려는 時点에 到来했다.

말하자면 冷戦体制의 脱皮·世界政治主動勢力의 再編成·多極体制속의 国際責任分担·協力的 共存繁栄秩序確立을 指向하는 強大国政治構造 및 世界戦略의 変化를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目標達成을 위해 強大国들이 実践構想으로 標榜하고 있는 몇가지 共通的 政治路線과 戦略目標를 重点的으로 浮刻시켜 본다면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는 「現状維持」政策이다. 이 말은 本質的으로는 強大国의 独自的 便宜主義에 따른 戦略環境変化를 現実的으로 対応措置하고 政策実施의 正当·公明化를 期하는 方便이다. 強大国政治라는 立論에서 볼때 大戦後 이들이 解決했어야 할 所謂 「戦後処理問題」는 山積해 있었다. 그러나 戦後処理

清算하기 위하여 未決問題들을 당장 性急하게 解決한다는 努力을 일단 中止하고 現在까지 벌어진 諸般 紛爭事態와 未解決問題들을 当分間 現状固定凍結시켜놓고 「協力的 平和共存」이라는 長期的 巨視的 世界秩序確立을 指向하면서 그동안 体驗해온 病弊를 하나씩 徐徐히 除去해 나가자는 意図가 깊이 새겨져있는 現実的 政策手段의 提唱이라 할 수 있다.

緊張緩和의 強調的 現象은 여러가지 世界問題処理의 새로운 方向感覚을 摸索케 했음이 事実이다.

政治的으로는 무엇보다도 政治的 이데올로기의 鈍化方策이 重要하다는 것을 自覚케 한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冷戦秩序를 원천적으로 条件賦与해준 政治神話였다. 이 神話는 切迫한 生存問題와 実利繁栄의 生産的 道具가 못된다는 事実을 切感한 나머지 「이데올로기」的인 対決의 鋭峯을 鈍化시키고 世界秩序의 安定된 実利為主·共存秩序를 구축하는데 絶対로 必要한 措置가 緊張緩和策에 있다고 看做하는 것이다.

이때문에 緊張緩和策에서 実利保全의 具体的 方便인 経済的 意味를 重要視하게 된다. 冷戦時代는 政治的으로 東西가 断切된 状態이기 때문에 経済圏도 東西불럭経済에 묶이게 되고 一切의 「交流」는 不可能했다. 더우기 「協力的 関係基盤造成」의 여지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와같은 状況속에서는 自己安全保障対策으로서 無理한 経済·財政負担을 무릅쓰고라도 軍備増強한다는 것은 東西에 共通된 現実的 要請이었다.

그런데 緊張緩和政策의 実践段階에 直面하면서 부터는 各国이 無理한 軍備財政負担支出을 効率的으로 削減하고 国民経済発展 即 国民生活向上 및 福祉増進 의 課業遂行이 緊急한 政治名分으로 集約돼 갔다. 이 일은 먼저 美·蘇를 비롯한 強大国群에게 肉迫해온 当面課題이다. 그리하여 軍事重点的인 安保観 乃至 安保概念이 修正되고 協力과 交流와 対話의 増進을 通해 東西協調·互恵的 実利를 保障하자는 것이 緊張緩和策이 尊重되는 経済的 意味이다.

緊張緩和政策動向의 意味는 基本条件으로서 重要한 内容을 안고 있다.

秩序의 長期的 安定도 期待할 수 없으며 緊張緩和策動은 基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고 現状維持는 破壞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勢力均衡」問題가 強調되는 焦点傾向은 強大国의 決定的 利益追求의 根本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即 互恵的 「利益概念」의 導入을 強調하게 된 것이다. 그러고 보면 世界情勢 変動推移의 基本動因이 되고 또 共通分母로 看做할 수 있는것은 「互恵的 安保概念」과 「互恵的 利益概念」이라고 結論할 수 있겠다.

위와같은 世界戦略動向의 共通趨勢속에 韓国安保의 戦略的 環境도 決定되어 있음을 看過해서는 안된다.

2. 強大国의 個別的 世界戦略動向

가. 美国의 世界戦略

닉슨大統領은 美国의 70年代의 外交政策 및 世界戦略目標로서 「永続的인 平和建設」이라는 実践路線을 내세웠다. 超強大国으로서의 美国은 蘇聯과 世界政治秩序上의 雙軸을 이루는 存在이면서도 世界問題 処理課程에 있어서는 如前히 美国의 「指導的 役割」을 継続 維持하며 多極的 世界戦略環境속의 世界平和構築을 摸索하는 한편 友邦諸国과의 友好関係維持를 強調하는 同時에 既往의 敵対国의 現状維持 및 共存関係를 堅持하면서 既存해온 対決의 時代를 協商時代로 転換키 위한 緊張緩和策을 世界戦略 目標達成의 根幹焦点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巨視的인 目標達成을 위해 実践手段의 基盤要素인 建軍政策方向設定에 있어서는 「外交活動과 外交交渉을 効果的으로 支援해 줄 수 있는 軍事力을 維持하는 일」이라고 強調했다.

둘째는 「国内外의 繁栄과 経済的 安定에 寄与할 수 있는 財政政策」을 重要視했다. 這間에 蘇聯과 妥結을 보게된 「戦略武器制限協定」이라든가 中共과의 関係改善을 具体化한 것이라든지 美·蘇, 美·日頂上会談등을 頻繁히 치루면서 設定된 世界戦略 実現에 積極的으로 臨해 왔다. 그리고 同盟友邦諸国들의 「自主国防態勢定立」을 促求하는 가운데 世界防衛의 責任分

나．蘇聯의 世界戰略

蘇聯의 世界戰略도 美国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汎世界的 地域対象問題와 直結되었다는 点에서 美．蘇는 共通이며 雙軸関係에 놓여 있는 것이다. 또 美国의 世界戰略이 어떤 다른 強大国보다 蘇聯의 存在를 第一順位로 올려놓고 世界問題処理의 相論対象으로 尊重하는 것과 같이 蘇聯도 美国을 그렇게 待接하면서 世界戰略에 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点에서 戰後의 美．蘇関係는 大体로 戰略概念上의 類同現象을 堅持해왔다. 核戰略．通常戰略．冷戰戰略．共存戰略에 있어서 모두 그렇다. 다만 最近年間에 와서는 蘇聯이 既往에 疎忽이 해왔던 海軍戰略을 重点的으로 強調되고 있는 点이 特色이라면 特色이다.

蘇聯의 변함없는 世界戰略実践目標는 世界社会主義革命을 完遂하는데 두고 있다.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蘇聯의 指導的 位置를 保全하며 強化育成하는 일이 基本政策路線인 것이다. 이같은 最大基本政策綱領을 現実的으로 具現하기 위해서 내세운 것이 브레즈네프．독트린에 의한 社会主義諸国의 結束追求이며 個別政策．世界戰略路線으로서는 平和共存．緊張緩和．現状維持 및 長期的 軍事安定策을 標榜하고 있는 것이다.

蘇聯의 世界戰略上의 첫째 当面課題는 유럽에서의 「유럽安保会議」를 早速히 成功的으로 妥結하는 일이며, 둘째는 中共勢力의 世界的 膨脹을 어떻게 牽制하느냐에 重点두고 있다 하겠다. 그래서 蘇聯이 오래전부터 主唱해온 「아시아集団安保体制」의 確立構想같은 것은 中共의 勢力牽制策과도 깊은 関聯이 있는 것으로 理解할 수 있다.

蘇聯은 美国과 맞먹는 超大国으로서의 上記와 같은 戰略態勢整備動向은 亦是 戰略核戰力을 主軸으로 하는 軍事力一般의 対美優位保全에 基本目標를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蘇聯에게는 美国과의 無限定的 軍備競争을 벌린다는 일은 軍事財政負担에 있어서 美国과는 比較가 안될만큼 莫重한 圧力과 国内 経済発展의 犠牲을 覚悟하지 않고는 不可能한 形便이다. 이 点에서 美国과의

있는 底辺構築은 如前히 戦略武器体系의 質的 向上을 図謀하는데 있고 이를 위하여는 莫大한 費用을 投入하지 않을 수 없는데에 蘇聯의 最大苦悶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苦悶거리의 一部를 비록 短期的이고 一時的일망정 덜어준 것이 바로 美·蘇間의 SALT協定締結이며 美·蘇頂上会談(73·6)을 통해 約束받은 美国의 「協力」이요 慈悲이다.

다·中共의 世界戦略

中共은 아직 美·蘇와 겨룰만큼의 超大国能力国家는 못되었다. 그러나 準超大国水準에 到達하고 있는 点에서 같은 또래의 強大国群에서는 第一級国이다.

現在 中共戦略의 最大政策綱領은 世界社会主義革命課業遂行에 있으며 蘇聯을 制圧하고 世界共産主義運動의 主導権을 制覇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레닌이즘의 正統을 자랑하면서 世界를 共産革命하는 일과 蘇聯을 牽制하고 圧到하려는 것이 中共的 世界戦略遂行의 最大目標인 것이다. 이런 뜻에서 中·蘇関係를 볼때 「共産国家」라는 意味에서는 同床이나 世界革命의 方法論採択에서는 異夢하고 있는 関係이다.

戦後의 武器革命이 自招한 不可避한 戦略的 環境与件때문에 蘇聯은 재빨리 革命課業遂行의 修正主義路線을 내세워 平和共存策을 実践하면서 資本主義世界의 巨頭格인 美国과 손잡고 協力秩序를 構築하는데 先頭를 달렸지만 中共은 人民戦争戦略遂行을 根幹으로 하는 世界戦略目標를 固守해온 나머지 当初의 中·蘇協力関係는 熾烈한 対決状態로 急変했고 마침내 国境紛争武力衝突事態까지 벌이게 된 것이었다.

大体로 60年代 以後부터는 対蘇依存度를 脱皮하면서 独自的인 国防·建軍政策과 戦略概念을 確立하여 蘇聯에의 対決策을 講究하고 西方世界에 대해서도 強硬策一辺到의 世界戦略을 펴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中共도 核開発保有国家로 登場하고 戦略核戦力을 갖추게 되면서부터는 戦略核能力의 政治的 効用価値를 自認하게 되었고 世界戦略方向도 果敢히 転換策을 摸索하게 되었는데 這間의 対美·対日関係改善·西方国家와

線을 闡明하여 実践에 옮기고 있는 중이다.

共存과 平和競争속의 「対立과 対話」関係調整에 副応하며 緊張緩和策을 摸索하며 外交活動의 振幅拡大 및 多様化를 꾀하고 美·日安保体制의 継続維持 및 協力増大를 図謀하는 테두리 안에서 中共과의 国交回復 및 関係正常化増進·対蘇友好協力関係増進과 平和条約締結推進 그리고 対韓友好協力関係維持·発展増進을 基底로한 対南北韓均衡外交座標를 내걸었다.

지금 日本은 76年에 끝낼 豫定인 第4次防衛力整備5個年計劃期間에 있다 이 計劃期間에는 日貨 4兆6千3百億円의 資金이 投入될 수 있도록 確定했다. 主要装備의 「国産化」方針下에 「積極的前進防禦戦略概念」을 重点的으로 強調하는 戦略態勢 整備方向이다. 特徴으로는 軍備増強의 上限線을 明示하지 않고 있는 点이며 「第5次防衛計劃」으로 까지 延長될 可能性을 内包한 長期計劃이라는 点이라 하겠다. 4次防을 통한 軍備政策의 重点的方向은 陸戦装備의 機動化·空軍装備의 国産現代化·周辺海域防衛의 能力強化라는데 두고 있다. 그리하여 4次防의 終結期間의 日本軍備水準은 名実共히 非核国家로서는 軍事大国의 面貌를 具備하게 될 것이다. 経済大国의 튼튼한 基盤위에 構築되는 軍事大国은 必然的으로 「政治大国」이 되게 마련이다. 自古로 独自的 経済能力에 바탕을 둔 軍事大国의 政治的 役割은 그 軍事機能 뿐만아니라 周辺国際秩序의 戦略的 環境을 造成하고 条件賦与하는데 寄与하는 것이다. 70年代 後半에 접어들면 日本은 아시아의 勢力版図再編成過程에서 重要한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至大한 影響力을 行使하게 될 것이다. 그럴 境遇 韓半島는 日本의 戦略圏에 있게 될 것이며 따라서 南北韓関係를 비롯한 韓半島全体의 安全保障問題도 叙上한 바와같은 美蘇·中共·日本의 戦略的 環境変化속에 性格지어진다는 것을 切実히 位置意識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한가지 看過할 수 없는 일은 現在의 日本의 通常軍備増趨勢를 勘案할 때 将次는 日本은 東南北아시아周辺地域에서 武器輸出市場을 찾게 될 것인데 이 問題는 앞으로 東南北아시아諸国이 取하게 될 戦略概念의 形態

線을 闡明하여 実践에 옮기고 있는 중이다.

共存과 平和競争속의 「対立과 対話」関係調整에 副応하며 緊張緩和策을 摸索하며 外交活動의 振幅拡大 및 多様化를 꾀하고 美·日安保体制의 継続維持 및 協力増大를 図謀하는 테두리 안에서 中共과의 国交回復 및 関係正常化増進·対蘇友好協力関係増進과 平和条約締結推進 그리고 対韓友好協力関係維持·発展増進을 基底로한 対南北韓均衡外交座標를 내걸었다.

지금 日本은 76年에 끝낼 豫定인 第4次防衛力整備5個年計劃期間에 있다이 計劃期間에는 日貨 4兆6千3百億円의 資金이 投入될 수 있도록 確定했다. 主要装備의 「国産化」方針下에 「積極的前進防禦戦略概念」을 重点的으로 強調하는 戦略態勢 整備方向이다. 特徴으로는 軍備増強의 上限線을 明示하지 않고 있는 点이며 「第5次防衛計劃」으로 까지 延長될 可能性을 内包한 長期計劃이라는 点이라 하겠다. 4次防을 통한 軍備政策의 重点的方向은 陸戦装備의 機動化·空軍装備의 国産現代化·周辺海域防衛의 能力強化라는데 두고 있다. 그리하여 4次防의 終結期間의 日本軍備水準은 名実共히 非核国家로서는 軍事大国의 面貌를 具備하게 될 것이다. 経済大国의 튼튼한 基盤위에 構築되는 軍事大国은 必然的으로 「政治大国」이 되게 마련이다. 自古로 独自的 経済能力에 바탕을 둔 軍事大国의 政治的 役割은 그 軍事機能 뿐만아니라 周辺国際秩序의 戦略的 環境을 造成하고 条件賦与하는데 寄与하는 것이다. 70年代 後半에 접어들면 日本은 아시아의 勢力版図再編成過程에서 重要한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至大한 影響力을 行使하게 될 것이다. 그럴 境遇 韓半島는 日本의 戦略圏에 있게 될 것이며 따라서 南北韓関係를 비롯한 韓半島全体의 安全保障問題도 叙上한 바와같은 美·蘇·中共·日本의 戦略的 環境変化속에 性格지어진다는 것을 切実히 位置意識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한가지 看過할 수 없는 일은 現在의 日本의 通常軍備増強趨勢를 勘案할 때 将次는 日本은 東南北아시아周辺地域에서 武器輸出市場을 찾게 될 것인데 이 問題는 앞으로 東南北아시아諸国이 取하게 될 戦略概念의 形態

国家安保란 한마디로 다음과 같은 政治的 責任과 使命이 介在하는 것이다. 即 国民과 国家의 安全保障인데 이는 国家와 国民을 外部의 威脅이나 侵害로 부터 防衛하는 일이며 国家와 国民의 利益을 保全하는 課業이며 同時에 国民의 生存과 国家의 繁栄과 安定을 保障해야 할 責任과 義務를 지는 일이다.

그러기 때문에 国家安保란 政治·経済·軍事·外交上의 諸般 施策이 総体的으로 均衡있게 動員投入되는 国家的 総力事業이며 「総力安保」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国家安保類型에는 「自主独立型」과 「依存的 従属型」으로 分類해 보는 境遇가 많다. 前者는 「強大国型」이라 할 수 있고 後者는 「群小国型」이라고 理解하면 된다. 強大国型에 相対的인 뜻에서 群小国型은 「弱小国型」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正直하게 말해서 韓国의 安保類型은 弱小国型에 属한다. 다만 「弱小国型」은 그 時代에 주어진 世界戦略的 環境与件을 가장 現実的으로 받아들이므로서 生存을 保障받을 수 있는 安保類型이라는 点도 잊어서는 안된다.

韓国安保의 当面政策課題를 集約해 본다면 政治的·経済的·軍事的 및 外交的인 政策課題가 있으며 이에 대한 対備策이 要請되는 것이다.

政治的 安保課題는 対内的인 政治安定과 韓国的 体制秩序의 安定基底構築도 重要하지만 南北韓体制共存의 具体的인 政策軌道를 敷設하는 일인 것이다.

다음은 経済的 部面의 安保課題인데 軍事財政負担을 最大限 効果的으로 節約하는 方策을 講究하여 그 餘力을 国民生活向上과 国富의 均等配分을 뒷받침할 수 있는 国民経済発展에 集中投入하는 일인 것이다. 経済的 安保政策에 重点을 둔다는 것은 結果的으로는 政治的·軍事的·外交的 安保対策의 基本的 底力을 構築하는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끝으로 軍事的 安保対策問題이다. 무엇보다도 時急한 것은 韓国的 戦略概念의 確立에 있다. 勿論 그것은 強大国들의 対韓半島 政策態度 및 世

可能한 存在들이다. 即 強大国은 世界政治秩序全般에 걸친 経済·軍事·外交上의 諸局面을 決定的으로 条件賦与해 주는 推進勢力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普通 쓰는 말로서 世界政治다 国際経済다 또는 世界戦略 및 世界外交라는 表現을 익히 알고있지만 그런말들이 普遍妥当한 「하나의 世界」 또는 地球上의 萬国에 適用되는 現象인것처럼 「国際」라는 말을 자주 쓴다. 그런데 事実은 決코 그렇지가 못한 것이다. 한마디로 「世界政治」나 「世界戦略」이란 것도 그 時代의 特定強大国의 政治·経済·軍事·外交를 意味하는데 不過하다. 좀더 具体的 表現을 빌린다면 現今의 「世界政治」는 곧 美国과 蘇聯 등의 世界戦略이요 世界外交이며 世界政策이라는 뜻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世界情勢가 「変化」했다는 말은 美国이나 蘇聯 또는 其他 強大国들의 諸般 政策動向이 変化했거나 変化하고 있는 것으로 看做하면 틀림이 없다.

現今의 世界政治秩序속에는 所謂「超強大国」으로서의 美·蘇가 居然히 世界分割支配体制 確立을 위해 協力的 共存姿勢로 버티고 서 있으며 다음으로 第2流 強大国이라는 이름표가 붙은 나라들로서 中共·日本 및 유럽勢力国家(主로 仏蘭西를 中軸으로한 英国·西独 등 統合勢力)들이 存在한다. 오늘의 이와같은 世界政治勢力版図를 指称하여 때로는 四強時代라고도 하고 어떤 境遇에는 五極時代 或은 多極化体制로 表記하기도 한다. 이들 勢力国家들을 통털어서 所謂 「強大国」으로 看做하는 것은 現今時代의 世界的通念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世界政治秩序는 곧 「強大国政治構造」로 짜여져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면 強大国政治構造의 生態와 真面目은 무엇인가. 「超大国」이란 곧 「그 나라의 最高政治指導者와 그를 擁立하는 指導者들의 政策意図가 모든 大陸에 걸친 世界政治의 諸般現象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는 事実」로서 超大国의 基準으로 삼는 것이 普通인데 가령 닉슨·독트린이라든가 브레즈네프·독트린같은 것이 世界政治様相에 影映되는 結果事項이나 그 波及効果등은 가장 標本的 例証이라 할수 있다. 또 第2流級 即 「普通強大国」

나. 強大国世界戦略動向의 全般的 趨勢

앞에서 말해둔 것과 같이 여기서 言及되는 「強大国」의 対象은 美蘇를 為始한 中共·日本 및 유럽勢力国家들임을 意味한다.
이들 나라들의 世界戦略目標와 그 政策動向의 全般的 趨勢를 重点的으로 要約 把握하므로서 그야말로 総体的 世界戦略의 潮流를 鳥瞰할 수 있고, 同時에 이들 나라의 世界戦略動向이 世界問題全般에 어떻게 投影되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尺度가 되는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대목에 綜合的 考察은 強大国世界戦略 動向変化의 共通分母로 묶어서 理解해도 좋다.

第2次大戦後의 世界政治史의 起伏과 戦略的環境変化는 冷戦史의 始発로부터 共存理論의 現実化를 切実히 体験하면서 이제는 緊張緩和와 協力的 共存繁栄時代의 巨歩를 내디딘 時点에 이르렀다. 오늘의 変化時点에 到達하게된 強大国政治의 時代的 共通分母들은 그동안의 뼈아픈 試練을 겪어온 未解決世界問題들을 平和的으로 解決해 보려는 人類的 努力의 副産物이기도 하고 将次의 解決点을 発見해 내는 디딤돌일 수도 있다.

먼저 世界政治秩序의 構造的 変化이다. 構造変化의 積極的이고도 一次的인 試図는 「冷戦体制」로 부터의 脱皮이다. 戦後秩序의 冷戦史는 美·蘇의 両極体制構築으로 出発했다. 이것을 「陣営政治」秩序라고 한다.
그리하여 美·蘇를 各其 頂点으로한 自我陣営의 守護·保全을 위하여서는 政治이데올로기에 求心点을 찾아 所属陣営의 一糸不乱한 結束体制를 強調하게 되었고 그 結果 世界政治構造를 尖鋭化된 体制·理念上의 異質的 対立秩序를 形成하게 되었으며 集団的 防衛体制構築에 의하여 世界는 友敵関係秩序로 両分化하는 版図를 짜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武器体系의 革命的 変化開発 即 破壊力·運搬手段·空輸革命 및 通信革命등에 依하여 戦争手段은 스스로 制限을 받게 되므로서 「生存」을 위한 平和共存理論이 提唱되고 따라서 軍事的 対決만이 唯一한 効果的인 安全保障対策으로 看做되었던 이른바 冷戦構造는 흔들리기 始作했다. 그리하여 이 冷戦時 体制를 解体하고 共存秩序를 定立하면서 世界問題의 政治的, 外

便宜上 現在까지 未決事件으로 이루어온 「分断状態」는 現時点을 基準으로 하여 現状固定·凍結을 通해 「分断된 状態의 現状維持」를 意味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勿論 分断国民은 感想的인 녀두리만 할 때가 아니다.
現実은 現実로서 厳然히 浮刻되고 있는 것으로서 두개 独逸의 既定事実化 두개 韓国의 現実化問題가 눈앞에 있으며 두개의 越南化도 不可避해져 가고 있다. 이런 일들은 모두 強大国의 世界政治的 便宜를 為해 標榜된 「戦後現状維持」(status quo post bellum) 策의 実現段階의 結果所産이다

둘째는 強大国世界政治問題의 「緊張緩和政策」이다. 上記한 「現状維持」를 위해 政策方向을 具体化해야 할 必要때문에 그 方便으로서 緊張緩和策을 必然的으로 強調하게 된다. 確実히 冷戦史를 통해 一貫된 世界政治의 推進力은 軍事的 自己武装의 強化이고 따라서 東西関係는 軍備競争(核-在来式 共히) 史로 始終해 왔고 結果的으로는 集団的 「対決」과 「緊張状態의 高潮」만을 促進해 온 것이 事実이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現状維持보다는 「現状打破」의 効果的 方法을 講究하느냐에 没頭한 나머지 軍事的 手段의 重要視·協商·妥協보다는 対決意識의 強化를 꾀하게 되고 그러면서도 軍事的 方法으로는 世界問題를 処理할 수 없는 一種의 딜렘마요 自己矛盾을 露呈하게 된 것이 冷戦秩序의 遺産이며 固疾이었다.

때문에 「緊張緩和」란 그 実相을 따진다면 이와같은 冷戦時代의 結果事項들을 「解決」해 보려고 努力을 해도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었음을 切感하고 現在까지 벌어진 諸般 紛争事態와 未解決問題들을 当分間 現状固定 凍結시켜놓고 「協力的 平和共存」이라는 巨視的 世界秩序定立을 指向하면서 그동안 体験해온 冷戦体制下의 遺産的 病弊를 하나씩 서서히 除去해 나가자는 意図가 깊이 새겨진 含蓄性있는 語句이다.

먼저 緊張緩和策의 政治的 意味를 음미해 본다. 冷戦体制를 運用해 보면서 政治的 意味의 陣営別 対決意識을 高潮해 준 것은 「自由民主主義」(資本主義)와 「共産主義」라고 하는 政治「이데올로기」였다.
異質的인 政治이데올로기의 守護·保全을 위한 重点施策은 東西間의 競争的

나가고 安定과 繁栄과 実利를 具現하려면 무엇보다도 対決보다 「協力」을 해야 하고 共存을 해야 하며 通商·貿易은 불럭을 超越해서 拡大되어야 하고 資本의 移動·労動力의 移動·科学技術의 交流·金融上의 東西協調는 「互恵的 実利」를 위해 不可避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目的達成을 위한 現実的 手段方法이 곧 「緊張緩和策」의 経済的 意味이다.

다음 緊張緩和政策動向의 軍事的 意味는 무엇보다도 重要하다. 왜냐하면 現状維持이든 緊張緩和든 간에 이것들의 가장 効果的 実践手段의 底辺은 軍事的 要因이 先決的으로 再調整되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既存해 온 軍事的 競争対立状態의 漸進的 解消를 위해서도 長期的인 軍事安定状態構築이 切実한 状況에 놓이게 된 것이다. 軍事的인 集団防衛体制는 「非軍事的」安保体制로의 体質改善을 不辞하게 했다. 유럽에서는 나토(NATO : 大西洋条約機構)와 와르샤바条約機構間의 協力的 会議体인 「유럽安保会議」가 이미 始動을 걸고 있으며 東南亜条約機構(SEATO)등 同盟体는 벌서부터 有名無実·無気力해진 標本的 例이다. 바야흐로 「集団的」防衛体制는 二辺双務協定的 스타일로 変貌해 가는 傾向을 露出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世界政治主役国은 大体로 世界問題 一般 특히 紛争事端들을 軍事的 方法보다는 오히려 政治的·外交的 解決方法에 置重하게 되었다. 軍事費支出의 財政圧力을 縮小하는 方向으로 戦略概念을 再定立하는 한편 武力的 競争要因의 除去를 図謀하는 일을 緊張緩和目的의 大宗으로 삼으면서 長期的 軍事安定策을 創出해 내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軍事的 意味의 緊張緩和策은 「互恵的 安全保障概念」을 導入하는데 重要한 一翼을 担当하는 것이다. 이 安保概念再調整의 「互恵主義」傾向은 特히 美·蘇 中心의 既存 国際責任地域·国家들에 対한 軍事援助政策上의 戦略的 操作에 依拠해서 操縦되고 있다는 事実을 더욱 注目하게 되었다. 가령 分断韓半島의 境遇를 놓고 볼때 美·蘇는 各其 南北으로 갈라진 韓国과 北韓의 存立과 安全을 위해 大戦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特히 軍事的이고 経済的인 国際責任을 져온 터이다. 그런데 韓半島의 「緊張状態」가 継続 高潮된다거나

된 点이다.

以上과 같이 強大国 一般의 世界戦略動向은 現状維持·緊張緩和·平和共存体制의 秩序確立이라는 方向으로 내닫고 있거니와 끝으로 強調해야 할 点은 強大国間의 「勢力均衡」問題이다.

위와같은 世界戦略達成目標를 具体化할 수 있는 長期的 安定策으로서 重要視되는 基本的인 与件造成이 바로 列強間의 勢力均衡策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世界戦略 遂行上 強大国間의 勢力均衡이 깨진다면 世界秩序의 長期的 軍事安定도 期待할 수 없고 緊張緩和策은 基本부터 흔들리게 되며, 現状維持는 破壊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世界는 다시 軍事的 불럭化·協力的 共存보다도 競争的 対立, 平和的 方法보다도 軍事的方法의 強調등등 새로운 冷戦体制·軍備競争時代로 突入할 可能性을 充分히 潜在内包하고 있는 때문이다.

그리하여 오늘의 「勢力均衡」問題가 焦点을 모으는 傾向은 強大国間의 個別的인 決定的 「利益」追求의 根本이 흔들려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即 「互恵的 利益」概念의 導入이 強調되고 있다. 말하자면 互恵的 利益이 어떤 形式으로든지 保障될 境遇에는 勢力均衡이 維持되는 捷径으로 看做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더 具体的으로 말한다면 어떤「世界問題」処理過程에 있어서 가령 그 問題가 蘇聯의 本質的이고 決定的인 利益과 깊이 関聯있는 問題라면 美国은 그 問題의 바탕을 뿌리부터 흔들어 놓음으로서 蘇聯이 決定的인 打撃을 받게끔 하는 式의 政策操作은 하지 않는다는 意味가 된다. 勿論 蘇聯이 美国에 対하는 政策考慮도 위와 꼭같은 論理가 適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軍事的 長期安定策 図謀의 根本目的이 「互恵的 安保概念」의 導入에 있는 것이라면 勢力均衡策図謀의 根本目標는 「互恵的 利益概念」의 導入에 있는 것이라고 結論할 수 있겠다.

以上은 強大国의 世界戦略動向의 全般的 趨勢를 総体的으로 綜合検証해본 共通分母이며 이 世界戦略動向 共通分母속에 韓国安保의 戦略的 環境이 決定되어 있는 것이기도 하다.

有한 論理는 制限을 받게 되고 局地制限戰爭이 通行하는가 하면 戰略運用에 있어서는 過去와 같은 勝負를 가리는 戰略보다는 어떻게 하면 核破壞力의 威脅으로 부터 살아남느냐 하는 이른바 「生存의 戰略」(strategy of survival)까지를 摸索하게 되었다. 그리고 最小限度의軍事的 要因을 介入시켜 最大限度의 政治的 效果를 獲得하려는 「間接戰略」이라는 戰略思想도 나오게 되고 戰略과 外交의 同一次元的 活用의 重要性을 認識하기도 하며, 戰略의 類型区分으로 核戰略·宇宙戰略·持久戰略등이 있고 특히 軍事戰略과 区別해서 理解하려는 戰略対象으로서 이른바 国家戰略(大戰略)이라는 것을 들기도 한다.

프랑스의 現代戰略理論家인 앙드레·보프르는 現代戰略의 一般形態를 理解하기 위한 一種의 定石的 等式을 試案했는데 現代戰略 一般의 特徵을 把握하는데 參考가 될 것이다. 即 S=KF∅T라는 簡単한 等式이다. 이 等式에서 S는 戰略이며 K는 常数的 固定要因이며 F는 物量能力을 意味하며 ∅는 心理的 힘의 要素이고 T는 時間的 要素를 指称한다.
그래서 総体的으로는 戰略이란 計算的 要素와 非計算的 要因으로 区分하게 된다. 計算的 要素中의 「固定要因」(K)은 地形·地勢·国境線·資源·戰闘兵力·人口構造·武器体系·兵站輸送·科学技術등을 挙列한다. 物量能力要因(F)으로서는 一国의 政治力·経済力·外交力등 総力戰力概念으로 理解하여 戰略樹立의 基底로서 看做한다. 心理的 힘(∅)은 国民士気·精神戰力·国民의 意識構造등을 意味한다. 時間要素(T)는 戰略目標達成과 그 成功可能性間의 均衡的 調整을 時宜(時代感覚에 알맞게)適切하게 現実的으로 接近 処理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要컨대 戰略=一国的固定限界要素+物質力+心理的·精神的 힘+時間要素라는 等式으로 説明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現代戰略의 特性으로서 언제나 現実適応的인 状況判断의 「創意的 発見」(constaut invention)을 重要視한다. 또 高次元的 洞察力을 発揮하여 戰略的 環境의 常数要因과 可変数要因을 잘 調和시켜 새로운 事態発展의 解決策을 摸索하는 일이 戰略運用의 要諦로 看做된다.

올려놓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뜻에서 美国의 世界戦略을 独立座標上에서 処理하기에 앞서 于先 70年代의 全般的 推進力이 될 美·蘇間의 協力的 競争相·共存相의 基本性格을 要点的으로 整理해 둘 必要가 있다. 그것은 70年代 全般에 걸친 두 超大国間의 基本関係와 互恵的 調和関係는 相互 影響을 주고 影響을 받는 世界政治·戦略의 雙軸的 里程表 役割을 하는 때문이다.

그런데 美·蘇 雙軸間의 関係는 本質的으로 政治異質観念 即 政治이데올로기上의 異質体制의 共存関係임을 勘案할 때 아직은 이 地上에 하나의 普遍妥当한 平和秩序를 建設하는 일은 비록 이데올로기의 鈍化現象이 実感되고 있다 할지라도 悲観과 楽観의 半半展望이 交叉하고 있다. 더우기 平和的 共存理論을 率先해서 提唱해온 蘇聯의 立場을 볼때 「思想의 共存」이란 期待하기도 힘들고 一種의 「過渡的 概念」임을 自認하고 있는 터이다. 이 問題는 美国의 立場도 매한가지라는 点을 看取할 수 있는 일이다. 한쪽은 共産主義이데올로기가 그리고 다른 한쪽은 自由民主主義(資本主義)政治理念·体制로 굳게 武装되어 있다. 다시 말하여 美·蘇雙軸은 各其의 思想과 体制를 守護하고 保全하기 위한 政治的 意志貫徹을 위해 雙方의 実践的 努力은 結局 質的이든 量的이든 軍事的 競争状態의 持続이 不可避할 것이라는 展望을 排除하지 않고 있다. 닉슨美国大統領이 再就任後 얼마 안되고 또 越南戦을 終息시키는 措置를 取하는 前後段階에서 美国은 『世界의 最強의 国防力을 維持할 것』이라고 公言한 바 있다. 이같은 宣言公約은 70年代의 美·蘇 競争状態의 総体的 性格을 豫想하게 해주는 뜻깊은 말이라고 理解되는 것이다. 戦略武器体系의 急速한 質量導入劃策과 그 競争可能性은 増大하고 있으며, 그렇게 본다면 비록 「協定」으로서는 「戦略武器制限会談」(SALT)같은 것은 하나의 交渉에 의한 合意의 産物이라고 볼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一種의 「不合意의 合意」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合意」事項은 雙方의 발등에 떨어진 当面課題의 一時的 凍結状態를 劃定했음을 立証한데 不過한 것이겠다.

支援해줄 수 있는 軍事力을 維持하는 일」과 둘째로는 「国内外의 繁栄과 経済的 安定에 寄与할 수 있는 財政政策」을 強調했다. 그 結果로서 這間의 蘇聯과 妥結을 보게된 「戦略武装制限協定」라든가 中共과의 頂上会談 関係正常化方策具現 및 越南戦争終結 그리고 美·蘇頂上会談등의 政策産物을 世界에 証明해준 것이다. 또 対蘇調和·均衡의 ABM体制確立과 新武器体系의 能率向上을 꾸준히 図謀하면서 同盟友邦諸国들의 「自主国防態勢定立」을 促求하는 가운데 世界防衛의 責任分担의 具体的 措置를 果敢히 遂行하는 마당에 있다.

美国의 위와같은 対外政策 및 国防·戦略状態整備基調方向은 나토의 存立様態 유럽의 安保問題·中東問題·東南北아시아의 安全保障問題에 이르기까지 政治·経済·軍事·外交上의 諸般問題의 処理方向에 重大한 影響을 미치게 되는 것이며 特히 韓半島의 安全保障問題와도 直結되는 戦略的 環境造成与件인 것이다.

特히 「戦略的 対応政策」(strategic policy)으로서 問題視되는 政策課題의 核心은 如何한 方法으로든지 「戦争의 抑止」에 두고 있는 事実이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戦争防止目的을 위해 核戦力의 가장 効率的 機能作用을 方向定立하느냐에 두고 있다. 이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서는 첫째 美国이나 그 友邦諸国에 대한 全面的 攻撃을 抑止排除하는 일이며, 둘째로는 도저히 容納될 수 없는 危機造成을 随伴하는 準全面攻撃姿勢로 나오는 本質的 侵略者를 応懲하는 일이고, 셋째로는 美国이나 그 友邦에 대한 侵略의 威脅이나 強制手段을 最小化하기 위하여 美国과 友邦間의 安定된 政治的 環境을 維持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70年代의 戦略理論은 새로운 事態転変에 対応해서 基準이 設定되어야 하며 그 基準設定의 焦点은 核戦略能力整備上의 보다 広範하고도 柔軟性(flexilbility) 있는 姿勢定立에 있음을 強調한다.

때문에 70年代의 보다 確固한 戦略遂行의 基礎作業으로서 標榜한 「戦略計劃」(strategic programs)은 大陸間弾導弾(ICBM)能力水準의 増

적어도 核戦略類型이 定着되는 期間-大体로 50年代 後半부터 60年代 初半傾까지- 以後의 状況을 두고 볼때 核破壊力 및 미사일兵器의 発達로 인한 戦略理論上의 이른바 「大量報復戦略」態勢를 美国이 整備해 나가게 되면 蘇聯도 「核·로켓트戦略体制」로 転換하며 「大量報復·速戦奇襲·決戦思想」을 鼓吹했고, 美国이 通常軍備를 重要視하는 政策을 쓰게 되면 蘇聯도 지지않고 이에 따르는가 하면 美国이 所謂 柔軟反応戦略을 取扱하게 되면 亦是 蘇聯도 이에 相応하는 戦略態勢로 바꾸는 것이었다.
ABM体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기 때문에 冷戦戦略·平和共存戦略·緊張緩和戦略등등에 있어서 美·蘇의 世界戦略動向은 一種의 씨-소게임을 벌리는 가운데에서도 共通分母를 内在하는 것이다. 다만 最近 蘇聯의 世界戦略動向中에 注目되는 것은 海軍戦略-海洋勢力国家로의 登場劃策-의 새로운 変化傾向이 두드러지고 있는 点이겠다. 말하자면 伝統的으로 陸軍国이고 沿岸海軍国인 蘇聯을 大洋海軍国으로 登場시키려는 海軍戦略이 胎動했고 具体的 実践段階를 밟고 있는 事実이다.
核미사일潜艦戦略의 発展重視·航空母艦의 建造取役과 艦隊配置·海軍力-특히 商船屯数増大-의 엄청난 膨脹, 그리고 印度洋에의 대대적인 艦隊進出活動을 통해서 世界의 超強海軍国인 美国에 당당히 示威的 挑戦을 誇示하고 있는 중이다.

어떻든 蘇聯은 現今 그 世界戦略目標達成을 위한 最高의 実践的 支柱로서 브레즈네프·독트린을 내세우고 있다. 브레즈네프·독트린은 한마디로 世界의 社会主義国家의 結束을 위하여서는 諸国의 主権이 蘇聯의 絶対的 指揮統制下에 制限받는 것도 当然하다는 論理이다. 말하자면 社会主義国際路線의 実践過程에서는 蘇聯의 国際主義的 内政干渉은 正当하다는 論理를 内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蘇聯의 世界戦略遂行의 最大政策綱領은 世界社会主義革命을 完遂하는 일인 것이며, 이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超大国으로서의 蘇聯의 位置를 保全하며 強化育成하는데 重点을 두고 있다.

国力資源의 最大精力을 経済発展에 重点的으로 投入해야 하기때문에 所謂 「国防建設과 経済建設」의 二重的 「딜렘마」를 안고 있는 것이 蘇聯의 世界戦略遂行의 特徴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試練을 克服하기 위하여 브레즈네프政権은 그 国防費를 節減하는 政策推移를 나타내고 있다. 1969年부터 72年度 까지의 4年동안의 動向을 参考할 때 69年度의 1百77億루블水準을 除外하고 70~72年度(3個年)는 継続 1百79億루블線에서 固定시키고 있으며 歳出에 대한 国防費比는 69年度가 13.2%이던 것이 70年度에는 12.3%이고 71年度는 11.1%이며 72年度는 10.3%로 뚝 떨어졌다.

이와같이 蘇聯의 国防政策 및 世界戦略上의 対内的인 軍事財政負担은 莫大한 圧力인데도 不拘하고 世界政治·戦略問題処理에 있어 超大国의 「指導的 立場」을 堅持하기 위해서는 戦略武器体系의 対美競争的 質的 向上을 위한 莫大한 諸般費用을 投入하지 않을 수 없는데에 蘇聯의 最大苦悶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苦悶을 短期的이나마 덜어준 것이 美·蘇間의 SALT 協定締結이며 美·蘇頂上会談(73年6月)을 통해 約束받은 美国의 「協力」이요 慈悲이다.

다·中共의 軍備政策과 世界戦略

核戦略能力保有国家로서 中共은 超強大国級의 一歩直前에 있는 存在이다. 共産主義国家라는 意味에서는 同床異夢이기는 하지만 蘇聯과는 「世界社会主義革命」遂行을 위해 같은 수레를 타고 가면서도 世界革命課業遂行의 方法論上 主導権競争으로 熾烈한 対決·反目을 거듭하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의 基本政治理念은 世界秩序를 共産主義와 資本主義라는 두개의 陣営秩序로 看做하고 結局 資本主義·帝国主義를 打到하고 支配하려면 革命的 方法即 戦争手段에 의하지 않고는 不可能하다는 理論과 思想을 確立시킨 것이었다. 中·蘇理念紛争의 発端은 바로 이 戦争観·革命観의 差異에서 出発했다고 볼수 있다. 武器의 革命때문에 蘇聯은 不可避하게 現実政策路線으로서 異質的 相対陣営인 「資本主義」世界와 平和共存을 標榜하니까 「民生

으로 自負하는 軍隊이다. 中·蘇紛争의 激化·対蘇依存度를 脱皮한 以後부터의 中共은 独自的 戦略概念 確立의 底辺役割인 同時에 支柱인 通常武器体系의 自給生産体制를 確固히 해나갔으며 核武器·미사일兵器分野도 独自的 能力으로 開発保有하여 오늘의 水準에 올려 놓았으며 바야흐로 美·蘇의 核戦略能力에 重大한 挑戦을 벌리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中共의 世界戦略概念은 곧 「強大国戦略」으로서의 作用할 만큼의 意識賦与가 可能해진 것이다.

勿論 「中共의 戦略」이라 할 때는 그것은「毛沢東戦略理論」이며 毛沢東의 戦略思想으로 看做하게 된다. 毛沢東戦略思想의 主軸은 게릴라戦理論이요, 持久戦思想이며 한마디로 「人民戦争戦略」이다. 또 軍事思想으로서 特記할 것은 軍隊는 毛沢東의 実践思想으로 武装될 것을 가장 重要한 建軍事業으로 看取하는 일이다. 即 人民戦争戦略思想은 所謂「唯武器論」을 副次的인 것으로 보는 한편 個個人民을 「武器」로 看做하는 것인데 이 境遇 「人民」은 毛沢東流의 革命政治思想 即「精神戦力」의 確固한 武装力으로 「武装」되어야 한다는 것이 毛沢東戦略思想의 精髄이다.

그런데 韓国戦争을 体験하고 西方軍隊의 優勢한 武器体系 및 物量主義優先의 戦争遂行方式에서 重大한 試練을 겪게 되었으며 大体로 50年代 末期까지는 蘇聯軍制·軍事教理를 모방하여 軍近代化를 꾀하려 했고 이 課業을 해내려고 애쓴 사람이 바로 彭徳懐国防長官(林彪의 前任者)이 었다. 가령 彭이 58年 2月 23日의 蘇聯建軍40周年記念大会(於北京)에서 行한 演説은 這間의 中共의 建軍政策方向을 理解하는데 좋은 보기가 된다.
即 『蘇聯軍은 모든 社会主義諸国軍隊의 模範이다. 中国共産党과 毛沢東同志는 中国의 条件下에서 蘇聯이 赤軍을 建設한 経験을 正確히 運用하여 蘇聯軍을 模範하여 中国人民解放軍을 建設했다. 蘇聯에 学習하고 배운다는 것은 中国共産党과 人民解放軍이 오랜동안 堅持해온 不変의 方針이다』라고 演説했다. 이와같은 中共의 当時状況은 「戦略概念」에 있어서도 中·蘇協力的 意味에서 自然히 蘇聯의 그것과 同一類型일 수 밖에 없었음을 말해주기도 한다.

配置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人工衛星은 이미 発射成功한 바 있으며, 其他 中距離弾導(IRBM)미사일 및 大陸間弾導弾(ICBM)도 開発保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現代 世界戦略上의 寵児인 核·미사일武器의 世界 第3位가는 戦略能力을 背景삼아 그 海軍力도 潜水艦과 小型戦闘艦을 主軸으로한 数量面에서의 世界 第3位를 차지하고 있다. 또 近海戦闘用의 小型戦闘艇을 数百隻이나 保有하고 있으며 그중에는 미사일 発射用小型快速戦闘艦도 가지고 있다. 특히 40隻 以上이나 되는 中共의 潜水艦戦力은 黄海·東支那海·南支那海·韓国海峡(韓·日間)東海(日本海)등에 걸쳐서 通常海軍戦略能力으로서는 蘇聯의 極東艦隊에 다음가는 存在인 것이다.

어떻든 中共의 核戦略이나 海軍戦略이 모두 「防衛的」스타일인 것은 틀림없지만 中共은 核戦略能力保有의 国家的 水準의 反対給付로서 世界政治的 発言権 増大와 특히 아시아政治에 있어서의 影響力行使의 諸般与件을 広範囲하게 構築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世界社会主義革命路線을 抛棄한 것은 決코 아니지만 核武器·미사일兵器革命이 빚어낸 現代戦略上의 現実的 要請을 充足시키는 일이 世界戦略遂行의 急先務이기 때문에 中共도 이데올로기의 鈍化現象·世界政治秩序의 多極化体制를 正直하게 받아 들이면서 対美関係改善·対日関係의 正常化에 突入한 것이다. 때문에 中共의 世界戦略은 앞에서도 暫間 言及한 바와 같이 美·蘇 其他 強大国群의 世界戦略概念과 大同小異한 方向定立을 하고 있다.

即 世界政治秩序의 現状維持·緊張緩和·長期的 軍事安定 그리고 強大国間의 勢力均衡등등이다. 中共의 이같은 戦略概念은 具体的으로 70年代의 韓半島 状況設定에도 至大한 影響要素로 投影·作用하게 되리라는 것을 非常한 関心으로 注目하게 되는 것이다.

라. 日本의 軍備政策과 世界戦略

日本은 아직 世界戦略的 環境条件으로는 美·日安保体制로 結集되어 있고 美国의 「核雨傘」下에 있기 때문에 日本의 軍備政策이나 戦略目標가

하는데 도움이 된다.

지금 日本은 76年에 끝날 第4次 防衛力整備計劃期間에 있다. 이 計劃期間에는 4兆6千3百億円(日貨)의 資金이 投入될 수 있도록 確定되었다. 이로써 많은 陳痛을 겪은 다음 所謂 主導装備의 「国産化」方針이 劃定計劃으로 決定된 셈이다. 既往의 이른바 「専守防衛」戦略概念으로 부터 進一歩하여 비록 「守勢戦略」概念을 標榜하고는 있지만 「積極的 前進防禦戦略概念」을 重点的으로 強調하는 戦略態勢整備에 突入했다. 한가지 4次防計劃実践의 特徴을 指摘한다면 軍備増強의 上限点을 明示하지 않고 있으며 第4次防은「第5次防衛力整備計劃」으로 延長直結되는 長期計劃임을 公言하고 있는 点이다.

아무튼 「防衛構想」의 基底로서는 『美国과의 安保体制를 堅持하면서… 核의 威脅에 대하여는 美国의 核抑止力에 依存한다』는 点을 明示하는 한편 軍備의 스타일은 어디까지나 通常武器·戦力의 増大를 통한 「局地制限戦争」에 相応한 建軍政策을 実施한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日本은 現在는 美·日安保体制에 依託하고 있고 戦略的 環境의 現実的 要請때문에 所謂 「非核3原則」을 固守하는 政策態度를 堅持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経済国力을 底力으로한 美国과의 協力·軍事科学技術의 開発能力水準을 勘案할 때 将次는 軍事大国 即 核大国으로 発展할 수 있는 素地가 充分히 마련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4次防衛計劃期間을 통한 軍備政策의 重点的 方向은 陸戦装備의 機動化·空軍装備의 国産化·周辺海域防衛의 能力強化를 위해 焦点을 모우고 있다. 때문에 第4次防計劃의 終結年間이 되면 日本은 名実 共히 非核国家로서의 軍事大国의 面貌를 갖추게 될 公算이 크다. 経済大国의 튼튼한 基盤위에 構築되는 軍事大国은 必然的으로 「政治大国」으로 役割해야 할 機能이 保障되는 것이다. 自古로 独自的인 経済底力에 바탕을 둔 軍事大国의 政治的 役割은 周辺国際秩序의 戦略的 環境을 造成하고 条件賦与하는 것인데 70年代 後半期에 접어들면 日本은 아시아의 勢力版図再編成過程에서 重大

데올로기 対決의 尖兵으로서 南北関係는 性格지워졌고 協力的 共存秩序 및 緊張緩和時代에는 이에 알맞게끔 南北韓関係의 状況設定이 他律的으로 条件賦与되고 있다.

南北赤十字会談이 進行되고 72年의 7·4共同声明으로 決定的 南北対話의 歷史的 序章을 펴게 되었거니와 이것도 事実을 따진다면 国際的 環境変化의 단적인 副産物로 看做되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南北이 共히 世界戦略的 環境変化에 現実適応하려는 位置意識의 発露이다. 南北対話의 具現이 国際政治的 環境変化의 所産이라면 韓半島 周辺強大国의 対韓半島政策態度의 共通分母는 곧 韓半島事態 即 南北韓関係의 環境変化에 直接的으로 投影되는 結果事項인 것이다. 따라서 「協力的 平和共存」은 南北韓 異質的 体制間의 「協力·共存」을 促求하는 意味이며 「現状維持」策이 強調되는 것은 分断韓国의 「現状凍結」이며 「두개의 韓国」을 暫定的이나마 韓半島에 定着시킨다는 뜻이다. 韓半島에서 뿐만아니라 世界戦略上의 理由때문에 緊張緩和가 必要하고 特히 韓半島에서 緊張緩和를 図謀具現하기 위하여는 그동안 「両極化現象」을 持続해온 軍事的 競争状態를 止揚하고 南北対話의 発展的 持続이 緊要함을 強調하게 되었다. 이는 逆으로 南北間의 体制共存을 歓迎하는 事端이라고 말할 수 있다. 南北韓間의 長期的 軍事安定策이 具現될 것을 要請하고 있으며 南北이 하루 빨리 「互恵的」安保概念을 確立할 것을 列強은 慫慂하고 있고 韓半島를 둘러싼 列強国의 「勢力均衡」策도 南北間의 「互恵協力的 利益概念」으로 南北의 基本関係가 定立될 것을 바라는 것이 韓半島의 戦略的 環境与件이다.

위와 같은 戦略的 環境変化에 能動的으로 現実適応하기 위하여 韓国은 果敢히 外交政策路線 転換을 実現한 것이 「6.23宣言」으로 나타난 것이다.

6.23宣言은 上記한 바와같이 韓半島周辺情勢의 客観的 動向을 勘案하고 韓半島問題解決의 韓国的 自主努力을 証明한 契機일뿐 아니라 가장 現実的이고도 柔軟한 接近方法으로 民族的 至上課業인 窮極的 平和統一 念願을

며 同時에 生存과 繁栄과 安定을 保障해야 할 責任과 義務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以上은 모두 韓国的 安全保障政策上의 当面課題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国家安保는 政治·経済·軍事·外交上의 諸般施策이 総体的으로 均衡있게 動員·投入되는 国家的 総力事業이라 할 수 있고 때문에 사람들은 普通「総力安保」라는 말을 쓰게 되는 理由이다.

그런데 国家安全保障은 몇가지의 独特한 類型的 特色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自主独立型」이다. 이것은 「強大国型」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強大国型 安保는 名実共히 「独自的 能力」으로 安保事業을 完遂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強大国型安保는 그것이 一国的인 것에 끝나지 않고 群小友邦들의 安保概念·安保態勢·戦略概念까지도 決定해 주는 威力을 갖는 것이 特色이다.

다음은 「依存的 従属型」이다. 大部分의 群小国들이 이에 属한다. 一名 強大国型에 相対的인 意味의 「弱小国型」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 型은 集団防衛体制에 의한 自体安保를 保全하는 것이 普通이다. 말하자면 政治的으로나 経済·軍事的으로나 強大国에의 「依存型」이다. 따라서 挙皆의 境遇는 強大国의 安保観·戦略観念등등에 自国의 安保政策概念 및 戦略概念이 吸収되고 従属依存的인 役割을 하게 마련이다. 거기에는 勿論 「集団防衛」라는 国際政治的 共同名分이 뒤따른다. 正直하게 본다면 這間의 韓国的 安保類型도 이 「依存的 従属型」에 属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安保類型은 그 時代에 주어진 世界戦略的 環境与件을 가장 現実的으로 받아들이므로서 生存을 保障받을 수 있는 安保類型이라는 点도 잊어서는 안된다.

以上을 留意하면서 韓国安保의 当面政策課題들을 集約해 보겠다.

첫째 政治的 意味의 安保対策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南北韓体制共存의 具体的인 政治軌道를 敷設해야 한다. 勿論 6.23宣言은 이미 韓半島内에서 그리고 国際社会에서 南北韓의 暫定的 政権共存이 将次의 平和的 統一

되는 戦略概念의 定立은 自動的으로 韓国의 建軍政策·兵力水準·武器体系·軍費豫算面의 「韓国的 実情」에 副応한 態勢整備를 促進해 주는 基本作業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外交政策·外交活動上의 安保政策課題인데 이 分野에 있어서는 韓半島問題와 가장 関聯이 깊은 美国·蘇聯·中共·日本等 四大強国의 韓半島安全保障에 대한 共同責任·共同努力을 集中할 수 있는 集団安保形式의 与件造成을 最大限으로 試図하고 推進하는 일이겠다.

結論的으로 볼때 将次 韓国的 安保政策의 要諦는 軍事的 側面·軍事的 方法보다는 経済的·外交的 能力水準을 増進 保養하는데 重点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再三 強調하지 않을 수 없다.

第4章 第三의 国際経済原理와 韓国経済

1. 国際経済激動의 序曲

가. 国際経済는 単純한 世界経済는 아니다. 世界経済는 地球上에 있는 各国과 人類의 経済를 있는그대로 平面的으로 観察하며 比較하는 表現이다. 있는그대로 平面的이고 静態的으로 把握하려는 世界経済와는 달리 国際経済는 한나라経済와 딴나라経済와의 交流 및 協力関係를 中心으로 各国民経済의 発展과 緊密한 関聯性을 가진 与件으로 分析, 検討하려는 表現이다. 따라서 国際経済란 어휘가 成立되기 위해서는 于先 各国民経済의 存在가 앞서야 하는 것이며 政治的으로 民族国家의 形成이 実現되어 있어야 한다.

各国民経済의 交流와 相互間의 影響과 協力関係의 過程에서 国際経済의 存在는 뚜렷해지는 것이다. 이와같은 国際経済는 20世紀에 들어와서 明白하게 그 位置를 確保함에 이르렀고 第2次世界大戦이후에 더욱 큰 意義와 注目을 끌게 되었던 것이다. 다시말해서 独立国家間의 経済交流는 各国国民経済가 成長과 拡大를 거듭하고 成熟段階에 到達한 20世紀以来로

1934年까지 $ 10 =純金 137 1/7 grain, 金1온스当 20.67弗

34年 1月 40.96 %切下, 온스当 35弗

71年12月 7.89 %切下, 온스当 38弗

73年 2月, 10 % 切下, 온스当 42.22弗

o 英파운드의 対美弗換率 切下

1931年

49年 — 30.5 % (£1 : $ 2.3)

67年 — 14.3 % (£1 : $ 2.4)

71年 — (切上) 8.57 % (£1 : $ 2.6)

73年 2月 - 変動換率制 採択

o 仏프랑의 対美弗換率切下

1936年 — 25.2 ~ 34.4 %

45年 — 139.99 % ($ 1 : Fr. 119.1)

48年 — 79.99 % ($ 1 : Fr. 214.4)

48年 — 23.1 ~ 162.8 % ($1 : Fr.264~313)

49年 — 11.8 ~ 32.6 % ($ 1 : Fr. 350)

57年 — 20.0 % ($ 1 : Fr. 420)

58年 — 17.55 % ($ 1 : Fr. 493.7)

60年 — 名目切下 ($ 1 : Fr. 4,937)

69年 — 12.5 % ($ 1 : Fr. 5,554)

71年 — (切上) 8.57 % ($ 1 : Fr. 5,116)

73年 — (切上) 11.1 % ($ 1 : Fr. 4,604)

o 独마르크의 通貨改革後의 対美換率

1948年 ($ 1 : DM 3.33)

49年 — 27.3 %切下(〃 : 〃 4.20)

61年 — 4.8 %切下(〃 : 〃 4.00)

69年 — 8.5 %切下(〃 : 〃 3.66)

金 및 外換의 不足을 달러不足의 時代라고 表現한다. 表2의 1～2를 통털어 볼때 1950年 当時 美国을 除外한 先進諸国들의 外換不足의 苦悶이 얼마나 먼 것인가를 짐작하고 남음이 있다. 1960年에 이르러서 主要9個国의 貨幣用金 및 外換保有高는 激増하였다. 1948年에 始作된 美国의 마아샬計劃에 의한 対外援助에 힘입어서 西欧各国과 日本들은 戦災復旧에 注力할 수 있었고 同時에 美国民間資本이 多国籍企業을 標榜하여 欧·日 各国에 生産施設投資를 強化한 結果 主要国은 生産力, 輸出力을 増強하게 되었다. 그 結果로 9個国은 過去의 美国輸出市場을 占有함과 同時에 美国으로부터의 輸入財貨는 急激히 国産化로 代替함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모든 結果로 <表2>와 같은 外換保有高의 分布構成의 年代別変化가 露出된 것이었다.

欧·日 各国의 달러不足은 1957～8年에는 오히려 달러不安으로 転換된다. 美国의 金保有의 激減이 달러価値에 不安을 招来하였다는 뜻이다. 그뒤 1970年에는 달러危機로 展開하였다. 諸外国의 保有하는 달러를 金과 兌換해 줄 것을 要求하는데 대해서 美国의 金保有高는 100億弗程度밖에 남은것이 없었으며 反対로 美国의 対外負債는 800億弗内外로 増大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달러危機는 71年 8月 金兌換停止로 나타났다. 그 뒤 全世界的인 国際通貨価値의 調整이 12月 18日에 断行되었으며 달러波動과 쇽크를 불러일으킴에 이르렀다. 60年代를 前後하여 拡大된 各国 国際収支의 激変은 国際経済를 激動시키는 序曲이 되었고 바야흐로 70年代를 마지하여 国際経済의 激変은 加熱化되고 表面化됨에 이르렀던 것이다.

라. 各国의 平価와 換率의 切上·切下·調整은 貿易戦争의 決算表였다. 貿易戦争은 또한 各国의 国民経済戦争의 露出이었다. 다시말해서 오늘날 強勢通貨로 登場하고 있는 마르크 및 日円은 西独 및 日本経済가 技術革新, 生産性向上을 거듭함으로서 이룩한 코스트·다운밑에 黒字輸出国으로 邁進한 結果的 産物임에 틀림없었고 金兌換停止下에 弱勢通貨로 反転한 달러

国들이 保有하는 밑에서는 어느陣営도 窮極的인 勝利란 있을 수 없는 것이었다.

둘째로 勝敗를 가리기 힘든 核武器保有時代의 停戦敦는 그 瞬間서부터 武力干渉이 不可能한 国際的인 経済戦争의 本格化를 導出시켰다. 大量殺肉手段인 核武器의 登場이 오히려 軍事力을 中性化시키고 経済力間의 戦争과 내셔널인터레스트의 強調로 飛火되고 있다. 国際政治가 多元化되고 勢力均衡을 쌓아 올림에 즈음하여 世界列強은 利己主義探究에 熱中하고 있는 것이다. 5強은 그들 나름으로 国利民福増大의 길에 餘念이 없다. 先進国들간에는 東·西対立엔 이미 関心이 없고 오히려 西方資本主義主要国들은 東欧·中共市場의 争奪戦에 没頭하게된 것이었다. 또한 核武器밑에서 軍事力이 中性化되자 資源을 保有하는 弱小国家들은 世界独占資本力까지도 겁내지 않고서 資源民族主義를 強調함에 이르러 있는 것이다.

세째로 資本主義와 社会主義를 莫論하고 各 国民経済의 本質이 変化하고 있음이 눈에 뜨인다. 于先 資本主義経済体制가 根本特性中의 하나인 価格機能 및 市場機構를 喪失하고 있음이 問題인 것이다. 現在 資本主義主要国은 慢性的인 인플레션으로 苦悶하고 있다. 그 인플레션은 美国을 비롯하여 스태그플레션을 特徴으로 하고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動向밑에서 世界各国은 反인플레션闘争에 心血을 기울이고 있다. 通貨安定을 위한 財政·金融政策을 基本으로 해서 価格·労賃의 凍結, 保護貿易法의 登場, 自国資源의 輸出禁止등 多角政策을 펴고 있는 중이다. 世界인플레션은 好景気때에는 需要인플레만 不景気때에도 失業保険·社会保険(疾病과 学校), 強大한 労動組織, 勤労者의 高労賃水準등의 社会構造밑에서 失業者들이 転職과 賃金切下에 쓸리지않고 오히려 失業者까지가 加担하는 労賃코스트引上인플레션(스태그플레션)으로 展開되고 있는 것이다. 分明히 現代의 資本主義는 変質하고 있는 것이며 単純한 好況이냐 아니면 不況이냐의 딜레머에 있는것이 아니라 不況下에서도 인플레션이라는 트리레머와 나아가서는 푸루레머的인 性格을 露出시키고 있다. 그러기에 各国은 反인

変現象이다. 世界 곳곳을 하나의 市場으로 掌握하고 있는 多国籍大企業들은 50年代以来로 急速히 膨脹하였다. 이제 그들 経済力은 웬만한 国家와는 比較가 안될만큼 巨大化해가고 있다.

美海外開発委員会 特別顧問 레스터 브라운 씨의 新著 <国境없는 世界>는 이 多国籍 大企業들의 生成·汎世界的인 経済·政治社会的 影響 및 그 展望등을 鋭利하게 分析하고 있다. 그의 調査한바에 따르면 1970年度에 있어서 世界各国의 年間総国民生産(GNP)과 이 多国籍大企業들의 年間 総販売高를 한데 묶어 1百位까지 順位를 매겨볼 때 其中 59個는 国家의 GNP가 차지하는 것이었고 제네럴모터스, 스탠다드오일 등 大企業들이 41個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国籍과 이데올로기 를 超越한 資本行態는 利潤萬能의 思考方式 밑에서 汎国民的인 交易風土를 培養하고 있다. 利潤万能을 排撃하는 福祉国家에서는 学校·病院·失業등 모든것을 保障하는 体制를 세웠으나 国民들은 나태해지고 또 所得再分配의 税制下에서 向上能力과 積極性은 去勢되고 있는 것이다.

여섯째로 資源戦争의 熾烈化가 第3世界의 原理를 새로이 創造하고 있다. 資源戦争의 出現은 따지고 보면 長期·構造的인 原因과 短期 循環的인 原因과의 復合物이라고 할수 있다. 長期·構造的인 原因을 한마디로 表現하면 「地上은 爆発的이고 地下는 枯渇되고」의 過程에서 露出된 것이다.

爆発的인 것은 人口와 開発과 消費이다. 農耕이 始作되던 1萬年前 2-3百万名(黄·白·黒色 包含)밖에 없었던 地球上의 人口는 西紀1年 275百萬名, 1650年 465百萬名, 1850年 10億, 1970年 35億名으로 膨脹하였고 2001年에는 70億名으로 豫測되며 地球定員이 超過(資源 및 生産能力基準)될 것이라는 展望이다. 그리고 2690年엔 地表는 人口로 完全히 덮여 버린다는 豫測이다.

経済開発의 爆発化는 技術革新과 量産体制下에서 促進되고 있다. 열손가락으로 大地를 우비던 時代의 牧歌와 浪漫은 이미 地球上에서는 찾을 수

⑦ 多国籍企業의 発展

⑧ 通貨戦争, 貿易戦争, 経済戦争

사. 以上과 같은 새로운 与件과 継続 남아있는 与件들을 土台로 하여 世界各国은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追求에 餘念이 없다. 어느나라를 莫論하고 国民経済의 成長은 投資量의 크기에 의해서 決定될 것이다.

그런데 第3世界의 原理下에서는 企業投資의 決定要因自体에 急激한 変化가 記録되고 있는 것이다. 決定要因에 急激한 変化가 나타난 根本原因은 否定的産業의 登場에 있다. 즉 公害와 汚染, 資源欠乏, 反産業的 国民感情등의 条件밑에서는 어떠한 企業投資도 促進되기 어려운 것이 오늘의 与件인 것이다.

어제까지 企業投資를 決定하는 要因은 첫째 市場確保와 拡大可能性, 둘째 技術革新과 生産性向上으로 原価節減의 可能性, 세째로 資金調達의 可能性을 中心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즉 投資誘因과 投資調達可能性이 中心要因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今日의 投資決定의 要因은 第3世界의 原理下에서 첫째 資源確保의 可能性, 둘째 公害·汚染解決의 可能性, 세째로 投資誘因의 存在와 資金調達의 可能性등으로 変質하고 있다.

아. 世界経済의 新与件, 国際経済의 激変등 第3世界의 原理下에서 韓国経済가 高度成長, 80年代의 青写真을 具現化시킬 수 있는 活路는 어떠한 길이어야 할 것인가. 于先 世界속에서의 韓国의 位置와 特性을 比較 優位性為主를 살펴봄이 必要할 것이다.

① 地球上의 位置는 極東·温帯地方, 東西接境에 있는것이 特徴이다.

② 地勢 및 資源面에서는 国土의 78%가 山岳地帯이며 資源은 欠乏하며, 있다고 해도 博物館의 標本程度로 적다.

③ 人口 및 教育水準은 高密度, 教育普及, 勤勉, 打算的 進取性을 特徴으로 한다.

④ 所得水準은 이미 中進国

⑤ 貿易依存度는 72年現在 輸出GNP의 22.6%, 輸入 29.0%로 都合

끝으로 第3世界의 原理下에서 旧体制의 苦悶解消와 新体制의 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韓国経済가 되어야 한다. 앞서 이미 言及하였지만 国際経済情勢가 激変하고 있는 昨今의 潮流와 難題들은 어느나라이든 1国만의 単独努力으론 解決되기 힘들 것이다. 韓国経済自体도 바로 이와같은 与件위에서 活路를 打開해야 한다. 우리는 国内인플레션安定, 労賃安定, 技術革新, 生産性向上에 邁進하면서 国際인플레와 貿易不均衡을 解消시키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同時에 多国籍企業과의 緊密한 連結을 맺으면서 資金·資源·技術·市場등 80年代의 目標達成上에서 要求되는 課題들은 보다 큰 힘으로 解決지어야 한다.

V. 北　　韓　　實　　情

第 1 章　政　　治
第 2 章　経　　済
第 3 章　社　　会
第 4 章　教　　育
第 5 章　外交 및 軍事
第 6 章　北韓의 脆弱点

第 1 章　政　　治

1. 憲法의 基礎와 特徵

가. 憲法의 基礎

自由選挙를 거치지 않고 北韓에서 蘇聯 占領軍의 철저한 支援下에 政権을 樹立한 共産義者들은 그들의 支配地域을 「民主基地」라고 불러왔다

이와 같은 北韓의 「民主基地」路線은 世界 第2次大戰後 国土가 分断되고 蘇聯의 勢力圈안에 들어간 地域에서 実施된 共産化 占領政策과 密接한 関聯을 갖는 것이다.

独逸에서와 같이, 蘇聯의 対北韓 政策은 이 地域에 共産政権을 確立하고 나아가 南韓에 대한 勢力圈 拡大의 戰略的 基地로 活用하려는 것이었다.

金日成에 의하면 『民主基地의 強化는 祖国統一의 決定的 担保이다. 民主基地 強化에 対한 口号는 우리 祖国이 統一될 때까지 継続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 共産党의 理論家들은 이에 관하여 『民主基地路線은 美帝를 反対하는 革命闘争에서 北半部를 政治·経済·文化·軍事的으로 또는 思想的으로 強力한 反帝国主義의 力量으로 転換시키며 統一独立을 争取할 수 있는 決定的 力量으로 強化하는 路線』이라고 敷衍하였다.

이것은 南韓을 赤化하기 위하여 北韓에 戰略的 基地를 建設하겠다는 뜻으로 解釈되는데 이 「民主基地」路線은 이미 1945年 10月 「朝鮮共産党北朝鮮分局」創設当時 共産主義的인 南北統一政府樹立을 目標로 確定된 4大当面課業의 第8項에서 決定된 것이라고 北韓은 主張하고 있다.

北韓의 憲法은 바로 이러한 「民主基地」路線에 立脚한 「人民民主主義的国家形態」를 밝힌 것이며 解放後『北朝鮮에서 이미 達成한 諸般 民主改革

위에서 본 바와 같이 「北韓憲法」은 「民主基地」路線을 標榜하여 共産主義 独裁体制인 「人民政権」을 確立한 것과 아울러 「民主基地」의 創設強化를 위한 共産改革을 그 基礎로 함으로써 그들의 政権을 合法化하는 手段으로 되어 온 것이다.

나. 新憲法의 特徵

「北韓 新憲法」은 全文 11章 149条로서 第1章「政治」, 第2章「経済」, 第3章「文化」, 第4章「公民의 基本権利와 義務」, 第5章「最高人民会議」, 第6章「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主席」, 第7章「中央人民委員会」, 第8章「政務院」, 第9章「地方人民会議 人民委員会 및 行政委員会」, 第10章「裁判所 및 検察所」, 第11章「国章 国旗 및 首都」等으로 되어 있다.

「北韓 憲法」의 特徵은 그들의 政体를 「社会主義国家」로 確実히 規定시킨 憲法이며 革命性格을 띤 憲法인 것이다.

또한 形式的이나마 規定되어 있던 三権分立制度는 新憲法에서는 퇴색되었고 모든 権力은 金日成에게 集中한 名実相符한 独裁的인 憲法이다.

新憲法에서 規定한 権力構造의 形態는 中共의 権力構造形態에 基礎를 두고 있음이 分明하다.

따라서 이번에 만들어진 北韓의 新憲法의 主要内容을 알아보면 「国号」問題에 있어서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国」이라는 것을 그대로 使用하고 있으나 「自主的인 社会主義 国家」라고 添加함으로써 政体를 「社会主義国家」로 規定하고 있으며(11条) 主権의 所在와 階級의 規定에 있어서 主権은 「労動者, 農民, 兵士, 勤労인테리」에게 있다고 規定함으로써 北韓内 階級은 唯一한 労動階級밖에 없음을 規定하였으며, 다만 階層은 労動者, 農民, 兵士, 勤労인테리로 限定 規定하고 있다(7条).

그리고 統一問題에서는 5条와 14条에 「平和統一」의 表現은 있으나 2条·3条·4条·11条의 条項으로 보아 全国的 範囲의 共産革命을 指向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서 「全体朝鮮人民」이라든가 「全国的範囲」라는 表現을 함으로써 同 憲法이 미치는 効力을 全 韓半島에 두고 있음은 分明하다.

그리고 新憲法에 規定된 主席制度는 金日成을 三権의 上位에서의 超然한 指導者로 位置하게끔 하려는 것이며 公式的인 最高 権力機関으로서의 「中央人民委員会」의 新設은 党·内閣·最高人民会議間의 紐帯性을 強調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人民委員会의 新設은 各級党의 重要幹部들을 人民委員会 委員으로 網羅시킴으로써 党이 些少한 行政執行까지 監視 監督함으로써 惹起되는 党과 行政機関과의 隠然한 磨擦을 解消시키고 모든 事業을 集体的이고 効果的이며 能率的으로 遂行할 수 있다는 名分下의 措置이며 이를 契機로 党은 모든 分野에서 調整 監督을 하며 住民의 思想教養에 置重하게끔 하려는 것이다.

2. 政治制度

가. 党

憲法上으로는 北韓의 最高主権機関은 「最高人民会議」(第73条)이며 그것은 立法機関으로서 最高権力을 行使하도록 規定하고 있으나 実際로는 労動党의 諸般 決定이나 意思를 事後 承認하고 鞏固히 宣伝하는데 그치고 있고 모든 実権은 法規의 最終解釈者이며 政策의 決定者이자 그 執行의 監督者인 労動党이 掌握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北韓의 最高 立法機関은 事実上 労動党인 것이다.

레닌은 『人民을 効果的으로 支配하고 領導하기 위해서는 단련된 共産主義者가 必要하며 이러한 集団이 党이다. 萬一 党이 消滅한다면 프롤레타리아 独裁体制는 存在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여 共産党의 優越的 地位를 認定하였으며 1936年에 制定한 스탈린憲法은 共産党이 모든 勤労者들의 諸公共団体와 国家機関의 指導的 核心을 形成하는 勤労者의 前衛組織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政治委員会는 政策을 樹立 決定하는 最高機関으로 그 構成員은 正委員 11名, 候補委員 5名, 都合 16名으로 되어 있으며 (4次大会時 26名) 執行部署로서 막강한 政治権力을 行使하고 있는 秘書局은 모두 11名으로 構成되어 있다.

秘書局은 66年 10月 党代表者会에서 設置된 機構로서 政治委員会에서 決定된 政策을 党 및 社会団体機構를 통해 執行하는 곳으로서 党의 路線과 政策決定들을 執行하기 위한 事業과 日常的인 党事業의 組織등을 주로 担当하고 있다.

또한 党의 下部組織으로는 道·市·直轄市·区域·郡党 및 初級党이 있어 中央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命令 指示에 따라 그들의 任務를 遂行하여 나나가고 있다.

北韓의 権力構造는 制度上으로는 最高人民会議가 形式上 政務院을 組織하고 中央裁判所의 判事들을 選挙하고 中央検察所의 所長을 任命하므로써 最高主権機関으로 三権分立制를 排除하고 立法府인 最高人民会議가 行政 司法府까지 統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労動党領導下에 三権이 党中央機関에 集中되어 있으며 内外政策의 全般이 이의 頂上部를 構成하는 金日成과 그를 둘러싼 극소수의 核心勢力에 의하여 左右되는 労動党 一党내지 金日成 1人의 独裁政治制度로 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北韓의 政治制度는 金日成의 偶像化 및 1人独裁의 옹호와 権力機能全般에 労動党의 支配権 및 優位性을 確立 保存하는데 目的이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어느 共産国家 마찬가지로 北韓에서도 党은 超憲法的인 機構이며 밀로반·질라스 가 말한 것처럼 「党은 即 国家」로 되어 있는 것이다.

나. 最高人民会議

北韓에서 소위 最高人民会議가 労動党의 政策을 合法化시키기 위한 一種의 挙手機的 機関이라는 것은 이미 世上에 널리 알려진 일이다.

만일 任期中 熱誠分子라는 信任에서 「人民의 敵」으로 規定되면 이른바 選挙民들의 召喚(党의 召喚)에 의해 代議員職을 剝奪당하고 除去된다.

最高人民会議는 다른 共産国家의 그것처럼 年2回(6個月에 1回) 定期会議가 召集되며 2일내지 4일간의 本会議 期間에 参席만하면 그 任務를 다하는 것이므로 代議員職은 事実上 実権이 없는 名誉職이나 다를 바 없다.

最高人民会議는 定期会議와 臨時会議로 召集되는데 臨時会議는 아직 한번도 召集된 일이 없었다.

最高人民会議는 그 組織에 있어서 本会議와 議長団 議長 1명(黃壯燁) 副議長2명(홍기문, 許貞淑)이 있고, 常設分科委員会로서는 豫算審議委員会(위원수 7명 委員長 吳泰鳳) 法案審議委員会(위원수 7명, 위원장 尹基福) 代議員資格審査委員会(위원수 7명, 委員長 金東奎)가 있다.

最高人民会議 権限은 ① 憲法 및 法令을 採択 또는 修正하고 ② 内外政策의 基本原則 樹立, ③ 主席의 選挙, ④ 主席의 提議에 의해 副主席 中央人民委員会 書記長 委員들의 選挙 및 召喚, ⑤ 最高人民会議·常設会議 議員들의 選挙 및 召喚, ⑥ 主席 提議에 의한 政務院 総理의 선거 및 召喚, ⑦ 主席 提議에 의한 国防委員会 副委員長의 選挙 및 召喚, ⑧ 中央裁判所長의 選挙 및 소환 그리고 中央検察所 所長의 任命 및 解任, ⑨ 人民経済 発展計劃의 承認, ⑩ 豫算 承認, ⑪ 戰爭과 平和에 대한 問題를 決定한다.

従前에 最高人民会議 常任委員会는 지난72年12月25日 最高人民会議 第5期1次会議 때에 権力構造 改編에 따라 最高人民会의 常設会議로 바뀌었다.

常設会議는 最高人民会議의 常務機関으로서 議長1명(議長과 副議長은 最高人民会議 議長 副議長이 兼職), 副議長 2名, 事務長1名(全昌哲), 議員들로 構成되어 있다(議員数 16명).

常設会議의 任務와 権限은 『① 最高人民会社 休会中에 提起된 法案을

(96条) ④ 外国使臣의 接受(97条)등의 権限을 가지고 있다.

(2) 中央人民委員会 新設

中央人民委員会는 「国家」主権의 最高 指導機関으로서 「主席」이 直接指導 掌握하게 되어 있다.

이 「中央人民委員会」는 最高人民会議 一部 機能 그리고 内閣의 一部機能을 떼어 統合 管掌하게 된 機関으로서 北韓에 있어서의 最高権力機関이다.

中央人民委員会는 25名으로서 「主席」1名, 「副主席」2名, 書記長1名, 委員21名 등으로 構成되어 있으며 그 任期는 4年이다.

또한 中央人民委員会의 任務와 権限은 『① 対内外 政策의 樹立, ② 政務院과 地方人民会議 및 人民委員会事業의 指導, ③ 司法·検察機関의 事業指導, ④ 国防 및 政治 保衛事業指導, ⑤ 憲法, 最高人民会議 法令, 主席命令, 中央人民委員会 政令·決定·指示·執行·政令의 監督, 그와 어긋나는 「国家」機関의 決定·指示의 廃棄, ⑥ 政務院의 部門別 執行機関인 部의 新設 및 廃止, ⑦ 総理 提議에 의한 副総理·各 部長·그 밖의 政務院 成員들의 任命 및 解任, ⑧ 大使와 公使의 任命 및 召還 ⑨ 重要軍事幹部의 任命 및 解任 그리고 将領·군사 称呼의 授与, ⑩ 勲章·名誉称呼·군사称呼 및 外交職級의 制定 및 名誉称呼의 授与, ⑪ 大赦, ⑫ 行政区域의 新設 및 改編, ⑬ 有事時의 戦時状態와 動員令의 宣布』等이다.

또한 中央人民委員会는 対内政策委員会·対外政策委員会·国防委員会·司法安全委員会 등의 部門別위원회를 두고 있다.

(3) 政務院

금번 採択된 北韓의 新憲法에서는 全内閣을 政務院으로 改称하고 各 部署를 大幅的으로 統合 縮少하고 行政執行 機能과 必要한 実行対策을 세우는데 任務를 縮少 限定 시켰다.

그리고 政務 및 責任者로 総理를 두어 業務를 総括케 하였으며 종래의 内閣地位보다 한 段階 낮게 規定시켰다.

으로서의 必須的 要件이 되기 때문이다.

共産主義 社会에서의 裁判所는 形式的인 間接選挙에 의해 構成되고 党과 그 政権의 利益과 存立을 保障하는 御用機関임을 알 수가 있다.

裁判所는 一般裁判所로서 中央裁判所, 道·直轄市裁判所, 人民裁判所 및 特別裁判所가 있다. 中央裁判所의 判事는 最高 人民委員会議에서 任期 4年으로 選挙되며, 道·直轄市 裁判所 判事는 道·直轄市人民会議에서 任期4年으로 市·区域 郡人民裁判所 判事는 市·区域·郡 人民会議에서 任期2年으로 選出된다. 選出된 判事는 任期 前이라도 形式上 이를 選出한 機関의 決定 및 裁判所의 判決에 의해 解任될 수 있으나 実際로는 党의 批判과 措置로서 決定된다.

判事 任命의 例外는 特別裁判所의 所長과 判事인 바 이들은 中央裁判所 所長이 任命 및 解任하는 節次를 取하고 있다.

人民参審員의 選挙는 労動者·農民·事務員의 職場会議나 都市와 農村의 住民総会議 推薦으로 各級 人民会議에서 選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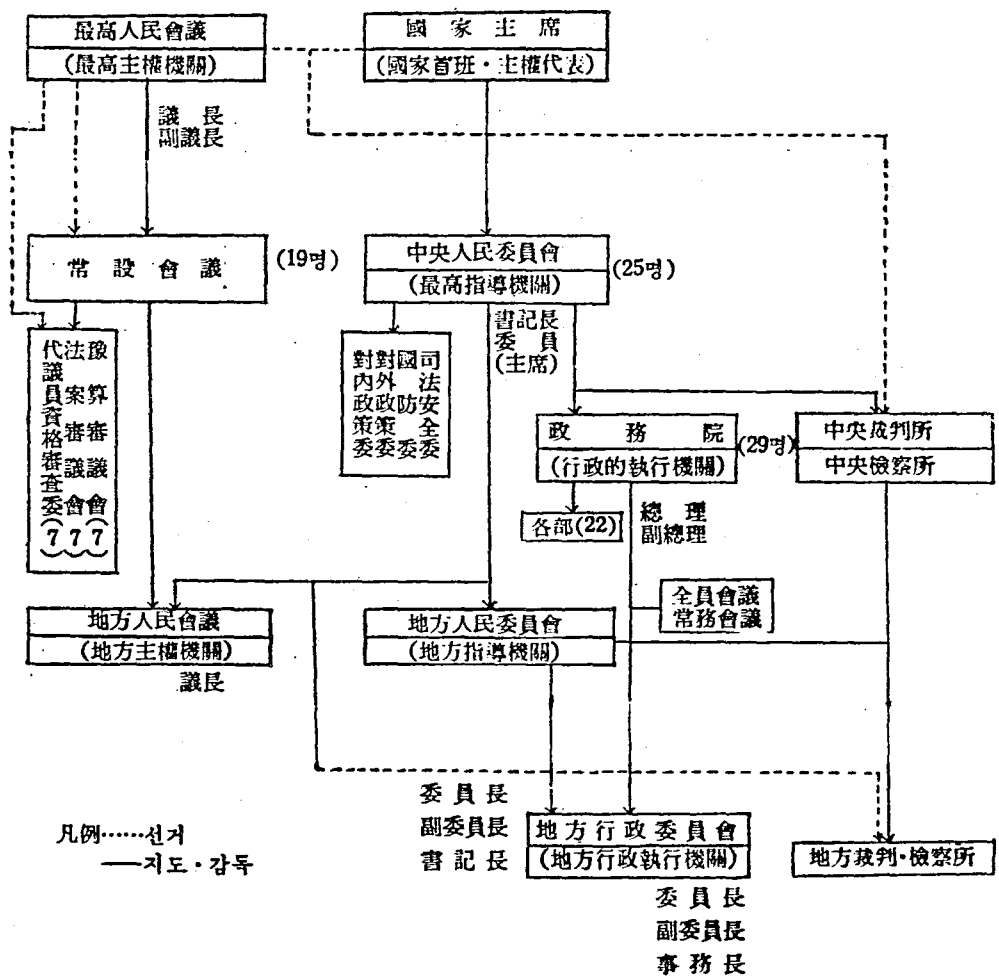
裁判은 判事1名과 人民参審員2名으로 構成된 裁判所가 하며 特別한 경우에는 判事3名으로 構成하여 할 수 있고(137条) 裁判은 公開하나 法이 정한데 따라 裁判을 公開치 않을 수도 있다(138).

中央検察所長은 最高人民会議가 任命하며(76条) 特히 道·直轄市·市·区域·郡検察所 検事는 中央検察所 所長이 任命한다(145条).

그리고 検察所의 任務는 『① 「国家」機関 企業所·社会協同団体 및 公民들이 法을 正確히 지키는 가를 監視하고 ② 「国家」機関의 決定 指示가 憲法, 最高人民会議 法令, 主席命令, 中央人民委員会 政令·決定·指示, 最高人民会議 常設会議 決定에 政務院의 決定, 指示에 어긋나지 않는가를 監視하고 ③ 犯罪者와 法違反者를 摘発하여 法的 責任을 追窮하므로써 労動者 農民의 主権과 社会主義制度를 온갖 侵害로부터 保衛하며 「国家」·社会協同団体 財産과 人民의 憲法的 権利 및 生命財産을 保護한다』고 되어 있다.

検察所의 機構로서 裁判監視部와 豫審監視部 以外에 一般監視部와 特別監視部 및 通運監視部가 있다.

現權力體系図


最高人民會議
(最高主權機關)
國家主席
(國家首班·主權代表)
議長
副議長
常設會議
(19명)
中央人民委員會
(最高指導機關)
(25명)
書記長
委員
(主席)
代議員資格審查委(7)
法案審議會(7)
預算審議會(7)
對內政策委
對外政策委
國防委
司法委
政務院
(行政的執行機關)
(29명)
中央裁判所
中央檢察所
各部(22)
總理
副總理
全員會議
常務會議
地方人民會議
(地方主權機關)
議長
地方人民委員會
(地方指導機關)
委員長
副委員長
書記長
地方行政委員會
(地方行政執行機關)
委員長
副委員長
事務長
地方裁判·檢察所
凡例……선거
——지도·감독

便宜上 国内派 粛清을 北韓의 共産主義者 粛清과 南労党系의 粛清으로 区分한다.

(가) 国内派粛清과 玄俊赫의 暗殺

玄俊赫은 인텔리 共産主義者로 北韓 共産主義者의 首領格이었다. 그는 解放後 「朝鮮共産党」平壌地区 責任者였으며 民族指導者인 曺晩植 先生밑에서 平南人民政治委員会 副委員長으로 있었다.

그는 朝鮮共産党의 首領인 朴憲永과 연계를 맺고 土着 民族主義勢力과의 聯合에 의한 「부르죠아 民主主義革命」을 主張한 者로서 그의 人望과 影響力은 대단했다.

이 같은 玄俊赫의 勢力拡大는 金日成一派에 큰 危険이 되었으며 蘇聯占領軍도 그의 存在를 北韓의 소비에트化에 대한 障碍로 보지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玄俊赫은 1946年 9月 曺晩植先生과 같이 蘇聯占領軍 司令官에게 呼出되었다가 돌아오는 길에 暗殺당하고 말았다.

이러한 玄의 暗殺을 金日成一派는 右翼테러에 의한 것이라고 宣伝했으나 事実은 金日成의 追従者인 張時雨一派가 暗殺한 것이다.

비록 그의 強敵이었던 玄이 殺害는 되었으나 그에 追従하던 敵手들이 健在하고 있었으므로 이들 역시 차례로 粛清당하고 말았다.

金日成이 北韓의 土着的 共産主義者들을 粛清한 口実은 그들이 서울을 朝鮮共産党의 中央으로 보고 平壌에는 朝鮮共産党의 分局設置를 主張함으로써 宗派主義와 個人 英雄主義에 흘렀다는 것이다.

(나) 南労党系 粛清

朴憲永이 首領이던 朝鮮共産党은 1946年 11月 南韓에서 人民党 新民党등과 合党하여 「南朝鮮労動党」으로 発足하여 1949年 6月 北労党과 合党하여 「朝鮮労動党」이 되었다.

朴憲永一派는 越北하여 6.25때까지 南韓의 民族 民主陣営에 対抗하였다. 6.25敗戦으로 金日成과 朴憲永間의 一時的인 協助関係는 깨지고 朴憲永

그러나 金日成은 1950年 12月 労動党中央委 第2次 全員会議에서 第1段階敗戦의 責任을 武亭에게 転嫁시켰다。

그는 後退時 人民軍将兵들을 不法銃殺했고 平壌防衛司令官으로 있을 때 最高司令官인 金日成의 命令에 不服했다는 것이다。

武亭이 中共軍을 韓国戦争에 介入시킨 功労는 姑捨하고 中共軍이 入北하기도 前에 그는 罷免되어 人民軍罪人部隊에 編入되어 모란봉 地下劇場 作業에 強制動員되고 있던중 1951年 여름에 処刑되었다는 説이 있다。

(나) 延安派의 大規模 粛清

朴一禹와 方虎山은 延安派의 重鎮으로 北韓에 들어와서 内務相職과 軍団長職을 歴任한 者들로서 金日成에게는 깊이 服従하지 않았으나 南労党系와는 親密하게 지냈다。 金日成은 朴을 粛清할 機会를 노리고 있다가 中共軍司令官 彭徳懐등의 庇護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1954年 5月 宗派分子 公金横領등의 罪目으로 이들을 粛清하였다。

또한 金日成의 독주와 専制에 反感을 품고 있던 延安派는 1956年 6月 金日成의 蘇聯 및 東欧諸国訪問期間을 反金運動의 絶好의 機会로 삼았다。

反金運動이 일어나게 된 것은 蘇聯共産党 第20次 大会에서의 스탈린格下運動 및 平和共存路線에 刺戟된 結果였다。

反金運動의 主謀者는 金科奉(当時 最高人民会議 常任委員長)崔昌益(副首相)尹公欽(商業相)徐輝(職盟委員長)張平山(4軍団長)과 許가이의 粛清에 不満을 품은 蘇聯派 朴昌玉(副首相) 駐蘇大使 李相朝(延安派)도 合勢하여 모든 工作을 進行하던중 1956年 8月 29日 金日成은 東欧諸国 巡訪報告를 위해 党中央会 全員会議를 召集하였다。 이 会議에서 金日成은 約1時間동안 報告演説을 하고 討論에 들어갔는데 이때 尹公欽이 登壇하여 미리 準備된 演説文을 朗読했다。

尹은 金日成의 東유럽旅行結果에 관한 討論보다 国内情勢로 보아 더 緊迫한 問題에 관해서 討論하려 한다고 前提하고 「独裁主義때문에 一般人民은 中世紀의 奴隷와 같이 되어있고 無原則한 重工業 優先政策으로 軽工業

처럼 極度의 緊張感을 造成하면서 軍事優先政策을 밀고 나갔던 것이다.

그 結果 7個年計劃의 重大한 蹉跌이 생기고 民生苦가 激甚해 지자 이들은 戰爭準備를 위해 北韓住民을 더욱 抑圧하고 수탈했다.

쿠바事態(62年)로 絶頂에 達한 中·蘇 理念紛爭에서 北韓은 中共을 支持함으로써 蘇聯으로부터의 軍事的 經濟的 支援이 断絶되고 国際的으로도 거의 孤立化되었다.

經濟的 蹉跌과 外交的 딜렘마에 빠진 北韓은 66年 10月 党代表者会에서 両派間의 政策的 対立에 의한 一時的인 妥協点을 찾아 經濟建設과 軍事力強化 및 地下党 推進의 併行論을 펴게 되었다.

여태까지 金日成은 經濟建設計劃을 언제나 期限内에 目標보다 超過達成했다고 宣伝해오던 터이므로 7個年計劃의 境遇도 61～65年까지는 例外가 아니었으나 66年에 와서는 統計発表를 中断하고 党代表者会에서 金日成과 金一은 7個年計劃을 3年間 延長한다고 発表했다.

그들의 이 같은 発表는 이때까지의 通計数字가 虚偽이고 經濟計劃은 失敗였음을 스스로 暴露한 셈인데 金一이 同 計劃의 失敗를 実吐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 理由는 從前처럼 虚偽統計를 発表하는 것으로 넘겨버릴 수 없는 程度로 生産이 沈滯되었고 또한 党僚派가 軍部派의 독주를 막기 위하여 사실을 発表토록 強要했을 것이라는 点을 들수 있다.

하여간 軍部라는 党僚派의 主張을 받아들여 經濟建設의 失敗를 自認하는 한편 軍事優先政策도 合理化하기 위해 軍事와 經濟의 並進論을 標榜했던 것이다.

金日成은 戰爭을 하면 반드시 勝利하고 經濟建設을 指導하면 반드시 超過達成하며 農村에 가서 現地指導를 하면 두倍나 增産할 수 있다고 스스로 宣伝하던 주제에 7個年計劃의 失敗를 公表한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金日成은 7個年計劃을 失敗케 한 軍部派보다 그 失敗의 公表를 主張한 党僚派의 忠誠을 疑心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한 朴金喆 李孝淳이

期 1次会議를 통해 從前의 權力構造를 大幅 改編하여 金日成一人体制를 한층 強化시켰다.

나. 金日成 偶像化 政策

北韓은 金日成을 偶像化하여 이를 神聖不可侵의 太陽과 같은 存在로 만들므로서 北韓 住民을 그의 思想과 政策에 盲從케 하고 있다.

解放後 蘇聯占領軍의 등에 업혀온 33歲의 金成柱를 金日成이라고 改称하여 그를「絶世의 愛国者」로 扮裝시킴으로써 그에 대한 偶像化政策은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当時 北韓 住民들은 民族革命運動의 指導者로 崇仰되어 온 진짜 金日成의 이름을 濫用한 그를 믿으려 하지 않았으며 더우기 6.25南侵戰爭을 敢行함에 이르러서는 그의 反民族的 정체를 看破하고 積極的인 反金日成運動을 展開하였다.

金日成은 자기의 侵略野慾에 의한 잘못을 部下들에게 責任을 転嫁시키고 中共軍의 長期駐屯의 그늘 밑에서 그를 批判하는 政敵들을 肅清하고 점차적으로 独裁基盤을 構築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金日成은 자기를 神格化하는 方便으로 党을 앞세운 權威를 強調하는데 置重하는 手法을 使用했으나 별다른 効果를 걷우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보다 徹底한 教育을 통한 偶像化政策을 敢行토록 하여 金日成에 대한 갖가지 捏造된 史実을 脚本化하는데 狂奔하였는 바 첫째, 金日成의 家庭을 革命의 血統을 継承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그의 祖上들을 英雄化한 것이다.

金日成의 祖父인 김보현이 「셔만」호 사건때 民衆의 先頭에 서서 指揮했다고 하기도 하고, 그의 父親 김형직이 3.1運動을 指揮하였고, 1917年 3月「朝鮮国民会」를 組織한 不撓不屈의 闘士라고 自称했으며, 그의 母親 강반석은 金日成을 革命家로 養育한 「朝鮮의 어머니」라고 하면서 『강반석 여사를 따라 배우라』는 口号아래 전체 여성을 督励하는 한편 이러한 家風을 先祖때부터 이어 받아 온 金日成이므로 世紀的인 英雄이며 革命闘

強要하고 있다.

金日成에 대한 偶像化가 이렇게 非現実的 段階에 접어들자 北韓은 金日成이 出生했다는 平壤 만경대와 北韓 奥地帯의 数十個処에 만들어 놓은 事実無根한 抗日 戦蹟碑·記念館·革命博物館 등을 聖域으로 가꾸어 内外人事들을 探訪参拝시키는가 하면 金日成의 祖父母를 위시하여 組織的으로 偶像化시켜 놓은 基礎위에서 이른바 金日成의 「革命家庭学習」운동을 大大的으로 展開토록 強要하는데 注力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人民学校부터 大学에 이르기까지 各級 学校에는 「金日成思想研究」라는 教養必須 科目을 넣어 놓고 이 学科에서 成績이 미달된자는 가차없이 停学 또는 退学시킴으로써 金日成에 대한 研究를 強化토록 하며 都市와 農村, 学校와 工場등 모든 機関에 所謂「革命歴史研究室」이란 것을 마련하여 捏造된 金日成의 各種 伝記를 学習토록 制度化해 놓았다.

이와 같은 金日成 偶像化는 70年 11월 労動党 제5次大会를 通해 그 節頂에 달했던 것이며 지난 72年 12월25일 最高人民会議5기 1次 会議時의 権力構造改編에서 그를 한층 더 神格化해 놓았으며 「金日成의 이름을 떠나서는 繁栄된 未来도 행복도 없다」는 北韓당국의 狂信的·思考方式이 이를 잘 뒷받침해 주고 있다.

第2章 経　　済

共産社会에서 経済問題를 重要視하는 것은 周知의 事実이다. 金日成도 解放이 되자 蘇聯勢力을 背景으로 삼아 経済分野에서부터 社会主義化하기에 서둘렀다.

1946년3월5일에 「土地改革」을 発表하여 土地를 無償没収하여 無償分配함으로써 政治的으로 農村社会에서 地主를 逐出·破産시켜 그의 影響力을 除去하고 그자리에 共産党의 政治基盤을 構築하는 한편 経済的으로는 封建的인 小作制度를 打破하고 小生産者的인 農業을 将次 集団化·企業化하기

党의 意思에 따라 共同努力에 의한 共同分配의 原則으로 経済活動과 社会生活을 하게 한다는 것.

둘째로 北韓経済(生産量·品種·価格·労動力의 需給·信用制度·分配등)는 中央 計劃機構에서 樹立한 生産計劃과 指示에 따라 運営 및 分配된다는 것.

北韓経済의 所有形態는 「国有」, 協同組合 所有의 두가지가 있다. 이것은 北韓뿐만 아니라 蘇聯과 中共, 그리고 東欧 共産諸国에서도 共通的 現象이다.

「国有」部門으로서는 地下資源을 비롯한 天然資源·銀行·鉄道·航空·農場(国営)·重要商業·山林·河川등이 있고 協同組合 所有部門으로서는 協同農場·商工業에 있어서의 一部 小規模의 生産協同組合 및 消費協同組合이 있다.

協同農場(協農)은 처음에 農民이 가지고 들어간 農土에 대한 分配率(総生産額의 20% 以内)을 認定한 所謂 半社会主義的 形態도 併行했으나 現在에는 農土와 農機具·牧畜을 모두 協同農場의 所有로 帰属시키고, 協同農場에 加入한 農民은 다만 努力에 의해서 分配를 받는 社会主義的 形態로 運営하고 있다.

生産協同組合은 漸次 수효가 줄고 있는데 주로 手工業에 局限되고 있다. 消費協同組合은 주로 日用品 商業에 局限되고 있었으나 現在는 「国営」商業에 거의 吸収되었다.

私有部門은 経済의 基本形態로서는 廃止되었으나 農家周囲의 菜田(約30~50坪)을 所有権없는 耕作権만을 認定하여 알곡을 除外한 菜蔬재배를 個人이 할 수 있다.

나. 計劃経済

北韓은 第一의 「人民経済計劃」을 作成하는 体制이므로 計劃機構는 超中央集権的으로 되어 있다.

一切의 経済資源과 用役 市場経済 体制가 아니며 計劃機構에 의해서 分配되며 調整되고 있다.

<計劃作成의 節次>

労動党 中央委員会가 決定한 「基本経済政策」을 内閣에 指令하면 内閣의

나. 自立経済

北韓이 6·25를 통하여 모든 것이 잿더미로 化한 것을 復旧하기 위하여 3個年計劃(1954～1956)을 実施하였으나 이 때는 蘇·中共으로부터의 援助에 全的으로 依存하여 進行하였다. 그 후 5個年計劃(1957～1961)부터는 共産国家들로 부터의 援助를 크게 期待할 수 없다고 予測하여 이 때부터 自力에 의한 経済建設을 強調하기 始作하였다. 1962年의 쿠바危機時에 蘇聯이 取한 政策에 대하여 北韓은 蘇聯이 그의 世界政策을 즉 平和共存 政策을 展開하기 위하여서는 한 社会主義 国家의 死活的 利害関係까지도 無視할 수 있다는 危懼感을 갖게 되어 中共과 密着하게 되자 蘇聯은 이미 約束한 援助를 政治的 圧力手段으로 利用하려 했으므로 自立経済의 要求는 切実하여졌다. 쿠바事件 및 越南拡戰과 관련하여 北韓은 「国防에 있어서의 自衛」를 들고 나왔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自立経済가 더욱 必要하다는 見解를 가졌다. 1966年10月의 北韓労動党代表者 会議에서는 『社会主義 経済建設에서 또한 重要한 問題는 経済的 自立性을 強化하는 것이다. 自力更生의 原則에서 自立的 経済를 建設하는 것은 우리党의 一貫된 路線이다. 特히…社会主義陣営 内部에서 復雜한 問題들이 提起되고 있는 現情勢는 우리에게 自立的 経済土台를 더욱더 強化할 것을 要求하고 있다』고 強調하기에 이르렀다.

1970年에 들어와서는 蘇聯이나 中共으로부터 経済援助가 中断되었기 때문에 北韓은 自立経済란 名目下에 住民들에게 倍前의 労動을 強要하고 있다.

다. 重工業優先政策

北韓은 처음부터 重工業発展 그 중에서도 機械製作 工業発展에 크게 注力해 왔다. 1948年에 「民主基地」路線을 確定해 놓고 1個年計劃의 基本課業으로서 「특히 機械器具와 機械附属品의 生産을 増加」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그 다음의 1949～50年사이의 2個年計劃의 基本課業으로서도

면서 이와 併行하여 国防建設을 더욱 強力히 進行해야 한다』고 말했고 또한 『오늘 우리의 革命闘争과 建設事業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造成된 情勢의 要求에 맞게 社会主義建設의 全般的 事業을 改編하며……国防力을 더욱 強化할 수 있도록 経済建設과 国防建設을 併進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

経済発展과 軍事力 強化의 併進政策은 事実上 軍事力의 集中的 強化政策을 意味하는 것인데 이때에 北韓은 4大軍事路線을 내놓았던 것이다. 前記 党代表者 会議에서 金一(第1 副首相)은 『우리는 軍需工場들을 잘 꾸리고 軍需工業을 더욱 発展시켜 人民軍隊의 技術装備를 強化하며 全体人民을 武装시키는데 必要한 武器와 各種 軍事技術 機材들을 완만히 生産保障하여야 하며 全国을 要塞化하기 위한 防禦工事를 大大的으로 進行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軍需工業과 防禦工事에 더 많은 努力과 資材·資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그는 『但 有事時에는 重工業 製品·消費品·農産物을 끊임없이 生産할 수 있도록 経済를 編成하여야 한다. 特히 経済的 利益과 国防上 利益을 合理的으로 結合시키며 모든 地方을 均衡的으로 発展시키는 原則에서 大規模 企業所와 中小企業所들의 発展을 配合하며 生産力의 地理的 配置를 잘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民需産業의 軍需産業化, 平和産業의 戦時産業 体制로의 転換을 意味하는 것이며 動力資源, 鉱工業施設의 地方分散과 戦時的 配置를 가장 重要한 経済政策으로 提示한 것이다.

이 政策은 그대로 強行되었다. 7個年 計劃期間에 北韓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生産部門에 87億원을 投資한데 反하여 軍事建設費는 80億원이나 投資하였다. 1970年11月 労動党 第5次 大会에서 金一은 『北韓은 軍需工業 発展에 큰 힘을 넣은 결과 7個年計劃 期間에 軍需工業이 새로 創設됨으로써 必要한 여러가지 武器와 装備를 生産할 수 있게 되었다』고

所得만으로는 메꿀 수 없다。 全的으로 低賃金을 주고 強制的인 農産物 収買制를 통해 農民들로부터 収奪한 것으로 메꾸지 않을 수 없다』고 한 바와 같이 金日成도 協同農場員과 労動者에 대한 極限的인 収奪과 努力搾取뿐만 아니라 収入에 反比例하도록 높이 策定한 高物価, 그리고 徹底한 節約과 耐乏生活의 強要에서 資源을 찾고 있을 따름이다。

바。生産 競争運動 政策

資本主義的 営利活動이 排除되고 있는 共産諸国에서 生産者들의 物質的 関心을 전혀 無視하고서는 能動的 創意的 参与를 期待할 수 없고, 따라서 生産能率을 높일 수 없다。 그래서 北韓에서는 農民 労動者들이 自発的으로 그리고 積極的으로 生産에 参与하도록 強要하는 세가지 方法-千里馬運動·青山里方法 및 大安의 事業体系-이 있다。

金日成은 社会主義 経済体制를 性急하게 이룩하려고 血眼이 되었으나 対内的으로는 8月宗派를 粛清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対外的으로는 経済援助 求乞外交에서 失敗하게 되자 5個年計劃이 水泡로 돌아갈 運命에 부닥치게 되었다。 그래서 金日成은 集団的이고 組織的인 労動競争運動을 提起하게 되었고 이 運動으로 因하여 北韓住民이 어느만큼한 労動力을 強要당하고 犠牲当하였는가 하는 것은 説明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바다。

「千里馬運動」

이것은 蘇聯共産党이 1930年代에 展開한 「스타하노프」運動 또는 1950年代에 展開한 「까까노프」 運動을 모방한 것으로서 1958年부터 北韓에서 始作한 것이다。 이 뜻은 中国의 古代小説인 三国誌에 나오는 赤兎馬와 같이 하루 千里를 달리는 駿馬의 気勢로 労動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北韓 労動党의 操縦 아래 1959年에 가장 規模가 크고 技術者가 많은 降仙製鋼所를 択하여 이 工場内에서도 가장 模範的인 陳応元이 이끄는 作業班을 충동하여 「千里馬作業班」運動을 展開하게 한데서 由来한다。 作業班 単位의 責任아래 生産量에서 새로운 記録을 올리거나 成績

法을 講究해야 하며 모든 活動에서 政治事業을 先行시켜 一般的 指導와 個別的 指導를 結合하여 革命課業 遂行을 成果的으로 保障하는데 있다』고 主張하고 있다. 또한 新憲法 第12条에 이를 規定하고 있다.

「大安事業體系」

이것은 1961年12月에 金日成이가 江西面에 있는 北韓 屈指의 工場인 大安電気工場에 가서 現地指導한데서 命名된 運動이다. 青山里方法이 農民에게 벌인 運動이라면 大安事業体系는 労動者에게 벌인 運動이다.

이 大安事業体系의 内容은

① 従前의 個人的 事業指導에서 党委員会의 集体的인 指導로 転換할 것.

② 上部는 下部를 実質的으로 도와 줄 것

③ 労動者들의 自覚性과 創発力을 加一層 提高시킬 것.

④ 生産者 即 労動者들이 直接 企業管理에 参与할 것 等이다.

金日成은 이와 같이 千里馬運動·青山里方法 및 大安事業 体系등으로 北韓住民 全体를 労動이란 桎梏으로 휘몰아 쳐서 経済建設과 思想醇化에 拍車를 加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新憲法 第30条에 이를 規定하고 있다.

3. 経済現況

가. 重工業

北韓은 豊富한 天然資源의 土台위에서 重工業 第1義를 採択하였는데 動力工業과 金属工業을 中心으로 機械 및 兵器工業을 発展시켜 왔다.

(1) 鉱 業

北韓은 金·鉄·黒鉛·石炭의 4大鉱物 外에 重石·모나사이트·鉛銅·亜鉛을 多量 生産하며 現在 80余個의 鉱山이 있다. 鉱業을 金属機械工業에 先行시키려는 政策에 따라 이 部門에 力点을 두어 왔고 鉱物을 輸出하므로써 外貨 獲得에도 重要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協同農場과 平均730余町歩로 된 181個의 「国営農牧場」에 의해 適用되고 있다.

北韓의 農業政策은 党 第5次 大会에서도 強調한 바와 같이 4化運動 即 農業의 機械化·水利化·化学化 및 電気化를 指向하고 있으나, 軍備強化에 밀리어 遅遅不振이며 農業의 成長率은 年平均 3.2%밖에 되지 못하고 있다. 1970年度의 알곡(米·麦등 五穀과 豆類·감자류를 包含) 生産의 目標量은 600~700万톤이었으나 이것도 500万톤밖에 生産하지 못하였다.

4. 対外貿易

가. 序 論

解放後 国土의 分断과 더불어 地下資源의 自然的恵沢과 日帝가 남기고 간 重化学工業의 施設들이 거의 北韓에 偏重되었기 때문에 南韓에 比하여 北韓은 金属工業의 92.7%, 化学工業의 85.7%, 電力出量에 있어서는 86%라는 工業의 絶対優位性을 保有하게 되어 「北의 工業」 「南의 農業」이라는 跛行的 経済構造로 韓半島는 変하게 되었다. <表-1参照>

<表-1> 南北韓工業額 및 発展比率(1945年)

(単位:%)

	金属工業	機械器具工業	化学工業	紡織工業	食料品工業	瓦斯工業	電力出力比	其他製造業	総額
南韓	7.3	69.4	14.3	76.8	60.7	29.7	14	63.9	40.6
北韓	92.7	30.6	85.7	23.2	39.3	70.3	86	36.1	59.4

北韓은 이러한 工業条件의 優位를 解放 및 分断과 더불어 물려받고 蘇聯軍駐屯下에서 1946年에는 「無償没収, 無償分配」의 土地改革을 断行했으며, 58年에는 「産業国有化令」을 公布하여 同年 8月을 期해 工場 및 企業을 国有化하여 社会主義経済形態로 完全히 転換하게 되었다.

北韓은 動乱後 3個年計劃期間동안 戦後復旧를 위하여 莫大한 資本財의 導入과 財源確保策의 一環으로 貿易拡大를 促進시켰으나 侵略者로 烙印찍힌 当時의 国際的状況下에서 自由主義国家와의 去来는 엄두도 낼 수 없었고 유고슬라비아를 除外한 共産圈 市場만을 相対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1930年代 当時의 이른바 資本主義国家群에 依하여 「包囲」된 時節에 蘇聯이 不得已 取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一国 社会主義」를 標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自給自足」原則의 重工業先導型閉鎖経済의 長期的持続으로 因하여 国際比較生産費가 無視되고 附加価値가 軽視된채 「質보다 量」 為主의 低質의 粗悪製品을 生産함으로 말미암아 莫大한 資源의 浪費가 発生되고 있다.

또한 動乱時의 戦死者들과 数100万名에 達하는 越南者들로 因한 労動力의 不足과, 資本 및 技術의 低水準을 카바하기 為해 「샛벌보기運動」「허리 안펴기運動」等의 強制労動과, 経済的刺戟보다 精神的刺戟을 通한 스탈린式 官僚的命令体制로 転換시켜 物量的 生産에 迫車를 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中央集権的管理体系下에서는 個人이나 企業単位의 自発的 創意性과 自主性이 制限되므로 製品種類의 多様化를 期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因하여 極히 限定된 品種만이 国際市場商品으로서 流通性을 지닐 수 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南北会談以後 北韓의 対外貿易은, 그들의 経済的 実利追求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政治的인 国際的 地位向上을 위한 手段으로서 自由世界와의 交易을 더욱 拡大시킬 公算이 크기 때문에 海外市場에 있어서의 南北韓間의 競合은 商品販売面에서 뿐만 아니라 資本去来面에 있어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70年度 北韓의 輸出入商品 構造를 보면, 다음<表-2,3>과 같이 原料別製品 및 非食用原材料의 輸出이 全輸出額中 69.5%나 占하고 있다.

追求나 上部機関의 下部機関에 対한 権限의 委譲은 全然 찾아볼 수 없는데, 이처럼 共産諸国中에서도 가장 原始的이고 蘇聯이나 東欧에 比해 훨씬 教条主義的인 中央集権的 管理体制를 取하고 있는 実情이다.

따라서 利潤의 概念이나 自由競争市場価格은 勿論 찾아볼 수 없으며 国内価格은 国際価格과 完全히 分離되어 있기 때문에 輸出入価格은 国際価格에 依存하게 된다.

(2) 自給自足型

1966年 10月에 発表된 北韓労動党 10大政綱에서 『重要한 問題는 経済的自立을 強化하는 것이며 自力更生의 原則에서 自主的経済를 建設하는 것은 우리党의 一貫된 路線이다』라고 밝혔듯이 社会主義建設에 必要不可欠한 物資만을 輸入하는데 貿易의 目的이 있기 때문에 輸出은 어디까지나 輸入에 必要한 資金을 調達하기 위한 手段에 不過하며, 따라서 輸入을 위한 하나의 補完的 性格을 띠고 있다.

一般的으로 社会主義諸国의 貿易収支에서도 거의 같은 傾向을 찾아볼 수 있지만 北韓의 貿易은 大体로 輸出入의 均衡을 維持하고 있으며 1960年代의 輸出依存度는 約10%, 1969年의 輸入依存度는 13%로서 同年度의 GNP에 対한 輸出入依存度는 23.8%로 나타나고 있어 貿易의 役割은 国内経済에 従属하는 特徴을 보여주고 있다. <表-4参照>

그러나 北韓의 貿易総額은 1946年度에 約1億1千万弗에서 毎年増加를 보여 1970年度에는 輸出이 3億余弗, 輸入이 3億7千萬余弗로서 総規模 約6億9千万弗에 達하고 있으며 1960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1970年까지 10年동안 輸出의 増加는 約2倍, 輸入의 増加는 約2.2倍로 나타나고 있어 1960年代의 韓国의 輸出伸長率 年間 40%에 比하면 極히 低調한 実情이다.

北韓은 貿易関係를 資本主義諸国家와 亜・阿新興諸国間의 去来機会를 縮少시켜 社会主義国家의 立場을 높이기 위한 国際共産主義의 利害関係라는 側面에서 貿易을 把握하려 하고 있다.

北韓은 그들과 体制가 全혀 다른 資本主義諸国과의 通商이나 経済的交流에 있어서 그들의 主権을 尊重한다는 것을 前提로 하여 그러한 交流関係가 発展되기를 希望하고 있으나, 이를 国際的分業優位의 生産費에 依한 経済的原理에서 追求하기 보다는 그들의 政治的 目的을 達成하려는데 더욱 큰 比重을 두고 있다.

1970年現在 北韓의 貿易対象国은 約60余個国에 達하며 그中 32個国과는 貿易協定을 締結하고 있다.

北韓의 貿易을 自由陣営, 共産圏, 中立国의 3個市場別로 나누어 그 貿易去来額構成을 보면 1969年의 境遇 共産圏去来가 全体의 74%로 首位를 占하며, 資本主義陣営은 24.6%, 其他地域은 1.6%를 占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5参照>

<表-5> 1969年 北韓의 地域別 貿易規模

(単位:美貨1,000달러)

地域別区分	輸出		輸入	
	金額	比率%	金額	比率%
合計	306,720	100.0	389,370	100.0
対共産圏(12個国)	219,490	71.5	286,420	74.0
蘇聯	125,290	40.8	199,540	51.2
中共	55,000	17.9	55,000	14.6
東欧, 其他	39,000	12.8	31,880	8.2
対自由陣営	71,785 (이中 金塊 16,960)	23.4 (5.5)	95,713	24.6
其他地域	15,445	5.1	7,287	1.6

한편 1970年度의 地域別 輸出入総額 6億8,900万弗中 共産圏諸国에 対한 輸出入総額은 5億7,690万弗로서 83.7%의 圧倒的 比重을 占하고 있고, 其

1970年度 北韓의 地域別 輸出入実績은 6億8,900万弗로서 그中 共産圈諸国과의 貿易総額이 5億7,690万弗로 北韓의 対外貿易全量中 83.7%라는 圧倒的 比重을 차지했었다.

同年度의 輸出総実績은 3億1,710万弗로서 그中 共産圈에 対한 輸出은 2億5,223萬弗로 全体輸出実績의 79.5%를 차지했었다.

輸入에 있어서는 総輸入実績 3億7,200萬弗中 共産圈으로부터의 輸入이 3億2,467万弗로 共産圈에 対한 輸出比重은 79.5%보다 7.8%나 더 많은 87.3%로서 共産圈去来에서 4,244万弗의 入超現象을 보였다.

1970年度 北韓의 国別輸出実績은 다음과 같다.

① 蘇 聯 — 45.1% (143,000 千弗)
② 中 共 — 15.8% (50,000 〃)
③ 日 本 — 10.9% (34,414 〃)
④ 東 独 — 4.6% (14,645 〃)
⑤ 西 独 — 4.0% (12,729 〃)
⑥ 체 코 — 3.8% (12,083 〃)
⑦ 쿠 바 — 3.0% (9,620 〃)
⑧ 루마니아 — 1.9% (6,000 〃)
⑨ 香 港 — 1.2% (3,900 〃)
⑩ 싱가폴 — 1.1% (3,576 〃)
⑪ 불가리아 — 1.1% (3,400 〃)
⑫ 항가리 — 1.0% (3,245 〃)

北韓의 総輸出中 1.0%以上을 차지하는 輸出対象国家는 蘇聯等 12個国이고 그中 日本, 西独, 香港, 싱가폴을 除外한 8個国이 共産圈에 属하는 国家이다.

蘇聯과 中共에 対한 輸出은 全体의 60%以上으로서 이들 両大国에 対한 輸出依存度가 매우 높다.

北韓의 対共産圈去来의 貿易逆調는 蘇聯, 루마니아等에서 볼 수 있으나 特히 蘇聯에 対한 貿易逆調는 8,700萬弗에 達하고 있어 1970年度의 貿易赤字는 対蘇貿易에 基因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北韓의 対共産圈諸国에 対한 輸出商品構造를 1970年度 輸出実績에서 考察하면 鉄鋼, 非鉄金属, 鉛, 重晶石等의 鉱物原料 및 金属이 全体의 39.3%로 首位를 占히고, 圧延鋼材가 26.4%로 2位, 세멘트, 크린카等의 建材가 20.1%로 3位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商品이 全体의 85%以上을 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①	燃料, 鉱物原料, 金属	39.32%
②	圧延鋼材	26.40%
③	建　　材	20.13%
④	消費物資	15.13%
⑤	食　　品	15.06%
⑥	機械 및 設備	5.33%
⑦	非食用植物, 動物性原料	2.99%
⑧	化学製品, 肥料, 生고무	1.70%
⑨	食品生産原料	0.36%

한편 対蘇輸入에 있어서는 역시 機械 및 施設材를 비롯한 資本財가 総輸入의 30.7%로 首位를 占하며 石油 및 그製品, 石炭, 코크스, 鉄合金, 圧延鋼等이 27.8%, 小麦 9.7%, 綿花, 紡絲, 紙類等 非食用植物 및 動物原料가 5.6%, 化学製品 및 타이어 3.8%, 消費物資가 3.3%, 雪糖, 食油等 食品 3.2%, 建材 0.1%의 順으로 되어 있다.

라. 北韓의 対自由陣営貿易

北韓의 貿易政策의 基調는 共産圏域内의 既存去来関係를 더욱 発展시키는데 主眼点을 두고 있는 것은 勿論이나 資本主義 先進工業国의 生産施設과 技術을 導入하여 工業의 基盤을 굳히는데도 커다란 力点을 두고 있다.

그러나 北韓은 比較生産費에 依한 優位商品의 交易만을 노리는 것이 아니고 日本을 비롯한 主要資本主義 西方国家와의 外交的接近을 通하여 美国의 世界政策을 牽制할 수 있는 「第2中間地帯」로도 利用하려 하고 있다.

特히 北韓은 1948年 南北分断以後 한번도 日本政府에 対한 公式声明을 発表하지 않다가 1955年 「外相」南日이 日本과의 貿易, 文化 및 其他関係 改善을 為한 路線変更을 発表한 以来 現在까지 어느 自由陣営国家보다도 対日接近을 가장 重要視하고 継続 日本과의 国交正常化를 哀願하다시피 하고 있는 것이다.

1954年까지는 主로 蘇聯과 中共을 為主로 한 貿易이었으나 1956年부터는 対象国이 유고슬라비아를 除外한 모든 共産国家와 一部 資本主義国家에 까지 拡大되었다.

1956年当時 日本과 北韓의 貿易은, 韓国動乱以後 日本이 韓国에 対해 取해온 配慮로 因하여 直接 去来는 禁止되어 있었다. 그래서 中国의 大連港을 通한 間接貿易만이 長崎国旗事件을 契機로 日·中貿易이 中断될때까지 継続되었다.

大連港経由貿易이 中断된 後에는 香港自由港 経由貿易이 1961年 日本의 対北韓直接貿易 禁止解除時까지 継続되었다.

西欧資本主義諸国과의 貿易去来는 日本보다 1年 늦게 始作되었는데 英国과 프랑스가 1957年에, 西独은 1958年에 各各 北韓貿易에 加担하게 되었다. 그러나 北韓과 資本主義 西方諸国間의 去来額은 1963年까지 極히 微微한 程度에 不過하여 西方側 統計에도 発表되지 않을 程度의 去来量이었다.

한편 対日関係를 보면 1962年까지의 初期貿易은 年間 輸出入을 合計해도 1,000萬弗을 超過하지 못하는 小額去来이던 것이 63年以後부터 늘어나기 始作하여 1968年까지의 北韓의 輸入総額이 6,530萬弗, 輸出은 1億 3,070萬弗에 이르러 1963-68年間의 北韓의 貿易収支는 6,545萬弗의 黒字를 示顕하게 되었다.

1968年의 境遇, 日本의 対共産圏貿易에 있어 北韓이 占하는 位置는 輸出面에서 中共, 蘇聯, 루마니아 다음가는 第4位로서 日本의 対共産圏貿易総額의 約3.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輸入面에 있어서도 蘇聯, 中共, 폴랜드에 다음가는 第4位로서 日本의 対共産圏輸入総額의 約4%를 占하고 있다.

北韓의 対日本 輸入 商品構造를 보면 <表-9>와 같다.

<表-9> 北韓의 対日本 輸出商品構造(1963-68)

(単位:美貨1,000$)

SITC 品名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累計 金額	累計 (%)
0. 식료품·산동물	-	-	-	0.6	-	0.5	149	0.2
1. 음료 및 연초	-	-	-	-	-	-	-	-
2. 원료(非연료)	7.8	0.6	1.1	3.2	1.2	9.3	2,840	4.4
3. 광물연료	-	0.6	-	-	1.3	0.7	311	0.5
4. 동물성및 식물성油脂	2.3	3.1	2.9	3.1	1.7	1.1	1,450	2.2
5. 化学品	24.9	17.8	17.6	23.3	19.9	17.9	12,392	19.0
6. 原料別製品	45.1	65.4	52.4	46.8	42.8	26.5	29,122	44.6
7. 기계류및 운반용기기류	17.5	9.0	23.3	14.6	17.0	35.6	15,014	23.0
8. 雑製品	2.1	2.2	2.4	7.4	8.2	7.0	3,112	4.8
9. 其他商品	-	0.2	-	0.6	7.9	1.3	829	1.3
合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65,276	100.0

北韓의 原料別製品 品目中 第一큰 輸出比重을 차지하는 것은 銑鉄로서 1963年의 対日輸出量은 89,000㌧이었으나, 1967年에는 214,000㌧으로 늘어났으며, 1968年에는 267,000㌧(1,210萬弗)을 日本에 輸出하였다.

그러나 1970年에는 53,000㌧으로 同品目의 輸出量이 減少되었다.

北韓이 日本을 包含한 資本主義先進諸国에 輸出하는 総額의 88%가 鉱物類 및 原料別製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現象은 長期間 持続的인 安定勢를 보이고 있다.

特히 西欧資本主義市場에 輸出되는 北韓商品의 主宗은 90%程度가 原料別製品으로 되어있으며 이 속에는 亜鉛, 白金, 銀, 銅, 鉛等도 包含되고 있는데 主로 西独, 和蘭, 英国에 많이 輸出되었다.

그다음 8%를 占하는 品目은 非食用原料材로서 生絲는 伊太利, 프랑스, 스위스에, 動物털은 벨기에, 룩셈불그, 伊太利에, 탕그스텐은 프랑스에 各各 輸出되었다.

北韓은 또한 西欧先進資本主義国家들로부터 約32%의 機械 및 施設材를 導入하고 있다.

蒸気汽罐 및 電動機類는 主로 西独에서 輸入하며, 加熱冷却用施設은 和蘭과 西独에서, 펌프 및 遠心分離機類는 和蘭에서 各各 輸入하고 있다. 船舶을 包含한 輸送施設은 和蘭과 아일랜드에서, 페스와 추럭은 프랑스에서 輸入하고 있다.

北韓의 対西欧交易과 対日交易의 패턴은 食料品을 除外하고는 같은 輸出入商品 構造를 보이고 있다.

北韓은 가끔 少量의 쌀을 蘇聯이나 其他 東欧共産国家에 輸出하고 그代身 原麦을 東欧共産圏이나 西方資本主義国家로부터 輸入하곤 한다.

1960 ~ 67年期間동안 北韓은 穀類를 約1億弗 輸入했는데 穀物의 主要輸入源은 濠州, 프랑스, 希臘으로 되어있다.

北韓의 輸出商品은 거의 非食用原材料와 原料別製品에 集中되어 있고, 輸

있어서 国内資源利用 優先政策에 依하여 生産코스트가 軽視내지 無視되어 왔기 때문에 北韓商品이 国際的 比較生産費에 立脚한 資本主義 商品과 世界市場에서 競争할 때는 덤핑輸出을 免치 못하였다.

特히 世界의 産業技術과 独立된 軍需産業為主의 落後施設 때문에 製品의 種類가 多様化되지 못하고 各種 産業間의 聯関関係도 均衡化되어 있지 못하여 코스트 및 生産性의 非能率性을 카바하기 위하여 労動者의 作業時間의 延長 내지 労動強度를 높이기 위한 所謂 千里馬運動等을 強行하여 왔기 때문에 原資材의 浪費, 労動의 浪費는 이루 말할 수 없을 程度이며 生産性提高나 高級技術品의 製品化도 이룩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国際情勢가 緊張緩和의 方向으로 흐름에 따라 共産圏諸国도 政治為主에서 経済的인 実利 追求에 보다 関心을 기울이게 되었으며 特히 南北対話에 依한 平和的 競争의 可能性이 擡頭되자 北韓도 韓国의 経済建設과 発展에 발맞추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진 것 같다.

韓国住民의 生活相이 漸次 北韓住民들에게 伝播됨에 따라 北韓은 그동안 軽視해온 国民消費生活面도 重視하지 않을 수 없게되었으며 産業패턴에 있어서도 重工業에서 軽工業으로의 転換이 不可避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軽工業으로 転換하게 되드라도 이에 所要되는 投資資本의 国内貯蓄은 軍備의 縮少나 또는 貿易輸出에 依해 調達될 可能性이 가장 크다.

貿易交流에 있어서의 売買는 世界市場価格을 基準으로 하여 決定됨으로 資本主義国家이거나 共産国家이거나를 莫論하고 有利한 商品이 各其의 輸出商品으로 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面에서 볼때 北韓의 産業近代化作業은 時急한 問題이며 資本의 導入 역시 가장큰 問題꺼리로 될 것이다.

北韓은 金이나 外貨의 保有準備水準이 極히 낮기 때문에 長期借款에 依存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또한 借款資金을 外貨로 辨済한다면 貿易을 増大할 수 밖에 없게 됨으로 窮極的으로는 国際市場의 自由競争原則을 認

活潑해짐에 따라 対象地域이 拡大되어 香港을 仲介地로한 東南亜 및 유럽과의 間接貿易이 始作되었으나 北韓과의 交易은 其他地域에 包含되어 그 去来量은 微微한 程度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民間貿易은 主로 보따리장사에 依해 이루어졌었다.

그러나 1948年 5月 14日 南韓의 単独政府樹立에 反対하여 全面断電措置를 取했으나 南韓은 政府樹立後 北韓에 対해 送電再開交涉을 벌리면서 事実上 中断되어온 南北交易을 11月부터 再開하는 措置를 取하였다.

南北交易再開의 첫 케이스로 当時 和信貿易(代表 朴興植)의 「桜島丸」이 広木 其他 物資를 積載하고 元山港으로 出航했다.

이 船舶이 北韓으로 떠난지 얼마 안되어 「反民特委」에서 朴興植을 親日派로 몰아 投獄하게 되자 北韓은 이 事件을 悪藉하여 反動의 財産이라고 貨物을 모두 抑留하고 乗務員만 이듬해 봄에 돌려 보내게 됨으로써 南北間의 짧은 交易史는 오늘날까지 再開되지 못하고 있다.

1970年度基準 南北韓의 地域別 貿易規模比較는 다음 〈表-12〉와 같다.

北韓의 70年度 輸出総額은 3億1,700萬弗이며 韓国은 10億弗로서 北韓에 比해 3.17倍나 높은 것이다. 한편 同年의 輸入総額은 北韓이 3億7,200萬弗, 韓国은 19億8,400萬弗로서 北韓에 比해 5.1倍에 達하는 量이다. 輸出入総量面에서는 北韓은 南韓의 20.4%에 지나지 않으며, 共産圏을 除外한 対自由陣営 貿易은 1億2,200萬弗에 不過한바 이는 韓国의 貿易総額 29億8,970萬弗에 比하면 不過 4%밖에 안되는 것이다.

1969年度의 自由陣営에 対한 南北韓 貿易構造를 살펴보면 〈表-12〉와 같은데 韓国은 雑製品(39%), 原料別製品(27.9%), 非食用原料(11.7%) 食料品 및 담배(10.5%), 機械類(8.5%)의 順으로 軽工業製品 為主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反하여, 北韓은 原料別製品(48.6%), 非食用原料(39.2%), 食料品 및 담배(7.8%)로서 商品別로는 重工業製品 내지 工

〈表－13〉　対自由陣営　南北韓　貿易構造比較(1969年)

(単位：美貨 1,000 $)

S·I T C 品　名		輸出				輸入			
		韓国		北韓		韓国		北韓	
		額	比重%	額	比重%	額	比重%	額	比重%
	総計	622,516	100.0	54,825	100.0	1,823.612	100.0	95,713	100.0
0~1	生動物，식료품，음료 및 연초	65,128	10.5	4,252	7.8	303,384	16.6	13,139	13.7
2	非食用原材料(광물성연료외)	73,042	11.7	21,490	39.2	332,383	18.2	6,445	6.7
3	광물성연료및윤활유및동유사품	4,837	0.8	825	1.5	110,881	6.1	43	-
4	동물성및식물성油脂	68	-	-	-	12,313	0.7	189	0.0
5	化学品	9,754	1.6	248	0.5	136,660	7.5	5,306	5.5
6	原料別製品	173,827	27.9	26,637	48.6	278,655	15.3	8,634	9.0
7	기기류및운반용機器類	53,219	8.5	75	0.1	593,172	32.6	59,002	61.6
8	雑製品	242,345	39.0	231	0.4	55,248	3.0	1,704	1.8
9	未分類	295	-	-	-	905	-	-	-
	其他商品	-	-	1,067	2.0	-	-	1,250	1.3

聯，13.4％(5,000萬弗)를 中共으로부터 各各 輸入하고 있어 輸出入 共히 蘇聯과 中共이 1位와 2位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韓国의 境遇는 1972年度에 総輸出 18億弗中 対美輸出이 40.7％，対美輸入은 25.7％였으며 対日輸出은 25.1％ 対日輸入은 40.9％로 되어있어 北韓의 貿易이 蘇·中共에 集中되어 있는데 反하여 韓国은 日本과 美国，特히 輸出은 美国，輸入은 日本에 集中되어 있다.

5. 経 済 展 望

우리는 앞에서 北韓経済의 現況을 概略的으로 살펴 보았다. 거기서 南北韓의 経済現況을 比較해 보았을 때 地下資源과 関聯된 몇몇 産業의 生産力을 除外하고는 大概가 韓国이 優勢함을 알 수 있었다.

解放後 韓国이 分断되었을 当時만 하여도 北韓에는 産業 施設이 南韓의 그것보다 훨씬 많았다. 이렇게 北韓에 産業施設이 集中된 것은 두 가지 큰 理由가 있었던 것이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南韓보다는 北韓에 地下資源이 월등히 많이 埋蔵되어 있다는 事実이며,

둘째는 日本帝国이 韓国을 植民地化하고 나서 北満洲를 征伐하기 為한 戦争準備 立地条件이 北韓이 有利하였으므로 日本이 北韓에 集中的으로 産業施設을 設備해 두었다는 事実이다. 그래서 韓国分断 当時의 南対化의 産業施設 比重은 2 : 8 로써 工業化 与件이 南韓보다 北韓이 훨씬 앞서 있었다.

그러나 現在의 状況은 크게 달라졌다. 우리 韓国은 諸般 与件의 不備에도 不拘하고 5 . 16 후 60 年代에 両次 経済開発計劃을 作成하여 年平均 9 .2 %라는 높은 成長率을 記録함으로써 成功的으로 遂行하였고 앞으로도 밝은 展望과 意慾的인 態度를 取하고 있는 反面에, 北韓은 分断当時의 相対的인 好条件에도 不拘하고 経済発展이 継続 둔화하고 있다.

北韓의 経済発展 過程을 살펴 볼때 後進国의 経済発展 段階에서 一般的으로 나타나는 現象과 같이 初期段階인 60 年代 初期까지는 成長率이 높았으나 60 年代 中期부터는 鈍化 趨勢를 脱皮 못하고 급기야는 7 個年計劃의 目標를 그대로 하고 期間만을 3 年 延長 하였어도 70 年 11 月 第 5 次 労動党 大会時 7 個年計劃 (61~70 年) 의 実続 総和報告는 石炭, 電力, 鉄鉱石 等 몇가지 部門만이 目標를 達成하였고 그밖의 것은 全部가 40~80 % 의 目標 達成率에 그쳤다.

네째, 北韓은 初期에는 単純 労動力의 強化에 依한 経済発展의 成果를 거두었으나 人間의 労動力에는 限界가 있으므로 이러한 方法에 依한 効果를 이제는 期待할 수 없다.

다섯째, 지금까지는 過去 日帝의 遺産施設의 恵沢을 많이 입었으나 이제는 그 施設이 老朽化하였고 계속 補修하였다 하여도 現代 国際競争力에는 未 한 것이다.

나. 展　　望

北韓経済가 앞에서 指摘한 바와 같이 発展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実情이 있다. 北韓이 이러한 鈍化要因을 剔抉하고 꾸준한 成長을 하려면 많은 部面에서 大手術을 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内資調達을 위한 政策의 変化가 있어야 한다. 軍事費의 大幅減縮과 跛行的인 重工業 優先策의 포기 없이는 内資問題를 解決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海外協力을 위한 開放体制를 갖추어야 한다. 政治的·経済的 封鎖主義를 開放体制로 転換시켜 海外 経済協力을 図謀해야 할 것이다. ①政経不分離 ②外貨保有의 過少 ③共産圏市場의 狭少등으로 이것마저 쉽게 解決될 것 같지도 않다. 그 뿐만 아니라 北韓으로서는 外資導入을 하려해도 中共과 蘇聯으로부터는 期待할 것이 없는 実情이다. 그러므로 北韓이 美国과 日本에 秋波를 던져 보는 것이기는 하나 美国과 日本도 北韓에 投資할 価値가 없는 것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세째로 住民의 創意力을 살려야 한다. 現在 北韓에는 모든 것이 統制되어 一般大衆은 上部에서 내려오는 命令만을 服従하고 있으므로 밑으로부터의 創意力 発揮라든가 能動的으로 参与하려는 風土가 없다. 그래서 幅넓은 開拓이나 建設的인 아이디어가 欠乏되어 全般的인 面에서 成長·発展보다 破綻이 豫見된다. 그러므로 統制를 풀고 各自의 意見을 살리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以上에서 指摘한 바와같은要素를 大手術하려면 北韓政権 自体의 存立이 根本的으로 흔들이게 될 것이므로 北韓은 그것마저 実行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래서 北韓이 政権自体의 存立을 계속하려면 経済的인 沈滞程度는 甘受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고 経済的인 沈滞를 甘受하지 않으려면 窮極的으로 政権의 存立이 危殆하게 되어 있는 実情이다.

人口의 約 12％를 占하고 있는 170余万名의 党員은 모든 부문에 細胞組織으로 박혀 있으며 이들의 監視와 統制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北韓住民을 金日成 追従者, 中間層, 自由民主主義 信奉者(一名 복잡한 군중)등으로 区分하고 居住制限까지 하고 있으며 各洞, 各里에 2～3名의 安全軍官(秘密警察)을 常住시켜 住民動態를 監視하고 있어 사소한 自由活動도 못하도록 되어 있다.

北韓은 穀物의 絶対量이 不足함으로 毎年 30～50万톤의 食糧을 外国에서 輸入하고 있으며 徹底한 統制와 節約運動을 展開하고 配給制를 実施하고 있다. 協同農民을 除外한 모든 住民은 食糧配給을 받아 食生活을 하고 있다.

住民에게 配給되는 食糧은 主로 쌀과 옥수수(玉米)이며 그 比率은 都市에서는 7対3이고 春窮期에만 5対5라고 하나 其他 地方에서는 一般的으로 5対5이고 春窮期에는 3対7, 심지어는 2対8로 격하된다. 万若 옥수수 代身 감자의 境遇에도 옥수수 1㎏에 감자 4㎏의 比率로 配給된다.

配給量에 있어서는 一般労動과 事務員은 700g이며 重労動者의 境遇에는 800～1,000g이다. 이러한 量으로는 세끼를 밥으로 지어 먹으면 不足하기 때문에 아침과 점심은 밥을 먹지만 저녁에는 죽으로 때우는 수가 많다. 出張者와 外食者는 반드시 「糧券」을 내야만 買食할 수 있으며 旅館에 投宿할 수 있다. 이 糧券을 発給받으면 다음 쌀 配給에서 発給된 数量만큼 控除하고 配給받게 된다. 最近에 밥工場이 都市 및 工場地帯에 생겼다. 이 밥工場은 家庭主婦들이 大部分 職場生活을 하게 됨으로 집에서 밥을 지어 먹기가 힘든데서 생긴 것인데 食糧配給 카드를 밥工場에 맡기고 때마다 약간의 手数料를 支払하고 밥을 가져다 먹는다.

1970年 11月에 있었던 「5次党大会」에서 6個年計劃期間에 밥工場을 大幅 拡張할 것을 決定하였는데 앞으로 食生活에서 밥工場을 利用하는 境遇가 많아질 것이 豫測된다.

일론·데트론 등은 5,000万m) 천 問題도 需要를 充足시킬 수 없게 되어 있다.

服地生産이 充分치 못한 条件에서 의복의 種類가 많을 리 없다. 거의 같은 색갈(겨울은 黒色, 여름은 白色)에 같은 型의 옷차림이다. 女子옷은 男子옷 보다는 그 種類가 많은 편이나 치마와 저고리가 大部分이다. 옷의 流行을 모르고 지내며 의상을 通한 美 또는 創造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 住宅은 6·25動乱当時 60万棟이 소실, 破壊되어 休戦後에 새로 짓기 始作하였다. 1955年부터는 平壌을 비롯한 都市建設에 集中하였는데 60年代에 들어 서면서 「組立式建設」을 導入하여 住宅難 解決에 힘을 썼다. 그러나 平壌의 境遇만 하더라도 約 2万世帯의 住宅이 不足하였는데 1967年 8月의 大洪水로 因하여 많은 家屋들이 流失 破壊되어 平壌市 建設을 다시 하게 되었다. 새로운 집들은 모두 아파트이며 2~3가지 種類의 설계에 依해 組立式으로 建築하기 때문에 어느곳에 가나 같은 型의 아파트인 것이다.

農村은 都市보다는 뒤늦게 建設되어 1961年에 비로소 「農村建設隊」라는 것을 組織하여 戦争当時 피해가 큰곳 또는 鉄路와 道路辺의 마을부터 文化住宅을 짓기 始作하였다. 文化住宅은 単層으로서 두 世帯가 같이 生活할 수 있도록 設計되어 있다.

7個年計劃期間에도 計劃의 折半밖에 建設하지 못하였으며 6個年計劃期間에는 都市·農村에서 100余万世帯의 住宅建設을 計劃하고 있으나 労力과 資金不足으로 実現可能性이 거의 없다.

平壌에서 最近에 建設되는 아파트에 의하면 暖房施設이 갖추어 질 뿐이며 그밖의 아파트의 内部施設은 形便없는 低質이다. 北韓에서는 그간 住民들의 生活向上에 対해 関心이 있는것 처럼 宣伝해 왔다.

即 5個年計劃期間(1957~1960)에는 衣食住問題를 基本的으로 解決한다고 約束했고 7個年計劃(1961~1970)에서는 쌀밥과 고기국에 기와집에서 비단옷을 입고 살도록 하겠다고 豪言壮談했다. 그러나 별다른 改善

오늘에 와서는 千里馬作業班運動을 넘어 千里馬職場·工場 또는 二重千里馬作業班으로 拡大되고 있다.

一般労動者들의 年間労動日数는 通常 340日이며(半空日制度는 없다) 月平均 28日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漁夫들의 年間 出漁日数는 325日이다. 한편 1日労動時間을 8時間(規定上으로 地下 및 危険労動者는 7時間, 医師와 少年労動 6時間)으로 되어 있으나 社会主義競争運動 때문에 通常 10～14時間以上 하기 마련이다.

労動에 対한 報酬는 매우 적은 形便이며 1970年 9月에 労動者와 事務員의 報酬를 31.5% 引上하여 平均 70원線(約29弗)에 達했다고 公式発表하고 있으나 低廉하기 그지없다.

各級数別 月労賃은 大略 다음과 같다.

一般労動者의 境遇

3급工 …… 45원	4급工 …… 50원
5급工 …… 55원	6급工 …… 60원
7급工 …… 65원	8급工 …… 70원

中央公務員의 境遇

部長(長官級) …… 300원 — 330원
副部長(次官級) …… 210원 — 250원
局 長 …… 160원 — 190원
課 長 …… 80원 — 100원
指導員 …… 60원 — 70원

郡級公務員의 境遇

委員長(郡守級) …… 130원 — 155원
副委員長(副郡守級) …… 80원 — 90원
部 長 …… 65원
指導員 …… 50원 — 60원

로 家庭生活問題를 取扱하기 때문에 班長은 거의다 女子가 하기 마련이다. 人民班에서 하는 일은 班内 住民移動·転出·衛生·文化·労力動員·思想教養環境美化·住宅管理 등인데 随時로 모임을 갖고 모든 일을 決定한다. 転出移動은 반드시 人民班長을 経由토록 되어 있다.

人民班의 正規会議는 1個月에 1回이며 한 世帯에서 한 사람씩 義務的으로 参加해야 한다. 人民班会議에서는 人民班員들의 家庭生活 및 個人問題까지 広範히 取扱하며, 万若 人民班会議에서 다른 곳으로 追放시킬 決定을 하고 洞行政委員会에 提出하면, 大体로 그 決定대로 履行된다.

5戸担当制는 1958年末부터 始作된 住民統制方法의 하나이다. 即 北韓의 全世帯를 5戸씩 묶어서 熱誠党員 1名을 配置시켜 「指導」하기 위하여 만든 制度이다. 5戸를 担当한 宣伝員은 各戸의 夫婦愛情関係 子女教育 等 生活全般에 걷쳐 指導하고 監視하게 된다.

이에 対해 1962年 11月号 「勤労者」에는 『5戸担当制에서는 責任指導員들이 5戸内外의 적은 世帯를 分担하는 만큼 毎家庭 毎個人들과 日常的인 接触을 通하여, 그들의 知識·素質·趣味·希望·思想動態를 正確히(了解)指導하게 된다 ……5戸担当制 指導事業은 生産에서 家庭에 이르기까지 成人으로부터 児童에 이르기까지 모든 部門을 包括한다』라고 強調하고있다.

職場에서 労動規律을 違反하였거나, 責任量을 未達했을 境遇, 職場에서만 批判을 받는 것이 아니라, 5戸担当員 臨席下에 家族会議에서도 追窮을 받게 되는 것이다. 妻子息 앞에서 説教를 받게 되니 家長으로서의 体面維持는 姑捨하고 가시방석에 앉은 것 처럼 不安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 밖에 社会的 統制로는 公民登録制実施, 居住制限 旅行制限 等 갖가지가 있다.

4. 冠婚喪祭

異質化된 北韓社会에서는 冠婚喪祭에 있어서도 새로운 風習이 이루어지

의 家族이 祭祀를 지내게 되면 그때마다 北韓에 対한 反抗心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러한 措置는 無神論을 主張하는 共産主義者들로서 또는 金日成의 崇拜思想으로 武装시키기 위해서는 当然한 措置이기도 하다.

그러나 1966年부터는 祭祀를 지내는 것을 어느 程度 許容하기 始作했다. (3年喪에 限해서). 北韓에서도 祭祀를 社会主義式으로 지내라고 宣伝하고 있다. 即 飮食을 차려 놓고, 술을 부어 절을 해도 술과 飮食을 먹을 神位도 없고 절을 받을 対象도 없으므로, 그러한 形式을 없애고 家族끼리 모여서 죽은 祖上에 対해서 좋은점 나쁜점 등을 들어 서로 이야기를 하는 모임을 가지라는 것이다. 即 죽은 사람에 対해 批判会를 가지라는 것이다.

回甲 : 一般住民의 回甲잔치는 찾아보기 힘든다. 이도 経済的으로 余裕가 없을 뿐더러 党에서 統制가 甚하기 때문이다. 北韓에서 義務労動年齡을 보면 男子는 60歲, 女子는 55歲로 되어 있다. 그 前에는 일손을 멜 수가 없게 되어 있다. 北韓에서는 60이 還甲이 아니라, 90이 還甲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長寿하고 있다는 虛勢를 부리기 위한 점도 있지만 늙도록 일을 시키자는 것이다. 그러한 実情임으로 60回甲 잔치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回甲날에 집에서 기르는 닭이라도 잡아 먹으면 多幸한 일이다.

回甲이 이런 程度이니 어린이 百日잔치·돌잔치·生日잔치가 特別이 있을 理 없다. 그러나 金日成의 60回甲인 72年 4月5日은 1年前부터 떠들기 始作하여 各種 行事를 벌렸다. 北韓의 어린이는 自己 生日은 모르는 일이 있어도 金日成의 生日은 누구나 다 記憶하고 있는 実情이다.

5. 文化·芸術·宗教

共産主義社会에서의 文化芸術은 人間의 崇高한 美와 価値의 創造에 그 目的이 있는 것이 아니다. 党의 政策実現을 위하여 服務하는 手段에 不過하다. 이것을 雄弁으로 立証하는 것이 5次党大会에서의 金日成의 文学

南宣伝攻勢 등에 力量을 傾注해 왔으며, 最近에는 反美闘争, 北韓共産軍 英雄化, 6·25動乱의 戦争経験 등이 添加되고 있다.

5次党大会와 「社会主義憲法」에서 設定된 文化建設의 方向은, 첫째, 外来文化(資本主義 文化)의 浸透를 反対하여 闘争하는 것과 둘째, 「復古主義」的 傾向을 徹底히 反対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外来帝国主義文化가 浸透되면 民族文化는 抹殺되고 思想的으로는 병들며 社会主義革命과 建設에서 失敗를 免치 못 함으로, 이것과의 徹底한 闘争展開가 必要하다는 것을 強調하고 있다.

北韓에 있어서의 宗教는 共産主義者들이 一般的으로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阿片視」함으로써 抹殺된지 오래다. 教会나 寺刹을 그들의 休養所 監視所 등으로 使用하고 있으며 宗教意識은 一切의 生活에서 根切되었다. 단지 天道教 青友党의 看板은 남아 있으나 地方組織은 全然 없고 天道教 儀式을 行하는 곳은 単 한곳도 없다. 단지 그 看板은 政治的으로 利用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가운데 北韓의 「旧憲法」 第14条에는 形式上 信仰 및 宗教儀式 挙行의 自由権을 規定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改正된 「新憲法」 第54条에는 信仰의 自由를 規定하는 反面 反宗教宣伝의 自由権마저 갖게 함으로써 名実共히 宗教의 自由를 抹殺하고 말았다. 그 까닭은 北韓 같은 社会에서는 宗教의 自由를 부르짖는 사람은 있을 수 없지마는 反宗教의 自由는 執権者를 비롯하여 그 同調者들이 一線에 나와서 宗教 抹殺行為를 公公然히 敢行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 教育政策

北韓의 教育政策은 그들의 教育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実施하고 있으며 여러차례 変遷되어 왔다. 그러나 그 変遷은 枝葉的인 것이었으며 바탕에는 変化가 없다. 現在는 1967年에 마련한 政策과 1972年에 앞으로를 위하여 마련하여 一部地域에 実施하고 있는 政策과 竝行하고 있는데 그 内容에는 大差가 없다.

즉 北韓은 一般教育을 為主로 하면서 그것에 基礎技術教育과 思想教育을 配合하며, 教育과 生産労動을 密接히 結合시킴으로써 자라나는 世代들을 全面的으로 発展된 새로운 型의 사람으로 準備시킨다는 것이다.

知識習得을 위한 一般教育만으로서는 後世들을 当面한 社会主義 建設에 準備시킬 수 없기 때문에 現代的 技術을 習得시켜 社会의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現在까지는 이 技術教育에 力点을 두어 初級技術人材難을 解決하기 위한 経済的 目的이 크게 作用하여 왔다. 그러나 1972年 부터는 思想教育에 더욱 拍車를 加하기로 되어 있다. 北韓이 여태까지 思想教育을 強化하여 왔는데도 不拘하고 앞으로 더욱 思想教育에 執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北韓青少年들이 情緒教養과 文化一般에 대한 素養이 낮아 極端에서 極端으로 달리는 粗暴한 人間으로 成長되고 있는 事実과, 出生 以後 継続하여 共産社会에서 生活함으로써 地主나 資本家에 関한 憎悪心은 教科書에서나 듣고 実感하지 못하여 階級意識이 흐려지고 있다는 事実과, 国際的 緊張緩和 趨勢로 外国勢力에 대한 憎悪心이나 革命闘争의 価値認識에 대하여 鈍化되어 간다는 事実에 立脚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北韓은 「근로자」 1972年7月号에서 『우리의 革命은 끝나지 않았으며 革命의 과녁도 変하지 않았으나 世代는 끊임없이 바뀌어 帝国主義와 地主, 資本家도 모르고 革命闘争의 試練도 겪어보지 못한 새 世代들이 우리 社会의 主人으로 登場하고 있으므로』 思想教育을 強化함이 急先務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所謂 天才教育이라고 하는 것인데 造形·芸術·舞踊·音楽 및 外国語에 特出한 素質이 있다고 認定되는 児童에게 初等 및 高中等을 합친 11年制의 音楽学校·舞踊学校 또는 造形芸術学校에서 教育을 実施하고 있고, 中学3年 修了後 體育에 뛰어난 児童을 공부시키는 4年制 體育学校가 있다.

다·成人教育體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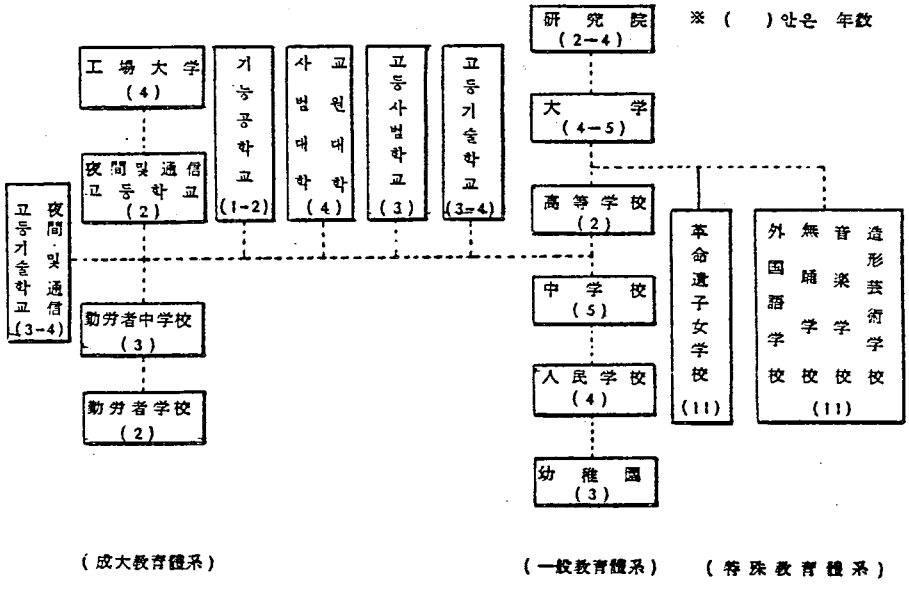
〈労動者学校〉

人民学校를 畢하지 못한 成人(年齢制限 없음)에게 2年間 速成的으로 人民学校 過程을 가르쳐 주는 学校이다.

〈勤労者中学校〉

成人学校 卒業生 및 人民学校를 卒業한 成人에게 3年間 中学過程을 授業케 하는 学校이다. 이 成人学校 卒業은 該当 学校와 同等한 資格을 認定받으며 上級学校에도 進学할 수 있다.

現行教育体系 (1967.4.1, 実施)



4 . 教育現況

가 . 学校教育

(1) 初等 및 中等教育

〈施設 및 管理〉

学校施設은 ① 「国家」에서 負擔하고 있는 学校와 ②「国家」와 各協同団體에서 折半씩 負擔하는 学校와, ③ 完全히 協同農場이나 生産協同組合, 企業體에서 負擔하는 学校의 세가지 種類가 있다.

첫째, 部類의 学校는 都市를 中心으로 하여 設置하고 있으며 経済上 土臺가 弱하거나 도저히 自體負擔으로는 運営이 困難하다고 認定되는 地域에 設置하였다.

둘째 部類의 学校는 都市나 企業體, 協同農場 地域을 中心으로 하여 設置되었는데 이는 어느 程度 自體로 運営할 수 있는 能力이 있다고 認定되어 「国家」에서 若干의 負擔을 주고 나머지는 自體負擔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

세째 部類의 学校는 企業體나 協同農場 地域에 設置하되 능히 自體의 能力으로 施設一切을 負擔할 수 있는 곳에 設置되었다. 漸次的으로 이 세째번 部類로 옮길려고 努力하고 있는 実情이다.

人民学校는 一里一校制를 原則으로 하고 있으며 中学校는 2～3 個里를 合한 中心地에 設置하게끔 되어 있다.

校具備品 및 実験器具나 各種 掛図·地図·実験薬品등은 生産이 不足하다보니 60 %以上이 教員·学生들이 製作한 粗悪品들을 使用하고 있는 実情이다. 이 問題를 解決하기 위하여 北韓에서는 1972年7月12日字 労動新聞 社説에서 『校具·備品을 제때에 生産·供給하기 위하여 地方마다 専門工場을 建設하여 더 많이 生産하고 그 가지수를 더 늘려야 하겠다』고 実吐하고 있다.

두 몇시간 몇분 걸렸읍니까?』라고 되어 있다.

③ 階級意識 및 革命精神 涵養

地主나 資本家들에 의한 敵愾心을 갖게 하는 동시에 抗日 빨찌산들의 行為를 生活化하는데 目的이 있다. 그 具體的인 例를 들면 人民学校 1～2学年 国語에 『여우 이야기』『여우와 두루미』『욕심 많은 개』등에서 여우와 개를 地主나 資本家에 比喩하여 憎惡心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中学校 2学年 国語에 『김일성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항일 빨찌산의 역사를 학습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하고 있다.

④ 労力動員에의 誘導

労動을 搾取함에 있어서, 労動이 神聖함을 認識시키고 労動의 結果를 살기 좋은 고장으로 変하였다는 것을 強調하는데 目的이 있다. 그 具體的인 例를 들면 人民学校 3学年 国語에 『이 곬에선 굴이 나고 저 곬에선 젖이 흘러 산이 모두 다 황금산이 되었다』고 되어 있다.

⑤ 反美·反日 思想의 鼓吹

南韓이 헐벗고 굶주림의 原因이 美国과 日本때문임을 認識시키고 祖国統一의 妨害者로서 美国과 日本을 浮刻시키는데 目的이 있으며, 그 具體的인 実例는 人民学校 3学年 国語에『명성 아버지의 얼굴의 흠집은 열한살때 미국놈이 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다. 中学校 2学年 国語에 『모든 비극의 근원은 미제침략자들의 南韓強占과 그들의 식민지 예속화에 있다』고 하고 있다.

(2) 高等教育

(가) 現 況

現在 北韓에는 130個의 大学이 있는데 그 中 綜合大学은 単한 学校「金日成大学」뿐이고 모두가 単科大学으로서 人文系 3, 技術系 7의 比率로 되어 있다. 技術系大学은 専攻科目別로 細分化되고 있는데 例를 들면 化学工業大学, 動力工業大学, 機械工業大学등으로서 그 部分의 工場과 併設되어 있다. 이것을 工場大学이라고 하는데 現在 40校가 있으며 工場技術

各 級 学 校 및 学 生 数

区分 / 年度別 / 学校別	学 校 現 況			学生現況 (単位 : 1,000名)		
	1963	1966	1970	1963	1966	1970
総 数	8,919	9,171	9,236	2,519	2,443	3,500
人民学校	3,992	4,064	4,064	994	1,113	1,900
中 学 校	3,147	3,335		839	704	1,300
技術学校	1,218	1,207		327	285	
高等学校			500			140
高等技術学校	466	467		145	156	
大 学	96	98	130	214	185	160

北韓에서는 1人1技 教育을 実施한지 오래이나 아직까지 技術者의 数的 充足을 하지 못하고 있다. 1972年7月에도 労動新聞 社説은 学生들로 하여금 1人1技教育을 強化해야 할 것을 強調하면서 学生마다 트랙터나 自動車 또는 有線·無線에 関한 技術을 익힐 것을 強調하고 있다. 北韓의 統計를 빌리더라도 6個年計劃 期間에 技術者를 100萬名 目標로 計劃으로 있으나, 現在는 그 三分의一 밖에 確保를 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点을 보면 北韓에서는 技術의 質的 側面보다 量的側面을 強調하고 있음이 分明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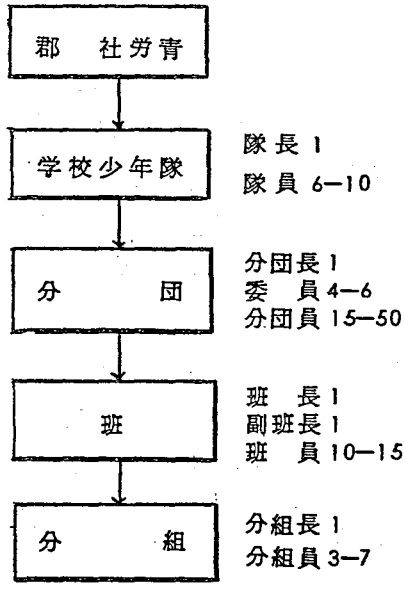
(3) 学校에서의 団體生活

가 少年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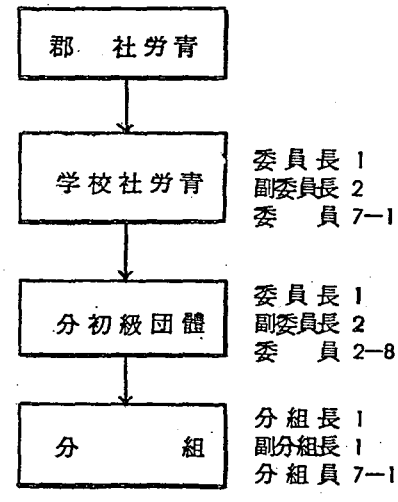
少年団은 満9歳부터 13歳까지의 少年들로써 構成하고 있는데 이것은 人民学校 3学年부터 中学校 2学年까지 사이의 学生에 該当된다. 少年団의 指導와 統制는, 党籍을 가진 教員 가운데 특히 熱誠者를 골라서

律状態를 維持·強化하기 위한 統制를 한다. ④ 各種 建設工事와 学校内部 整理工事등 学生이 擔当하는 労力動員에서 主動力으로 組織·監督의 役割을 遂行하여 労動을 通한 学生訓練에서 主體가 된다. ⑤ 学生들의 個人生活을 指導·統制한다.

少年団組織



社労青組織



大学生들의 課外行事

구분 / 요일	행사명칭	행사
월요일	사회봉사의날	노력동원·계몽선전·사회사업
화요일	회의의 날	각종회의 집행
수요일	혁명전통연구의날	김일성항일 혁명에 관한 학습 연구발표
목요일	위생의 날	대청소·환경미화·위생검열
금요일	기술연마의날	공장견학·생산기술 견습
토요일	체육의 날	각종 체육·운동회기 개최
일요일	휴 일	오전중 자습·오후중 자유

労動靴一年2足：時価2원 50전 (2.5원×2＝5원)

医薬品一約5원

小計 30원×$\frac{30}{12}$＝2원 50전 (月平均)

食量配給一 75원

本人：日700 g　0.7 kg × 30＝21 kg

家族：日300 g　0.3 × 30 × 3 ＝ 27 kg

計 48 kg (白米　雑穀　半半)

暗去来의 경우

白米1斗에 約 30원 (30원×$\frac{24}{15}$kg＝48원)

雑穀1斗에 約 20원 (20원×$\frac{24}{15}$＝32원)

食量配給 価格 月5원

∴ (48 ＋ 32) － 5＝75원

労動者1人에 消費되는 月平均 費用은 35＋2.5＋75＝112원 50전

그러나 大学生 1名에 公納金 免除와 奨学金 支給等으로 支出되는 費用은 約30원에 不過하다.

(内　訳)

公納金：2원 50전 (1958년 기준)

奨学金：15원

教材費：2원 50전

校服 廉価提供에서 입은 損害：約10원

合計 約30원

이러고 보면 北韓의 学生들은 全員 奨学金을 받는다 해도 毎月 約82원 (112원－30원＝82원)을 共産政権에 搾取当하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北韓에서는 『父兄이 공부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金日成이가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니까 이 恩恵를 잊어서는 안된다』는 式의 観念을 学生들에게 注入시키고 있다. 이것은 学生들에게 労動을 通하여

以上에서 본바 学従, 軍事訓練은 高等技術学校 以上 5年制 大学에 이르기까지 教科의 編成을 労農赤衛隊의 軍事的 編制를 그대로 利用하면서 実施하고 있는데, 大概의 境遇 学校를 聯隊, 学部를 大隊, 科年을 中隊, 学級을 小隊로 規制하여 그의 指導運営을 大学党委員会에서 掌握한다. 聯隊長에는 大学党委員長, 大隊長에는 各科 副党委員長, 中隊長에는 学部別 各学年의 党細胞委員長, 小隊長에는 各学級의 党分組長을 任命하여 学校 全般에 관한 事項마저 党的 統制를 作用시키게 하고 있다.

1970年 「第5次党大会」를 앞두고 労農赤衛隊와는 別途인 青年近衛隊를 組織하였는데, 이는 主로 労農赤衛隊의 年齢에 未達되는 学生들을 中心으로 構成되어 있는 武装力이다. 青年近衛隊가 組織되게 됨으로써 学校内에서의 正規科目에 의한 軍事教育 以外에 労農赤衛隊와 같은 軍事訓練이 課外時間에 実施되고 있다.

나. 社会教育

北韓에서는 社会教育도 人格陶治나 知識啓発에 主眼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金日成에의 盲従과 労動搾取에 力点을 두고 実施하고 있다. 社会教育은 共産党 中央委員会 宣伝煽動部가 主管하여 있으며 各種 社会団體, 매스콤이 이에 動員되고 있다.

〈成人教育〉

成人教育은 男女区別 없이, 年齢에 拘碍됨이 없이 各者의 知識水準에 따라 実施되는데 都市에서는 工場이나 企業所 単位로, 農村에서는 協同農場을 単位로 実施하고 있다.

学校는 初級으로서 勤労者学校가 있고, 中級으로서 勤労者 中学校가 있고, 高級으로서 工場大学이 있다.

教育方法은 企業所, 工場 또는 協同農場의 幹部가 各班을 責任지고 指導하며 対象者가 理解할 때까지 説得 또는 注入式 方法으로 実施한다.

教育内容은 党文献, 革命伝統教養의 解説, 마르크스~레닌主義解説, 技術教養等이 中心으로 되어 있다. 被教育者의 教養科目을 測定하기 위하여 毎週 1回씩 試験을 実施하고 있다.

여 社会主義 国家들과의 親善団結을 強化하기 위해 모든 努力을 다할 것이다』라고 表明한 것으로도, 그들의 対外政策路線의 積極性을 엿볼 수 있다.

70年11月 第5次党大会에서는 特히 『美帝의 侵略政策을 破綻시키기 위해서는 世界到処에서 反美闘争을 積極的으로 広範하게 展開해야 한다』고 強調하면서, 越盟, 라오스, 캄보디아등 印支 共産勢力과의 政治·経済·軍事的 協力을 더욱 強化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닉슨 독트린의 展開에 따라 美国이 아시아에서의 対外責務를 漸次 벗게 되는 것과 関聯下에 日本의 介入을 警戒하면서 『日本 軍国主義 海外侵略은 北韓을 첫번째 攻撃対象』임을 強調하며 反美·反日 共同戦線을 보다 積極的으로 展開해야 한다고 하였다.

나. 所謂 外交政策의 樹立 및 執行機構

「北韓 憲法」第76条에는 『国家의 対内外政策의 基本原則의 樹立은 最高人民会議 権限에 属한다』고 規定되어 있으며, 第96条, 97条에는 主席이 外交分野에서 担当해야 할 任務를 規定하고 있는데, 그 内容은 「主席」은 다른나라와 맺은 条約을 批准 및 廃棄한다.』(96条), 『主席은 다른나라 使臣의 信任状, 召喚状을 接受한다』(97条)고 規定하고 있다.

또한 『外国에 駐在하는 大使나 公使를 任命 및 召喚한다』고 規定한 「憲法」第103条는 中央人民委員会의 権限에 属하고 있다.

(北韓은 72年 1月 25日~28日까지 最高人民会議 第5期 1次 会議를 開催하고 権力構造를 大幅 改編하여, 新憲法에 따라 主席 및 中央人民委員会를 새로 新設하고 内閣을 正務院으로, 最高人民会議 権限을 大幅 縮小한 바 있는데 위에서 既述한 諸般 憲法 条項은 従来 最高人民会議常任委員会의 権限에 属했던 것이다. 権力構造의 改編으로 이것이 主席과 中央人民委員会로 넘어갔다.)

라는 政治的 目的까지도 아울러 追求하고 있다.

이러하기 때문에 北韓은 商業去来上 損失을 보는 한이 있더라도 政治的 利得을 追求하는 傾向이 있게 되고 이러한 境遇에 貿易은 本来의 目的과는 離脫하기 마련이다.

民間団体의 対外活動도 純粋한 非政治的인 것에 限定되지 않으며, 境遇에 따라서는 本来의 機能을 超越하여 北韓의 目的에 이바지 하는 境遇가 많다.

北韓과 같이 모든 것을 政治的으로 利用하는 境遇에는 더욱 그러한 것이다.

다. 対外関係의 現況

(1) 共産圈 政策

北韓은 対南赤化統一을 위해 対美 強硬闘争路線을 堅持하고 平和共存路線에 立脚한 蘇聯의 対美 協調政策을 白眼視하고 中共의 対美 強硬路線을 支持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北韓의 中共追従은 対蘇関係의 悪化를 招来하였으며, 이로 因하여 北韓에 対한 蘇聯의 支援이 中断됨으로써 7個年経済計劃의 失敗와 自身의 安保에 威脅을 느끼게 되었다.

事実 北韓으로선 理念的으로는 中共과 가까우나 実利를 위해서는 蘇聯을 追従할 수 밖에 없는 처지임으로 中共과의 関係는 한때 疎遠해지고 다시 対蘇関係가 緊密하게 되었다.

北韓은 이같은 틈바구니에서 自身의 立場을 保護하기 위해 66年8月 「자주로선」을 내세워 蘇聯을 修正主義者라고하고 中共을 冒険主義 教条主義라고 非難하고 있으나 이는 対蘇接近의 難処한 立場을 弁明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事実 実利的인 面에서 北韓이 対蘇接近을 했다고 하나 理念에 根本的인 差異가 있는 限 그것도 限界가 있는 것이며, 中共과의 関係가 多少 疎遠

団을 相互交換하여 懸案 国際問題 討議와 「両国間」의 関係를 強化시킨 바 있다.

特히 72年2月 許談의 訪蘇時, 브레즈네프는 許談이説明한 「外勢排除 및 民主的 原則」을 基礎로 하였다는 이른 바 北韓의 平和統一案에 積極支援할 것을 約束했다.

그러나 유럽地域 安保体制 確立을 위해 「独逸問題」解決에 重点을 두고 있는 蘇聯은 表面上 北韓의 「8個項」, 所謂 平和統一案을 支持하고 있으나 韓半島에서의 民族団結에 의한 再結合은 蘇聯의 最大関心事인 独逸問題 解決에 悪影響을 끼쳐 蘇聯이 推進하고 있는 유럽安保体制 確立을 沮害할 可能性이 있으므로 韓半島에서의 民族的 再結合을 바라고 있지 않은 実情이다.

한편 北韓의 対東欧 共産国家対策에 있어서 유고와는 『모든 나라들을 그들의 社会体制에 関係없이 相互関係를 発展시켜야 된다는데 合意』한다 했고, 루마니아와는 重要한 国際問題에 대해 見解의 一致를 보았다고 하였으며, 체코, 東独, 항가리, 폴랜드등과는 이들 対外政策을 支持한다고 함으로써 東欧諸国과의 相互 政策支持로 紐帯를 強化하며 中·蘇의 向背에 拘碍치 않고 共産圏 内部의 分裂을 最大限 防止하여 国際的 趨勢에 迎合하여, 自由 및 中立諸国과의 積極的인 接近으로 外交를 展開시키고 있다.

(2) 対中立圏 政策

北韓의 対中立国観은 二重的인 側面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中立国政権이 民族부르죠아지의 利益을 擁護하는 것이라고 보아 이를 危険視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은 中立諸国의 反植民主義 乃至 民族主義的 性向을 反西方的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対中立諸国 政策으로는 첫째 反西方的 連帯圏의 形成 및 外交関係의 拡大, 둘째 北韓 統一方案에 対한 広範한 支持의 獲得, 세째 所謂 人民外交의 推進, 네째 経済 및 文化関係의 拡大等을 들 수 있다.

反西方的 連帯圏의 形成은 西防陣営, 특히 美国의 대아시아 乃至 世界

対한 外交基盤을 굳히는 迂廻戰略을 採択하여, 強硬한 中共態度를 溶解시키려는 데서 일어났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態度를 看破한 北韓이 韓·美·日의 3角関係를 離間시키는 対韓戰略에 力点을 두고 対日接近의 미끼로 던지는 데서도 緣由하는 것임은 勿論이다.

2. 軍 事

가. 北韓共産軍의 性格

北韓共産軍의 性格은 ① 革命伝統의 継承者이며 ② 党에 隷属된 軍隊이며 ③侵略性을 띤 軍隊란 점이다

所謂〈革命伝統의 継承者〉

이것은 北韓共産軍隊가 抗日빨찌산時期에 金日成에 의하여 創造된 百戰百勝의 戰略·戰術을 全面的으로 継承하고 있다는 뜻인데, 1968年2月8日 北韓共産軍 創建 20週年 記念式 席上에서 行한 金日成과 金昌奉의 演説에 의하면 『우리 人民의 栄光스러운 抗日武装闘争의 直接的 継承者로서 誕生한 「朝鮮人民軍」은 抗日武装闘争의 빛나는 革命伝統을 全面的으로 継承하였다』고 再強調하였다.

그러나 金成柱(日成)의 抗日빨찌산闘争은 歷史가 証明하듯이 良民들에 対한 不意의 襲撃에서 얻은 百戰百勝의 戰略·戰術임을 直視한다면 그 継承者의 正体도 解釈을 더 할 必要가 없는 것이다.

〈党의 軍隊〉

그들은, 北韓共産軍은 『오직 朝鮮労動党앞에 充実하고 오직 朝鮮労動党의 領導밑에 革命의 길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다. 1961年9月18日 北韓 労動党 第4次 党大会에서 採択된 規約 第8章 第66条에 依하면 『朝鮮人民軍은 朝鮮労動党의 武装力이다. 朝鮮人民軍 傘下의 各級 党組織들을 唯一的으로 網羅하는 朝鮮人民軍団委員会를 組織한다. 同委員会는 朝鮮労動党 中央委員会에 直結되며, 그 指揮밑에 事業한다』고 明白히 規

論하고 戰争勝利의 窮極的 要素가 人民의 政治思想性에 있음을 強調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같은 思想을 金日成이 特히 強調하는 理由는 그가 共産主義者라는데도 基因하지만 6·25動乱의 敗戰의 쓰라린 経験을 맛보았기 때문인 것으로 解釈된다. 이러한 政治思想的 基礎위에서만이 비로소 不敗의 軍事力을 키워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党은 62年9月 4次党大会의 規約改正에서 北韓共産軍을 正式「労動党의 武装力」이라고 明文化했으며, 党中央委直属으로 党軍事委員会를 두고 人民軍에게 政治思想事業 強化에 血眼이 되고 있다.

金日成은 軍事路線에 言及하여 『全軍의 現代化와 全軍의 幹部化는 世界反動의 元兇인 美帝国主義와 맞서 있는 条件下에서 一定한 数의 常備軍을 百方으로 強化하여 革命의 戰取物을 믿음직하게 保衛하면서 社会主義 建設을 成果的으로 推進할 수 있게 하며, 一旦 有事時에는 常備軍을 核心으로 軍事力을 急速히 늘릴 수 있게 하는 가장 正当하고 賢明한 方針이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全人民의 武装化와 全国의 要塞化는 部門間에 差異가 없고 地上과 空中, 海中등 넓은 空間에서 進行되는 立体的인 現代戰에 맞게 軍事力을 強化하므로써 어떤 形態로 어느 곳을 侵入해 오던지 堅固한 要塞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싸울 수 있게 하는 軍事体系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北韓의 軍事体系가 아니라 韓半島에서의 共産主義 革命을 遂行하는데 必要한 基地인 이른바 「民主革命 基地」를 構築하고 이 基地를 担保로 하여 南韓을 武力에 의해 征服하려는 北韓의 侵略意図의 隠蔽手段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2) 北韓의 軍事戰略

北韓共産軍의 戰略目標와 任務는 国際共産勢力이 太平洋進出을 위한 橋頭堡인 北韓地域을 確保하는데 있어서 그 前衛的 役割을 担当하는 同時에, 南韓의 赤化를 위하는 武装力의 役割을 遂行하는데 있다고 要約할 수 있다.

6·25南侵의 쓰라린 経験을 가진 오늘의 韓国軍은 現在는 莫強하게 成長했으나 유엔軍의 駐屯은 北韓共産軍으로 하여금 감히 攻撃할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見地에서 적어도 正規戦에 있어서의 北韓共産軍의 戦略은 攻撃的인 것보다는 防禦的인 것으로 転換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防禦戦略도 毛沢東의 積極的인 防禦와 같다. 왜냐하면 北韓의 大戦略은 南韓에서의 共産主義 革命의 遂行이라는 基本目標를 위한 것이며, 따라서 北韓 軍事戦略은 韓国에 対한 武力挑発을 敢行할 수 있는 与件이 造成되었을 境遇에는 即刻 全面南侵도 強行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北韓은 攻撃戦略 概念을 排除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戦争概念에 있어 北韓은 毛沢東이나 林彪에서 보는 바와 같은 「人民戦争」概念에 立脚하고 있다.

그러한 戦争概念을 갖고 있는 限 그 戦略概念은 攻撃戦略概念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北韓이 敢行하고 있는 遊撃戦으로서도 充分히 立証되고 있다 北韓은 이른바 「決定的 時機」가 到来하면 奇襲先制攻撃을 敢行하는 正規戦을 非正規軍과 配合해 나간다는 것이 北韓의 軍事戦略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軍事力과 戦略態勢

(1) 軍事的機構 및 統帥権

北韓의 軍事機構도 蘇聯의 그것을 模倣한 것이다.

北韓 憲法 第14条에 規定된 바 北韓共産軍의 使命이 所謂『労動者 農民을 비롯한 勤労人民의 利益을 擁護하여 社会主義 制度와 革命의 戦取物을 保衛하여 祖国의 自由와 独立과 平和를 지키는데 있다』고 하고 이를 敢行하기 위하여 軍事機構가 必要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들의 憲法 第103条에 의하면 北韓共産軍의 編成에 관한 指導와 北韓共産軍 高級将官의 任命権은 새로 新設된 中央人民委員会가 掌握하고 있으나 窮極的으로는 党의 操縦下에 処理되도록 되어 있다.

增員部隊는 平壤－元山을 連結하는 線一帶와 東西 海岸地帶에 拠点防禦 形式으로 配置되어 있는데, 이들은 徒步로는 2－7日 以内에, 車輛으로는 2－3日内에 前方地域에 投入이 可能토록 位置하고 있다.

北韓地上軍은 「붉은旗 中隊運動」을 통한 共産主義 思想教育을 強化하여 62年까지도 師団単位 步兵·砲兵 合同訓練을 했고, 63年부터는 状況에 따라 軍団級 以上의 陸·海·空軍 合同訓練을 実施했으며, 65－67間에 冬季 遊撃戰術 習得을 目的으로 師団規模의 冬季機動訓練을 했고, 最近에도 原子戰에 対備한 接近攻撃 作戰訓練과 坑道防禦 및 密閉訓練, 有事時 我軍重要 施設을 攻撃하기 위한 夜間砲射撃과 夜間襲撃訓練등 多様한 訓練을 하고 있다.

이러한 事実로 보아 地上軍은 南侵態勢의 確立에 狂奔하고 있고 全面挑発을 好機를 노리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며 韓半島에서의 全面戰爭 또는 局地的 制限戰爭과 非正規戰을 同時에 遂行할 수 있는 戰力을 保有하려 하고 있다.

海軍은 4個 基地의 1万余 兵力으로 構成되어 있고 人民軍 総参謀長揮下에 있는 海軍司令官의 指揮統制下에 있다.

그리고 魚雷艇코마(KOMAR)級 快速艇과 潜水艦을 主軸으로 装備되어 있는데 이같이 小型快速艇을 主되는 装備로 하는 것은 蘇聯의 海軍戰略에 따라 奇襲攻撃과 海上補給路의 攪乱을 企図해서이다.

北韓은 主로 東海岸에 海軍力을 集中하고 있는데 이는 中共과의 密着政策을 維持함으로써 西海上에서의 戰闘力을 中共에 委任하고 対蘇関係의 疎遠, 韓国 및 日本의 強大化에 따른 東海 防禦의 必要性이 加重된데 미루어 앞으로 東海上에서의 単独戰闘力을 保有하고 나아가서는 奇襲攻撃도 加할 수 있는 能力을 가지겠다는 侵略的 野慾의 表現인 것이다.

転換하였다.

66年 10月 労動党代表者会에서 金日成은 『合法·非合法, 暴力·非暴力등 各種 闘争方法을 配合하라』고 強力히 指示했는데 이 指示에 따라 暴力優先主義에서 武装 게릴라 工作要員의 大大的인 南派를 企図하게 되었다.

67年 3月 党 4期 第 15次 全員会議 秘密会議에서 対南工作責 李孝淳이 粛清当하고 許鳳学(人民軍大将)이 後任에 任命되어 武装共匪 南派作戦을 本格化했다.

67年에 연이어 発生한 列車爆破事件과 良民 虐殺事件은 바로 이 戦術의 初歩的 形態이며, 68年 1月 21日 31名組 武装共匪의 青瓦台 襲撃陰謀의 失敗와 同年 11月 蔚珍·三陟 地域에 120名組 武装共匪가 浸透한 事件은 이러한 戦術의 本格的인 形態인 것이다.

1·21事態가 失敗했어도 서울 中心部까지 武装共匪를 潜入시킬 수 있었다는 事実에 自身을 얻은 金日成은 68年 9月 北韓政権樹立 20週年 記念式에서 『南韓 共産化 闘争은 主権을 奪取하기 위한 闘争과 密接히 結合되어야 하며 主権을 奪取하기 위해서는 오직 暴力的 方法만이 勝利할 수 있으며 오늘南韓의 現実은 政権奪取를 위한 人民들의 闘争에서 暴力的 方法이 要求되는 時期』라고 豪言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情勢判断에 基礎하여 北韓은 本格的인 非正規戦의 展開를 위해 各種 対南功撃部隊를 編成하게 되었다.

北韓의 対南工作 機構는 労動党 中央委員会 秘書局의 対南事業 専担秘書를 頂点으로 그 隷下에 連絡部, 文化部와 朝総聯의 「在日朝鮮人 指導部」「武力部内의 偵察局」「社会安全部内의 反探局」등의 主要工作機構를 두고 있다.

「人民武力部」偵察局傘下에 124軍部隊, 283軍部隊, 17偵察旅団等의 特殊

(4) 軍事戰略 評価

北韓은 南韓의 赤化를 위한 基本計劃인 이른바 「民主基地」路線等 「3大 力量強化」가 70年代 中에 매듭지어질 것으로 期待하면서 4大軍事路線을 実践해 왔는데 全人民의 武装化를 서둘러 이미 正規軍과 다름없는 140余万의 労農赤衛隊를 武装시켰다. 이들에게는 69年에 AK歩銃과 旧式 多発銃등 個人火器 支給이 끝났고 各種 砲 射撃 訓練까지 完了하는 등 高度의 軍事訓練을 実施하고 農村에 있는 労農赤衛隊에 까지 87m/m 対空砲, 迫撃砲등 重火器가 支給되고 있다.

「全人民의 武装化」를 非正規軍과 一般大衆을 有事時에 正規軍으로 改編하기 위한 準備로 볼때, 이와 関聯된 措置가 「党幹部의 軍隊化」와 「軍의 幹部化」이다. 이는 平時에 軍의 指揮官으로 길러 놓았다가 有事時에 労農赤衛隊에 配置하여 赤衛隊를 그대로 正規軍으로 改編하여 戰場에 投入하기 위한 事前準備이다.

4大軍事路線 가운데 北韓 全域을 戰争터로 만든 「全国土의 要塞化」는 거의 目標를 達成한 것으로 본다. 休戰線 一帶에 沿한 坑道構築을 비롯하여 各種 戰略産業施設이 地下에 들어 갔고 東西海岸에 따른 坑道는 콩크리이트로 完成하고 一部 海岸에는 射程距離数 10 km의 미사일을 装備하고 있다.

結論的으로 北韓의 金一成은 지난 72年12月25日 最高人民会議 第5期 1次会議와 73年 新年辞에서 4大軍事路線을 더욱 더 強調한 것을 보아도 国際緊張緩和 무드 에 아랑곳 없이 南韓을 赤化統一하겠다는 対南戰略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能히 看破할 수 있다.

提唱하고 ② 스탈린을 批判하고 非스탈린化 政策을 主張하였다.

〈스탈린 批判〉

이 大会에서 흐루시쵸프와 미코얀은 個人崇拝의 排撃이라는 名目下에 스탈린에 対한 批判이 加해져 오랫동안 神格化되고 偶像化되어 온 스탈린이 非難·攻撃되어 그 権威는 땅에 떨어졌다. 그리하여 이것이 일으킨 波紋은 深大하여 社会主義陣営에 몇개의 커다란 事件이 発生하였고, 各国의 共産党間에는 注目할만 한 論争이 벌어지고 同時에 世界共産主義運動은 混乱에 빠졌다. 마르크스主義 自体가 再評価 되는 対象으로 抬頭되어 마르크스主義史観의 誤謬를 그들 스스로가 認定하는 状況이 되었다.

〈平和 共存論〉

흐루시쵸프의 平和共存論은 核武器의 発達로 戦争이 不可能에 가까워졌다는 客観的인 事実과 国内의 経済的 要請등이 作用하여 提唱하게 된 것으로서 그는 社会機構를 달리하는 諸国의 平和共存論에 관한 레닌의 原則을 外交政策의 基本方針으로 삼겠다고 하였다.

〈戦争可避論〉

이 大会에서 흐루시쵸프는 戦争은 宿命的으로 不可避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는 『…万一 帝国主義者들이 戦争을 始作하려고 試図한다면 그들은 侵略者들에 殲滅的 打撃을 加해 그 冒険計劃을 粉砕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戦争反対의 모든 勢力이 警戒心을 높여 動員되어 統一戦線에 의해서 行動하며 平和保持 闘争의 努力을 弱化하지 않는 것이 緊要하다』고 하였다.

이 「흐루시쵸프」의 戦争可避論은 어떤 理論을 들어 合理化를 하던 간에 『帝国主義가 存在하는 限 戦争은 不可避하다』는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命題에 大幅的인 修正을 加한 것임에는 틀림 없다.

(2) 中共의 態度

스탈린式의 独裁와 偶像化를 毛沢東을 通하여 中共땅에 그대로 実現하려 했던 中共의 指導部에 스탈린 格下運動이 준 衝撃은 文字 그대로

帝国主義者에의 譲歩는 戦争의 危険을 増大시킨다。 修正主義者는 帝国主義者와 맞서 싸우지 않으려 할 뿐만 아니라 反対로 帝国主義에 対한 幻想을 퍼뜨리고 있다。 修正主義者는 国際共産主義運動의 敵이다』고 하였다。 이에 対하여 蘇聯은 『모스크바宣言은 各国 共産党이 厳重하게 遵守할 鉄則이며 또 世界共産運動統一의 基礎』라고 하였다。

(2) 北韓의 対蘇公開非難

中蘇紛争이 쿠바事態로 인하여 새로운 段階로 접어 들자 中共과 마찬가지로 北韓은 蘇聯을 攻撃하였는데 特히 北韓은 間接的이고 微温的인 従来의 対蘇非難 態度를 止揚하고 積極的으로 中共을 支持하여 大胆하게 蘇聯에 対한 非難攻撃을 敢行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1962年 以来 蘇聯의 対北韓 軍事経済援助가 中断状態에 이르렀다。

다. 蘇聯共産党 第23次 大会와 三角関係

(1) 党大会와 中蘇紛争

1964年 10月 14日에 흐루시쵸프는 失脚하였다。 이 後에 蘇聯에서는 브레즈네프-코시긴 新政権이 誕生되어 対美・対中共関係에서 그 姿勢를 修正하였다。

이러한 気味를 본 中共은 新政権에 期待를 걸고 周恩来外相 一行을 1969年 11月의 革命記念日에 모스크바를 訪問케 하였다。 그러나 이때 両国間에는 아무런 意見의 接近을 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革命記念日에 즈음한 中蘇의 演説論調에 差異가 생겼다。 即 中共은 反美帝国主義, 反植民地主義를 強調한데 反하여 브레즈네프의 論調는 反帝国主義를 若干 言及하고 平和共存路線을 強調하였다。

中蘇関係의 그 後의 経過를 通해 보면 中共은 新政権의 政策路線이 흐루시쵸프路線에 되돌아 가고 있음을 보고 그들의 期待가 背反당함에 따라 新政権에 批判的인 態度로 나왔다。

그러자 브레즈네프-코시긴은 3月29日부터 4月8日에 걸쳐 第23次

이 自主路線은 蘇聯의 修正主義路線도 非難·攻撃하고 中共의 教条主義路線도 非難·攻撃하면서 오로지 北韓이 自主的인 立場에서 革命을 完遂할 것을 다짐한 것이다. 即 北韓은 『共産党 및 労動党들간에 있어서는 어떠한 特権的인 党도 있을 수 없다. 큰 党과 작은 党은 있으나 높은 党과 낮은 党, 指導하는 党과 指導받는 党은 있을 수 없다. 누구든 그 밑에서 服従하고 떠 받드는 関係란 許容될 수 없다』고 強調하였고, 『毎個 나라 革命의 主人은 그나라 党이며 그나라 人民이다. 따라서 革命을 遂行하고 새 社会를 建設하는데서 共産主義者들은 主人된 立場에 서야 하며 優先 自己 힘을 믿어야한다』고 強調하고 있다.

다음에 中蘇紛争의 渦中에서 北韓이 自主路線을 宣言하게 된 諸要因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国際共産主義運動의 分裂이다. 共産陣営의 分裂은 共産主義가 부닥쳐야 할 宿命이기도 하거니와, 이 分裂은 中蘇紛争으로 더욱 促進되고 拡大되었다. 이로 인하여 国際共産主義運動을 結束·団結시킬 수 있는 行動綱領이 無力해졌다. 따라서 漠然한 理念보다는 実質的인 内容(利益)을 追求하려는 共産国家가 생겨나게 되고 또한 北韓도 自体団束을 위해서라도 自主路線을 내 걸지 않을 수 없었다.

② 修正主義의 出現이다. 이것은 마르크스~레닌主義의 創造的 適用問題와 不可分의 関係를 갖고 있다. 北韓은 『우리는 마르크스~레닌主義를 適用하는 데서 어느 偏向에도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나라의 具体的인 特殊性만 내세워도 아니된다. 이렇게 되면 不可避하게 右傾機会主義的 誤謬를 犯하게 된다. ……修正主義 진탕속에 빠지게 되면 마르크스~레닌主義의 革命的 真髄를 去勢하고 階級闘争과 프롤레타리아 独裁를 拒否하고 階級協調를 説教하여 낡은 制度의 革命的 顚覆이 아니라 改良을 主張하게 된다.

이와 함께 우리는 다른 偏向도 警戒해야 한다. 마르크스~레닌主義의 一般原則만 強調하면서 変遷된 情勢와 나라의 具体的 特性을 無視하는 것

〈北韓·蘇聯関係〉

1972年 2月에 北韓의 許談「外交部長」이 蘇聯을 訪問했고 同年 6月에 蘇聯 外務省極東問題部長이 平壤을 訪問했으며 同月에 蘇聯 副首相인 노비코프가 平壤을 訪問했고 翌月에 北韓의 康良煜이 蘇聯을 答訪하였다. 이 一連의 招請·訪問外交를 통하여 蘇聯은 北韓과의 協力関係, 北韓의 統一方案등에 関하여 協議하였다.

이러한 北韓·中共 및 蘇聯의 三角関係는 北韓의 양다리外交 또는 中蘇의 対韓政策등의 相乘関係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蘇聯과 中共은 日本과 더불어 그 地政学的 与件에서 歷史的으로 韓半島에 対하여 깊은 利害를 가지는 国家로서 서로 対立·競争하여 왔다. 그러나 中蘇関係에서만 보더라도 韓半島에 대한 中蘇의 利害는 同一할 수 없다. 蘇聯이 世界超大国으로서 対美関係에서 平和共存을 維持하고 있는 것은 軍事戰略的인 均衡에 있어서나 地域的인 利害에 있어서도 유럽을 中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中共의 立場은 蘇聯의 그것과는 다르다. 中共은 그의 国力으로 보아 美蘇와 같은 超大国이 아닐 뿐더러 地政学的으로도 유럽国家가 아니라 아시아 国家다. 따라서 中共은 유럽에 있어서의 緊張緩和를 위하여 対美関係에서 蘇聯이 다 하던것과 같은 大国으로서의 役割을 아시아에서의 緊張緩和와 그 後의 새로운 秩序形成에 있어서 다 하고자 한다. 그런고로 中共은 東欧에 対한 支配権과 地位의 安定에 갖는 蘇聯의 関心에 못지 않게 아시아에 対한 影響力의 安定化를 追求할 것이다.

그렇다면 現在 中共의 韓半島에 対한 利害는 무엇이냐 하는 問題가 提起된다. 勿論 中共의 韓半島에 対한 가장 理想的인 目標는 南韓의 赤化統一에 있다. 이런 意味에서 韓半島에 対한 中共의 目標의 第一次的인 課題는 中蘇紛争의 状況에서 北韓을 中共側에 密着시키는데 있으며 第2課題는 그의 利害와 相反되지 않는 限에 있어 韓半島에 있어서의 緊張緩和에서 外面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金日成의 死後에 後継者 問題가 나올 때 그 後継者의 指導権이 金日成과 같이 確固히 成立될 수 없다는 것은 明白하다. 이 때의 収拾策이 大端히 困難할 것이며 一旦 有事時에는 大衆은 烏合之卒로 分散될 것이고 権力構造나 社会構造面에서 混乱을 이르킬 可能性을 갖고 있는 그러한 弱点을 갖고 있는 것이다.

둘째, 経済協力面에서 갖고 있는 脆弱点이다. 北韓이 앞으로 経済建設을 拋棄하지 않고 継続 밀고 나가는 한 外国의 経済援助를 받지 않을 수 없다. 現在까지는 中共이나 蘇聯으로부터의 援助로서 維持하여 왔으므로 그렇게 큰 問題가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対日接触 및 経済協力이 現実化된다고 보면 여기에서 随伴되는 問題가 北韓社会에 미치는 影響이 至大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自由로운 生活과 思考가 몸에 밴 日本人 또는 在日僑胞(주로 朝総聯)가 北韓으로 来往하게 되고 経済援助로 外国技術者들이 北韓에서 常住하게 되어 그들의 日常生活態度가 北韓住民에게 끼칠 自由化 바람이 그것이다. 이 技術者들의 思考나 行動은 一般人의 그것과 다른 点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北韓에서도 一般大衆에게 教養講座를 実施할 때 技術의 神秘主義를 排撃하는데 神経을 쓰고 있다. 技術에 対한 神秘主義의 助長은 1人独裁体制 維持에 致命的인 悪影響이 있기 때문이다. 北韓이 対内的으로 技術者를 다루는데도 神経을 쓰고 있는데 하물며 外国技術者는 그렇게 단순히 다룰 수 없는 일이다. 経済建設을 하기 위해 自由의 바람을 容納하느냐, 自由의 바람을 막기 위해 経済建設을 서둘지 않느냐 하는 式의 苦悶이 北韓에는 現実問題로 抬頭되고 있으리만큼 北韓社会에는 이것이 脆弱点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세째, 青少年과 執権層의 不調和에서 오는 脆弱点이다. 青少年이 既成世代에 대하여 反撥을 일으키고 있는 現象은 自由世界만의 問題가 아니며 先進共産国家나 北韓에 있어서도 例外는 아니다. 共産主義 原典에는 아무리 보아도 찾을 수 없는 金日成 偶像化의 解釈問題라든지, 一般大衆

Ⅵ. 對 南 戰 略

第 1 章　共産主義　戰略·戰術論

第 2 章　北韓의　対南戰略

第 1 章　共産主義　戰略・戰術論

1．序　言

마르크스가 主張하고 있는 『戰争은 革命의 産婆役』이라는 表現에서 우리는 共産主義者들이 戰争을 革命의 達成이라는 側面에서 如何히 聯関시키고자 애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戰争과 革命의 相互聯関性」 即 共産主義革命戰争에 있어서의 戰略·戰術論에 実際性을 賦与한 者는 레닌이었다. 따라서 共産主義革命戰略·戰術論이라는 立場에서는, 마르크스~엥겔스時代는 具体的인 言及을 볼 수 없으며 레닌의 <帝国主義論> (1917年)과 <国家와 革命> (1917年) 그리고 스탈린의 <1933年의 러시아 빨찌산에 관한 指針> 등에서 実際에 適用시키고자 하는 努力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레닌~스탈린時代의 共産主義革命戰略·戰術論은 그 基本이 「帝国主義戰争의 内戰化」라는 観点에서 주로 다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民族解放戰争이니 人民戰争이니 하는 範疇에서 論議하고 있는, 예컨대 越南戰争의 경우, 이러한 共産主義革命戰略·戰術論에 影響을 크게 준 理論은 亦是 毛澤東의 게릴라戰略 思想에서 浮刻되는 戰略·戰術論인 것이다. 따라서 共産主義革命戰略·戰術論을 後進国次元에서 分析·批判할때 一次的으로 研究의 対象으로 삼아야할 戰略理論은 毛澤東革命戰略思想이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은 後進国에 있어서의 共産主義革命의 達成手段으로서의 戰略·戰術論을 처음으로 体系化한 実践的 理論家가 다름아닌 毛澤東이기 때문이다. 보·구엔·지압의 5段階論이나, 체·게바라의 게릴라戰争 理論은 亦是 그 母体가 毛澤東革命戰略思想인 것이며, 이러한 意味에서 지압의 <人民戰争·人民軍隊>는 毛澤東이 著述한 <遊撃戰의 3部作>의 亜流에 불과하며 게바라는 그 変種이라고 볼 수 있다.

레닌~스탈린의 戰爭觀의 基礎를 이루는 것이다. 가르토프는 一次的으로 마르크스~엥겔스가 設定하고 나중에 레닌 특히 스탈린이 發展시킨 戰爭의 2大別化를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가. 正義의 戰爭 (just war)

征服戰爭이 아니라 人民을 他国의 侵略과 奴隸狀態에서 防禦하기 위한 戰爭, 人民을 資本主義的 奴隸狀態에서 解放하기 위한 戰爭. 또는 마지막으로 植民地와 隷屬国家를 資本主義의 멍에에서 解放하기 위한 戰爭이 正義의 戰爭이라고 한다.

나. 不正義의 戰爭 (unjust war)

他国 및 그의 国民을 征服하며 奴隸化하기 위한 戰爭이 不正義의 戰爭이라고 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的인 戰爭觀을 一次的으로 表明한 마르크스~엥겔스의 테제는 結局 資本主義 社会가 必然的으로 孕胎하는 戰爭은 不正義의 戰爭이므로, 이것은 革命의 産婆役口実을 하여, 歷史發展의 論理에 따라 必然的으로 資本主義社会는 崩壞되어 社会主義社会가 到來한다는 도그마를 代弁케 된다.

그러면 「歷史發展의 必然性」이라는 論理는 무엇인가? 마르크스와 엥겔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즉, 하나의 社会体制는 物質的 生産力이 그 社会体制内에서 더 이상 發展할 餘地가 없을 程度로 充分히 發展하지 않는 限, 결코 没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資本主義社会에서는 生産力의 發展과 더불어 資本은 少数의 부르죠아지에게 集中되고 人口의 大多数를 차지하는 프롤레타리아大衆은 날로 貧困에 허덕이게 된다. 그러나 이와 同時에 프롤레타리아大衆의 反抗도 增大하여 이들은 階級意識을 覚醒하고 団結하여 組織化된다. 生産手段의 集中과 労動의 社会化는 드디어 資本主義的体制와는 両立할 수 없는 時点에 이르게 되어 資本主義体制에 弔鐘이 울리게 되며 革命을 통하여 社会主義体制가 出現하게

主張이다.

마르크스~엥겔스가 史的 唯物論에 土台를 두고 展開한 社会革命理論은 物質的 生産力의 發展에 依한 「아래로 부터의 革命」(Revolution Von Unten)이었다. 몇몇 職業革命家들에 의한 「위로 부터의 革命」(Revolution Von Oben)과는 対照를 이루고 있다. 마르크스는 人間이 歷史를 創造한다고 擧論하였으나, 그것은 결코 人間이 自己가 願하는 대로 任意로 歷史를 創造할 수 있다는 主張이 아니라 주어진 歷史的 狀況內에서만, 즉 歷史의 必然的 法則에 順應해서만이 歷史를 創造할 수 있다는 程度의 意味 內容인 것이다.

그러나 資本의 集中이 貧困을 增大하고 資本主義의 没落을 招來한다는 「資本論」에 土台를 둔 마르크스~엥겔스의 社会革命論은 從來 実現되지 않았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豫言과는 달리 産業革命期의 爆發現象을 克服한 先進資本主義諸国은 1870 年代以来 技術開發과 植民地獲得等에서 오는 利潤으로 말미암아 急進的인 富의 蓄積과 함께 프롤레타리아階級의 括目할만한 生活水準의 向上을 가져왔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프롤레타리아階級은 暴力革命을 통하여 부르죠아政権을 打倒함으로써만이 自己들의 利益을 保障할 수 있다는 政治闘争보다는 現秩序內에 다시 말하면 体制內的인 志向性 속에서 漸高하는 生活水準의 促進과 享有를 爲한 經濟闘争에 더 関心을 쏟게 되었다.

3. 레닌의 革命戰略·戰術

레닌은 마르크스~엥겔스의 古典的인 「社会革命論」에 具体的인 戰略과 戰術의 衣裳을 입힌 典型的인 実踐家였다. 그것은 伝統的인 마르크스主義에 클라오제비츠의 「戰争論」(1833 年)을 加味시켜 政治와 軍事 즉 革命과 戰争의 相互密着을 더욱 実際的으로 聯関시켜 帝国主義諸国家間의 戰争을 內戰化하여, 武装暴動의 結果로서의 社会主義革命을 実地 러시아땅

共産党員은 革命에 있어서 数많은 兵士들을 戰争터에서 現地調達하여 이들을 指揮統率할 職業的 將校요 下士官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党은 「閉鎖的 組織」을 特性으로 한다. 그리고 이 党은 「秘密」에 土台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레닌이 마르크스에 比해 發展시켰다고 하는 武裝闘争은 어떤가.

레닌은 必要時 언제나 使用할 수 있는 「武裝部隊」를 党이 直接 갖고 있어야 한다고 強調한다. 政権의 奪取가 共産党의 窮極的 目標이고 이 目標의 実現은 武裝闘争을 통해서만 可能하며, 따라서 武裝闘争의 手段으로서의 武裝部隊의 確保는 決定的으로 重要한 意義를 갖는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武裝部隊는 奪権闘争形態와 方法面에서 어떠한 意義를 지니고 있는가.

레닌은 奪権闘争의 具体的인 方法을 提起함에 있어서, 마르크스에 比해 暴力에 呼訴하는 政治的인 闘争形態를 더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戰術的인 性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레닌은 決定的 時期에 短期間의 都市暴動戰術에 의해 既成政権을 打倒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 이러한 빨찌산活動의 革命闘争에로의 適用問題에 있어서는 戰術的階段에 머무르고 있다고는 하나 그 意義의 重要性은 無視할 수 없다.

레닌이 1906年에 刊行한 <빨찌산戰>에 따라 빨찌산의 活動目標·原則과 빨찌산闘争의 制限事項을 檢討해 보자.

레닌에 의하면 빨찌산活動의 目標는

(1) 軍과 警察 및 政府의 高級官吏나 下級官吏를 射殺하려는데 있고

(2) 政府나 特定個人으로부터 資金을 奪取하는데 있다.

고 말함으로써 테러活動과 資金의 奪取活動으로 局限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빨찌산活動은 『自由獲得의 闘争手段이며, 危機가 深刻해 짐에 따

여기에서 레닌이 示唆하고자 하는 바는 러시아에서의 社会主義革命을 위해서도, 世界革命을 위해서도 다같이 그 先行條件으로서 帝国主義戰争의 內戰化가 不可缺하다는 点을 強調하자는데 있었다. 레닌에게 있어서 帝国主義는 資本主義의 最高段階로 되어있고 資本主義의 發展에 따라 原料供給市場의 確保 그리고 過剩資本의 輸出을 위해서는 植民地가 必要하거니와 이 植民地의 平和的 分割의 不可能性 때문에 資本主義国家間의 植民地 爭奪을 위한 帝国主義 戰争이 不可避하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帝国主義戰争의 不可避性을 前提로 하여 帝国主義戰争을 內戰으로 轉換시켜 帝国主義国家의 支配階級이 軍事的 敗北의 結果 危機狀態에 到達하게 되는 狀況을 利用하여 社会革命을 遂行코자 하였다.

이러한 「帝国主義戰争의 內戰化에 의한 後進国에서의 革命可能性 提起」 즉 「東方迂廻戰略」은 後述하게 될 毛澤東의 「農村으로부터 都市를 包圍」한다는 戰略思想에 寄与했다고 볼 수 있다.

4. 코민테른의 戰略·戰術

코민테른(Comintern - Communist International의 略字)의 戰略·戰術을 1928年에 發表된 『코민테른의 綱領』에 따라 알아 보자.

코민테른의 戰略·戰術은 아래와 같은 前提에 立脚하고 있다. 즉 『帝国主義는 国際関係体制를 뒤흔들어 놓을 戰争을 「不可避하게」 惹起할 것이다. 그러므로 帝国主義는 全世界프롤레타리아 革命으로 「仮借없이」 引導될 것이다』

루하체브스키가 強調한 바와 같이 『帝国主義戰争이 全世界프롤레타리아 革命을 孕胎한다』는 前提는 부르죠아지와 프롤레타리아의 闘争이 国家的 次元(national scene)에서 提起된다는 伝統的인 마르크스主義의 理論을 代替하는 것이다.

第1次世界大戰의 結果 蘇聯과 世界 資本主義国家사이에는 根本的인

5. 스탈린의 共産化戦略・戦術

世界革命論에 立脚한 레닌主義는, 스탈린의 執権으로 말미암아 「一国社会主義論」으로 代替케 되었다. 스탈린의 주된 関心은 対内的으로는 蘇聯을 社会主義国家로 建設하며, 対外的으로는 革命의 輸出보다는 社会主義基地 蘇聯을 防衛하며 安全을 保障하려는데 있었다.

스탈린은 레닌과 같이 透徹한 理論家는 아니었으며, 무엇보다도 于先 社会主義国家 蘇聯을 防禦하며 建設하는데 온갖 努力을 傾注한 政治的 実務者였다. 共産党이라는 機構를 運営하므로써 政治에 関하여 広範한 経験을 쌓은, 経営管理 能力을 所有한 冷静한 実践家였다. 将次 닥쳐올 戦争의 危急性에 対해서 레닌時代와는 달리 国際革命을 위하여 準備하느니 보다도 「祖国防衛」(자.로지누)를 위해 愛国主義에 呼訴했다.

独蘇戦争이 勃発된 以來로 프롤레타리아国際主義나 国際革命보다도 소비에트大国主義나 내셔널리즘이 앞서게 되었다. 스탈린은 나치.独逸과의 戦争을 「祖国防衛戦争」이라고 부르고 国際共産主義革命運動의 指導者로서가 아니라 蘇聯이라는 国家의 現実政治(Realpoiltik)의 指導者로서 登場했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이데올로기의 反轉이 아니라 対独戦争의 處理를 위하여 人的, 物的 全資源의 動員을 위해서는 不得已했다는 政治的 現実感覚의 産物로서 理解되었다. 스탈린은 결코 暴力으로써 유럽革命을 遂行하려는 近代的 冒険主義者하고는 立場을 달리했다. 이러한 意味에서 1933～41年의 스탈린의 戦略은 從來의 마르크스～레닌主義的 教理와는 距離가 있었다. 스탈린은 단 한번 스페인内乱時에 国際戦争을 内戦으로 轉換시키고자 하여 從來의 레닌主義公式을 따랐을 뿐, 그 밖의 다른 곳에선 国際関係를 現実政治의 観点에서 理解하고 蘇聯을 하나의 革命国家로서 보다도 強力한 軍事力을 가진 「活動하는 国家」로 看做했다.

하여 可能한 限 많은 나라에 衛星国家를 樹立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両大陣営論으로 説明될 수 있는 스탈린의 共産化戰略·戰術에 따라 共産化革命의 새로운 類型인 東欧의 共産化戰略이 登場케 되었다.

6. 東欧의 共産化戰略

2次大戰後 東欧地域에 進駐한 蘇聯軍은, 코민테른内에서 活躍하고 있었던 東欧出身 共産主義指導者들 즉 「모스크바의 優等生들」과 現地 共産主義者들을 앞세워 共産化戰略을 展開했다.

휴·세튼·왓슨教授는 東欧共産化戰略 類型을 漸進的 3段階政策이라고 特徵짓고 있는데 그 要旨를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第1段階에서는 劣勢한 共産党이 蘇聯軍의 힘을 背景으로 하여 強大한 民族主義諸政党과 聯合戰線을 펴고 聯立政府를 樹立하여 共同計劃을 遂行한다. 이 段階는 흔히 聯立政府段階로서 眞正한 民族主義者와 共産主義者가 区別되기 어려운 時期이며, 共産党은 그 勢力을 날로 增大하는 한편 強大한 民族主義諸政党에 浸透하여 内部的 分裂과 弱化를 企圖한다.

第2段階는 仮面의 聯立政府段階이다. 이 段階에 이르면 有能한 非共産主義的 指導者들을 하나 하나 除去하고 民族主義政党들을 無力한 傀儡政党 내지는 둘러리政党으로 変質시켜 名目上의 議会民主主義를 維持한다. 軍隊와 警察을 비롯한 모든 要職은 共産党과 共産党의 偽装政党에서 掌握한다. 外面上으로만 仮装된 仮面의 聯立政府가 存在하는 段階로서 権力의 階級的 性格面에서는 労動者 農民의 指導下에 부르죠아民主主義革命에 利用할 수 있는 階級만 둘러리階級으로 남겨 놓는다.

第3段階가 共産党一党独裁의 段階이다. 人民民主主義라는 이름아래 反対党을 帝国主義의 앞잡이로 몰아 抹殺하여 버리고 한두개의 装飾用 둘러리政党만을 남긴채 거의 完全한 共産党의 一党独裁가 実現되고, 이로써 共産党의 奪権闘争이 終了된다. 특히 이 段階의 権力의 階級的 性格은

「社会革命論」에서는 考察될 수 없으며, 레닌主義와 스탈린 戰略에서 言及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第2次大戰時의 東欧圈의 社会·經濟 構成은 封建的 要素와 初期資本主義的 要素가 混合된 狀態에 있었으며, 또한 外国資本의 浸透와 나치즘의 支配·影響下에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混合된 社会·經濟的 狀態와 外勢의 桎梏을 打破해야 할 멜리케이트한 階級問題와 民族問題를 包容하고 있었다.

工業은 發達되었지만 아직도 農業国의 地位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체코슬로바키아, 아직도 農業革命이 未解決인채 남아 있는 폴랜드, 항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農業部門에 있어서 反封建土地革命의 課題가 山積된 불가리아等 東欧諸国은 総体的으로 複雜하고도 混合된 社会·經濟 狀態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나치·独逸과 팟쇼 이탈리아와의 関係에 있어서는 거의 모든 東欧国家가 그 支配나 影響下에 있었다. 예를 들면 民族的 国家機構가 崩壞되어 나치 히틀러軍의 直接 占領下에 놓인 폴랜드, 체코슬로바키아, 유고슬라비아, 그리고 불가리아, 루마니아, 항가리는 나치 独逸과 同盟関係에 있었으며, 알바니아 亦是 파시즘의 支配下에 있었다.

이러한 情勢下에서 事実上 東欧人民民主主義革命에 대하여 積極的인 支柱役割을 한 것은 蘇聯의 볼셰비키 이데올로기와 나치 独逸軍을 무찌르고 進駐한 蘇聯軍이었다.

그러면 東欧人民民主主義의 成立과 發展에 대해서 蘇聯이 끼친 影響力을 알아보자.

1) 蘇聯軍은 東欧諸国을 나치 独逸의 侵略으로 부터 直接 解放한 解放軍으로서 自處할 수 있었으며, 占領軍으로서 그 地域 共産主義者들을 直接 援助하고 反対派를 除去할 수 있는 背景勢力이 되었다. (유고슬라비아와 알바니아는 除外)

<類 型 3>

共産党 主導下의 対独抵抗運動이 弱勢였던 国家로서 独逸의 直接的인 占領時, 民族的 国家機関이 存続할 수 없었기 때문에 解放後 一時亡命政権과 聯立政府를 樹立한 例에 속한 国家로서 民主主義的 要素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境遇 (체코슬로바키아, 폴랜드)

<類 型 4>

広範한 対独抵抗運動이 없고 民主勢力의 結集이 弱해 主体的 條件이 成熟하지 못했기 때문에 人民民主主義政権의 樹立을 위해 解放後 若干의 期間을 거쳐서 漸進的으로 到達된 国家 (루마니아, 항가리)

7. 毛沢東의 革命戰爭戰略·戰術

1) 毛沢東의 革命戰略論

毛沢東은 레닌의 <帝国主義論>을 發展시켜 戰爭과 革命의 相互関係를 딱 密着시켜 놓았는데 이것은 中国에 있어서의 具体的인 歷史的 經驗의 産物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레닌의 影響을 中国의 特殊한 狀況에 適用시키는 오랜 歲月의 흐름속에서 表出되어 나온 毛沢東의 表現은, 예컨대 職業革命家들이 웅크리고 있는 党의 重要視에서 農民大衆에 根據를 둔 軍隊로 그 重点이 바뀌어 지는데 이 경우 우리가 直視해야할 点은 「中共軍=中共党」이라는 名実相符한 「二位一体性」이다. 이 「党과 軍의 二位一体性」確認은 結局, 레닌이 主張한 職業的인 革命家 엘리트爲主에서 脫皮, 農民的 性格을 지닌 大衆路線의 重要性을 클로즈업 시켜 준다.

이리하여 毛沢東은 <戰爭과 戰略의 問題>(1938年)에서 이렇게 主張하고 있다. 『中国에 있어서 闘爭의 最高形態는 戰爭이며 組織의 最高形態는 軍隊이다.』

毛沢東의 境遇, 革命과 戰爭은 同一現象이므로 共産主義革命을 위한

「軍事作戰」의 形態에 있어서는 게릴라戰의 敎義와 게릴라戰(guerrilla warfare)에서 運動戰(mobile warfare)에로의 漸次的인 轉換原理로 發展되었다.

그러면 毛沢東이 主張하는 『革命戰略에 있어서의 哲学的 課題』를 간추려 보기로 한다. 毛沢東은 軍事的으로는 遊擊隊의 生存根據地인 「空間」을 組織하여 「時間」을 얻고 또 政治的으로는 持久 戰略槪念에서 浮刻되는 「時間」을 組織하여 政治思想工作의 果実인 「意志」를 形成하는 것이 革命戰略에 있어서의 基本的인 哲学的 課題라고 主張하고 있다. 「面積十障害物一交通遞信網」인 「空間」그리고「時間」 및「意志」의 3者 関係는 基本的으로 「時間」을 媒介的인 軸으로 하여 軍事와 政治 즉 戰争과 平和의 両者関係를 密着시키자는데에 毛沢東의 基本意圖가 있다.

上述한 毛沢東의 革命戰略에 있어서의 哲学的 課題를 簡単히 圖式化하면 다음과 같다.

時間＋空間＝軍事的 課題
時間＋意志＝政治的 課題
＞ 弁証法的 統一

나. 毛沢東戰略思想에 있어서의 革命的 게릴라戰의 特徵

게릴라戰을 純軍事的 앵글로부터 民族解放闘争이란 歷史的 높이까지 發展시킨데에 毛沢東의 게릴라戰 特徵이 엿보인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從來 主張되어온 戰術(tactics)로서의 게릴라戰이 아니라 戰略(strategy)的 次元으로 昇格된 意味를 간직하고 있다. 왜냐하면 中共의 게릴라戰 展開過程은 곧 中共軍의 共産革命過程인 것이며 그 歷史的 考察은 中共党史와 人民革命戰争史에 求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毛沢東의 3段階論이 提示되고 있는 <持久戰論>에서 우리는 弁証法的

大端히 큰 大衆을 動員한다。 이러한 遊擊戰術은 마치 投網하는 것과 같아서 언제든지 必要에 따라 網을 펴고 또 언제든지 必要에 따라 網을 좁힌다。 펴서 大衆을 獲得하고 좁혀서 敵에 対抗한다。』

그런데 毛沢東은 16字戰法을 단지 軍事的 作戰을 展開하는 戰術로서만 限定치 않고 더 나아가 二次的으로 戰略的 高地를 構築했다。

그러면 革命的 게릴라戰을 戰略的 次元으로 昇格시키고 있는 毛沢東의 革命戰略思想을 檢討하려면 革命戰爭의 3段階論을 言及할 必要에 直面한다。 前述한 R.C.서그스와 B.M.월랙의 論文<毛의 3段階 — 事実아니면 幻想?>에 依據하여 分析해 보자。

段	階	毛 沢 東 「持久戰論」(1938)	보.구엔.지압 「人民戰爭.人民軍隊」(1959)
1	戰態 略勢	敵 = 戰略的 攻擊 中共 = 戰略的 防禦	闘 爭
	戰形 爭態	從來의 大部隊를 使用하는 運動戰이 主役割 게릴라戰 陣地戰이 補助役割	게릴라戰이 主役割 陣地戰, 運動戰도 存在
2	戰態 略勢	敵 = 戰略的 防禦 中共 = 攻擊 準備	均 衡
	戰形 爭態	게릴라戰이 主役割 運動戰, 陣地戰이 補助役割	게릴라戰의 役割이 減少 陣地戰, 運動戰의 役割增大
3	戰態 略勢	敵 = 戰略的 後退 中共 = 戰略的 攻擊	逆 攻 勢
	戰形 爭態	運動戰이 主役割 陣地戰, 게릴라戰이 補助役割	運動戰, 陣地戰이 支配的 게릴라戰의 重要性 減少

対하여 10의 힘으로서 対應하는 것이 敵을 撃破하는 秘訣』이라고 強調했다。 이것은 圧倒的으로 優勢한 兵力配置로 戦争을 早速히 終結코자 하는 伝統的인 戦争理論(西洋의 一般的인 兵学思想)에 対立되는 立場이다。

요컨대 우리는 毛沢東의 革命的 게릴라戦略思想에 있어서의 3部作 即 <中国革命戦争의 戦略問題>(1936年), <抗日遊撃戦争의 戦略問題>(1938年) 및 <持久戦論>(1938年)등에서 結局 다음과 같은 根本的인 테제를 抽出할 수 있을 것이다。 即 毛沢東은 時間, 空間, 歴史的 特性등의 相関関係를 考察한 孫子兵法을 그의 大前提인 마르크스~레닌主義에 加味하여 게릴라戦을 独特한 革命的戦略으로 發展시킨 張本人이라는 事実이다。

(2) 毛沢東戦略思에 있어서의 革命的 게릴라戦의 行動主體

毛沢東의 게릴라戦争観은 『戦闘力의 가장 깊은 根源은 民衆안에 있다』는 確信과 『게릴라와 人民은 물고기와 물과의 関係에 있다』는 信念에 立脚하고 있다。

이것이 다름아닌 게릴라戦의 行動主体를 人民=農民大衆에 둔 毛沢東戦略思想의 重要한 特徴이다。

農民의 革命主体性을 強調하는 毛沢東은 심지어 이렇게 말했다。 『中国革命의 成功에 10点을 준다면 都市民과 軍隊는 3点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7点은 農民에게 돌아가야 한다.』 이것은 確実히 農民을 「文明時代의 野蛮人」이라고 規定한 마르크스~엥겔스의 테제하고는 동떨어진다。

毛沢東은 일찌기 井崗山闘争時 그 闘争目標를 다음과 같이 宣言했다。 『現在의 中国은 아직도 부르죠아民主革命의 段階에 있다。 中国民主革命의 綱領에는 対外的으로는 帝国主義를 打倒하여 徹底한 民族解放을 꾀하고

戰爭의 歷史는 아래와 같은 証據를 提示하고 있다。 即 처음에 弱하고 少数였던 人民革命軍이 強力한 大軍으로 成長한 것은 人民戰爭의 普遍的인 法則이다』다음으로 <敵을 輕蔑하라>는 項目에서 이렇게 指摘하고 있다。 『毛沢東同志는 우리는 敵을 戰略的으로 輕蔑하고 戰術的으로 充分히 參酌해야 한다고 指摘하고 있다。…… 農村의 革命根據地 確立과 시골로 부터의 都市包圍에 関한 毛沢東同志의 理論은 現在 모든 被圧迫国家와 人民의 革命闘爭을 위해 顯著한 重要性을 갖고 있다。…… 中国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이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地域国家들에 있어서 農民問題는 大端히 重要하다。 農民은 帝国主義者와 그 追從者들에 対抗하는 民族解放民主主義革命의 主要勢力을 構成한다』 또한 <大都市를 包圍하라>는 項目에서 林彪는 다음과 같이 毛沢東의 大戰略인 包圍戰略을 現代世界戰略에 適用시키고 있다。 即 『帝国主義者들은 侵略을 敢行할때 普通 大都市를 占領하나 広闊한 農村을 統制할 수 없다。 시골은 革命軍이 自由롭게 起動할 수 있는 広闊한 地域을 提供한다。 万一, 北美와 西欧가 世界의 都市라고 불리울 수 있다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는 世界의 農村을 構成한다。…… 이런 意味에 있어서 現代 世界革命은 農村地域에 依한 都市包圍를 나타내고 있다』。

8. 毛沢東革命戰略論의 亜流와 変種

가. 보·구엔·지압

보·구엔·지압의 戰略·戰術은 革命戰爭 즉 人民戰爭의 「5段階論」에 立脚하고 있다。 그런데 이 5段階論은 毛沢東의 3段階論앞에 2段階의 事前準備 段階를 플러스한데 不過하며, 그 基本戰略에 있어서는 毛沢東의 革命的 게릴라 戰略思想에 決定的으로 힘입고 있다。 따라서 지압의 <人民戰爭, 人民軍隊>는 毛沢東의 「革命戰爭戰略·戰術의 3部作」을 基本的으로 이어 받은 亜流라고 볼 수 있다。

5段階(或은 3段階)게릴라戰略·戰術을 中枢로하여 디엔비엔푸陷落에서 보여지는 抗仏民族解放戰爭에서 勝利를 거두었다。

지압은, 그의 著書<人民戰爭, 人民軍隊>(1959年)에서 毛沢東의 主張을 되풀이 하고 있다。 즉 『抵抗戰爭을 勝利로 引導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戰略原則을 갖는것만으로는 充分치 않고 適切한 作戰方針이 必要하다。 우리의 抵抗戰爭은 게릴라戰으로부터 차츰 正規戰으로 옮기고 있으며, 게릴라戰으로부터 部分的인 陣地戰과 結付된 運動戰으로 옮겼다。 基本的으로 우리들은 이 一般法則을 把握하고 있었기 때문에 成功했던 것이다』

그리고 越南戰爭에 있어서의 越南臨時革命政府 즉 베트콩의 게릴라戰略 戰術은 말할 나위도 없이 「毛沢東-지압」의 革命的 게릴라戰略·戰術을 踏襲한 것이다。

나。체·게바라

체·게바라의 게릴라戰爭理論에 있어서의 戰略과 戰術을 要約해서 說明하려면 毛沢東의 革命戰爭戰略·戰術論과의 対比에서 考察하는 것이 必要하다。

以下 세가지 側面에서 分析해 본다。

1) 革命戰爭의 3段階論 解釈에서 差異点을 들어내 놓고 있다。 毛沢東은 이 3段階의 發展에 主要関心을 가져 運動戰, 게릴라戰, 陣地戰등의 性格을 糾明하고 있는데 반하여, 게바라는 第1段階를 가장 重要視하여 3段階發展論에는 関心을 별로 表明치 않고 있다。 그것은 原게릴라와 新게릴라의 相関作用에 主要関心을 가지고 있는 点에서 表明되며 또한 「革命條件早期成熟論」의 強調에서도 立証된다。

2) 게릴라戰線의 組織등에 具体的인 力点을 두어 根據地問題, 軍需産業問題, 其他 情報, 訓練, 敎化등 組織構成에 仔細한 言及을 하고 있는 게바라는, 結局 「물과 물고기」関係에 있는 人民大衆과 게릴라戰士의 密接한

第2章 北韓의 対南戦略

1. 赤化統一戦略

가. 標榜과 戦略의 差異

(1) 統一原則

北韓은 外交 및 宣伝的 次元에서 그들의 統一原則이 自主·民主·平和의 세가지로 要約된다고 줄곧 主張해 왔다. 그러나 共産主義者들의 底意를 露出시키는 党大会 決定書를 비롯한 党内文献에 表現된 統一原則은 소위 南朝鮮에서의 革命, 그 하나 뿐이다.

예컨데 前者의 카테고리에 속하는 呼訴로서는 金日成이 워싱턴에 있는 소위 朝鮮問題研究所長 金龍中에게 보낸 1965年 1月5日字 回答書翰을 들 수 있다. 그 書翰에서 金日成은 『周知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恒常 우리 民族의 内部問題인 統一問題를 어떠한 干渉 또는 外勢의 干渉도 없이 自立原則에서 民主主義的으로 平和的 解決을 해야 한다는 立場에서 出発하고 있다』고 主張하였다. 그는 또 『一般的이고 平等한 秘密投票의 方法에 의한 南北総選挙를 実施한다면, 各界 各層의 人民大衆의 総意를 充分히 反映하는 統一的 民主主義 政府를 樹立할 수 있을 것』이라고 附言하기도 했다. 다만 『南北 総選挙는 外国 軍隊를 撤収시키고 온갖 干渉을 排除하는 同時에, 政党活動의 完全한 自由와 人民大衆의 自由 権利가 充分히 保障되는 条件이 必須的인 것이다』라고 하고있다. 그러나 北韓의 現実과 北韓共産党(朝鮮共産党)의 実践이 金日成이 말한 条件形式으로부터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는 美国이나 日本에 居住해온 사람보다도 直接的인 體験을 갖고 있는 北韓住民과 韓国国民들은 切実히 알고 있다. 北韓의 共産統治體系가 낡아빠진 스탈린主義的 個人崇拝와 가장 無慈悲한 恐怖政治로 特徴지

이러한 分断状態를 어떠한 手段으로 終熄시키느냐 하는 方法論을 提起하고 있기도 하다. 즉 北韓은 韓半島의 分断을 마르크스~레닌의 階級闘争과 世界革命의 理論으로 説明하고 있으며, 이러한 観点은 統一問題 全域에 걸쳐서 民族의 利害関係에 앞서서 이데올로기的 側面을 보다 強하게 作用시키고 있다.

이 結果 北韓이 願하고 있는 統一政府의 形態는 오직 마르크스~레닌主義에 立脚한 政治, 社会體制의 保障이라는 制限된 意味를 内包하고 있으며 따라서 설사 韓民族의 自由意思에 의한 餘他의 政治, 社会體制라 할지라도 쉽사리 北韓이 받아 들일 수 없다는 것은 当然한 것으로 되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은 統一実現 過程에 있어서 原則上 妥協이라는 観念 그 自體를 否定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妥協이라는 観念 그것은, 때때로 利害関係가 전혀 다른 階層과 함께 共通的인 打撃対象을 孤立시키거나 制圧하기 위한 戰術的인 手段으로서 活用되고 있다. 이것이 곧 北韓의 統一戰線戰術의 基本的인 目的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戰術的 側面은 解放以後 오늘날까지 北韓이 提示한 統一方案의 内容에 있어서 徹底히 作用하여 왔다.

즉 이러한 事実은『만약 南韓의 民族 부르죠아지가 우리들의 社会主義建設을 그만 두어야만 統一戰線을 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면 우리는 그들과 統一戰線을 할 수 없다. 우리가 오늘날 南韓人民들과 統一戰線을 하는 것은 社会主義 革命을 그만 두라고 하는것이 아니라 祖国의 平和的 統一을 達成함으로써 우리가 目的하는 社会主義 建設을 全国的으로 実現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한 것이다』라고 한 所謂 金日成의 発言에서 直接 느낄 수 있다.

이러한 観点에서 본다면 北韓이 提示한 모든 統一方案은 其実 韓民族의 統一実現을 위하여 誠実한 態度에서 提起된 解決方案이 아니라 韓半島 全域에 共産主義體制를 確立할 目的아래 能動的으로 提示하고 있는 戰略 戰術的인 口号의 性格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多様한 口号는 共産化 統一을 促進시킨다는 하나의 目的 意識이 恒常 作用하고 있으며, 그

다. 이와 関聯하여 北韓의 戰爭観과 平和的인 統一戰略은 다음과 같은 制限性을 가지고 있다는데서 注目되고 있다. 즉 北韓은「우리党의 平和統一路線은 無原則的인 平和」를 主張하고 『〈正義의 戰爭〉이거나〈不正義의戰爭〉이거나 戰爭 全般을 拒否하는 부르죠아 平和主義와는 完全히 다르다.

또한 그것은 平和的 共存政策과도 아무런 共通性을 가지고 있지 않다.

平和的 共存이라는 것은 相異한 社会制度를 가진 国家의 相互関係에 관한 問題인 것이며, 우리党의 平和統一政策은 우리民族 自體의 內部問題로서「朝鮮革命」遂行에 관한 方途와 関聯된 問題이다.』이와 같이 北韓은 비록 平和的인 統一戰略을 내세우면서도 民族解放 闘爭이라는 名目上에 武力的 統一의 側面을 否定하지 않고 있으며 恒常 戰爭과 平和라는 二重的 性格을 띠고 있다. 그러므로 北韓이 平和的인 統一口号를 前面으로 強力하게 提示할수록 內面的으로는 武力強化問題도 相対的으로 強化하고 있다는 것은 当然한 것이며, 또한 民族解放闘爭이라는 戰爭 可能性을 摸索하고 있다는 事実을 否定할 수 없다. 이와 같은 基本的 立場은 다음과 같은 金日成의 発言에서 明白히 立証되고 있다. 즉『党과 政府가 平和的 統一의 슬로간을 높이들면 들수록「人民軍隊」는 自身의 戰闘力을 보다 強化하고 思想的 準備를 보다 堅固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萬一「人民軍隊」의 戰闘力이 弱化된다면 平和的 談判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北韓은 赤化統一 以外의 어떠한 統一도 否定하면서 그들의 窮極的인 目標達成을 위하여 戰爭과 平和라는 두가지 手段을 同時에 包容하는 戰略原則을 駆使하고 있다. 그러므로 表面的으로 北韓은 外勢干渉을 排除한 民族의 自主的 統一原則을 내세우고, 이와 関聯된 多様한 方案을 提示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着眼点을 念頭에 두면서 北韓의 統一方案史를 標榜과 底意를 対照하는 가운데 整理検討하려고 한다. 共産主義者들의 統一問題에 관한 言動과 策謀의 歷史를 더듬어 보는 것은 그들의 生理를 把握하는데 必須的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現在 進行中인 事態속에 趨勢를 概括해 보는 考察과 더불어 未来의 豫測을 蓋然的으로나마 可能케 할

第3次 拡大執行委員会는『北朝鮮을 統一的 民主独立 国家建設을 위한 強力한 政治·経済·文化的 民主基地로 転換시킬 것을 決議한 바 있었다.

金日成은『民主基地의 強化는 祖国統一의 決定的 擔保이다. 民主基地 強化에 대한 国号는 우리 祖国이 統一될때까지 계속남아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民主基地 路線은 두말할것도 없이 蘇聯統制部分에 衛星国을 確立하고 그 傀儡国家를 그 나라의 残餘部分에 대한 支配権 確立을 위한 作戦基地로서 利用하려는 共産化 政策의 表現이었다. 그리고 蘇聯軍 庇護下에 1946年7月22日 平壌에서 結成된 所謂 北朝鮮 民主主義 民族統一戦線은 그 基本課業의 第1項에서『朝鮮에 관한 모스크바 三相会議 決定을 徹底하게 実行하고, 韓国에서 長久한 日本統治의 悪毒한 結果를 粛清하는 同時에 民主主義的 自由의 発展과 朝鮮独立 및 国家発展을 保障한다』고 했으며, 第2項에서는『朝鮮解放後 人民의 創意로 組織된 真正한 人民政権 機関인 人民委員会를 強化発展시킨다』고 했다. 이와 같이 그들은1946年頃부터 그 民主基地 建設에 拍車를 加하였다. 이 転換은 時期性으로 보아 다음과 같은 南北対比를 打算한 結果라고 判断된다.

첫째는, 北韓의 武装이 당시 韓国軍보다 앞서 있었다는 事実이다. 蘇聯軍은 이미 1946年부터 保安部 訓練 등의 名目으로 将校養成을 서둘러 오다가 드디어 北韓共産軍 創設의 一段落을 지었을 무렵이였다. 이에 比해 南韓에서는 武装力量의 準備가 未備했던 것이 事実이였다.

둘째는, 蘇聯軍政이 北韓에서 実施해온 間接統治로 말미암아 그동안 行政経験을 쌓은 人民委員会의 統治力이 자리 잡혀 있었다는 점이다. 1946年2月8日 発足한 臨時 人民委員会는 1947年1月27日을 기해「臨時」字를 떼어 버린 所謂 北朝鮮人民委員会로 発展하게 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所謂 民主改革을 통해 反共人士들의 社会的, 経済的 基盤을 송두리채 剝奪하고 있었으므로, 政権 鞏固化 作業도 一段落되어 있었다.

이에 比하여 南韓의 경우는 美軍政廳의 直接的인 統治方法으로 因하여 韓国人 自身의 政治的, 行政的 組織이 뒤 떨어지고 있었다. 이와 같이 蘇

② 南北 諸政党 社会団體 指導者들은 우리 疆土에서 外国軍隊가 撤収한 以後에 内戦이 勃発할 수 없다는 것을 確認하며, 또한 그들은 統一에 대한 朝鮮人民의 志望에 背馳되는 어떠한 無秩序의 発生도 許容하지 않을 것이다.

③ 外国軍隊가 撤収한 이후에 諸政党들의 共同名義로 全朝鮮政治会議를 召集하여 朝鮮人民의 各界 各層을 代表하는 民主主義 臨時政府가 즉시 樹立될 것이며, 国家와 政権과 経済, 文化生活의 一切責任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 政府는 그 첫 課業으로서 一般的·直接的·平等的·秘密投票에 의하여 統一的 朝鮮 立法機関 選挙를 実施할 것이며, 選出된 立法機関은 朝鮮憲法을 制定하며 統一的 民主政府를 樹立할 것이다.

④ 本 声明書에 署名한 政党 社会団體들은 南朝鮮単独選挙의 結果를 결코 承認하지 않을 것이며, 또 이러한 選挙에 의하여 樹立하려는 単独政府를 결코 承認하지 않을것이고 支持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하고, 外国軍隊를 同時 撤収시키면 自己力量으로 모든 問題를 解決하고 南韓選挙를 反対한다는데 集約시켰다. 그러나 한달도 못되어 南韓에서는 유엔 監視下에 総選挙가 実施되었고, 이어서 5月31日의 制憲国会의 開院, 7月17日 의 制憲을 거쳐 8月15日에는 大韓民国政府樹立이 宣布되었다. 이와 같이 北韓 主導下에 마련된 南北協商会議의 4·30宣言에 表現된 統一方案은 北韓 民主化基地의 相対的인 強力性을 前提로 한데서 立案되었다. 南北協商 직후 平壌에서는 5·1節 閲兵式이 挙行되었던 바, 그때 이미 戦車와 重砲를 가진 北韓共産軍이 行進하고 있었다. 北韓共産軍은 当時에 벌써 約2年間의 集団訓練을 쌓고 있었으며 兵力은 15萬으로 推算되고 있었는데, 이에 비해 南韓에서는 美軍이 撤収할 경우, 그 軍事力은 거의 空白状態를 면키 어려웠던 것이며 그 点을 北韓은 이미 잘알고 있었다고 観察할 수 있다. 그런데 共産主義者들은 単選 非難運動을 통해 南北分裂의 責任을 南韓에 転嫁시키고 나서 그들 自身의 集団樹立을 서두르기 시작하였다.

1948年8月25日에는 이른바 南北総選挙가 造作되었고, 9月2日에는 朝

당초 그 構造原理로 보나 実際機能으로 보나 우리의 国会와는 本質的으로 다른 統治機関이다. 우선 原理面에서 그것은 三権分立의 前提를 否定하고 있으며, 또 基本権 保障, 言論自由, 復数政党 制度를 外面하고 있다. 機能面으로 말하면, 그것은 代表的 機能에서 自由로운 選挙로 登場한 것이 아니며, 審議的 機能으로 볼때에, 共産党의 事前決定을 박수갈채리에 全的으로 追従하는 御用道具로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6·19 提案은 武力南侵計劃이 現実的 日程에 올랐을 무렵에 共産主義者들이 構想해 낸 政治的 煙幕에 不過했음이 곧 判明되었다. 이와 같은 過程에서 武力 不法南侵을 敢行함으로써 北韓의 平利統一底意는 萬天下에 暴露되고 말았다. 그런데 韓国戦争에서 北韓軍이 鴨緑江線까지 敗退하는 마당에 1950年10月25日부터는 所謂 中国人民 支援軍이 投入되었다. 때를 같이하여 中共軍 服装을 한 蘇聯軍의 防空部隊가 北韓 各地에 進入하였다. 이어서 1951年6月23日 유엔 蘇聯代表인 말리크가 돌연 韓国休戦 談判 開始를 提案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状況은 北方 三角関係를 確認케 하였으나 1962年부터 表面化한 中·蘇粉争의 深刻化로 오늘날의 現実은 判異하겠금 되어있다. 어쨌든 韓国休戦協定은 1953年7月27日에 締結되었고, 共産側이 挑発했던 韓国戦争의 実験結果는 그들에게도 武力統一 方案의 虚妄性을 일단 証明해 준 것으로 看做되었다. 休戦協定은 韓国問題의 平和的 解決등 諸問題를 協議하기 위한 高級 政治会談 召集을 豫見하고 있었다.

라. 戦後復旧 期間의 統一政策

韓国 統一問題를 유엔밖에서 다룬 大規模의 国際会議인 제네바政治会議는 1954年4月26日부터 約4個月間에 걸쳐 開催되었으나 아무런 合意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共産党은 当面 急先務로서 民主基地再建을 위한 戦後復旧에 重要한 관심이 있었을 뿐이며, 平和統一에 관해서는 具體的인 誠意表明이 없었다. 그들은 제네바会談을 政治宣伝 舞臺化하려 했던 것이며, 会談 数日前인 4月20日字로 所謂 最高人民会議는 戦後 人民経済

平和的으로 統一시킨 課業의 急速한 解決에 도움이 될 条件을 지워줄 必要性을 認定할 것.

南日의 이와같은 提案은 애당초 自由陣営側이 받아 들이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은 것같은 宣伝的 제스추어로 看做되었다. 즉

첫째, 그의 全朝鮮委員会 構想은 人口面의 隔差를 度外視한 南北 対等의 主張인 同時에 民主主義的 社会団體를 云謂함으로써 美·蘇共委時代의 蘇聯側 말썽을 再演하려는 意図를 内包하고 있었으며,

둘째, 外国의 不干渉으로 유엔을 逐出하려는 底意라고 解釈되었고, 그들만이 北方에 隣接한 共産大国들의 影響을 一般的으로 駆使하려는 打算이었으며,

셋째, 自由雰囲気의 要求란 北韓으로서는 没廉恥한 主張으로서 当時에 北韓을 휩쓴 것은 史上 類例없는 恐怖雰囲気였다는 点을 잊을 수 없는 것이다.

네째, 戦争直後의 交流란 非現実的인 問題로서 이것은 地下党 再建意図의 方向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

다섯째, 6個月 期限内의 外軍撤収는 50年에 가까운 経験이 証明했듯이 戦争再発의 危険性을 内包했으며, 이 경우에 北韓은 蘇聯·中共이 隣接国家라는 利点을 念頭에 둔 것으로 観察되었다. 드디어 大韓民国을 包含한 参戦16個国은 共産側의 無誠意한 宣伝的 主張을 더 以上 傾聴할 必要를 느끼지 않게됨에, 다음과 같은 要旨의 共同声明書를 発表하였으며, 結局 제네바会談은 決裂되고 말았다.

自由陣営 参戦国들은 統一된 民主韓国을 樹立할 수 있는 基本原則으로서

첫째, 유엔은 韓国問題의 平和的解決을 위해 調査役割을 遂行할 수 있도록 充分하고도 正当한 모든 権限이 賦与되어 있다는 点.

둘째, 統一独立民主韓国樹立을 目的으로 한 国会議員 選出方法은 유엔監視下에 土着人口比例 南北総選挙를 하여야 한다는 点을 再確認하였다.

그리고 유엔 第9次 総会는 1954年11月11日字로 参戦16個国의 報告書를 承認하고, 유엔이 韓国問題에서 추구하는 目的은 代議政體下의 統一独立

鞏固化한 平和에로 発展시킨다는 것은 後에 第4次 党大会때에도 発見되지 않은 要旨로서, 北韓의 当時 속셈이 무엇인가를 짐작케 하고도 남음이 있다. 旧 自由党政権의 北進統一主張을 孤立化시키려는 打算도 있었을 것이다. 또 그들이 国際会議를 召集하자고 한 것은 自主的 解決主張과 어떻게 調和시킬 것인지 그 당시에는 하등 밝혀진바 없었다. 当時 李承晩大統領의 北進統一 내지 南韓만의 総選挙実施主張에 대한 懐疑論이 漸高하는 마당에서 北韓側은 平和統一主張을 専売特許인양 되풀이할 수 있었다. 그들은 1958年2月5日字로 이른바 4個項統一方案을 提示하였는데, 그 内容은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다.

첫째, 南北에 와있는 外国軍隊의 同時撤収.

둘째, 中立国監視下의 全国 総選挙(参戦国 自由友邦들의 主張인 유엔監視下의 土着 人口比例 南北 総選挙에 対置시켜 中立国 監視下에 地域対等 南北 総選挙를 내세웠다.)

셋째, 南北間의 経済, 文化, 書信交流.

네째, 南北軍隊의 減縮.

이어서 2月15日字로 발표된 中共首相 周恩来와 金日成의 共同声明書는 同年(1958年) 末까지 所謂 中共 支援軍을 北韓에서 完全히 撤収시킨다고 했으며, 그것은 実践에 옮겨졌지만 一旦 有事時에 中共軍의 迅速한 再介入可能性은 国境이 隣接해 있다는 事情의 想起하나만으로도 足한 것이였다.

中共 支援軍은 10月26日 鴨緑江을 일단 渡下하였다고 하는데, 28日 平壌에서 유엔軍의 즉시 撤収를 要求하는 所謂 政府声明이라는 것이 発表되었다.

마. 4.19以後의 聯邦制 統一方案

韓国情勢는 不幸하게도 第4代 正·副統領 選挙를 앞두고 国民의 支持에 自身을 잃고 旧自由党 政権의 不正選挙 劃策説로 어수선하였다. 드디어 3·15 馬山義挙를 契機로 4·19가 倒来하였다. 그러나 4·19義挙의 참된 精神은 民主主義를 바로잡고 共産主義를 打倒하라는 主口号에서 明白하였다.

央委員会委員長인 金日成은 8·15解放 15週年 慶祝大会 席上에서 다음과 같이 平和統一方案을 提示하였다.

(가) 어떠한 外国의 干渉도 없는 民主主義的 基礎위에서 自由로운 南北総選挙를 実施할 것.

(나) 아직 南朝鮮 当局이 自由로운 南北 総選挙를 받아 들일 수 없다면 過渡的 措置로서 南北朝鮮의 聯邦制를 提議한다. 즉 南朝鮮에 存在하는 政治制度를 그대로 두고 両政府의 独自的인 活動을 保障하는 同時에 政府代表로 構成되는 最高民族委員会를 組織하여 主로 南北朝鮮의 経済文化発展을 統一的으로 調節한다.

(다) 萬一 上記 提案들을 南朝鮮 政府 当局이 同意치 않는다면 南北朝鮮 実業界 代表로 構成되는 純全한 経済委員会라도 組織할 것.

(라) 南北朝鮮 文化使節의 来往과 科学, 文化, 芸術, 體育등 모든 分野에서의 交流를 다시 한번 提案한다.

(마) 南朝鮮에서의 美軍의 撤収를 要求하며, 南北朝鮮軍隊를 각각 10萬 또는 그 以下로 縮少할 것을 提案한다.

(바) 以上의 諸問題를 協議하기 위하여 南北朝鮮 代表들이 平壌이나 서울 또는 板門店에서 会議할 수 있기를 提案한다.

金日成의 이와 같은 提案에서 새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聯邦制의 主張과 그에 따르는 所謂〈最高民族委員会〉構成에 관한 提議라 할 것이다.

党의 統一原則으로 革命을 念頭에 두면서 聯邦制가 만약에 받아들여 진다면 그것은 共産革命의 보다더 順調로운 条件 形成이라고 看做했다. 이와 같은 소위 聯邦制 統一方案에는 그 自體로서도 奸巧한 陰謀와 矛盾을 허다히 内包하고 있었다. 第1項에서 外国干渉을 排除한다고 했지만, 그것은 적어도 現段階에서는 戦犯集団인 北韓側으로 하여금 挾雑과 暴力의 発動時에 牽制나 監視를 免除받게 하는 結果를 招来할 뿐이다. 또한 自由選挙를 主張하였는 바, 北韓이 그토록 誠意가 있다면 南北 総選挙에 앞서 우선 北韓의 現行 選挙에서나마 自由雰囲気를 保障하고 悪名높은 単一

그후에 급급하지 않았으나, 民主政治 運営의 社会 経済的 基盤인 中産階層의 安定된 主軸勢力으로서의 健在를 欠如한 処地였다. 거기에다 韓国에서는 国内政治에 대한 幻滅이 곧 統一運動으로 噴出口를 찾기 쉬운 社会心理的 傾向이 두드러져 있었다. 이러한 바탕위에 相当数의 革新 政治人들과 一部学生 및 言論人 중에는 中立的. 容共的. 反美的이라고 指目되기도 하였던 非現実的 統一運動을 벌였던바, 結局은 国内의 엘리뜨들이 事態의帰趨를 날카롭게 注視하는데 이르렀다. 마침내 1961年5月16日에 軍事革命이 到来하였다.

그 革命公約의 第1項『反共을 国是의 第一義로 삼고, 지금까지 形式的이고 口号에만 그친 反共態勢를 再整備 強化한다』고 했으며 第5項에서는『民族的 宿願인 国土統一을 위하여 共産主義와 対決할 수 있는 実力培養에 全力을 集中한다』고 다짐하였다. 勝共実力 培養을 위한 経済建設, 民主的 主体力量의 形成, 国際地位의 向上등은 切迫한 課題라고 생각되었다.

当時 北韓은 5·16革命에 의하여 軍事政府가 樹立되자 当初에는 事態의 真相조차 제대로 把握못할 만치 당황했었다. 그러나 5月16日 午前中에 平壌放送에서는 革命을 鼓舞的인 것으로 報道하다가 새 政権이 反張勉(民主党政権 当時 国務総理)的이며 同時에 그 以上의 反共的인 것을 알게된 下午부터는 가장 혹독한 非難을 퍼붓기 시작했다. 北韓은 韓国에 反共的 軍事政府가 樹立되었으니 北進이 우려된다고 크게 驚愕하였다. 그 후 急急하게 모스크바를 訪問한 金日成은 7月6日字로 蘇聯과 더불어 軍事同盟条約을 締結하였다. 소위〈友好協力 및 相互協助条件〉이라는 이름을 가진 条約의 第1条에는『両締結国의 一方이 어떤国家, 또 国家聯合으로 부터 軍事攻撃을 받아 戦争状態에 들어간 경우, 他方은 즉각 그가 保有하는 모든 手段을 가지고 軍事的 또는 그밖의 援助를 賦与할 것인바』라고 했다.

이 締結은 10年을 期限으로 하되 期間満了 1年前에 条約廃棄에 관한 希望이 表明되지 않을 경우에 5年을 더 延長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흐루시쵸프 蘇聯首相은 条約 締結日의 演説을 통해『南朝鮮의 事変은 그

(다) 이리하여 自主的 平和統一의 旗幟밑에 南朝鮮의 모든 愛国的 民主主義的 力量을 集結시켜야 하며 이 力量과 北朝鮮의 愛国的 社会主義的 力量과의 団合을 이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北韓의 共産主義者들은 이때부터 첫째, 南韓에서의 地下党組織의 拡大. 둘째, 地下党을 核心으로 反美統一戰線의 形成과 奪権闘争. 셋째, 南北의 統一戰線을 合同시키는 形式을 거치는 赤化統一의 実現이라는 소위「3段階統一戰略」을 세웠는바 이와 같은 戰略은 現今에도 変함이 없다. 金日成은 1965年4月14日 인도네시아 訪問中 그 当時에 全盛을 자랑하던 PKI分子들을 앞에 놓고 国際共産主義者들에게의 PR을 念願에 두고 알리아르함社会科学院에서 政治学 講演을 한 바 있었는데, 그 때에도 統一原則을 革命으로 풀이하면서 3段階 戰略을 되풀이 하였다. 이어서 金日成은 1966年10月5日에 平壤에서 開幕된 소위 〈朝鮮労動党 代表者会議〉에서 역시 꼭 같은 3段階 戰略을 反復해 強調하였다. 그후 1968年1月21日 金新朝一党의 共匪 서울侵入과, 同23日 美艦 프에블로号 拉致事件등의 一連의 事態는 北韓이 이 3段階 戰略의 促成에 얼마나 燥急하고 있는지를 露出시키고 있다.

그러나 金日成의 이와 같은 暴力革命 方式의 統一戰略에 대하여서는 北韓 共産主義者들 間에도 懷疑論이 적지 않았다. 그 懷疑論은 첫째, 南北平和 共存論. 둘째, 中立化 統一論으로 表現되었는 바, 金日成은 이들을 無慈悲한 粛清으로 다스렸지만 그러한 気運은 将次 어느 한 時期에 이르러 金日成集団에 抗拒하는 反體制 運動으로 展開될 것이 豫測된다. 金日成 傘下의 労動党 幹部 金会日은 南北共存論을 가르켜 革命에 대한 背信이라고 하였다. 金日成 自身은『北半部에서나 革命을 하고, 우리끼리나 살자고 생각』하는 것은 『自殺이나 마찬가지』라고 排撃하였다. 또한 社会主義 労動党青年同盟機関紙 〈青年生活〉의 1958年5月号에서는 『反党 反革命分子들이 우리 나라를 中立国으로 만들려는 反逆的 策動들을 敢行』하였다고 非難하였다. 이렇듯 金日成의 革命的 統一戰略이 그들의 党内에서

2 · 対南 基本政策

가 · 基本目標

〈共産化 革命 南北統一〉

1961年9月18日字로 第4次 党大会에서 修正 採択된 소위 朝鮮労動党 規約의 前文에는 『朝鮮労動党의 当面 目的은, 北半部에서 社会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保障하며 全国的 範囲에서 反帝, 反封建, 民主主義革命의 課業을 遂行하는데 있으며, 最終 目的은 共産主義社会를 建設하는데 있다』고 明示되어 있다.

다시 말하여 北에서는 社会主義 建設을 하고, 南에서는 革命을 하는것이 北韓의 当面目標이다.

同時에 그들의 第4次 党大会 決定書에 나타난 統一戦略은,

첫째, 南韓에서의 共産地下党의 組織

둘째, 反美救国統一戦線의 結成 및 奪権闘争

셋째, 南北의 統一戦線을 合同시키는 形式을 통한 共産化 統一의 実現

이라는 段階的 統一戦略을 強調하고 있다. 또한 그 後의 党内文献도 줄곧 이러한 点을 強調하고 있다.

나 · 南韓革命의 性格

北韓은 南韓革命의 性格을 다음의 세가지로 規定하고 있다.

(1) 反帝国主義 革命

(2) 反封建主義 革命

(3) 人民民主主義 革命

다 · 革命戦略

(1) 民主基地化 路線

8·15解放 直後부터 北韓地域에 進入한 蘇聯軍과 그 地域 共産主

略을 즉각 沮止시키는 措置를 取하지 못할 環境에 있을때,

등의 条件이다.

이러한 理論에 立脚하여 北韓이 南韓에서 決定的인 時機를 造成하는데 있어서는 南韓地域에서 이른바 統一戰線을 最大限으로 活用하여 広範한 階層을 一旦 하나의 攻撃目標에 接近시키고, 漸進的으로 소위 反革命階層을 除去하여 容共的인 政治力量이 拡大強化됨으로써 北韓과의 直接的인 聯合戰線을 形成하려는 戰術을 쓰고 있다. 上述한바와 같은 세가지의 対内外的 要因이 結合된 時期가 바로 赤化統一이 実現될 수 있는 適期로 보고 있는 北韓은 이러한 要件을 成就시키기 위하여 執拗한 努力을 加하고 있다.

이와 같이 北韓은 赤化統一을 実現하는데 必要한 手段을 두 가지 側面에서 同時에 찾고 있다. 即 그것은 戰争手段에 依存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平和的 手段에 依存한다는 것으로서, 이러한 観点은 統一問題를 둘러싼 対内外的 情勢의 全般的 趨勢와 密接히 結付되고 있다.

라. 対南戰術(形態)

北韓의 対南工作 戰術은 다음의 세가지로 集約된다..

(1) 地下党 工作

(2) 心理戰 工作

(3) 遊撃 工作

3. 対南工作様相의 変遷過程

사. 概 況

1945年8月15日 解放後 金日成을 우두머리로 하는 北韓集団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줄곧 南韓地域까지 併合 赤化하려는 野慾을 버리지 않고 地下党組織과 게릴라南派등의 継続的인 対南攻勢를 取하고 있다. 最初에는 南韓地域이라는 縁故関係를 생각하여 주로 南労党을 中心으로 即 北労党의 前衛党으로 対南工作을 展開하였으나, 金日成은 6·25의 敗戰 責任을 엉뚱

것이다. 이와같이 南韓情勢의 変遷過程에 適応시킨 北韓의 対南工作戰術의 変化를 段階別로 区分해 보면 大略 다음과 같다.

(1) 第1段階 : 8·15 解放부터 6·25 南侵前까지

이 期間은 武力侵攻 準備時期로서 南労党을 支援하여 소위 人民抗爭을 造成하였다.

(2) 第2段階 : 6·25 動乱부터 1953年 休戰까지

이 期間은 戰爭挑発 時期로서 主攻掩護를 위한 第二戰線을 形成하려는데 있었다.

(3) 第3段階 : 休戰後부터 4·19 前까지

이 期間은 平和統一攻勢의 時期로써 <平和統一方案>提唱, 南北協商, 交流등을 主張하였다.

(4) 第4段階 : 4·19 後부터 5·16 前까지

이 期間은 革命力量 造成時期로서 4·19 義挙의 高潮된 革命気運 便乘, 共産革命의 遂行企図, 地下党 組織이 없음을 痛嘆 自我批判한 때이다.

(5) 第5段階 : 5·16 後부터 1971年度까지

이 期間은 1971年까지 決定的 時機造成을 目標로 探索工作을 한 時期이다.

現在 北韓은 平和統一宣伝 手法의 無望性을 認識하고 決定的 時機 造成을 促進하는 手段으로서 그들의 暴力戰術 転換에 의한 遊撃戰의 試図와 地下党 指導部의 形成을 企図하고 있다.

다. 段階別 工作의 特徵

(1) 第1段階 工作의 特徵 (8·15 ~ 6·25)

(가) 工作의 特徵 및 失敗原因

<工作의 特徵>

첫째, 6·25 直前까지의 北韓의 対南工作은 両面作戰을 遂行한 것이었다. 即

① 地下党工作을 劃策하여 決定的 時機를 造成하는 것.

① 北韓의 遊撃戦은 毛沢東 戦術을 模倣하였으나 伝統的인 土壌가 全無하였다는 点.

② 北韓의 非人道的 蛮行에 시달리던 青壮年 避難民들이 北韓의 実態를 暴露하는 同時에 그들 自身은 国家에 대한 義務感 以上의 信条的인 使命感으로 自進하여 共匪 討伐에 臨했다는 点.

③ 共匪들의 良民虐殺, 掠奪, 放火, 破壊活動 등으로 大衆의 呼応을 獲得하지 못했다는 点.

④ 国軍에게 対抗할 만한能力을 維持하지 못하였고 食糧등의 補給品이 不足하여 長期戦을 持続할 수 없었다는 点.

⑤ 地形의 狭小, 寒暑의 差가 極甚하여 越冬準備의 困難과 地形条件이 不利하였다는 点.

⑥ 共匪들은 共産主義者가 아니면 無条件 叛逆者. 親日派로 宣伝하였기 때문에 国民들의 支持를 받을 수 없었다는 点.

⑦ 南派된 共匪들의 大部分이 北韓과의 権力闘争에서 脱落된 南韓出身者들이기 때문에 帰順 또는 身分露出이 많았다는 点,

北韓도 이와같은 失敗를 自認하면서 『開戦 当時의 敵(我軍을 称함)後方에 約3,000名의 工作員(遊撃隊員, 非武装暴徒, 間諜等)이 浸透하여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何等의 蜂起 및 暴動을 惹起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我方(北韓 共産軍을 称함)의 後方에서 暴動이 惹起되었으니, 이것은 政治的 失敗의 가장 큰 問題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2) 第2段階 工作의 特徴(6.25～休戦)

(가) 工作의 特徴 및 失敗의 原因

<工作의 特徴>

첫째, 南労党 系列이 対南工作의 主導権을 掌握함으로써 党系統에서 南派된 間諜들은 全部가 南韓 出身者였다는 点과 集団教育을 받았다는 点.

둘째, 夫婦로 偽装한 間諜組를 南派시킴으로써 假装口実이 造成되고 合法

된 바, 이것은 政治的인 性格으로 볼 수도 있지만 北韓対南工作은 政治工作이 언제나 先行된다는 面에서 볼 때 이러한 現象은 이 時期의 特徵으로 提起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平和統一攻勢는 소위 南北連席会議에서 보듯이 一種의 利用政策이요 対南心理戰 攻勢의 一端에 不過한 것이다.

둘째, 北労党의 工作 專擔

休戰後, 南労党의 肅清과 同時에 그들의 土臺를 白紙化시키므로서 北韓은 새로운 対南工作의 基礎作業을 해야만 했었다. 이에따라 間諜도 南労党系와는 無関한 北労党系 사람을 間諜으로 南派하게 되었고, 教育方法에 있어서도 集団教育으로부터 密封教育으로 転換하고, 大量南派로부터 質的인 小組 南派의 새로운 戰術로 転換하였다.

셋째, 親筆 書信 携帶工作

특히 越北者들의 親筆書信과 近況写真을 携帶한 間諜들이 大部分 南派되었다. 이것은 南韓居住 家族들의 情誼를 逆利用한 것으로서 工作土臺·構築과 拠点確保를 위한 地下党工作의 새로운 手法인바, 이 時期 以前에는 使用하지 않았었다.

네째, 朝総聯에 대한 工作

朝総聯의 対韓工作活動은 1960年부터 本格化되었다. 그것은 北韓의 基本方針에 의거 公開·非公開 手段을 통한 組織의 拡大 및 技術專門化로 第3国의 有利한 条件들을 利用하여 対韓工作을 遂行한 것이었다.

1955年 朝総聯 結成期에서부터 1959年의 僑胞北送事業 開始 前까지의 主要 事業目標는

㉮ 第1次的 基本目標인 在日僑胞 60萬의 赤化를 위한 組織土臺 整地事業

㉯ 北韓과의 接線 루우트 開拓을 통한 組織強化와 対韓工作基地 構築을 위한 僑胞北送 実現運動에 두었다. 그리고 1959年8月13日 印度의 칼카타에서 北送協定이 締結되자, 그 後의 朝総聯은 北韓 対南工作活動의

이와같은 現象은 間諜들이 間諜으로 選抜되기 前부터 體験한 것으로 間諜으로 南派되는 機会 自體가 帰順의 契機가 될 수 있었고 共産主義者로부터 変節할 수 있는 累積된 潜在要因이 되었다.

(4) 第4段階工作의 特徴 (4.19 ~ 5.16)

(가) 工作의 特徴 및 失敗 原因

<工作의 特徴>

첫째, 平和統一路線에 依拠 革新 및 親共勢力을 糾合하여 第3勢力의 形成을 企図한 것.

둘째, 4·19 主體層과 基本群衆을 結合시키기 위한 工作으로서 인테리 및 低級間諜 (下層部人物)을 混合하여 大量 南派한 것.

셋째, 間諜의 同時多量南派를 위한 1個 工作船에 2個組乗船南派와 帰還時에 復帰間諜을 接受, 護送하는 二重工作을 展開한 것.

<工作의 失敗原因>

첫째, 平和統一宣伝에 대한 上層部 呼応勢力이 全無했다는 点.

北韓은 南北聯邦制를 囲繞한 平和統一宣伝 및 包摂工作을 政府·政党·社会団體등 各界各層에 대해 試図하였으나, 여기에는 上層部 뿐만 아니라 一般 国民大衆도 전연 呼応하지 않았다.

둘째, 対南工作의 基本이 되고 政治的 背景이라 할 수 있는 地下党組織이 全無하였다는 点.

셋째, 上記와 같은 状況下에서 現地에서의 人員補充이 不可能했다는 点.

4 . 最近의 対南工作 様相

가 . 対南工作 強化 背景

(1) 対南工作 強化에 관한 決議 (65.10.10 労動党 創党20周年)

<南北統一時期>

첫째, 日本과의 軍事協定 締結 以前에

둘째, 金日成의 老衰 以前에

첫째, 時期.

正規戰이 勃発되었을 때 即刻 遊撃隊를 投入한다. 4·19와 같은 類似混乱 情勢가 惹起되었을 때 即刻 投入한다.

둘째, 正規戰과 併行할 경우

戰争 勃発時 地下党 力量은 自動的으로 遊撃活動을 展開하여 北韓作戰에 有利한 戰術的 支援을 준다. 이러한 경우 地下組織은 遊撃活動에 一部만을 動員 加擔케 하고 残餘組織은 계속 陰蔽시켜 地下活動토록 한다. 地下組織 一部만을 動員 加擔시키는 理由는 戰争이 北韓의 勝利만을 保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北韓이 敗走할 경우의 対備策으로서, 敗走하게 되면 陰蔽된 地下党 組織을 계속 残留活動시키려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地下党 工作地域과 遊撃活動 地域을 厳格히 区分하려는 것이다.

셋째, 時期 判断

이러한 聯合戰線 形成의 時期 決定問題는 南派된 工作組나 現地 指導部의 自體判断에 依拠하거나 平壌의 指令에 따라 活動展開 与否를 決定한다.

네째, 遊撃隊 編成

遊撃組織 및 活動方法에 있어서는 最初 各 工作組나 地下組織이 個別的으로 遊撃組를 1～2名 또는 5～6名으로 編成하여 散発的인 小組活動을 展開타가 北韓의 指令에 依拠 이를 統合하여 遊撃部隊와 指揮部를 構成活動한다. 이와 같이 소위 南半部 指導部가 構成되었을 경우 北韓은 工作指揮責任者를 南派시켜 遊撃活動을 指揮케 한다.

다섯째, 活動方法

遊撃隊는 地下組織이 事前에 物色한 根拠地로 移動한다. 根拠地는 工作対象地域에서 가까운 周辺에 樹林이 많은곳, 退路 条件이 良好한 地形, 後方 補給支援 및 現地調達이 有利한 地域的 条件, 防禦上 有利하고 敵攻撃이 不利한 諸条件들이 具備되어야 한다.

鉄道의 爆破 또는 保護, 重要 軍需工場의 襲撃 破壊, 後方地域内 道路遮断 및 橋梁 破壊, 重要公共施設 및 軍事施設, 兵営, 軍需物資 補給所, 戰略

(나) 地下党 闘争戦術

地下党 闘争은 時期와 環境에 맞추어 積極的으로 하거나 消極的으로 하는데, 언제나 適切한 여러가지 戦術을 配合,,巧妙하게 運営하기 때문에 細心하게 観察하지 않고는 좀체로 発見하기 어려운데 그 闘争 形態를 보면 다음과 같으며, 이러한 闘争은 반드시 낮은 形態에서 높은 形態로 誘導하여 極限闘争으로 発展시켜 간다. 이것은 大衆들이 正当한 要求를 하기 위해 地下党의 背後없이 自然的으로 일어난 것처럼 偽装하는 것이다.

① 合法闘争이란?

法과 秩序를 違反하지 않는 範囲안에서 巧妙히 闘争하는 方法으로서 그 実例를 보면,

㉮ 労動法을 利用한다.

労動者들의 権益을 위해 있는 労動法을 利用하여 罷業, 怠業示威 등 労動争議를 일으켜 労動者들이 正確한 要求를 하는 것처럼 꾸미면서 大衆들의 共感을 얻고, 群衆心理를 利用 刺戟시켜 나중에는 政治闘争으로 까지 発展시키는 方法이다.

② 半合法闘争이란?

社会的인 慣習이나 마을 風習에서 만들어져 내려오는 親睦団體와 같이 法에는 明示되어 있지 않는 一般的인 組織을 利用하는 方法이다. 実例를 들어 보면,

㉮ 政治性이 없는 組織을 利用한다.

各種 親睦会나 契와 같이 純粋한 親睦団體에 間諜을 浸透시켜 主導権을 잡거나 指導的 人物을 包摂하여 이 団體가 共産党과 손을 잡게끔 하거나 새로 이러한 団體를 만들어서 利用하는 方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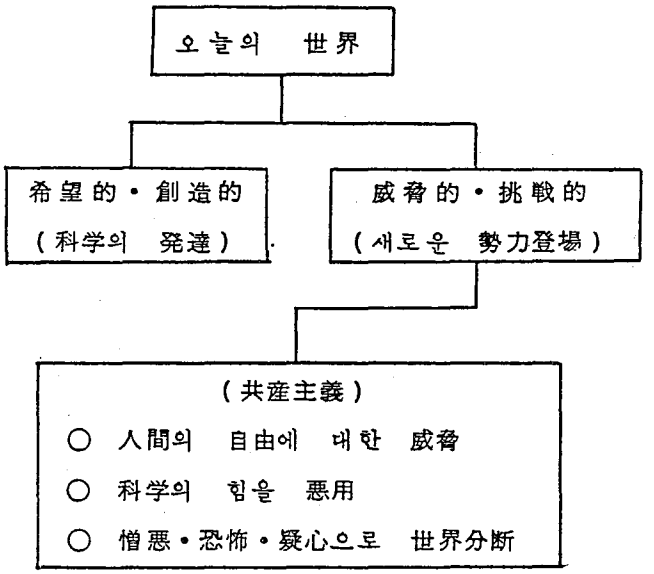
Ⅶ. 共産主義 批判

이 內容은 〈共産主義理論과 実際〉라는
視聽覺教材內容을 그대로 転載한 것임。

第 1 章 序 言
第 2 章 共産主義의 基本哲学과 実際
第 3 章 共産主義의 政治理論과 実際
第 4 章 共産主義의 経済理論과 実際
第 5 章 結 言

第1章 序 言

본 講義案은 平和統一研究所가 各界 專門家의 意見을 綜合하고 그것을 다시 各 大学 国民倫理担当教授의 諮問을 받아 完成한 것으로서 그 主要内容은 共産主義의 哲学, 政治, 経済 그리고 結論等 네 領域으로 構成되어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世界는 人類歷史上 가장 希望的이고 創造的인 世界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에 못지않게 가장 威脅的이고 挑戦的인 世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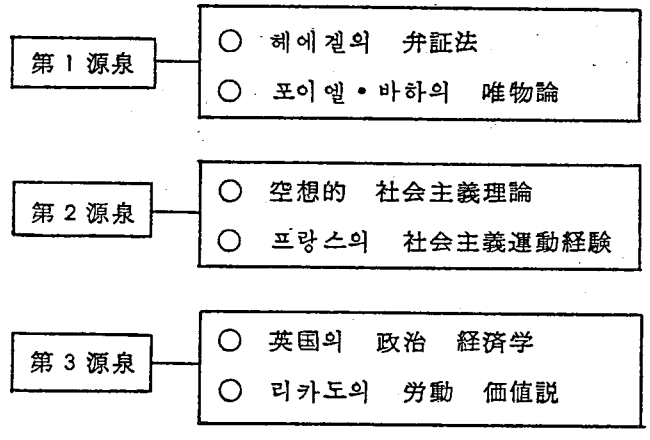
希望的이고 創造的인 世界라 함은 지난 半世紀동안 이룩해 놓은 科学의 成果가 人類의 全歷史 発展過程을 통해 이룩해 놓은것 보다 훨씬 華麗하고 많은 進展을 보였기 때문이요, 反面에 가장 威脅的이고

서운 災殃이 뒤따르고 있다.

共産党宣言에서 『프롤레타리아들은 쇠사슬 以外에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다. 勝利의 世界만이 있다. 모든 나라의 労動者들이여 団結하라!』고 외쳤던 暴力煽動의 회오리 바람은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豫測하지 못했던 帝政러시아에서 레닌에 의하여 共産主義革命의 도구마로 변하고 말았다. 오늘날 모스코바를 拠点으로 일어난 이 世界革命의 忘想은 東部유럽, 中国大陸, 그리고 太平洋에 隣接한 東南亜에서 그 거센 바람을 일으키고 韓国의 6.25와 같은 悲劇을 招来했으며 그 可恐할 破壊의 本質은 지금도 変質되지 않고 있다.

이것은 真正 世界平和에 重大한 威脅인 것이며, 自由体制에 대해서는 深刻한 挑戦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이 共産主義라는 「幽霊」은 도대체 어떤 教理를 믿고 우리의 将来까지를 威脅하고 있는 것이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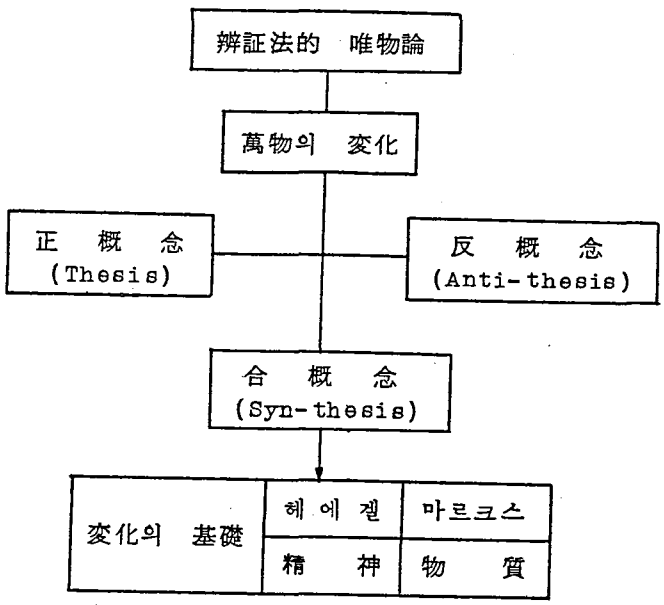


칼・마르크스는 共産主義理論의 源泉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共産主義는 勿論이요, 社会主義도 칼・마르크스가 創造한 새로운 아이디어는 결코 아니다.

는 全体로서 考察되어야 하며 그 一部의 어떤 要素를 別途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点을 미리 말해 두는 바이다.

第2章 共産主義 基本哲学과 實際

1. 共産主義 基本哲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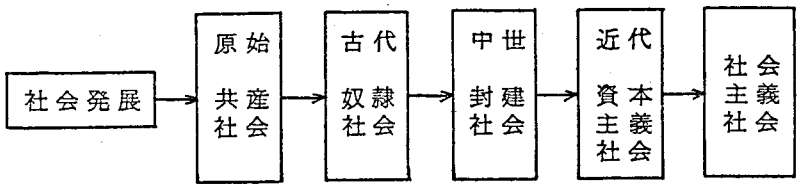
共産主義의 基本哲学은 크게 「辨証法的 唯物論」과 「史的 唯物論」으로 集約하여 説明할 수 있다.

「辨証法的 唯物論」은 모든 歷史, 思想, 存在의 原動力이 衝突 또는 矛盾으로 부터 出発한다는 「矛盾의 原理」에 따라 発展시킨 헤에겔의 辨証法과 포이엘·바하의 唯物論을 独自的인 立場에서 体系化한 것이다.

헤에겔은 宇宙에 存在하는 万物은 恆常 変化하고 있다는 前提下에 낡은 것은 없어지고 새로운 것은 登場한다고 보았다.

即, 『하나의 「概念」(Thesis)은 이것으로 부터 発展된 「다른 概念」

나 . 社会発展



※ 生産力 , 生産関係에 따라 発展

또한 人間社会는 生産力과 生産関係에 따라 段階的으로 発展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서 人類 歴史를 物質的 生産力의 発展過程이라고 前提하고 原始共産社会 , 古代奴隷社会 , 中世封建社会 , 近代資本主義社会 그리고 生産手段을 共有하는 社会主義社会를 거쳐 窮極的으로는 『能力에 따라 일하고, 必要에 따라 消費하는』 共産主義社会로 段階的으로 発展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다 . 共産主義 哲学批判

虚構成과 矛盾性

1	歴史発展의 原動力으로서 内的対立과 矛盾을 主唱
2	人間生活의 決定要素로서 精神보다 物質을 重視
3	社会의 下部構造 (経済的 生産関係) 가 上部構造 (法律的 政治的 , 이데올로기的) 를 決定 変化시킨다고 主張
4	人類歴史 発展을 生産力과 生産関係로 評価

마르크스는 矛盾의 概念을 反対의 概念과 混同하고 있다. 論理的인 概念으로서는 矛盾과 反対는 厳格히 区別되는 것이다.

例컨데 男女関係라든가, 電気에서 말하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는 決코 矛盾関係가 아닌 反対関係이며, 이 두가지는 서로 補完関係에 있다고 할 수 있다.

真正한 意味의 矛盾関係란 非現実的 観念의 世界에서만 成立될 수 있는 것이다. 1950年代의 共産圏内部에서도 이 問題를 두고 哲学論争을 惹起시킨 事実이 있다. 当時의 蘇聯의 哲学者들은 矛盾이 発展의 原動力이라는 辨証法을 根本的으로 修正하여야 할 必要性 때문에 社会主義段階에서는 矛盾이 解消되어야 한다는 것을 骨子로 한 社会主義下에서의 矛盾問題를 크게 提起하였던 것이다.

「矛盾」辨証法의 虚構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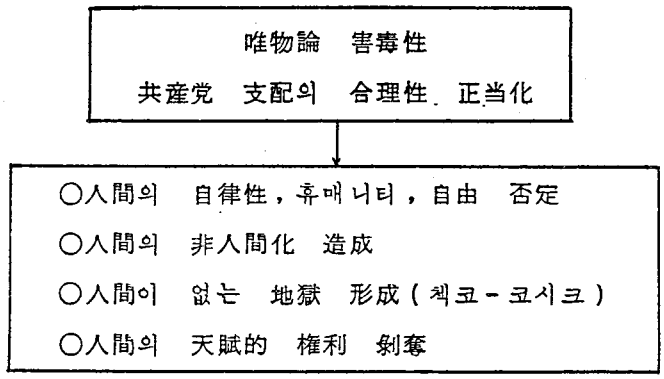
○ 共産政権 樹立 段階에서만 適用
○ 「矛盾」辨証法 論理에 의거 共産政権 否定問題가 提起
○ 平和共存論→「矛盾」辨証法의 抛棄

또한 矛盾辨証法의 虚構性은 共産主義者들의 政権樹立段階에서만 適用되고 있다는데 있다.

왜냐하면 権力을 掌握한 후에도 矛盾의 論理에 따른다면 共産政権은 早晩間 否定당해야 合当하기 때문이다

흐루시쵸프가 主唱한 平和共存論도 厳密한 意味에서 矛盾의 辨証法을 抛棄한 結果로 보아야 할 것이다.

万一 共産陣営과 自由世界와의 関係를 敵対的 矛盾의 関係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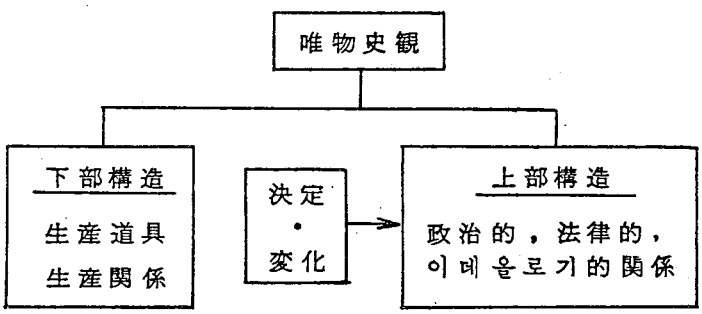


뿐만 아니라 唯物論의 害毒은 무엇보다도 非人間化를 促進하여 共産党支配의 合理性을 正当化시키고 있다는 事実이다.

오늘날 共産主義者들은 人間의 自律性과 휴매니티와 自由 그리고 能動的 主体性을 全面的으로 否定하고 人間의 非人間化를 造成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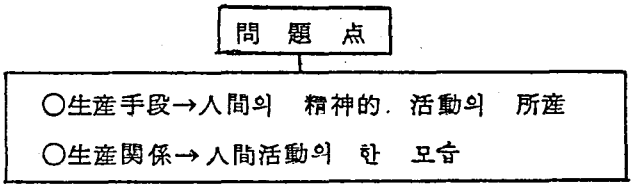
체코의 哲学者 코시크 (Kosik) 는 良心의 自由마저 剝奪하는 共産主義야 말로 人類의 유토피아가 아니고 人間이 없는 地獄이라고 糾弾한 바 있다. 더우기 人間의 天賦的 権利인 宗教를 迷信이요 痲酔剤요 阿片이라 非難하며 科学이 発達하면 宗教가 自然히 消滅된다고 主張하였으나 現実은 이와 正反対인 것이다.

批判Ⅲ・経済的 下部構造가 其他의 上部構造를 「決定」,「変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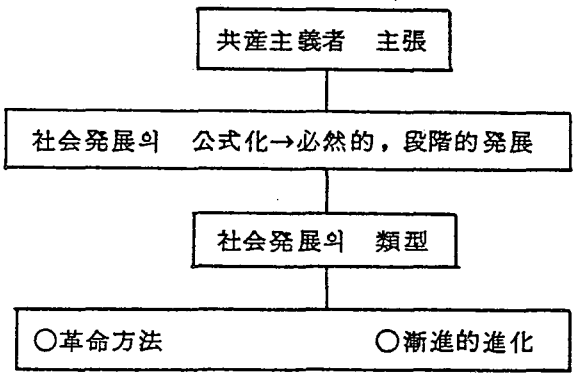
더우기 共産主義者들이 부르죠아革命段階에 있어서는 経済的인 下部構造를 政治的인 上部構造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다음 段階인 社会主義革命段階에 있어서는 프롤레타리아政治革命等 上部構造를 優先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여기에 共産主義哲学이 政権을 獲得하기 위한 政権哲学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것이다.



問題는 共産主義者들이 唯物史観을 통하여 生産手段이 人間의 精神的 活動이 所産이라는 点을 否認하고 또한 生産関係의 変化가 複雑한 人間 活動中의 하나의 모습에 不過함에도 不拘하고 人間의 이데올로기가 生産関係에 의하여 決定된다고 断定한 점에 있다.

批判Ⅳ・社会発展의 五段階説



빗째로, 共産主義者들은 앞서 説明한 바와 같이 人類歴史를 物質 生産力의 段階的 発展過程이라 보고 5段階説을 盲信하고 있다.

千年王 国説이 깃들고 있다 하겠다.

그렇게 볼진데 마르크스가 約束한 最後段階로서의 共産主義社会는 労動者 農民을 眩惑하는 한갖 幻想의 世界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 · 小結論

> 共産主義者들은 矛盾의 辨証法을 共産政権 争取 段階에만 適用하였다.

以上으로 共産主義 基本哲学의 概要와 그에 対한 論理的 矛盾性과 虚構性을 대충 살펴 보았다.

여기서 이를 綜合 整理해 보면 다음과 같은 結論을 導出할 수 있다.

첫째, 共産主義者들은 矛盾이 発展의 原動力이라고 본 辨証法을 共産主義政権奪取 段階에만 適用하였다.

> 共産主義者들은 「革命意識」, 「革命精神」을 強調하므로서, 「物質의 必然的 決定論」인 唯物論을 스스로 否定했다. 또한 그것이 人間社会에 미친 害毒性은 너무나 크다.

둘째, 共産主義者들은 革命意識, 革命精神 等 이데올로기的 側面을 強調함으로써 人間生活의 決定要素로서 物質을 내세운 소위 「唯物論」을 스스로 否定하고 있다.

또한 「唯物論」은 共産党支配의 合理性을 正当化 시키려는 手段으로 使用되어 왔을 뿐 人間社会에 끼친 害毒性은 너무도 컸다.

마지막으로 共産主義는 一種의 새로운 神들을 誕生시켰다고 結論지을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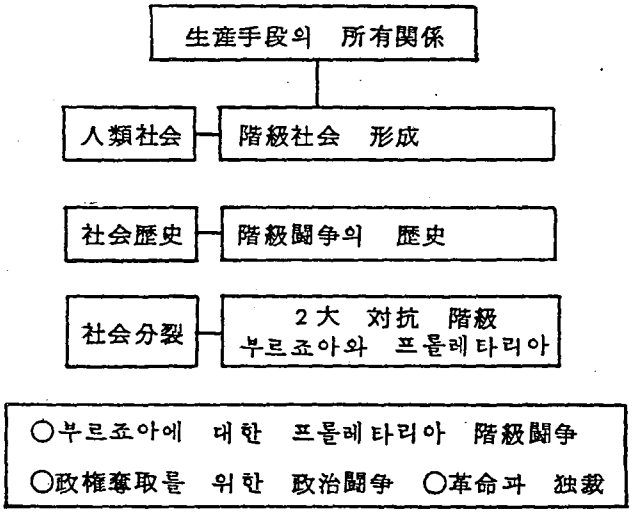
마르크스·엥겔스 그리고 레닌 等 有限한 人間에 의하여 主張된 理論과 学説이 狂神的인 共産主義者들에게 마치 人類 救援의 福音書나 聖典처럼 여겨지고 있으니 이것은 共産主義者들에게는 새로운 現代的 神들이라 아니할 수 없다.

또 그들의 主義와 思想을 継承하여 그 나름대로 政治哲学으로 받아들인 毛沢東思想, 그리고 金日成 唯一思想도 제 各其 絶対不可侵의 価値性과 永遠性을 強要하고 있으니 이 또한 第二의 새로운 宗教요 神들인 것이다.

第3章 共産主義 政治理論과 実際

共産主義 政治理論은 「階級闘争論」 「暴力革命論」 「프롤레타리아 独裁論」 等 마르크스의 中心思想과 더불어 「前衛党論」 그리고 「国家死滅論」 等의 順序로 説明하고자 한다.

1. 階級闘争論



그러면 이 階級闘争論이 지니고 있는 矛盾点은 무엇이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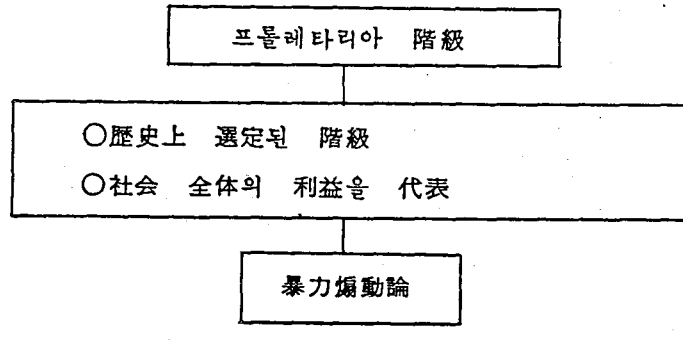
첫째, 共産主義者들은 『모든 社会의 歷史를 対立関係로 理解하며 階級闘争의 歷史』라고 断定하고 있다는 点이다.

그러나 現実의 階級関係는 마르크스가 主張한 것처럼 搾取者와 被搾取者라는 두개의 階級間의 闘争으로만 볼 수 없으며, 오히려 多様하고 複雜한 関係인 것이다.

어떤 問題를 두고 対立하는 두가지 集団이 다른 問題에 있어서는 서로 聯合하여 다른 集団과 対立할 수도 있는 것이며, 또한 階級間에는 相互協調의 側面도 있다는 点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마르크스主義者이며 独逸의 社会民主党 指導者 카알·카우츠키가 그의 <階級協調論>에서 『오늘날 社会에는 階級闘争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実質的으로 階級과 階級과의 協調가 純化되어가는 傾向이 크게 나타난다』고 指摘한 바와 같이 政府에 의한 社会施策等으로 労動組合의 組織이 発達되고 労動者들의 生活水準이 크게 向上되어 結局 階級의 対立보다 労使間의 協調가 이루어지는 実情임으로 社会歷史를 階級闘争史로만 断定한 마르크스主義는 人間社会의 肯定的 側面을 意識的으로 度外視하고 否定的 側面만을 強調하였다는데 그 矛盾이 있는 것이다.

批判Ⅱ·프롤레타리아階級의 利益은 全體의 利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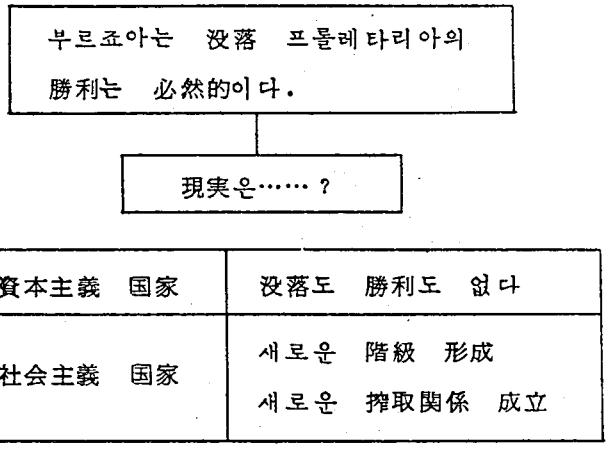


한다고 主張하였으나 오히려 現実은 그 反対의 現象이 일어나고 있다.

先進工業国家의 社会構造는 피라미트型이 아니라 다이야몬드型으로 変化되어 가고 있으며 少数의 富裕階級과 少数의 貧困階級間에는 大量의 中間階層이 形成되어 가고 있는 実情이다.

더우기 中間階層中에서 企業이 経営에 参与하는 경우는 勿論 여러가지 利害関係에서 보면 오히려 資本家階級과 結付되는 수가 많은 것이 오늘날의 現実이며 또한 先進資本主義 諸国을 政策的으로 中間階層을 育成하고 있는 実情이다.

批判Ⅳ・프롤레타리아의 勝利는 必然的이다.



4) 批判Ⅳ, 프롤레타리아의 勝利는 必然的이다.

共産主義者들은 부르죠아는 没落되고 프롤레타리아의 勝利는 必然的인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資本主義社会의 現実을 볼때, 거기에는 부르죠아의 没落은 勿論 労動者階級의 勝利도 찾아 볼 수가 없다. 오히려 暴力과 革命으로 政権을 잡은 社会主義国家에서 前 유고의 副統領이었던 밀로반・질라스의 말대로 새로운 特権階級이 形成되고 그들에 의한 새로운 搾取関係가 일어나고 있는 実情이다.

그들은 人為的인 暴力革命을 통하여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죠아의 手中에서 生産力과 政治権力을 奪取하고 끝내는 프롤레타리아政権을 樹立하여 社会構造의 転換을 이룩하여야 한다고 主唱하였다.

레닌은 이러한 暴力革命의 戦略的 展開를 為해서 勤労者의 大多数가 革命의 必要性을 充分히 理解하고 그를 為하여 스스로의 生命을 犠牲시킬 覚悟가 先行되어야 한다고 強調하였다.

暴力革命論의 批判

批判 I ·暴力의 必須性

暴力의 適用	
프롤레타리아 革命 過程	必須的 手段
프롤레타리아 政権 掌握후	戦術的 手段

그러면 暴力革命論이 지니고 있는 虚構成과 矛盾性은 어디에 있겠는가?

첫째, 共産主義들은 프롤레타리아革命에 있어서 暴力을 必要悪으로 보지 않고 없어서는 안될 必須的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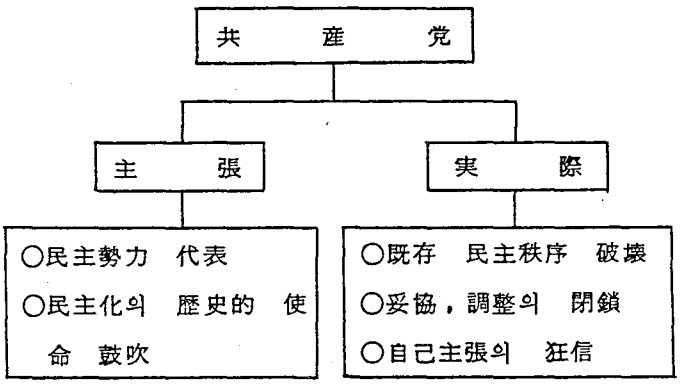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革命이 낡은 政治制度가 経済的 社会的 発展을 制約하게 되면서부터 発端하였던 事実을 잘 알고 있다.

歴史上 革命의 主体로서 새로이 登場한 勢力은 暴力을 革命의 道具로서 活用하였으나 그것은 一時的인 現象이고 暴力을 使用하는 境遇에는 現実 肯定的인 考慮가 없지 않았다.

그러나 共産主義者들은 暴力을 崇拝하여 프롤레타리아 革命過程에서 必須的인 手段으로 適用함은 勿論 政権을 掌握한 후에도 이를 戦術的인 手法으로 継続 活用하고 있는 것이다.

国에서 革命을 煽動하는 暴力的 戦術로 밖에 볼 수 없으며 窮極的으로 世界를 無秩序한 革命의 도가니 속에 몰아 넣어 世界의 赤化를 企図한 것이라 하겠다.

批判III・共産党의 使命을 過大評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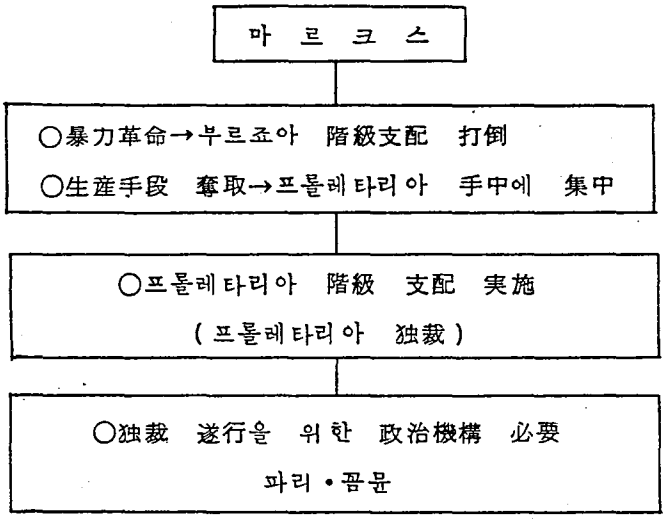


셋째로, 共産主義者들은 프롤레타리아 階級政党인 共産党의 歴史的 使命을 過大評価하였다.

겉으로는 共産党이 그 나라의 民主勢力을 代弁하고 民主化의 歴史的 使命을 지니고 있는듯이 主張하고 있으나 実際에 있어서는 自由롭고도 合法的인 選挙節次를 통하여 樹立된 既存民主秩序를 破壊하고 이데올로기만을 固執한 나머지 妥協과 調整의 길을 스스로 閉鎖하고 있으며 또한 自己의 主張을 狂信하고 相対方을 全的으로 無視하는 偏狭한 思考方式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의 主張을 絶対 真理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마르크스나 레닌 그리고 毛沢東이나 金日成 等에서 한 없는 真理를 캐내는 것이다.

3 . 프롤레타리아 独裁論



다음은 마르크가 主張하는 프롤레타리아独裁論에 대하여 説明하고자 한다. 簡単히 말해서 暴力革命으로서 부르죠아지의 階級支配를 打倒한 다음에 프롤레타리아에 의한 階級支配를 이룩하고 同時에 부르죠아階級의 手中에서 모든 生産手段을 빼앗아 組織化된 프롤레타리아의 手中에 集中시킴으로써 프롤레타리아階級의 独裁를 実現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프롤레타리아 独裁가 어떤 形態의 政治機構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느냐가 重要한 問題였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1871年의 파리 • 꼼뮨이야 말로 프롤레타리아 独裁에 適合한 政治機構라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하며

셋째로, 帝国主義와 싸우기 위하여 革命을 武装化하고 革命軍隊를 組織化하는 것 等이라 하였다.

그리고 프롤레타리아独裁는 資本主義에서 共産主義에의 過渡期에 있어서의 唯一한 支配形態라고 하며 共産主義者들은 既存의 国家機関 代身 大衆을 널리 包摂하기 위하여 소비에트制度를 採択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独裁論 批判

批判 I ·競争的 政党의 存在를 不許

프롤레타리아 独裁는 唯一政党, 即 共産党에 依한 独裁政治이다.

○国民에 대한 政策強要 機関
○政権의 核心 機関
○国家 機関의 指導勢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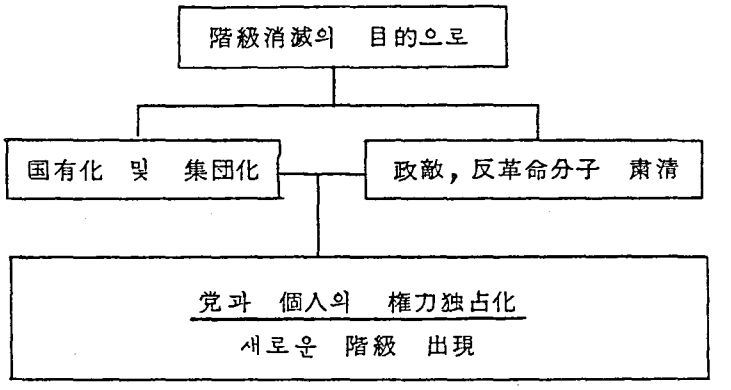
共産主義政府=党의 政府
(질라스)

그러면 프롤레타리아独裁論의 矛盾은 어디에 있겠는가?

첫째, 共産主義者들은 資本主義에서 共産主義에의 過渡期에 있어서의 唯一한 支配形態로서 프롤레타리아階級政党 以外의 어떤 競争的인 政党도 그 存在를 断乎히 排除하고 있다. 蘇聯共産党 規約에 의하면 『党은 社会 組織과 政治組織의 最高形態이며 소비에트社会의 指導的 核心』이라고 規定하고 있다.

民主政治와는 本質的으로 다른 反民主政治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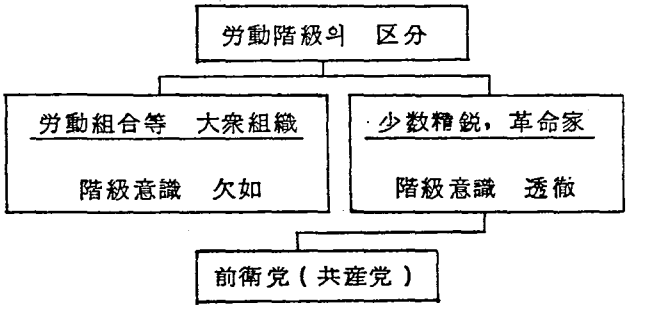
批判Ⅲ, 새로운 主従関係의 出現



셋째, 프롤레타리아独裁는 새로운 主従関係를 誕生시켰다. 共産党은 프롤레타리아独裁로서 搾取와 被搾取의 階級消滅을 目的으로 私有財産을 没収하여 国有化 또는 集団化를 試図하였다.

한편 政敵의 粛清, 反革命分子의 掃蕩, 旧指導者의 除去 等 너무나 많은 人命을 犠牲시켜 党과 個人의 権力을 独占化함으로써 새로운 形態의 搾取階級을 造作해 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政治権力이 都市와 農村의 勤労人民에게 있다고 宣伝하며 満場一致制로 끝나 버리는 소비에트式 選挙를 世界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여기에 프롤레타리아独裁論의 虚構性이 있는 것이다.

4 . 前衛党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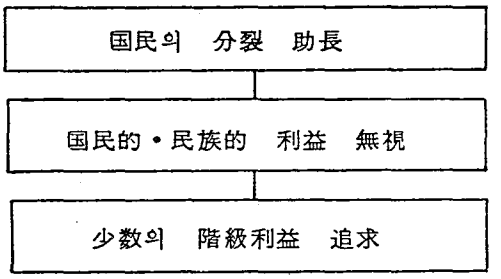
넷째로, 프롤레타리아 階級組織의 最高 形態라는 것이며.

다섯째로, 一切의 分派를 許諾하지 않는 単一意思의 統一体라는 것이고

그밖에 党의 発展原理로서 批判과 自我批判을 活用한다는 것 等이다.

前衛党論 批判

批判Ⅰ, 国民的 民族的 利益의 無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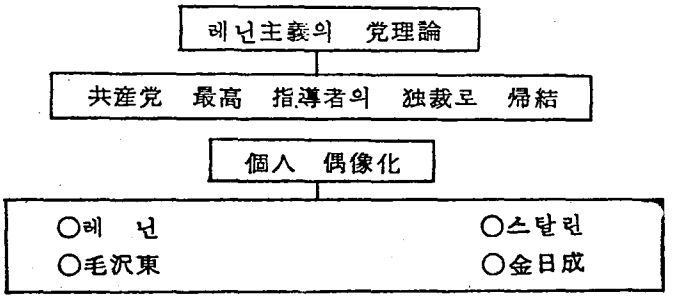


그러면 階級闘争의 前衛組織으로서의 共産党理論의 虚構成은 어디에 있겠는가?

첫째, 아무리 階級을 主導하는 階級政党일지라도 国民的, 民族的, 利益을 無視할 수는 없는 것이다.

特히 오늘날의 国際関係에 있어서 모든 国家의 総力을 集結하고 있는 現実을 볼때 共産主義者들이 主張하는 前衛党論은 한마디로 말해서 国民의 分裂을 助長하고 階級的 利益에 国民的, 民族的 利益에 優先하는 少数의 階級 利益의 追求로 밖에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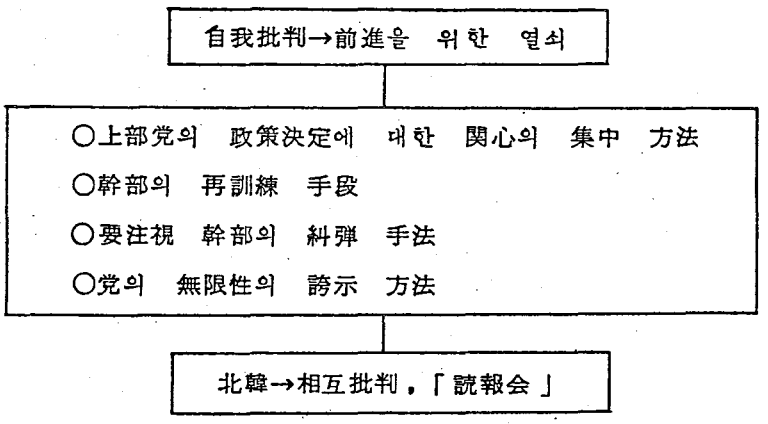
批判Ⅱ, 党独裁 및 個人独裁強化策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共産主義 国家에서는 이러한 事例는 볼 수 없을 뿐더러 共産党 指導部에는 『誤謬란 있을 수 없다』는 所謂 「無誤謬性」과 「絶対性」을 내세우고 있는 現実인 것이다. 때문에 共産党의 所謂 民主主義 中央集権制는 独裁를 偽装하기 위한 民主主義라는 用語의 濫用에 不過하다고 하겠다.

批判Ⅳ, 自我批判



넷째로, 共産党이 곧잘 使用하는 自我批判에 대하여 説明하고자 한다. 蘇聯의 政治理論家 살리코프는 『批判과 自我批判없이는 自身의 隊列속에 숨어 있는 敵을 摘発할 수 없는 것이며, 또 프롤레타리아革命을 準備하고 遂行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여 自我批判을 前進을 위한 열쇠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共産党이 그렇게 所重하게 생각하는 自我批判도 民主政党에서 말하는 発展을 위한 自己反省과는 本質的으로 다른 것이다.

그들은 自我批判을 다음과 같은 目的에서 使用하고 있다.

첫째는 上級党部에서 이미 決定한 政策을 完遂하기 위하여 모든 関

에 「国家死滅論」을 中心으로 한 命題만을 紹介하기로 하겠다.

于先 마르크스와 엥겔스에 의하면 国家란 한 階級이 다른 階級을 搾取하고 暴力으로 支配하기 위한 組織에 不過하며, 그 以外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았다.

그래서 搾取와 被搾取의 階級関係가 消滅되면 国家도 当然히 消滅되며 프롤레타리아 独裁 政権이 樹立되면 生産手段의 共有化가 이루어져서 부르죠아와 프롤레타리아의 区別이 消滅됨과 同時에 抑圧階級도 存在하지 않게 되므로써 国家도 必然的으로 消滅된다는 것이다.

一部 無政府主義者들도 国家를 모든 悪의 源泉이라고 断定하고 이것을 容恕없이 永遠히 破壊해 버려야 한다고 主張한 바 있지만 이 点에서 共産主義者들의 国家論과 一脈 相通한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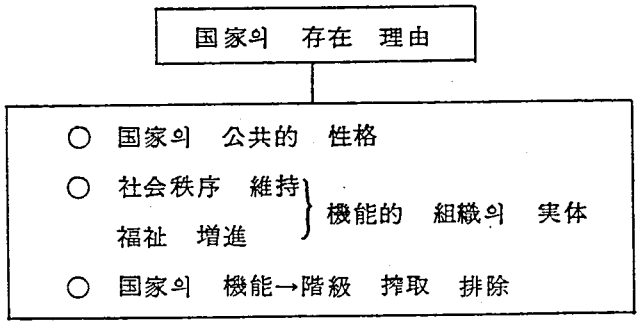
레 닌

国家 死滅 過程

1 段階	○共産社会에의 過渡期的 国家(半国家)
2 段階	○共産社会의 第1段階 国家의 不完全한 死滅(부르죠아的 権利의 残滓存在)
3 段階	○共産社会의 高段階로 突入 国家의 完全한 死滅

国家死滅論 批判

批判 I ·한 階級이 다른 階級의 支配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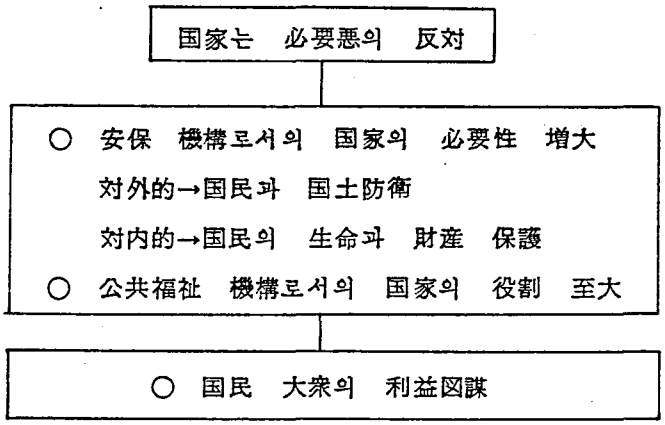
그러면 国家死滅論의 矛盾은 어디에 있겠는가?

첫째 国家를 단지 한 階級이 다른 階級을 支配·搾取하기 위한 機構라고 主張하고 있다는 点에 있다.

우리들의 経験的 事実에서 判断한다면 国家의 存在理由는 被支配階級의 抑圧機関으로써 存在했기 보다는 実로 人間 全体를 위하여 그것이 普遍的 価値를 가진 機能을 遂行해 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国家의 存在理由는 그의 公共的 性格에 있는 것이므로 社会의 秩序 維持와 国民福祉 増進을 目的으로 하는 機能的 任務를 遂行하고 있다. 때문에 共産主義者들이 主張하는 것처럼 国家는 階級의 搾取機関으로서 存立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階級間의 搾取를 排除하는 方向에서 그 技能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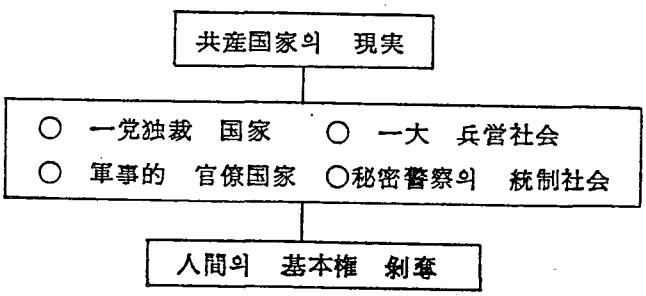
批判Ⅲ，必然的 悪으로서의 国家



세째로 共産主義者들은 国家를 必然的이고 絶対的인 悪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国家는 人間이 만든 것이며 人間의 個性과 尊厳性을 保護하기 위하여 그의 創造的 努力을 다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때문에 国家는 必要悪이 아니라 오히려 그 反対인 것이다.

外部勢力으로 부터의 侵略에 対処하여 対外的으로는 国民과 国土를 防衛하며 対内的으로는 国民의 生命과 財産을 保護하는 安保機構로서의 国家의 必要性은 날이 갈수록 増大해 가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教育·保建·社会保障制度·交通·通信 等 公共福祉機構로서의 国家의 役割도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国家는 支配階級의 利益보다 오히려 国民大衆의 利益을 더 크게 配慮하고 있는 것이다.

批判Ⅳ，共産国家는 閉鎖社会



첫째, 共産主義者들이 모든 社会의 歷史를 無慈悲한 階級闘争의 歷史로 본 것은 現代社会에 있어서 実質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階級과 階級間의 協調가 醇化되어 가고 있음을 外面하고 人間社会의 肯定的 側面보다 否定的 側面을 自己들의 闘争目的을 위하여 拡大 強調한 것에 不過하다.

> ② 共産主義者들이 프롤레타리아階級의 利益만 社会全体 利益이라고 主張하는 것은 階級 独裁実現을 위한 政治的 煽動説이다.

둘째, 共産主義者들이 프롤레타리아階級의 利益만이 社会 全体의 利益이라고 主張하고 있는 것은 階級独裁 実現을 위한 政治的 煽動論이라고 말할 수 있다.

> ③ 共産主義者들이 暴力을 必要悪으로 보지 않고 階級独裁의 必須的인 것으로 主張하는 것은 妥協할 줄 모르는 그들의 思考行態를 代辨해 주고 있다.

세째, 共産主義者들이 暴力을 必要悪으로 보지 않고 프롤레타리아 階級独裁의 必須的인 手段으로 主張하는 것은 妥協할 줄 모르는 그들의 狂的인 思考行態를 代弁해 주고 있다.

그들은 이 暴力을 独裁政権 樹立後에도 継続 活用하므로써 共産社会에는 恐怖的인 粛清이 그칠 날이 없는 것이다.

일곱째, 共産主義者들의 所謂 民主主義的 中央集権制는 共産党의 独裁를 偽装하기 위한 民主主義 用語의 濫用에 不過하다.
共産党에는 오직 全体와 하나, 그리고 無限한 権力과 特権만이 있는 것이다.

> ⑧ 共産主義者들이 「国家를 階級支配의 道具」로 보는 것은 国家의 存在理由를 忘却한 時代錯誤的인 思考方式이다.

여덟째, 共産主義者들이 国家를 階級支配의 道具로 보고 있는 것은 国家의 存在理由를 忘却한 時代錯誤的인 思考方式이라 하겠다.

> ⑨ 共産国家는 本質的으로 一党独裁国家이며, 封鎖社会이며, 軍事的 好戦的 官僚国家이며, 同時에 秘密警察의 統制社会이다.

아홉째, 共産国家는 本質的으로는 一党 独裁国家이며 封鎖社会이며 軍事的 好戦的 官僚国家이며 나아가서는 秘密警察에 의한 統制社会인 것이다.

結論的으로 말하면 共産社会는 人間의 基本権의 保障과 人間의 尊厳性을 秋毫도 期待할 수 없는 非情의 社会라 아니할 수 없다.

마르크스는 以上의 結論을 導出하기 위하여 「労動価値説」과 「剰余価値説」을 適用하였는 바 그 中에서 于先 「労動価値説」의 主要 骨子에 대해서 説明하고자 한다.

마르크스의 「労動価値説」은 일찌기 英国의 아담·스미스가 그 研究를 試図하여 그의 弟子 리카르도가 発展시킨 「投下労動価値説」을 다시 그 나름대로 整理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投下労動価値説」은 商品生産에 投下된 労動의 量에 따라 価値가 決定된다는 理論이다. 例를 들어서 한마리의 고래를 잡는데 所要되는 労動과 열마리의 사슴을 잡는데 所要되는 労動量이 같다면 한마리의 고래와 열마리의 사슴이 서로 같은 값어치를 갖고 交換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위의 理論을 土台로 労動을 具体的 労動과 抽象的 労動으로 区別하여 説明하고 있다.

具体的 労動은 쌀이나 보리처럼 人間에게 必要한 物件을 生産하여 「使用量値」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抽象的 労動은 生産에 投下된 労動의 量에 따라 「交換価値」를 形成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 抽象的 労動이 어떻게 価値를 生産하는 가에 대하여 마르크크스는 『社会的으로 必要한 平均労動量』이란 概念을 使用하였다. 例컨대 한필의 베를 짜는데 있어서 10時間의 労動을 必要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時間을 必要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나 平均的으로 労動者가 그것을 짜는데 있어서 5時間이 걸린다면 그 5時間의 労動이 곧 베의 価値를 決定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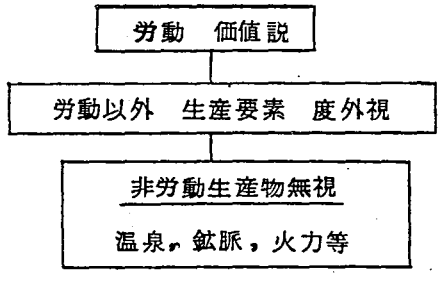
둘째 労動価値説은 近代資本主義社会에서의 利潤率 平準化 現象을 無視하고 있다는 点이다. 마르크스의 主張에 따른다면 労動의 比率이 相対的으로 높은 軽工業 分野에서의 利潤率은 높아야 하고 比較的 機械依存度가 높은 重工業 分野에서의 利潤率은 반드시 낮아야 한다는 結論에 到達한다.

이렇게 되면 投下労動量에 의한 価値와 生産費의 平均利潤을 보태야 비로서 現実의 商品価格이 形成된다는 一般的 価値決定法則과는 一致할 수 없게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一部 商品은 価値以上으로 販売되고 一部 商品은 価値以下로 販売된다는 것을 認定하여 価値法則은 個別的으로 妥当치 않으며 全体를 통해 平均的으로 作用한다고 主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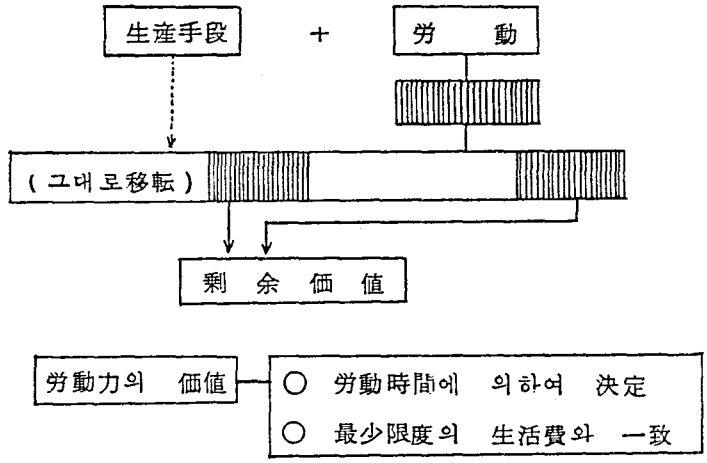
그러나 이것은 窮塞한 弁明에 지나지 않은 平均 概念의 濫用으로 밖에 볼수 없으며 要는 마르크스가 需要와 供給関係에 의한 価値変動을 充分히 다루지 못한데서 나타난 当然한 結論이라 하겠다.

批判Ⅲ. 労動生産物 以外의 商品 度外視



세째, 労動価値説은 労動生産物 以外의 商品을 전혀 度外視하고 있다는 点이다.

마르크스는 価値를 오직 労動生産物에만 局限시키고, 労動以外의 生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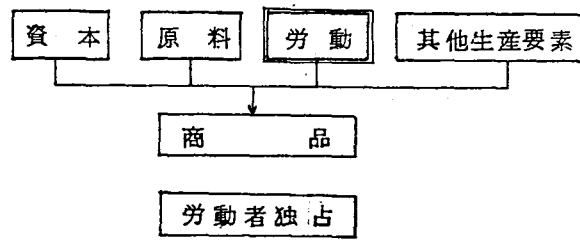
한편 그는 生産要素中 労動以外의 生産要素는 그 自体의 価値가 労動生産物에 그대로 移転될 뿐이나, 労動力만은 生産過程에서 自体의 価値보다 더 큰 剰余価値를 生産한다 하였다.

그러면서도 그는 労動力 自体의 価値는 労動時間에 의하여 決定되고 그것도 労動者들의 最少限度의 生活費와 一致하는 範囲를 넘을 수 없는 것이라 하여 労賃의 固定性을 主張하였다.

이처럼 마르크스는 剰余価値論을 통해서 利潤의 本質을 資本家에 의한 労動者의 搾取関係로 説明하였기 때문에 利潤의 源泉인 私有財産制度의 廃止를 主張하였던 것이다.

剰餘価値説 批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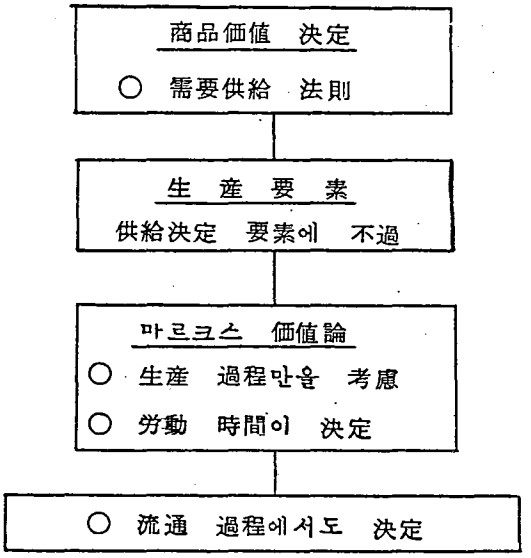
批判 I ・労動一辺倒



스탈린은 1952年 〈蘇聯에서의 社会主義経済의 諸問題〉라는 論文에서 剩余価値論이 너무나 一般的인 것이기 때문에 現代 資本主義経済에 있어서 基本的인 法則이 될 수 없다 하여 剩余価値論의 不合理性을 指摘한 바 있었다.

오늘날 一部共産圈에서도 生産의 非能率性을 止揚키 위한 利潤導入說을 내세우고 있는가 하면 農民들에게 小農具의 私有를 認定함으로써 剩余価値說의 矛盾性을 自認하기에 이르렀다.

批判 II ·供給과 需要法則 無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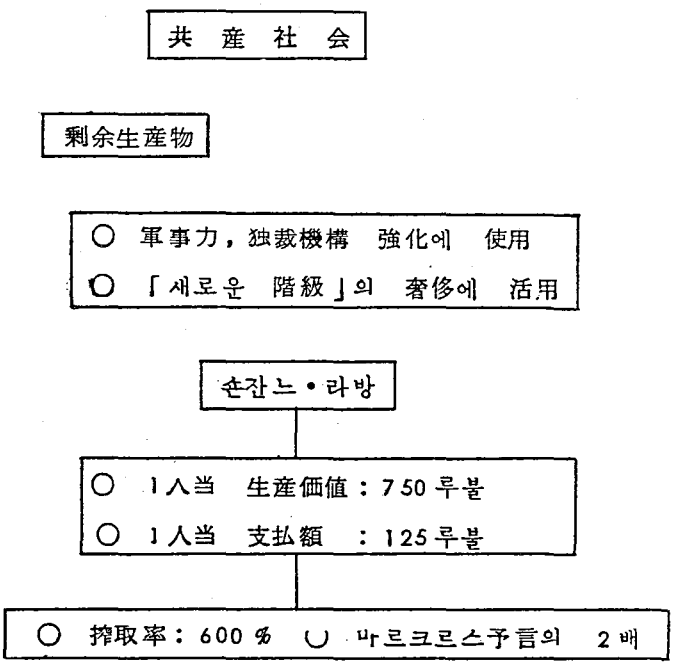
둘째, 마르크스는 그 価値論에서 商品의 供給만을 問題視하고 需要問題는 전혀 無視하고 있다.

앞서 説明한 바와 같이 商品의 価値는 오직 投下된 労動이나 其他의 生産要素에 의해서만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는 商品에 대한 需要와 供給에 대해서 価値의 決定이 左右되는 境遇가 더 큰 比

있어서 人口의 都市集中에 따른 過渡的인 現象에 지나지 않았다.

最近에 이르러 先進資本主義国家에서 이른바 「生産性 賃金制」라 하여 勞賃의 上昇率을 勞動生産性의 上昇率과 一致하도록 法的 措置를 取하고 있는 現象에 비추어 보아 共産主義者들이 아직도 이 陳腐한 마르크스의 剩余価値論을 내세워 企業家들이 勞動者들의 勞賃을 搾取한다 함은 時代錯誤的인 不当性을 立証하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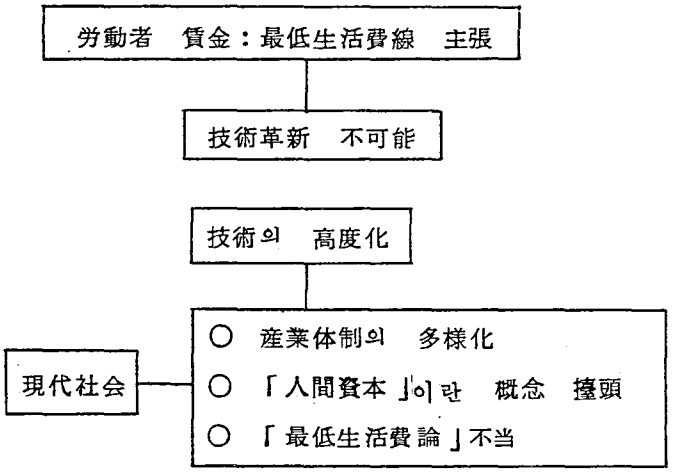
批判IV・勞動者의 搾取는 共産主義社会에서



네째, 勞動者에 대한 搾取現象은 오히려 「勞動者의 楽園」을 만들겠다는 共産社会에서 찾아 볼 수 있다.

共産社会에서의 剩余生産物은 勞動者의 福祉向上을 위해서 使用되지 않고 軍事力強化나 独裁政権 維持에 使用되거나 所謂 새로운 階級의

이를 分析해 보면 労動者의 搾取率은 約 800％以上이 된다。 이 같은 事実에 根拠하여 밀로반·질라스는 共産主義 内部에도 새로운 特権階級이 発生되고 그들에 의하여 새로운 搾取関係가 形成되어 가고 있다 하겠다。



마르크스의 말대로 労動者의 賃金이 最低生活費線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資本家에 의한 労動者들의 技術革新이란 想像할 수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은 社会가 発達하고 産業体制가 날로 多様化됨에 따라서 人間資本이란 概念이 漸漸 普遍化되어 가고 있으며 富의 概念도 物質的 富富以外에 人間에게 凝結된 富가 매우 重視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労動者는 굶주림에 허덕이는 근육의 뭉치가 아니라 知識과 技術을 가진 人間資本이라는 걸 생각할 때 마르크스의 「最低生活費論」主張은 不当하기 이를데 없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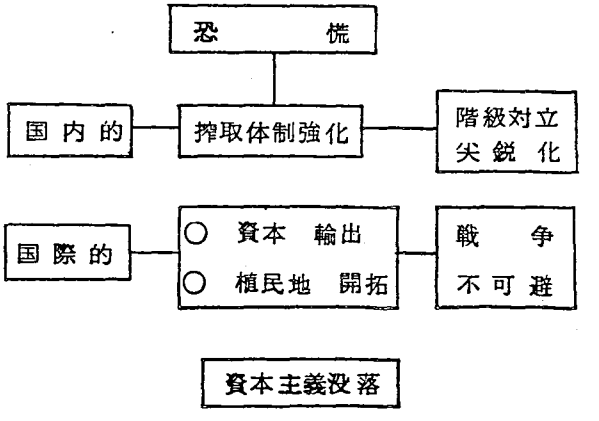
또한 그는 資本家들의 技術革新은 産業의 機械化를 促進시킴으로써 不不変資本의 有機的 高度化를 造成하는 反面에, 可変資本인 労動의 減少現象을 일으킨다 하였다.

이 같은 労動의 減少現象은 労動에 의하여 発生한다는 剰余価値를 減少시키게 되어, 結果的으로는 資本家들의 利潤率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資本家들은 利潤率의 下落을 막기 위해서 資本의 蓄積에 의한 資本의 有機化를 더욱 高度化 시키고, 生産費를 줄이려고 努力하는 한편 国内의 劣等企業들을 吸収 併合함으로써 独寡占에 의한 生産費를 拡大시키게 된다 하였다.

이에 反하여 労動者들의 境遇를 보면 生産量이 拡大된다 하여도 이는 어디까지나 技術革新 즉 機械化에 의한 것이므로 労動者들의 雇用機会는 機械化된만큼 減少됨으로써 人口의 増加에도 不拘하고 失業者는 늘어나게 되며 結局 労動者들은 貧困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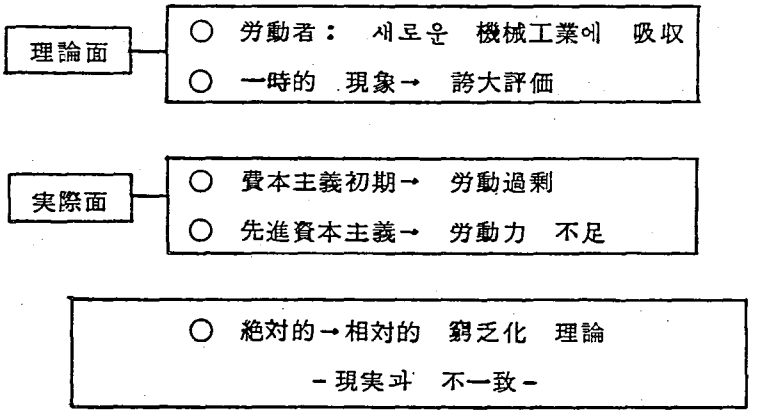
다시 말해서 資本主義社会는 資本家들의 大量商品 生産과는 달리 労動者들의 貧困에 따른 商品需要가 줄어듬으로써 商品은 산더미처럼 쌓이게 된다는 것이다.



것이다.

그것은 人間의 嗜好가 恒常 変化하여 새로운 商品이 開発되고 이에 대한 需要도 늘어나기 때문이며, 새로운 宇宙産業이나 原子工業等의 発達은 해마다 새로운 高率의 投資를 刺戟하기 때문이다. 한편 実際面에서 考察해 볼 때, 先進資本主義国家는 利潤率의 下落에 따른 経済的 여러 矛盾으로 因하여 이미 没落되었어야 할 것이나 오히려 高度의 成長을 보이고 있고 沈滞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들 共産国家들인 것이다.

批判II. 労動者 貧困이란 一種의 労動者 煽動論



물째, 共産主義者들은 産業의 機械化에 따른 労動者의 貧困을 내세워 労動者들에게 闘争할 것을 煽動하고 있다는 点이다. 于先 理論的인 面에서 볼때, 労動者들이 機械化로 因하여 部分的으로 解雇된다 하여도 새로운 機械製作工業에 就業할 수 있음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機械의 発明으로 因하여 一部 労動者들이 그들의 職場을 当分間 잃는 局部的인 現象을 가지고 모든 労動者들이 解雇되고 窮乏에 허덕이게 된다고 主張한 것은 매우 独断的이고 誇張된 判

세째, 資本主義가 그 発生過程에서, 内部的 矛盾때문에 生産과 消費의 不均衡이 일어나서 一大 経済恐慌이 随伴되고 나아가 資本主義가 崩壊된다고 主張한 点은 現代 資本主義国家의 努力을 度外視한 独断論에 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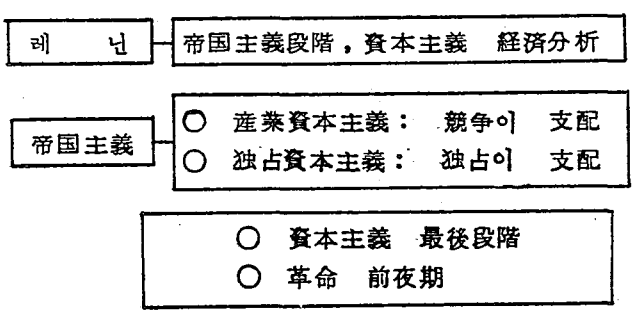
実際面에서 볼때 資本主義 経済体制에 있어서 恒常 均衡이 維持될 수는 없으며, 境遇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経済沈滞要素가 作用하여 景気変動이 나타나는 것은 事実이지만 그로 因하여 資本主義가 没落한 나라는 아직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経済의 持続的인 不均衡은 資本主義社会보다도 社会主義社会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現実이다.

단지 資本主義社会에서는 조그마한 不均衡도 당장에 表面에 나타나는데 反하여 社会主義 統制経済社会에 있어서는 보다 더 큰 不均衡도 表面化 되지 않고 있을 따름이다.

理論的인 面에서 볼때 오늘날 資本主義国家들이 恐慌抑制策을 講究하고 있음은 周知의 事実이다. 即 国家는 財政金融政策을 中心으로 한 需要의 調整, 景気変動을 自動的으로 安定시키는 失業保険이나 社会保障制度 그리고 累進税率의 自動安定装置 等을 活用하여 恐慌의 発生可能性을 事前에 抑制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의 主張을 経済恐慌의 発生을 抑制하는 国家의 多様한 機能을 予想치 못한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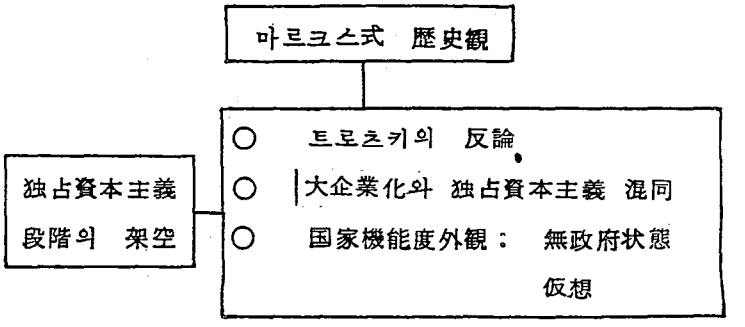
4. 帝国主義論



네째, 国際独占体가 形成됨으로써 世界分割이 이루어지며 끝으로 資本主義 列強사이에 植民地争奪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世界的 規模의 戦争이 不可避하고, 資本主義가 存在하는 限 国際平和는 결코 存在할 수 없다는 것이다.

帝国主義論 批判

批判 I ·架空的인 段階設定



그러면 帝国主義論의 虚構成과 그 矛盾性은 어디에 있겠는가? 첫째, 帝国主義論은 마르크스式 歴史観이 가지는 理論의 貧困性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바, 「独占資本主義 段階」라는 概念 그 自体가 架空的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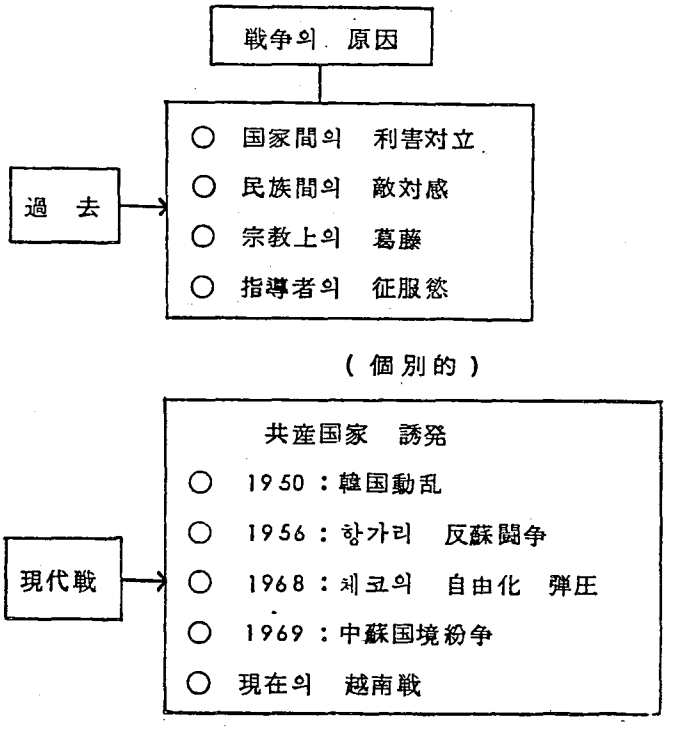
蘇聯의 亡命者인 트로츠키는 그의 著書 <超帝国主義論>에서 레닌의 「独占資本主義段階」에 대해서 資本主義의 한 過程이 아니라 資本主義의 한 政策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여 레닌의 帝国主義論에 反論을 提起한 바 있다. 勿論 境遇에 따라서는 資本主義国家에서 大企業이 盛行한 것도 事実이기 하지만, 大企業化 現象과 独占化 現象은 그 概念이 一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일 共産主義者들이 大企業化의 現象을 独占現象과 混同하여 「独占資本主義」를 主張하였다면 이는 分明 理論上의 重大한 誤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의 拡大를 위해서 植民地 開拓을 하게 된다고 主張하고 있으나 그의 虚偽性은 다음의 事実에서 立証된다。

오늘날 先進 資本主義国家들은 後進国国家에 대하여 無償援助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長期的인 低利 公共借款을 提供하고 있으며, 国際金融機関을 위한 後進国 工業化에 最大의 便宜를 提供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共産主義者들이 資本主義国家에 대하여 寡頭金融制니 植民地開拓을 위한 資本 輸出을 한다느니 하는 것은 先進国과 後進国家의 住民들을 煽動, 相互 離間시킴으로써 그들의 窮極目標인 世界赤化를 成就하려는 一種의 後進国 住民煽動論으로 밖에 볼 수 없다。

批判Ⅲ．戦争 不可避論의 虚構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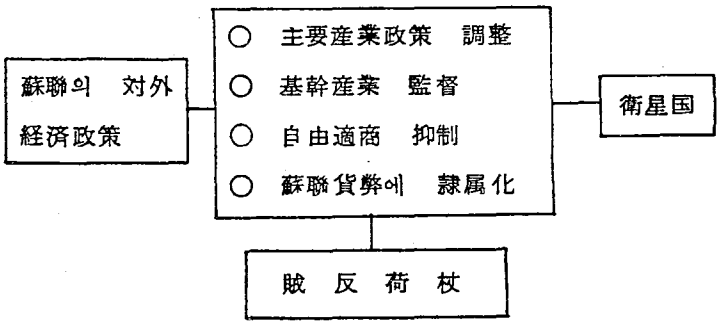


세째, 레닌이 経済的인 世界分割로 말미암아 資本主義 列強사이에

強制的으로 그들의 支配下에 넣었고, 経済的으로는 東独으로부터 45億달라, 루마니아로부터 20億달라, 満州에서 20億달라等 都合 85億달라를 収奪했던 것이다.

그 밖에도 많은 経済的 利権을 剝奪하여 衛星国家들의 自立的 経済体制 運営能力을 抹殺하고 말았다.

오버스트리트의 批判



일찌기 共産圏専門家로 널리 알려진 美国의 오버스트리트는 코메콘을 中心으로 한 蘇聯의 対外経済政策을 다음과 같이 批判한 바 있다.

첫째, 衛星国家의 主要産業政策을 調整하여 蘇聯이 指定해 준 商品만을 過剰生産토록 하며

둘째, 衛星国의 基幹産業을 監督하는 管理者, 顧問 그리고 専門家들을 任命하고

세째, 衛星国家와 資本主義国家와의 通商을 監督하며

끝으로, 衛星国의 銀行을 掌握함으로써 現地 通貨를 蘇聯의 루블貨에 隷属토록 하고 있다는 것 등이다.

이처럼 共産主義者들은 그들의 主張과는 달리 새로운 赤色植民地政策을 쓰고 있어 賊反荷杖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세째, 共産主義者들은 마르크스의 剩余価値説을 資本家의 私有財産을 奪取하는데만 活用하고 있을 뿐, 그들의 経済現実에는 適用치 않고 있다.

④ 共産主義者들은 資本主義가 崩壊되고「必然的」으로 社会主義가 到来한다 하나 오늘날 経済的 沈滞를 거듭하는 것은 오히려 共産国家들인 것이다.

네째, 共産主義者들은 資本主義가 崩壊되고 必然的으로 社会主義가 到来한다 하나 오늘날 経済的 沈滞를 거듭하고 있는 것은 資本主義가 아니라 오히려 共産国家들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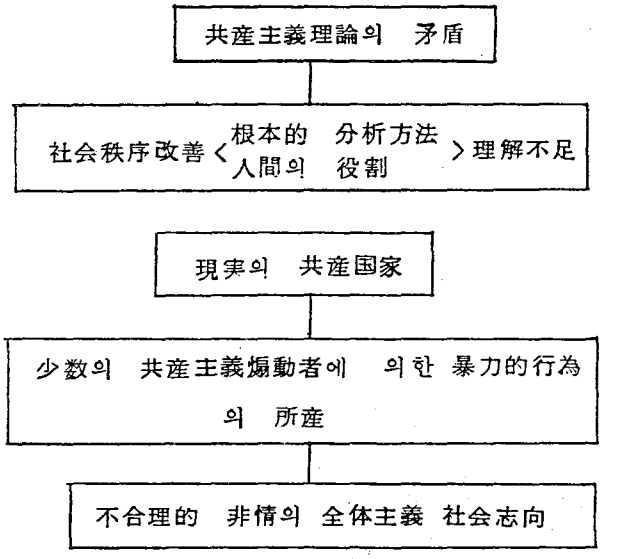
⑤ 共産主義者들은 資本主義가 発展하면 労動者는 貧困해진다 하여 労動者 革命을 煽動하고 있다.

다섯째, 共産主義者들은 資本主義가 発展하면 労動者가 貧困해 진다하여 富의 争取라는 口実下에 労動者 革命을 煽動하고 있다.

⑥ 마르크스는 恐慌 発生의 予言은 国家의 機能을 自由放任主義時代의 것으로 錯覚한데서 나타난 独断이다.

여섯째, 마르크스의 経済恐慌 発生의 予言은 国家의 機能을 自由放任主義時代의 것으로 錯覚한데서 나타난 独断論이다.

第5章 結 言



지금까지 共産主義 発生의 背景으로 부터 共産主義 基本哲学, 政治 그리고 経済理論과 実際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共産主義者들은 社会秩序를 改造하고 보다 나은 社会建設을 約束하며 그에 따른 理論을 展開하였다.

그러나 共産主義 理論은 社会秩序에 대한 根本的 分析方法과 秩序를 만들어 내는데 必要한 人間의 役割에 대한 理解가 없이 定立되었다는 点에서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 본 것과 같은 많은 矛盾点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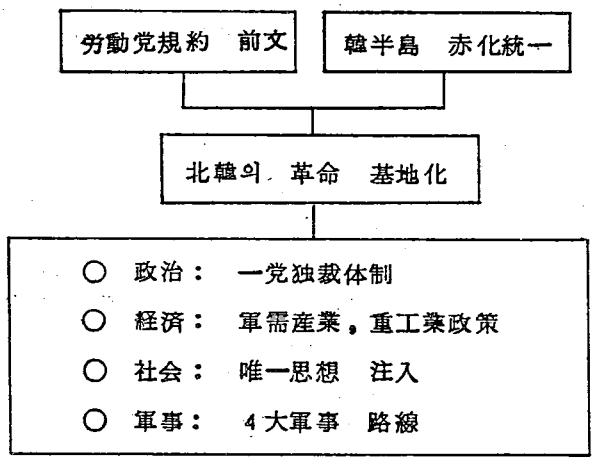
다 아는바와 같이 비록 社会主義革命이 蘇聯과 中共을 비롯하여 其他 群少 国家에서 成就되었다 하지만 이 나라들은 모두가 資本主義가 成熟된 나라도 아니거니와 마르크스가 予言한 것처럼 「必然的 歷史의発展」에 따른 共産化 過程을 밟은 것도 아니었다.

단지 少数의 共産主義 煽動者와 狂信者들의 政権奪取를 위한 暴力的인

格으로 有効適切하게 駆使하고 있는 것이다。

일찌기 버마에서 脱出한 蘇聯外交官이었던 카츠나•체프도 共産主義者들이 그들이 窮極目標를 達成하기 위하여 힘의 哲学을 信奉하면서 힘의 培養에 全力을 傾注하고 있으며 힘의 蓄積되면 暴力에 의한 革命을 貫徹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暴露한 바 있다。

2 .北韓 共産主義의 正體



그러면 우리와 対処하고 있는 北韓共産主義의 正体는 무엇이겠는가?

北韓共産党은 그의 闘争路線을 뒷받침하는 党規約前文에서 『朝鮮労動党의 当面目的은 共和国 北半部에서의 社会主義의 完全한 勝利를 保障하며 全国的 範囲에서，反帝，反封建的 民主主義 革命의 課業을 遂行하는데 있는 것이며 最終目的은 共産主義社会를 建設하는데 있다』고 明白히 規定짓고 있다。

이와 같은 事実은 北韓의 窮極的인 目標가 全韓半島의 赤化統一에 있으며 그 内容은 南北의 分断状態下에서 北을 支配하며 南韓을 北의 支配領域에 넣으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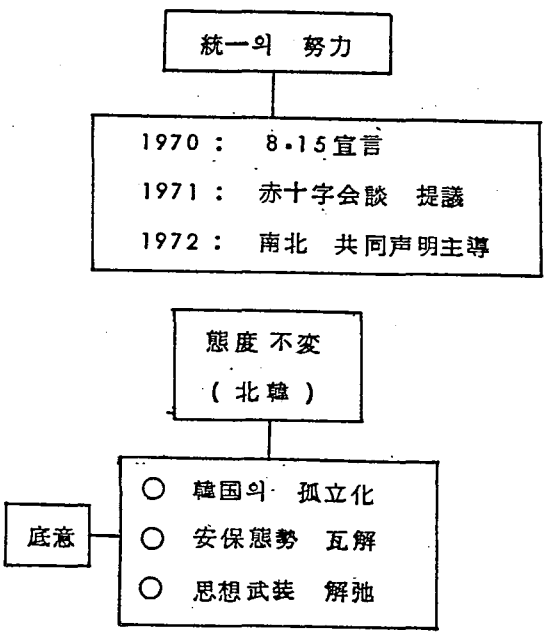
革命力量의 強化下에 窮極的으로 南韓内의 革命同調 勢力을 組織化하여 大韓民国의 顚覆에 注力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韓国内의 革命 同調勢力의 主力軍으로 判断한 韓国의 労動者들이 그 누구보다도 徹底한 反共精神으로 武装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革命戦略에 決定的인 蹉跌을 주었던 것이다。 特히 그들은 南韓革命의 強化를 위한 主要 攻撃対象으로 美国을 내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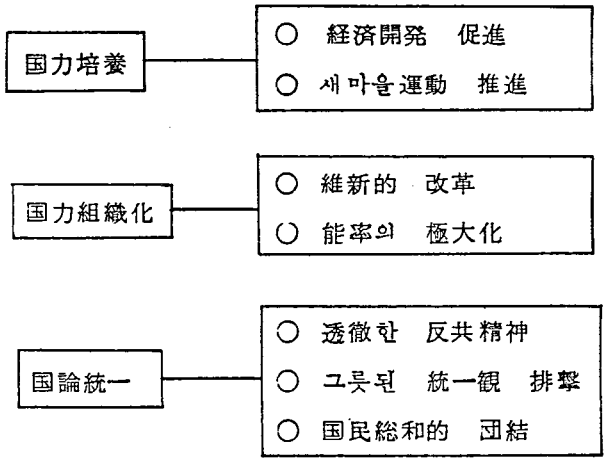
이 같이 美国을 革命의 攻撃対象으로 보고 있는 것은 韓美間의 굳건한 紐帯関係가 韓国의 共産化革命에 決定的인 障碍가 된다고 評価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1969年11月의 닉슨•佐藤共同声明 以後에는 日本을 소위 美帝의 一環으로 보고 南韓革命의 主된 障碍要素로 보고 있다。

4 . 南北対話



5 . 우리의 使命



그러면 이 歷史的인 一大 転換点에서 우리가 遂行해야 할 神聖한 責務와 使命은 무엇이겠는가?

무엇보다도 먼저 北韓共産主義者들이 감히 넘나 볼수 없도록 経済開発을 促進하고 새마을運動을 推進하여 우리의 힘을 하루 속히 培養하는 일이며, 다음은 그들이 赤化統一의 野慾을 完全히 抛棄하도록 維新的 改革과 能率의 極大化를 통하여 우리의 힘을 튼튼히 組織化하는 일이며,

끝으로 온 国民이 共産主義의 宣伝에 眩惑됨이 없이 共産主義의 正体를 올바로 알고 透徹한 反共精神으로 武装하며 그릇된 統一観을 排撃하여 国民総和的 団結을 이룩하는 일 等이다.

그리하여 우리 온国民의 念願인 民主統一을 期必코 이룩하여야 할 것이다.

Ⅷ. 統　一　政　策

第 1 章　統一政策

第 2 章　統韓問題와　유엔

第 3 章　分断国의　統一政策

第 1 章 統一政策

1. 70年代와 統一努力

우리의 統一努力 展開過程에 있어서 70年代만큼 內外情勢面에서 深刻한 問題가 提起된 일은 거의 없었다.

70年代에 접어들면서 国際情勢는 韓半島의 分斷을 強要했던 両極的 冷戰体制를 脫脚하고 緊張緩和를 追求하는 平和共存関係를 発展시켰다. 同時에 強大国들은 冷戰時期에 追求했던 外交路線 即 이데올로기와 名分에 立脚한 対外関係보다는 国家的 実利를 追求하는 方向을 積極的으로 追求하게 되었다.

韓半島 周辺情勢는 이러한 趨勢를 反映하여 従来의 国際関係가 根本的으로 変化를 보였다. 韓半島를 사이에 두고 対峙했던 美日同盟関係와 中蘇同盟関係는 그 外形은 維持하면서도 그 本質은 달라졌다. 美日関係는 経済的 対立関係로, 中蘇関係는 軍事的 敵対関係로 뒤바뀌었다. 反面 美·中関係, 日·中関係는 改善되었고 美·蘇間의 平和共存関係는 한층 더 深化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韓半島의 現状打破와 같은 極東에서의 緊張要因을 開発하기 보다는 現状을 維持함으로써 極東의 国際関係를 平和共存関係로 発展시키려는 選択에 関心을 갖기 始作했다.

한편 南北韓 関係는 相互間에 絶対的 統一을 追求함으로 해서 軍事的 緊張은 高潮되었고 이 事実은 20年間 継続된 休戰状態가 韓半島의 平和를 定着시키기 위한 期間이었다기 보다는 実力에 統一을 成就하기 위한 南北韓의 蓄力期였다는 事実에 비추어 自明한 것이다.

이 点에서 周辺情勢와 南北韓 関係는 相互 矛盾関係를 露呈하게 되었고 이 状態가 継続될 경우 韓半島의 運命은 戰争아니면 分斷固定化라는 所望스럽지 못한 予見에 直面하게 될 것이다.

한편 유엔은 70年度에 접어들면서부터 그 政治機能을 鈍化시키고 環境改

赤十字 会談을 열어 国土分断에 起因하는 人道的 次元의 苦痛을 自主的으로 解決할 것을 北韓에 提議했다.

提議 이들후 北韓이 이를 受諾함으로써 南北関係는 지난 27年間의 対話없는 対決関係를 止揚하고 対話를 通한 相互理解追求関係로 転換되었다.

이로써 南北間에는 対話가 열리고 이를 通하여 国土分断에 起因하는 民族的苦痛과 不便을 除去, 軽減시킬 수 있는 現実的 平和統一接近戦略이 成立할 可能性이 열렸다.

政府는 이같이 南北関係를 対決関係에서 対話関係로 転換시키고 이와 併行하여 이 対話를 통해 南北間의 諸般 懸案問題, 特히 分断에 起因하는 民族的 苦痛과 不便으로 解決하는 努力을 한 次元 더 높이는 措置를 講究하였다. 即 人道的 次元의 苦痛解決을 위해 南北赤十字会談을 進行시키는 一方 이 対話의 成果를 現在의 南北関係에서 生産的으로 秋収하고 나아가 多方面으로 交際를 넓히며 窮極的으로는 이 対話가 祖国의 自主的 平和的 統一이라는 目標에 到達할 수 있도록 対話의 水準을 南北 当局者間으로 높이는 決定을 断行하였다.

이 措置의 成果가 곧 1973年7月4日에 発表된 7·4南北共同声明이며 이로써 南北韓은 統一의 問題를 南北 当事者間의 雙務的 課業으로 定義하고 나아가 統一의 基本原則을 平和, 自主 및 団結도 追求하자는데 合意했다. 同時에 이 声明에 依拠하여 南北関係를 改善하고 相互信頼를 図謀하며 平和統一의 基盤을 造成키 위해 南北調節委員会를 発足시켰다.

이 措置에 의하여 南北対話는 本格化되었고 結局 統一의 課題도 스스로의 努力을 통하여 平和的으로 達成할 希望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2年 동안 推進된 南北対話는 南北韓이 그간 살아온 生活環境 및 存立与件의 差異, 理念과 体制의 差異, 南北関係에서 未清算되고 있는 冷戦의 遺産, 그리고 南韓을 共産化하려는 北韓体制의 硬直性등으로 인하여 順調롭게 推進되지 못하고 있다.

夢에 사로잡히지 않고도 統一의 問題를 平和的으로 議論할 与件을 賦与해 주는 것이다. 6·23宣言에 의하여 南北韓이 유엔에 同時에 加入한다면 이때부터 南北韓은 유엔 憲章精神으로서의 不可侵, 不干涉의 関係를 全世界에 約束하고 이 土台위에서 統一을 위한 努力을 現実化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宣言은 韓半島의 統一課業을 推進함에 있어서 現在 이루어진 南北分断의 矛盾을 陰蔽하지 않고 이를 対外的으로 実現함으로써 分断의 矛盾을 止揚할 契機를 얻자는 現実主義的 統一接近政策인 것이다.

우리는 이 基盤위에서 南北対話를 継続하고 이 対話를 通해 国土分断에 起因하는 民族的 苦痛과 不便을, 解決 可能한 것부터 하나씩 漸進的으로 解決할 것을 追求한다. 그리고 이 過程에서 南과 北은 相互不信, 不和의 過去를 씻어가고 相互間의 異質性을 縮少시키면서 民族的 同質性을 回復한다. 그리하여 分断에 起因하는 苦痛과 不便이 除去되고 民族的 同質性이 回復되면 우리는 이 基盤위에서 南北韓 土着人口比例에 따라 国民의 意思가 自由롭게 表示되는 総選挙를 実施하여 単一의 統一된 民主韓国이 建設될 것으로 展望한다.

現在 政府에서는 이같은 展望과 方針下에 平和統一을 推進하고 있는 바 이것이 現段階의 統一接近方案이다.

2. 現段階 統一政策形成要素抽出의 前提

政府는 南北対話를 通해 祖国의 統一을 平和的으로 推進하는 것을 当面課題로 設定하고 이 目的을 達成키 為한 代案으로 南北赤十字会談, 7·4共同声明, 南北調節委員会를 構成했다는 것은 앞에서 検討했다. 그러면 우리는 왜 政府에서 이러한 決定을 能動的으로 追求해왔는가 하는 그 背景을 政策決定의 要素 中心으로 検討할 必要가 있는 것이다.

오늘날 地球上에는 줄잡아 여섯개의 分断国家가 있다. 中共과 台湾, 越

内部政治過程에서 解決될 事項임을 分明히 했다。 이같은 立場은 越南의 境遇에서도 엿볼 수 있다。 헨리·키신저 (Henry Kissinger) 美国大統領 安保担当特別補佐官은 그가 発表한 有名한 論文「越南協商」(Vietnam Negotiations) 에서 美国은 南北越南이 그들 固有의 共同体 形成経験에 基礎해서 政治統合을 実現할 与件造成이 美国의 協商努力임을 밝혔다。

한편 国際型의 分断国의 경우에서는 国際的 要素와 自決的 要素의 調和가 強調되고 있다。 独逸의 例를 検討해 보면 独逸周辺의 四大強国, 即 美国, 蘇聯, 英国 및 프랑스는 中部 欧羅巴의 緊張緩和와 勢力均衡 維持의 必要上 両独의 統一보다는 分断의 現状凍結에 依한 두個의 独逸에 큰 関心을 보이고 있다。

적어도 이들 四大国은 独逸의 分断에 関하여 伯林条約을 通해 明示的인 合意를 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西独의 合併統一政策이나 東独의 国家聯合 (confederation) 에 依한 統独努力은 모두 4大国의 支持를 받지 못함으로써 冷戦的対峙状態를 反映한 캐치프레이스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結局 東西冷戦의 解氷潮流와 함께 統独에 対한 両側 立場은 周辺情勢의 従属変数가 됨으로써 西独은 東方政策 (Ostpolitik) 을, 東独은 分離独立을 主張하게 되었고 이로써 両独은 交流와 接触은 緊密히 하되 事実上 一民族二国家 (one nation, two states) 의 길을 걷게 되었다。 이것은 国際型의 分断国家에서는 分断克服의 課題가 内生的 要因보다 外生的 要因에 더 크게 依存해야 한다는 事実을 立証하는 것이다。

韓半島의 경우는 中部유럽에서의 独逸이 占하는 地政学的 位置의 差異때문에 独逸의 先例가 完全히 適用된다고 볼 수 없다。

独逸의 統一은 第一次 및 第二次 世界大戦의 経験에 비추어 볼 때 分明코 中部유럽의 勢力均衡을 破壊할 可能性이 濃厚하다。 또 東西両大陣営이 追求하는 欧洲戦略에 있어서도 独逸의 統一이 親西方的이건 親共的이건 간에 両大陣営의 戦略概念을 変更시킬 수 있다。 또 中立的으로 統一이

協力約束이지만 実質的으로는 美国의 世界戦略의 重要한 一部가 되고 있는 極東 및 아시아政策遂行에 必要한 軍事的 및 政治的 拠点確保라는 面도 있는 것이다.

이 点은 北韓과 中共, 그리고 北韓과 蘇聯과의 関係도 마찬가지이다. 이같은 要因은 基本的으로 韓半島問題 解決에 있어서 自決性 (self determination) 의 範囲를 制限하는 要因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韓半島의 問題로서 軍事 및 政治外交問題는 南北韓의 独自行為나 決断 또는 政策選択으로만 解決될 수 없고 이 問題에 利解関係를 갖는 強大国들의 協力을 必要로 하는 것이다. 즉 韓半島 内部에서의 軍事事態変化에 対한 強大国들의 利害調整 및 合意를 必要로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国際型 分断国으로서의 韓半島問題의 特殊性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韓半島 内部問題中 非軍事, 非政治分野의 問題는 周辺強大国의 利害를 考慮함이 없이 解決可能한 問題로 浮刻될 수 있다. 即 南과 北이 各己 独自的 決断, 選択 및 合意에 依하여 解決可能한 問題의 領域이 存在한다는 것이다. 이 領域에는 人道問題, 経済問題, 社会 및 文化問題가 包含될 수 있을 것이다. 이 分野의 問題는 便宜上 自決性의 問題로 定義할 수 있다.

따라서 国際型 分断国인 韓国과 西独은 以上에서 본 바와같이 分断克服의 課題를 解決함에 있어서 外的要素로서 国際性의 問題와 内的要素로서 自決性의 問題를 同時에 考慮하지 않을 수 없는 状況에 놓여 있다.

이 두 要素中 国際性의 問題는 独自性을 갖는 独立変数 乃至 非統制変数的 機能을 遂行하고 있음에 比하여 自決性의 問題는 国際変数에 従属되는 機能을 보이고 있다.

韓半島의 分断이 他意로 이루어졌다는 事実에 미루어 外勢의 干渉이 전혀 排除된 自主統一을 構想하기 힘들다는 것은 基本的으로 常識에 属하는 問題이다. 그러나 이러한 問題를 認識과 分析의 準拠表 (frame of reference) 로 하지 않고는 南北対話를 通한 統一接近戦略의 背景을 正

作을 취할 수 있을 경우 「両플레이어들이 모두 亡身당하지 않기 위해 同時에 바른 길에서 벗어나 協同이 일어나는 경우」와 비슷하다.

또 「囚人의 딜렘마」에 있어서 「罪囚둘다 沈黙을 지켜 補償金品이 없이 自由를 獲得하는 結果」誘導가 可能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対話는 비록 戦略目標는 相異하더라도 相互間의 対話需要 때문에 決裂되지 않고 持続되며 이로 因하여 両側의 緊張은 対話以前보다 緩和된다.

特히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変節보다 協同하는 選択이 強하게 作用하기 때문에 効果는 더 高潮되고 個人間의 関係에서는 対話를 通한 約束動作에 의한 協同効果는 73%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이같은 分析이 国家間의 関係에 있어서도 그대로 適用된다고 保障은 없다.

그러나 国家間 関係라고 하더라도 緊張緩和가 選好되는 雰囲気속에서는 한번 열린 対話는 決裂되기 보다는 継続維持될 可能性이 있다.

왜냐하면 対話의 決裂은 問題解決手段으로서의 対話의 機能停止를 意味하기 때문에 武力対決 一歩前의 関係가 造成될 수 있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한번 열린 対話가 決裂되면 当事者 関係에서는 対話가 있기 前 보다도 한층 더 深刻한 緊張을 誘発할 것이며 이 境遇 어는 側도 対話開始以前에 持続되던 緊張維持 負担보다 더 加重된 負担을 担当할 能力을 確保하기가 至難하게 된다.

両行為者 関係에 있어서 両者間에 均衡이 破壊되지 않고 対決状態가 持続될 수 있었던 것은 両側에서 総力을 기울여 動員한 緊張維持能力이 保合勢를 維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対話가 開始되고 相互間에 協同이 助成되면 緊張維持負担은 그만큼 줄어드나 다시금 変節이나 背信등으로 인해 対話가 決裂되면 緊張이 対話以前보다 増加되는 것은 不可避한 現象이 아닐 수 없다.

새롭게 増加된 緊張에 適応키 위해 両側은 새로운 負担을 支払해야 하는바 両側은 어느 側도 外部의 支援없이는 먼저 必要한 費用을 調達할

즉 적은 協力이 成果를 걷우면 좀더 큰 協力을 가져오는데 이것은 마치 눈사람처럼 커진다는 것이다.

이같은 効果가 国際関係에서 定説로서 妥当性을 갖기는 国際聯合専門機構 및 経済社会理事会 所管의 非政府機構에서 行해진 美·蘇協力 以後부터이다.

東西로 나누인 国家間에도 機能分野의 協力이 可能하고 이를 통하여 緊張이 緩和된다면 이 論理는 南北間에도 適用될 것이다.

따라서 機能主義는 赤十字会談을 起点으로 始作된 南北対話를 利用, 機能分野間의 段階的 漸進的 協力을 指向하는 政府選択의 正当性을 立証해 준다.

그러나 現段階의 南北関係처럼 体制守護를 위한 戦略이 相衝하는 状況에서는 雪人効果의 可能性에 対한 実質的 展望을 가진다는 것은 결코 容易하지 않다.

또 現在의 南北関係에는 合意될 수 있는 分野와 合意될 수 없는 分野가 明白히 分割되어 있기 때문에 機能主義만으로 南北対話를 통한 統一의 展望을 밝게내다 보는데는 限界가 있는 것이다.

이 限界性 認識에서 統一에 関聯되는 理論的 根拠는 다른 次元에서 摸索해야 한다.

다. 対話의 目標判断

第二次 世界大戦이 終結된 以来 現在 地球上에는 体制와 理念의 差異로 말미암아 国土가 両断된 4個의 国家가 있다함은 前述한 바와 같다.

그런데 이 4個国中 어느 国家도 伝統的 概念으로서의 統一이나 現代的 状況論理를 反映하는 再結合(reassociation)에 成功한 国家는 없다.

現在까지 紹介되어 있는 社会学的 統合理論(integration theory)들은 例外없이 同質社会内部에서 作用하는 機能의 統合, 均衡維持에 関心이 集注되었을 뿐 理念을 달리하는 異質体制의 統合에 관한 研究는 殆無한 実情이다.

이러한 観点에서 南北間에 열린 対話가 機能分野에서 協力을 促進시킬

聯의 스베들로브스크(Svedlovsk)를 指摘한다。

이 두 都市는 各各 理念과 体制가 根本的으로 다른 国家와 政府의 支配下에 있지만 다같이 自動車工業을 発展시키는 過程에서 体制維持의 理念差異와는 関係없이 高度로 類似한(Similor)管理体制를 示顕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類似性은 처음에는 産業構造와 管理와 같은 下部構造에서 나타나지만 이것이 普遍化될 경우 政治体制에서도 収斂化的 変化가 期待된다고 展望한다。

이 理論을 南北韓 関係에 代入시켜 보면 現在의 南北韓은 다같이 開発途上国(産業化의 程度에서 南韓이 多少 優勢이지만)으로서 対話를 통한 協力의 範囲가 極히 制限되어있지만 앞으로 南北共히 工業化와 都市化의 程度가 더 深化되고 또 이 構造에 附合하는 엘리트群과 리더쉽이 形成될 境遇에는 現在 南北間에 協力에 대한 合意가 不可能한 分野일지라도 얼마후에는 合意 可能한 分野로 転換될 수 있다는 希望을 賦与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南北韓이 앞으로 工業化를 中心으로한 産業社会로 発展하여 이데올로기보다는 能率性을 重視하는 態度가 形成된다면 窮極的으로 統治体制에 対한 合意形成도 可能해질 것이다。

이 点에서 이 理論은 南北対話의 最終結果를 明確히 予見할 수 없는 現時点에서 南北間의 対話를 통한 緊張緩和와 分野別 協力이 窮極的으로 平和統一에 連結될 수 있다는 可能性을 보여주는 것이다。

同時에 機能主義的 接近에서 制約되는 要素로서 波及効果(Spillover effect)에 대한 懐疑도 克服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理論은 政策의 実践原理로 採択하는 데는 限界가 있다。
첫째 経験의 世界에서 予測可能한 推論이기는 하지만 事実로서 証明된 것은 아니다。

둘째로는 모든 国家의 発展経路와 目標를 単一化시키고 있다는 点이다。現代世界에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 文化相対主義(Cultural Relatisism)

望과 期待를 송두리째 앗아가는 듯한 느낌마저 짙게하여 우리의 祖国統一을 指向하는 念願은 더 한층 切実하게 되었다.

韓半島를 둘러싸고 있는 強大国들은 그들의 国家利益을 図謀한다는 見地에서 그들 相互間의 緊張緩和와 平和共存을 追求하면서 이같은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現実的 方便으로 韓半島의 統一보다는 韓半島分断의 現状固定化를 誘導하고 있다고 判断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같은 周辺情勢속에서 統一을 念願하는 民族的 希望이 挫折되지는 않을까 하는 憂慮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祖国統一을 沮害하는 要因은 現状 固定化를 追求하는 国際情勢의 変化移勢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祖国統一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原因은 南北 分断 以来 줄곧 暴力手段에 의해 韓半島의 赤化統一을 노려 오고 있는 北韓 共産主義者들의 統一基本戦略에 있는 것이다.

北韓 共産主義者들의 그러한 野慾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解放후 몇 차례나 祖国統一의 好機를 놓쳤을 뿐아니라, 그들의 武力挑発과 6·25南侵에 의해 民族分断은 더욱 굳어지기만 하였던 것이다.

北韓의 이같은 赤化統一 基本戦略은 첫째로 国際的 平和指向의 努力에 背馳됨으로써 統一을 위한 国際的 与件造成을 沮害하였던 것이며, 둘째로 南北間의 緊張을 固定시키고 不和를 深化시킴으로써 平和統一의 可能性을 源泉的으로 封鎖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平和統一을 追求하는 우리의 前進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障壁이다.

우리가 이 障壁을 突破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스스로 開拓해 나가지 않는 한 5千万 民族이 함께 繁栄과 栄光을 누릴 수 있는 統一의 機会는 영영 사라지고 말 것이다.

開発과 建設과 創造의 戰爭에 나설 것을 促求하면서, 『万一 北韓이 武力에 의한 赤化統一 企図를 抛棄하고 이를 確信할 수 있도록 行動으로 実証한다면, 統一基盤造成에 寄与할 수 있으며, 南北間에 가로 놓인 人為的 障壁을 段階的으로 除去할 劃期的 方案을 提示할 用意가 있다』고 밝혔다. 同時에 이 宣言은 『北韓이 国際聯合의 権威와 権能을 認定한다면 유엔에서의 対座도 反対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유엔 同時加入의 門戸開放을 闡明한 6·23宣言의 基本方向을 이미 3年前에 밝혔던 것이다.

朴正熙大統領의 이같은 決断은 統一을 위한 現実的이며 実質的인 自主的 努力方向의 提示인 同時에 武力에 의한 南韓 赤化를 唯一한 統一方案으로 삼고 있는 北韓을 緊張緩和의 国際潮流에 参与하도록 誘導함으로써 統一을 平和的으로 成就할 수 있는 確固不動한 基盤을 造成하는 積極的인 措置였던 것이다.

이 宣言을 起点으로 해서 南北韓 関係는 対話없는 冷戰的 対決에서 脫皮하여 平和的 統一을 現実的으로 摸索하는 契機가 마련된 것이다.

이 宣言이 있은지 1年後에 우리는 国土分断에 基因하는 民族的 苦痛을 段階的으로 解消하기 위해 가장 切実하고 基本的인 問題인 南北韓에 흩어져 生死조차 알길이 없는 1千万 離散家族의 苦痛을 덜어주기 위한 南北赤十字会談을 提議하였고, 北韓이 이를 受諾함으로써 南北関係는 4半世紀에 걸친 「対話없는 対決」의 関係에서 「対話있는 相互 理解促求의 関係」로 접어들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南北赤十字会談은 平和統一을 위한 南北関係의 改善을 促求한 1970年의 8·15宣言이 가져다 준 첫번째 열매요 成果인 것이다.

그러나 南北赤十字間의 対話는 어디까지나 民間団体間의 対話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国土分断에 基因하는 民族的 苦痛과 不幸을 모두 除去할 수는 없는 일이며, 또한 이같은 民間水準의 対話가 政治的으로 얽혀 있는 南北関係를 改善하는데 도움은 될지언정 平和統一을 위한 合理的인 問題를 解決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에 関한 限 外勢를 介入시키지 말아야 하고, ② 南北韓間에는 相互 不可侵의 原則을 固守하며, ③ 相互間에 内政을 干渉하지 않는다는 原則을 堅持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이 原則은 南北関係 改善을 위한 南北対話에서도 그대로 適用되어야 할 基本原則인 것이다。

以上과 같이 우리의 主導에 의한 南北対話의 始作은 東西冷戦의 틈바구니 속에서 国土를 両断 당한 어느 分断国家에서도 그 類例를 찾을 수 없는 積極的이면서도 가장 現実的인 統一努力으로서, 우리의 民族은 결코 分断될 수 없다는 韓民族의 統一에 대한 念願을 가장 明白히 闡明한 것이다。

(2) 祖国統一 推進過程에서의 問題点

그러나 이와같은 祖国統一努力을 推進하는 過程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難関이 가로 놓여 있다。

于先 指摘하여야 할 가장 큰 難関은 北韓 共産主義者들이 南北対話에서 簡単없이 非現実的이며 実現 可能性이 없는 不当한 難題들을 提起하고 있다는 事実이다。

南北対話를 成功的으로 進行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南北韓이 서로 相互間의 体制를 尊重하면서 南北関係를 合理的으로 그리고 現実的으로 改善할 수 있는 建設的인 意見을 交換하여야 한다。

그러나 北韓 共産主義者들은 大韓民国의 体制 安定을 根本的으로 危殆롭게 하는 不当한 提案을 南北対話의 先決 条件으로 내 세우면서 이 問題가 解決되지 않는 한 南北対話는 더 以上 進陟시킬 수 없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즉 南北赤十字会談에서는 所謂 『法律的, 社会的, 障碍를 除去하고 環境을 改善하라』는 主張을 내세워 大韓民国에서 北韓 共産主義者들이 合法的으로 政治活動을 할 수 있도록 保障해야만 離散家族의 生死나 住所를 確認하는 問題의 討論에 応하겠다는 態度를 取함으로써 赤十字会談을 膠着状態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北韓의 이러한 主張이 7・4共同声明에서 合意한 統一原則에 正面으로

이데올로기의 眼鏡을 통해서 認識하고 評価하고 있기 때문에 普遍的인 良識으로 現実性 있게 問題를 다루어 나가는 習慣을 기르지 못하고 있다.

또 北韓 当局者들은 그동안 体制維持의 基調를 閉鎖性에 두어 왔기 때문에 南北対話의 進陟에 따라 必然的으로 実施되어야할 南北交流를 통한 体制와 社会의 開放을 두려워 하고 있는 것이 分明하다.

따라서 北韓 当局은 周辺情勢의 重圧에 못이겨 南北対話를 拒否하지 못하고 南北対話의 広場에 나오기는 하였지만 北韓社会의 開放이 그들에게 不利하다고 判断되는 동안은 南北対話의 実質的인 進展을 妨害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現在의 南北関係에서는 도저히 解決될 수 없는 非現実的이며 不当한 問題들을 提議함으로써 南北対話를 膠着状態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볼 때 万若 우리가 北韓側의 主張을 그대로 받아 들인다면, 그것은 그들의 赤化統一의 길을 우리가 스스로 열어주는 結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의 그러한 計略的인 主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実質的인 統一努力을 推進하기, 위해서는 北韓이 7·4 共同声明에서 合意한 統一原則에 忠実할 때까지 忍耐性있게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南北対話 過程에서 北韓이 취한 態度로 보아 앞으로 統一을 成就할 때까지 北韓의 이와같은 非協調的이며 政略的인 沮害作用은 수없이 많을 것이 予想되는데, 이것이야말로 祖国統一推進過程에서 가장 큰 障碍가 될 것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그들이 合理的이며 建設的인 올바른 姿勢를 取할 수 있도록 促求하는 根本的이며 初歩的인 努力부터 傾注해야 한다. 統一로 로 가는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하다는 事実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 平和統一政策의 表明인 것이다.

또한 6·23宣言은 韓半島内에서만 推進해 왔던 南北対話를 国際環境과 調和시켜 나감으로써 平和統一을 위한 現実的인 努力을 그만큼 倍加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또 한편으로는 그 동안 冷戦体制의 테두리 안에서 追求해 오던 우리의 統一 接近努力을 冷戦体制를 벗어나고 있는 国際潮流에 발맞추어 現実化하는 것으로서 冷戦体制의 테두리를 벗어나 보다 現実的인 状況과 与件을 바탕으로 더 한층 実効있는 統一努力을 傾注하려는 우리의 積極的이며 実践的인 統一 接近策인 것이다.

즉 6·23宣言은 祖国分断의 悲劇을 그 原因이 된 冷戦体制의 테두리 안에서 解消하려는 従来의 消極性에서 完全히 脱皮함으로써 于先 祖国分断의 原因을 根本的으로 解消시키는 積極的 分断解消作業에 着手하는 同時에 그를 前提로 한 現実的 統一努力을 傾注하는 合理的인 統一方案의 摸索인 것이다.

이제까지 北韓은 우리와 더불어 다른 相対陣営에서 冷戦体制의 테두리 안에 파묻혀 있는 동안 우리와는 달리 孤立과 閉鎖와 唯一体制로 冷戦의 生理속에 硬化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脱冷戦의 気流에 適応하기 까지에는 相当한 時間이 걸릴 것이라고 予想된다.

그러나 아무리 긴 時間이 걸리더라도 우리는 忍耐性있게 그를 기다리는 한편 그들이 하루 빨리 冷戦生理에서 벗어도록 積極 誘導하고 促求함으로써 現実的인 바탕위에서 平和的인 祖国統一 努力을 傾注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이다.

다. 우리의 祖国統一 基本方向

우리는 建国 以来 祖国統一을 위한 窮極的인 基本方向을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南北韓 自由総選挙를 통해 統一民主国家를 樹立한다』는데 두어 왔다. 이 方向은 지금도 변함없는 統一政府樹立을 위한 우리의 基本立場이다.

위해서는 現在의 南北関係에서 解決하기 容易한 問題부터 始作하여 漸次 어려운 問題의 解決을 指向해 나가는 段階的이며 漸進的인 努力을 傾注하여야 한다.

다섯째 祖国統一을 위한 国際的 環境을 造成하기 위하여 우리는 理念과 体制를 달리하는 国家와도 互恵平等의 原則下에 相互 門戸를 開放하도록 努力한다.

以上과 같은 우리의 平和統一 基本方向은 1970年8·15宣言으로부터 1973年의 6·23宣言에 이르기까지 一貫되어 온 우리의 不変의 意志이며 祖国의 平和統一을 早速히 成就하기 위한 現実的이며 実質的인 統一基盤 造成策인 것이다. 이 基本方向에 의해 南北間의 民族的 同質性이 回復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南北韓 自由 総選挙를 통하여 栄光된 統一民主国家를 建設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北韓이 以上과 같은 우리의 合理的이며 現実的인 統一基本方向에 하루속히 同意하기를 促求하며, 北韓側이 우리에게 呼応하도록 多方面的인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이 길만이 5千万 民族의 平和統一 所望을 達成할 수 있는 가장 現実的이며 実現性 있는 平和統一에의 大道이기 때문이다.

第2章 統韓問題와 유엔

1. 初期段階(建国부터 動乱까지)

1945年12月 모스코바三相会議의 所産인 信託統治案이 挙国的 反対運動에 逢着하고 美·蘇共同委員会가 韓国独立問題에 어떤 解決策도 発見하지 못하고 失敗를 거듭하게 되자, 美国은 이 問題를 47年9月에 正式으로 유엔에 移管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유엔간의 関係가 처음으로 맺어지게 되었다. 同年11月14日 유엔総会는 유엔韓国臨時委員団을 設置하는 決議案을

하기 위하여 유엔主宰下의 選挙実施를 包含한 모든 立憲節次를 취하고 韓国의 救護와 復興에 관한 機能을 行使할 유엔韓国統一復興委員団 (UNCURK)을 設置하여 既存의 유엔韓国委員団과 代置하였다。 이 10月7日字 総会決議는 유엔軍에 의한 38線 突破権限을 明示的으로 賦与하고 있지는 않으나 文脈으로 보아 그러한 意図를 包含하는 것이었고, 実際 그 다음날인 10월8일에 유엔軍이 38線 以北으로 進撃하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한때 유엔과 韓国政府는 北進統一의 課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共同으로 努力한 바 있으나 中共軍의 介入以後 戦争의 局地化를 要求하는 유엔圧力下에 유엔軍 当局도 共産軍과의 休戦協商에 들어갔다。

2。第2段階 (제네바会談以後 第1共和国 末期까지)

韓国戦争후 美•蘇両国은 韓半島에서 現状維持政策을 취하게 되었으며 유엔総会에서도 60年代 第15次総会에 이르기까지 우리 政府의 対유엔政策에 큰 威脅을 주는 일이 없이 韓国問題討議가 進行되어 従来의 유엔統韓決議가 反復 再確認되어 왔다。

유엔総会는 53年8月 韓国休戦協定 締結을 承認하고 同協定 제4조60항에 依拠하여 韓国問題 政治会談을 開催하는 것을 歓迎하는 決議를 採択하였다。 이리하여 54年4月부터 6月까지 제네바会談이 開催되었는데 그 議提는 韓国의 統一方式과 外軍撤収問題에 集中되었다。 유엔参戦国代表들은 유엔이 全韓国選挙를 監視할 資格이 있다고 主張하였는데 反해 大韓民国은 合法的으로 樹立된 大韓民国을 除外한 北韓地域에서만의 選挙로 充分하다고 主張하였으나 그 후 유엔参戦国側의 方針에 同意하였다。 한편 共産側은 유엔의 選挙監視에 反対하고 同数의 南北韓代表로써 構成되는 全韓国委員会를 設置하여 同委員会의 監視下에 選挙를 実施할 것을 主張하였다。 그 후 共産側은 中立国으로 構成되는 全韓国選挙監視委員会를 設置하고 제네바会談후 6個月 以内에 人口比例에 따라 秘密 普通選挙를 実施한다는 修正案을 내 놓았으나 雙方間에 아무런 合意도 보지 못하였다。

先行을 되풀이 主張하였다。

그러던 중에 開催된 第13次 総会는 11月14日 決議를 통해 従前부터 堅持해온 유엔의 統韓方案에 하등의 変動이 없음을 再闡明하고 共産側이 유엔総会가 認定한 諸原則에 따라 全韓国에서 自由選挙를 実施하는데 同意할 것을 促求하였다。 그 후 共産側은 유엔軍撤収 要求를 되풀이하고 韓国問題에 관해 유엔이 採択한 如何한 決議도 無効라고 主張했다。

3。第3段階(15次総会以後 現在까지)

59年까지는 유엔에서의 韓国問題討議에 대한 自由陣営의 議事戦略이 順調로이 進行되어 왔으나 60年 第15次 総会부터 아프리카地域에서 新生独立諸国이 대거 유엔에 加入함에 따라 東西対立에 있어 西方側優位의 勢力構造에 一帯 転換을 가져오게 되었다。 즉 60年에 아프리카大陸에서 17個国이 独立을 宣言하였고 그중 16個国이 유엔에 加入하였으며 이어서 68年까지 유엔에 加入한 아프리카新生独立国의 数는 모두 41個国으로서 68年 現在 総会員国 124個国중 3分의 1席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엔内 勢力分布状況의 変動에 따라 유엔総会에서의 表決類型도 変化되어 왔고 이는 또한 유엔에서의 韓国問題討議에 새로운 試練을 주게 되었다。 즉 유엔의 関心은 亜阿中立諸国의 共同関心事인 植民地解放, 後進国経済開発, 軍縮, 核禁止등에 集中되는 나머지 韓国問題에 관한 会員国의 関心이 점차 稀薄해가는 傾向이 나타나기 始作하였으며, 특히 韓国問題에 대한 利害가 薄弱한 이들 中立諸国은 韓国問題를 冷戦問題視하여 이에 圧症을 느끼는 傾向마저 있었다。 北韓은 이같은 亜阿新生中立諸国의 動向을 逆利用하여 이들 国家에 대한 浸透와 欺瞞的 宣伝工作에 拍車를 加하였다。

이 段階에 있어 유엔의 韓国問題討議状況을 보면, 第15次 総会때부터 討議事項으로서 南北韓同時 招請案이라는 節次事項이 採択되기에 이른 것이 注目된다。 61年4月 第15次 総会에서 美国의 스티븐슨代表는 大韓民国単独招請案을 提出하였는데, 蘇聯代表가 南北韓同時招請案을 提出하자 美国은

統韓決議案 得標 比率変動状況 (8 次 総会以後)

総会会期	年度	会員国数	賛	反	棄	欠	賛 (%)	反 (%)	可決 (%)
8	1953	60	55	0	5	0	92	-	8
9	1954	60	50	5	4	1	83.3	8.4	8.3
10	1955	60	44	0	11	5	73.3	-	26.7
11	1956	80	57	8	9	6	71.2	10.3	18.5
12	1957	82	54	9	16	3	65.8	11.1	23.1
13	1958	81	54	9	17	1	66.6	11.2	22.2
14	1959	82	54	9	17	2	65.8	11.1	23.1
15	1960	101	-	-	-	-	-	-	-
16	1961	104	60	11	27	6	57.6	10.7	31.2
17	1962	110	63	11	26	10	57.3	10.1	32.7
18	1963	111	65	11	24	11	58.5	10	31.5
19	1964	-	-	-	-	-	-	-	-
20	1965	117	61	13	34	39	52.1	11.2	36.7
21	1966	122	67	19	32	34	54.9	18.8	29.5
22	1967	122	68	23	26	5	55.7	15.6	25.4
23	1968	126	71	25	20	10	56.3	19.8	23.5
24	1969	126	72	26	21	7	57	20	22.7
25	1970	127	-	-	-	-	-	-	-

하기 위하여 67年까지의 自動上程方式을 68年부터 裁量上程方式으로 変更하고 『共産側이 韓国問題를 提起하지 않으면 우리도 提起하지 않는다』는 原則을 樹立하였다. 그러나 69年의 第24次総会 以後 共産側이 毎年 韓国問題를 提起해 왔으므로 이에 対応하는 意味에서 自動上程方式을 취했을 때와 다름없이 70年까지 毎総会会期때마다 韓国問題가 討議되어 왔다.

이 期間에 특히 統韓決議案이 점차 支持票를 잃어가고 있는 反面, 共産側支持票가 多少 増加되어 왔고 中共의 유엔加入이 確実視됨에 따라 南北韓同時招請問題가 流動的인 趨勢에 놓이게 되었으며 또한 分断国同時加入論이 本格的으로 抬頭되어 우리는 国際情勢 및 유엔内 勢力構造의 変動 可能性에 새로이 対処해야 할 状況에 놓이게 되었다.

71年第26次 유엔総会는 韓国의 対유엔外交에 試練을 안겨주었다. 즉 美·日의 反対에도 不拘하고 結局 中共이 유엔에 常任理事国으로서 加入함으로써, 中共勢力이 몰고 올 유엔内 勢力版図의 流動性이 韓国의 外交戦略에 影響을 미치게 하였다. 다시 말하면 유엔에 의해 侵略者로 烙印찍혔던 中共이 이젠 유엔에서 韓国問題를 挙論하려던 것이나 유엔의 権威와 機能을 全的으로 否認해 오던 北韓이 그러한 中共의 움직임에 全的으로 同調함으로써 유엔에서 韓国問題는 流動的인 趨勢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現象은 유엔에서의 美国의 主導権 弱化, 国際緊張緩和, 脱이데올로기的 自国利益追求등과 같은 国際情勢変化 要因과 아울러 지금까지 韓国政府가 原則으로 固守해오던 「유엔에 의한 韓国問題의 解決」이란 対유엔戦略을 다른 角度에서 接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状況下에서 韓国은 進行중인 南北赤十字会談을 통한 緊張緩和에 유엔에서의 韓国問題討議가 影響을 미친다는 論理에서, 韓国問題討議를 차후 1年間 延期한다는 소위 不上程案을 提起하게 되었다. 이는 裁量上程方式의 具体化된 한 方式인 동시에 積極的인 새로운 유엔対策이라 하겠는데, 韓国問題討議에 의해 緊張緩和라는 国際情勢의 一般的 趨勢와 南北韓의 同時加入 내지 同時招請問題로 飛躍하는 것을 封鎖하기 위한 것이었다.

遍性의 原則 및 南北対話와 関聯하여 우리 自身의 意思와는 関係없이 「2個의 韓国」을 現実化하려는 움직임이 活潑하였다. 即 스웨덴, 덴마크 等 北欧諸国과 이란等이 잇달아 北韓을 承認하는가 하면, 北韓이 3月에 IPU (国際議会聯盟)에 加入되고 5月에는 WHO (国際保健機構)에 加入됨으로써 그 外交的 意味는 어찌됐든 이제까지 唯一合法性이 確認되어온 韓国의 国際的 地位에 重大한 挑戰을 안겨주었다.

이러한 客観的 現実에 能動的으로 対処하고 平和를 이 땅에 定着시켜 우리의 自主力量으로 統一을 이룩하기 위하여 朴大統領은 6月23日 7個項의 「平和統一 外交政策 宣言」을 発表하였던 것이다.

이 声明에서 朴大統領은 『유엔의 多数会員国의 뜻이라면 統一에 障碍가 되지 않는다는 前提下에 우리는 北韓과 함께 유엔에 加入하는 것을 反対하지 않는다』고 闡明하고, 『우리는 유엔加入前이라도 大韓民国代表가 参席하는 유엔総会에서의 韓国問題討議에 北韓側이 같이 招請되는 것을 反対하지 않는다』고 宣言하였다. 그러나 北韓을 法的으로 国家로 認定하는 것은 決코 아니라는 点을 明白히 하였다.

第28次 유엔総会를 맞이하여 美国, 英国, 日本等 友邦 20個国은 最終戰略会議에서 언커크 解体, 南北韓同時加入勧奨, 유엔軍의 継続駐屯 및 南北対話歓迎等 4個項目 決議案을 確定한데 反하여, 北韓側에서는 韓国問題討議에는 参席한다고 하여 옵서버団을 派遣하였음에도 不拘하고 統一以前에 있어서는 単一国号를 가지고 유엔에 加入해야 한다고 主張함으로써 如前히 유엔問題를 対南戰略을 遂行하기 위한 方便 또는 国際政治宣伝의 方便으로 利用하므로써 国際情勢의 大勢를 外面하고 分断의 責任을 大韓民国政府에 転嫁시키고자 劃策하고 있다.

国力의 背景下에서 所謂 「東方政策」을 能動的으로 推進하고 있으며 東独 또한 울브리히트와 호네카의 平和的 政権交替(1971年5月), 人口1,700万中 200万의 党員을 確保한 唯一의 近代政党인 「社会主義統一党-共産党」의 長期執権에 의한 政治的 安定과 1960年~1969年間 西独에 肉薄하는 経済成長率의 達成(西独의4.8%, 東独은 4.5%) 東欧圏最高의 生活水準의 維持等 経済的 安定으로 그나름대로 対西独接近의 餘裕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東·西独接近이 急進展될 수 있었던 보다 基本的 要因은 유럽의 国際政治的 与件에 있다.

(1) 西独과 西方聯合国間의 「独逸条約」(1952.5.26)과 東独·蘇聯間 主権条約(1955.9.20)等 모든 聯合国協定에 의하여 美·英·仏·蘇等 4大戦勝国은 東西独에게 平和的 統一接近을 要求할 権利를 留保하고 있다. 「東西独 基本条約」締結直前인 1972年11月5日 美·英·仏·蘇는 独逸에 対한 権利와 責任을 継続 保有한다고 宣言하였다.

(2) 나토와 바르샤바 機構의 軍事的 勢力均衡에 의한 「戦略武器制限会談」의 進展, 「유럽安全保障会議」와 「相互均衡減軍会議」의 開催 및 「独蘇不可侵条約」의 締結(1970年8月12日)은 유럽緊張緩和의 制度化를 促進시키고 있다.

(3) 圏内 経済統合을 急進展시키고 東·西陣営間 経済障壁의 突破口를 発見하려는 유럽経済現況은 東·西欧緊張解消와 経済的 接近의 加速化를 招来하였다. 「유럽共同市場」(EEC)은 1962年 工産品大量輸入制限措置撤廃以来 漸次 関税同盟의 実現段階에 있으며 1978年頃에는 農業資金共同調達이 実現되고 1969年 「헤이그」6個会員国 首脳会議는 経済 및 通貨聯盟의 段階的 創設에 合意하였다. 특히 「유럽共同市場」은 이미 「自由通商地域」과의 統合을 実現하였다. 한편 東欧経済体制인 「相互経済援助評議会」(COMECON)는 会員国相互間의 雙務協定締結에 의한 経済協力의 実現과 会員国相互間의 経済発展段階의 隔差에 따른 市場統合과 関

1972年 5月 12日 東·西独 通行에 関한 最初의 国家協定이 成立되기 以前에도 西独人은 年1回 4週間 東独의 近親訪問이 許容되어 60年代 中盤期부터 毎年 約 100餘万規模의 西独人이 毎年 東独을 来往하였다. 그러나 東独人의 西独訪問者数는 1957年以来 旅行制限 強化로 65歳以上의 年金生活者에 局限되어 年間 約2萬名規模이었다.

이 人的交流 以外에도 東·西独間에 経済交流가 持続되어 왔다.

일찌기 1945年8月 포츠담協定은 独逸을 単一経済圈으로 規定하였으며 1949年 別個의 東·西独政府가 樹立된 以後에도 西伯林의 「東西交易信託所」와 東独의 「対外経済省」에 物資交易이 持続되어 1951年「占領地域間의 交易協定」(伯林協定)締結로 発展하였으며 東·西独交易規模는 1970年 45億4,800萬 마르크 에 達하였다.

다만 西独은 東独의 主要通商対象国으로서 東·西独交易은 東独総交易量의 10%로 2位를 占하고 있으나(蘇聯이 40%로 1位), 西独의 立場에서 보면 2%를 占하여 11位에 이르고 있다. 여하튼 東·西独間의 人的 交流를 비롯한 모든 社会文化的 交流와 経済交流는 東·西独間의 段階的接近을 実現시킨 結果가 되어 1970年의 政治的 接近을 順調롭게 하였다.

나. 東·西独의 統一政策

東独의 具体的 統一方案은 1956年 울브리히트의 提議로 発端을 보아 大体로 1960年頃까지 公式的으로 主張되었던 「国家聯合」案이며 戦略的으로는 国際法上 西独과의 地位同格化獲得企図이었다.

1950年 東独·폴란드 条約에서 오델~나이제境界線을 確定한 것이나 1968年 東独의 新憲法이 「東独을 独逸民族의 社会主義国家」로 規定한 것은 国際的, 国内的으로 東·西独의 地位同格化를 위한 戦略的 陰謀가 内包되어 있다. 즉 東独의 基本統一戦略은 「国家聯合」案이나 이를 貫徹하기 위한 前段階로서 東·西独의 地位同格化作業이 要望되었

逆説的 統一接近方法으로서 다만 東·西独分断의 永久的 固定化를 防止하기 위하여 東独을 「事実上」承認하면서도 「国際法的承認」을 絶対反対하고 東·西独関係를 「国際法上国家関係」가 아닌 「特殊関係」라고 規定하였다. 여하튼 「東方政策」의 統独論理는 東·西独分断現実을 認定하고 相互 交流拡大에 의한 統独接近의 「段階的実現」에 있는바 第1段階는 東·西独相互共存段階이며 第2段階는 東·西独交流増進에 따른 東·西独共同社会(콤뮤니티)形式段階로서 이 段階에서 社会文化的「統合」에 基礎한 「政権統合」으로서의 統一을 実現할 수 있다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国家聯合」案에 立脚하여 現実的으로 国際法的 東·西独同格化를 企図하는 東独의 統一接近과 東独의 事実上 承認에 基礎하여 「交流」拡大로 東独社会変質을 企図한 西独의 統一接近論理는 関係正常化를 위한 東·西独政治接近의 妥結点을 마련하여 1970年3月과 5月의 東独의 에어프르트와 西独의 캇셀에서 西独「브란트」首相과 東独「쥬토프」首相間의 両次頂上会談을 実現시켰으며 마침내 1972年11月8日 「東·西独基本条約」의 締結로 一段落되었다.

이 基本条約은 (1) 어느 一方이 他方을 国際的으로 代表할 수 없으며 主権不干渉등 同等権의 基礎위에서 善隣関係를 増進하며 (2) 東·西独間見解差를 平和的方法으로 解決하고 現存国境線을 侵害하지 않고 相互減軍과 軍備減縮을 為해 努力하며 (3) 経済, 科学, 技術, 交通등 諸分野의 努力을 強化한다는 内容이다.

이 基本条約은 첫째로 나토와 바르샤바条約機構로 부터의 脱退問題를 挙論하지 않음으로서 相互国家安保問題를 沮害하고 있지않으며, 둘째로 東·西独統一方案에 対하여 具体的으로 言及하고 있지않다는 基本的特徴을 갖고 있다. 그러나 西独은 基本条約이 東·西独의 現状을 事実上認定하고 諸般分野의 交流를 実現시킬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다는 点

이에 反仏闘争의 先頭에 나선 胡志明은 1930年 香港에서 베트남共産党(当時 印度支那共産党)을 結成하였고, 1940年9月 第2次世界大戦中 日本軍이 北部 仏領印度支那에 進駐하자 「胡」는 1941年5月19日 抗日抗仏独立을 標榜하여 베트남独立同盟(베트민)을 結成하여 中国国境地区를 根拠地로 하여 게릴라活動을 展開하였으며 大戦終戦直後 軍事的 空白状態下에서 베트민은 全土에서 蜂起하여 1945年9月2日 「베트남民主共和国」의 樹立을 宣言하였다. 그러나 第2次世界大戦의 苦境에서 벗어난 프랑스는 베트남에의 再進出을 断念하지 못하였다.

프랑스는 1946年3月6日 「하노이協定」을 통하여 베트남民主共和国을 仏聯合内의 한 自由国으로 承認하였으나 가장 肥沃한 고친차이나를 断念하지 못하고 1946年6月 「고친차이나共和国 臨時政府」를 樹立하므로서 越盟과 妥協을 이루지 못하여 마침내 1946年12月19日 프랑스軍은 越盟에 대하여 全面攻撃을 開始하므로서 7年8個月間의 印支戦争을 誘発시켰다. 戦局은 처음 프랑스側에 有利하게 展開되어 「베트민」은 하노이를 버리고 山岳地帯에서 게릴라戦을 겨우 維持하는 形便이었으나 1949年10月 中共政権의 樹立과 더불어 情勢는 急変하여 中共으로 부터 武器援助와 心理的支援을 받는 베트민은 1950年9月 中国国境地域作戦의 勝利를 契機로 防禦戦으로 부터 攻撃戦으로 転向하였고 이어 戦争主導権을 掌握한 베트민은 各地에서 프랑스軍을 撃破시켰다. 最後의 決戦을 企図한 나바르最高可令官下의 프랑스軍은 1954年5月7日 디엔비엔푸激戦에서 死傷·捕虜合計7万6,200名의 人命損失을 내고 決定的敗戦의 苦杯를 마셨다.

以上의 軍事情勢는 프랑스本国의 反戦機運의 増大와 더불어 1954年7月20日의 休戦協定成立, 21日의 最終宣言의 採択等 「제네바」協定締結로 発展하여 印支戦이 終結되었다.

越南戦解決의 基礎가 된 제네바協定은 同時 南北越南統一의 問題解

窮極的으로 越南의 赤化를 企図하고 있다는 点에서 共産主義的 統一戦略遂行의 標本이 되고 있다.

越南戦遂行上 共産側統一戦略의 核心은 (1) 軍事的으로 対敵할 수 없는 外国勢力(美国)을 外交, 協商, 政治, 心理戦等 主로 非軍事的 術策으로 逐出시키고, (2) 越南政権의 政治的 混乱을 造成하고 民族勢力을 包摂하여 共産主義同調勢力을 拡張하고, (3) 于先 第1段階로 越南政府와 베트공의 対内外的 同格化를 実現시켜 越南에 聯立政府를 樹立시키고 第2段階로 完全赤化를 이루어 窮極的으로 南北越南을 統一시킨다는 基本構想에서 出発하고 있다.

첫째로 軍事戦略面에서 美国은 1964年8月 통킹湾事態에 따른 上下両院의 大統領戦争遂行権限付与로 越南戦에 軍事介入을 断行한 以来 1968年頃에 53万名規模의 最高水準兵力을 維持하였으며, 1965年 開始된 北爆은 하노이의 中心街·하이퐁港·主要 埠頭, 「紅河」堤防等 몇몇聖域을 除外한 越盟全域에 拡大되어 이미 1967年8月 美上院軍備小委員会報告에 의하면 越盟発電能力의 85%, 石油貯蔵의 90%, 레이다網의 80%를 破壊시켰다. 따라서 越南人民의 $\frac{2}{3}$, 国土의 $\frac{4}{5}$를 所謂 解放시켰다고 宣伝하고 있는 共産側은 100餘万의 死傷者를 내고 事実上 軍事作戦持続能力을 喪失하고 美国民의 反戦与論의 利用등 主로 非軍事的인 政治·外交的術策에 의하여 駐越美軍의 撤収를 貫徹시켰다.

그러나 駐越美軍의 撤収는 美軍의 一方的인 後退가 아니고 「越南戦化計劃」의 前進등 美国의 새로운 越南戦 戦略에 不過하다는 点을 想起하여야 한다.

둘째로 政治戦略面에서 제네바協定締結後 고·딘·디엠越南大統領은 反共独裁体制를 確立하고 同族政治와 「카톨릭」優待政策으로 国民의 約 80%를 占하는 仏教徒들의 反政府運動을 剌戮시켰다.

1963年5月8日 고·딘·디엠政権은 후에市 釈迦記念日의 仏教徒集会에

한편 1968年 5月以来 4年餘에 걸친 파리 越南平和協商은 空転을 거듭하다가 最近에 이루어진 美国, 越盟間의 秘密交渉이 結実을 보아 마침내 1973年 1月 28日 파리越南平和協定이 調印되었다.

1954年 제네바協定이 共産側의 対南侵略의 時間的 餘裕를 提供하는데 不過하였다는 点에서 파리越南平和協定의 意味는 今後의 歷史가 判定할 것이나 于先 越南의 軍事的問題의 解決과 더불어 政治的 問題解決의 基盤을 構築하였다는 点에서 注目된다. (1) 同協定 第9条B項은 南베트남国民은 国際監視下에 総選挙를 実施하여 南베트남의 政治的 将来를 決定하며, (2) 第12条는 3個同等部分으로 「民族和解国民会議」를 構成하여 総選挙를 組織, 実施하도록 規定하였다.

여기서 「3個同等部分」이란 現越南政府勢力, 베트콩 및 中立勢力을 指称함은 勿論이다. 그리고 「民族和解国民会議」가 満場一致制를 採択하고 있음은 注目할만하다. (3)여하튼 이 協定은 끝으로 南北 베트남의 統一은 外国의 干渉없이 南北 베트남 間의 協議를 거쳐 平和的 方法에 의하여 段階的으로 遂行한다고 規定하였다. 이 파리 越南平和協定으로서 美国과 越南政府는 越南内의 政治問題解決方法으로 共産側이 主張하여왔던 「臨時聯立政府에 依한 総選挙実施代身에 「民族和解国民会議」에 의한 総選挙実施를 受諾함으로서 共産側의 主張을 包容하고 있다.

이러한 立場은 共産側의 主張을 受諾하는듯 하면서 事実은 베트콩을 越南政治秩序속에 吸収하려는 巨視的 戦略이다. 美国과 越南은 1954年 제네바協定에 따른 17度軍事境界線의 回復을 主張하면서 南侵한 共産軍의 撤収를 要求하여 왔으며 이번 파리越南平和協定에서 비록 越南의 軍事的 現状凍結을 受諾하였지만 胡志明루-트의 封鎖가 現実化될 경우 베트콩은 軍事的으로 無力化될 것이며 同時에 時間이 経過함에 따라 베트콩은 마침내 越南政治秩序에 吸収될 것이다.

이와같이 越南内의 政治的問題가 解決된 다음 越南은 南北越南의 統一

(1937～1938) 維持되었다. 第2次 国共合作의 成立原因은 1936年 12月12日 「紅軍」 掃蕩戦線部隊의 張学良과 楊虎城이 蔣介石을 抑留하고 紅軍掃蕩停止와 国共間 抗日共同戦線形成을 要求하자 蔣介石은 当時 日本軍의 華北地方掠奪企図를 감안하여 不得已 「先安内 後攘外」 政策을 変更하지 않을 수 없었기때문이며 한편 中共党도 軍事的劣勢뿐만아니라 「反帝国主義人民戦線組織決議」(1935年7月 国際共産主義 第7次大会決議) 에 따라 「抗日統一戦線」 構築을 要求하는 「国際共産主義」의 立場을 受諾한 때문이었다. 中共党은 第2次国共合作에서 表面的으로 소비에트樹立과 「紅軍」의 名目을 버리고 階級闘争을 停止하였을뿐만아니라 蔣委員長을 擁護하고 「三民主義」에의 服従을 公言하였으나 実質的으로는 「国際共産主義」의 指令에 表示된 바와같이 中国赤化를 위한 戦略遂行에 腐心하였다.

이상과 같이 中国共産党은 1921年 創立以来 無数한 挫折을 거듭하여 1949年 本土掌握에 成功하였으며 現在 国際情勢는 中共에게 極히 有利한 方向으로 急進展하고 있는바, 中共이 劣勢한 立場에서 推進된 国共合作의 歴史的 経験이 中共이 優勢한 立場에서 展開될 中国統一問題에 어떻게 反映될는지 注目된다.

나. 中国統一과 「하나의 中国観」

中国의 統一問題는 한때 「유엔代表権」 問題를 中心으로 国際与論上에 「두個의 中国観」이 挙論된바도 있지만 「하나의 中国観」으로서 一貫되어 왔다. 国府는 1945年7月 台湾을 接収하였으며, 1949年 12月 中共의 大陸制覇에 따라 臨時首都를 台北으로 옮긴이래 「大陸反攻」을 基本政策으로 하여 「하나의 中国観」을 堅持하였다. 勿論 「大陸反攻」 政策은 1954年 12月 調印된 「美·華共同防衛条約」의 附属覚書에 따라 美国의 同意를 必要로 하는 事項이며 특히 1958年 10月의 蔣·「덜레스」 共同声明에 따라 武力行使는 制限받고 있음이 現実이다.

国은 「中共과 台湾間의 関係는 両者의 協商으로 解決한다」는 基本立場을 取하게 되었다. 그리고 美国은 1973年 7月부터 始作되는 FY74에 台湾에 대하여 24年間 継続되어온 軍事援助를 中断할 豫定으로 있어 이로써 事実上 1954年 美, 中相互防衛条約은 弱化될 것이다.

여기서 極히 注目되는 것은 이와같이 不利하게 움직이는 国際情勢와는 달리 台湾은 刮目할 経済発展을 이루어 経済的 独立性을 確保함으로서 유엔脫退와는 対照的으로 国際経済貿易社会에서 重要한 位置를 維持하고 있다는 점이다.

中共은 1960年~1970年間 GNP 約800億달라規模로 経済成長이 停滞되어있고, 7億5,000万人口는 年間 1,500万規模로 増加하여 外援獲得의 約$\frac{1}{3}$을 食糧과 肥料購入에 消費하고 있는 反面, 台湾은 1960年 20億달라의 GNP가 1970年에 54億달라로 増額되어 年間 経済成長率 10%를 나타냈을 뿐만아니라 同期間中 1人当 国民所得도 180달라에서 360달라로 増加하였고, 輸出도 1960年의 1億6,400萬달라에서 1970年의 12億4,800万달라로 年間約25%의 上昇率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台湾의 経済的 発展을 中国統一問題와 関聯하여 検討할 때 「中共은 台湾, 香港 그리고 可能하다면 上海를 包含하여 輸出指向的인 自由貿易経済圈을 形成할 것이라는 極端論」도 있으나 이른바 台湾과 中共間에는 「国防·外交分野는 中共이 掌握하고 相互相異한 政治, 経済体制를 維持하면서 政治的 宗主関係를 맺는 自治国家類型」을 台湾이 受諾하지 않는限 自由貿易圈形成論은 不可能할 것이며 台湾의 経済的繁栄과 自立度가 強化될 수록 中共主導下의 統一中国의 実現은 어려워질 것이다.

5. 結　言

이상에서 独逸·越南 그리고 中国의 統一政策을 分析検討하였다.

Ⅸ. 統　一　教　育

(政訓將校班用)

第 1 章　韓国과 北韓의 政治教育 現況

第 2 章　南北対話와 政治教育의 方向

第1章 韓国과 北韓의 政治教育 現況

1. 韓国의 政治教育의 問題点

現行 韓国의 政治教育의 問題点을 分析함에 있어서는 크게 教育政策的인 次元과 学生的 側面으로 둘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于先 政策的인 次元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点이 問題視되고 있는 것이다.

(1) 全般的인 教育体制에 있어서 教育目標, 教育内容, 教育方法, 教育行政 및 組織들이 自由民主主義를 바탕으로 하는 責任있는 市民으로서의 個人의 自由実現 그리고 国家의 綜合的 発展을 為한 「全人的 人間形成」에만 重点을 두어 왔기 때문에 思想教育에 関한 限 北韓에 対処하는 思想教育体系는 未洽한 点이 많다.

(2) 韓国의 教育目的은 뚜렷이 成文化되어 있으나 그것이 教育体制 및 過程속에 反映되지 못하고 있다.

(3) 統一을 為한 教育体制 確立의 첫 段階로서의 教育目標의 設定은 単純히 反共 혹은 統一意識으로만 成文化되어 있을 뿐, 그것이 指向하는 具体的인 人間行為의 特性에로 대하여는 細分化되어 있지 않으므로서 各級学校 教育에 共通的인 欠陥을 보이고 있다.

(4) 勝共 및 統一을 為한 行動特性으로는 認知的, 情意的 側面의 調和가 要求되는 것이나 実際에 있어서는 極히 部分的인 認知的 側面만이 強調거나 아니면 感情志向的인 側面만이 아직도 強調되고 있다.

(5) 우리나라에서의 統一教育은 教育目標→教師行為→教育内容→教育方法→教育環境에로의 一貫性이 断絶되어 있어 教育効果를 軽減시키고 있다.

(6) 教員들은 比較的 統一을 為한 教育目的 意識이 全般的으로 稀

(15) 学校長을 비롯한 学校行政家들은 統一教育은 하나의 重要한 領域으로는 認定하고 있으나 그 専門的 方法論에 있어서는 거의 自身을 갖지 못하는 実情에 있다. 特히 行政家들의 統一에 対備한 教育의 機会는 거의 閉鎖된 状態에 있어 教師들의 意慾이 阻止당하는 境遇도 없지 않다는 것이 教師들의 隘路点인 것으로 알고 있다.

(16) 教育은 学校와 社会의 密接한 関聯下에 이루어지는 것이라 볼 때, 오늘날 우리나라의 統一에 対備한 教育은 매우 微微한 状態에 있다. 그러므로 学校와 社会教育이 相互 連関性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学校에서의 教育이 헛된 것으로 되고, 때에 따라서는 価値観의 混乱要素가 되기도 한다.

(17) 統一教育의 重要性과 関聯하여 나타난 反共教育 資料의 無謀한 発刊이 오히려 統一教育에 悪影響을 미치는 境遇가 적지 않다.
즉 教育資料가 豊饒한 가운데 貧困이 따른다는 것이다. 例를 들면 教育内容과 陳述内容이 相異한 境遇가 많다. 그러므로 一線教育 하면 곧 資料의 要請을 하는 傾向마저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以上과 같은 統一教育의 現実에 따른 高等学校学生 水準의 統一意識과 그에 따른 問題点을 簡略히 記述해 보기로 하겠다.

우선 内容領域別 学生들의 傾向을 보면 다음<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愛国心, 共産主義批判, 国民의 使命分野에 比較的 期待以下의 水準을 알 수 있다.

内容領域別 点数比較

<表-1>

領域 / 区分	愛国心	共産主義批判	民主主義	国際座標	使命
平均点	56.95	65.20	68.68	73.44	62.16

이는 우리의 統一教育이 国民으로써 지켜야 할 愛国心이나 統一을

(参考) 自由主義와 共産主義의 比較

(1) 目 的 面

自 由 主 義	共 産 主 義
1) 人間의 自由와 平和 追求	1) 이데올로기에 依한 世界赤化
2) 個人의 幸福 및 福祉向上	2) 個人의 要求나 代価無視

(2) 批 判

自 由 主 義	共 産 主 義
1) 変化와 改革에 対한 個人의 批判権 強調	1) 個人은 国家의 決定에 順応
2) 抗議에 対한 制限이 없고 오히려 勧奨	2) 抗議에 対한 厳格한 統制와 処罰
3) 아이디어의 交換이나 批判은 社会発展의 過程으로 評価	3) 国家政策的인 思想統制와 現象維持 強要
4) 政策의 立案이나 執行에 対하여 批判이 可能	4) 政策의 妥当性 与否批判 可能性
5) 公開討論과 批判에서 利得을 얻는 것을 重視하고 一致가自由主義의 目的이 아님	5) 党 統制에 依한 思想과 行動의 一致

(6) 雇 傭

自 由 主 義	共 産 主 義
1) 職業選択의 自由	1) 雇傭의 政府統制
2) 正当한 事由없이 解雇不可	2) 政府의 命令에 따른 解雇의 自由
3) 労動条件의 労使契約	3) 労動条件의 強制性

(7) 政 府

自 由 主 義	共 産 主 義
1) 民権에 依한 立憲政府	1) 共産党에 依한 独裁政府
2) 国民을 為한 国民에 依한 国民의 政府	2) 国民을 無視한 政府
3) 国民의 意思 尊重	3) 政府意思 尊重
4) 政府는 個人을 為해 存在	4) 個人은 国家를 為해 存在
5) 法에 依한 統治	5) 人間(統治者)의 恣意에 依한 統治
6) 多数党의 支配	6) 少数党의 支配
7) 国民에 対한 責任	7) 国民에의 無責任
8) 輿論 政治	8) 輿論을 外面
9) 合法的 政権交替	9) 政権交替 否認
10) 三権分立	10) 名分上의 三権分立
11) 政策立案 公務員만 選挙	11) 共産党이 政策決定과 立法活動
12) 政策決定者의 選挙에 依한 交替	12) 政策決定者의 交替는 肅清이나 死亡
13) 政敵의 批判 및 恐怖로부터의 自由	13) 政敵에 対한 苛酷한 弾圧
14) 多数党의 同意를 通한 権力의 制限	14) 테러와 恐怖에 依한 権力 掌握

(11) 所有権

自由主義	
1) 個人 所有権 保障	1) 個人 所有権 厳格히 制限
2) 財産処分権의 自由	2) 個人所得없는 個人所有権에 局한 処分権 認定

(12) 宗教와 道徳

自由主義	共産主義
1) 精神과 伝統에 基盤을 둔 人生観	1) 唯物論에 基礎를 둔 人生観
2) 宗教의 自由는 個人의 信念에 依存	2) 共産主義的 人間形成을 為해 宗教抹殺
3) 宗教団体権의 認定	3) 宗教活動의 国家制限
4) 宗教教育의 自由	4) 宗教教育의 排除
5) 道徳은 伝統에 基礎	5) 共産主義 目的을 為해서만 認定

(13) 労動組合

自由主義	共産主義
1) 自体組織 運営	1) 国家의 統制
2) 機能：労動業体의 改善	2) 機能：生産増大訓練
3) 労動争議権	3) 労動争議権 否定

(13) 旅 行

自由主義	共産主義
1) 住居移住의 自由	1) 通行権 마저 制限
2) 国外旅行의 出帆性	2) 国外旅行 抑制
3) 外国人訪問의 自律性	3) 外国人訪問의 節次의 複雑性

資料： J.Edger Hoover A.Study of Communism

2 .北韓의 政治思想教育

北韓에 있어서 政治思想教育은 教育의 그 全部라 하여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北韓의 政治思想教育의 理解를 為하여는 北韓

모든 教育活動이 展開된다. 이를 教育実際와 結付시켜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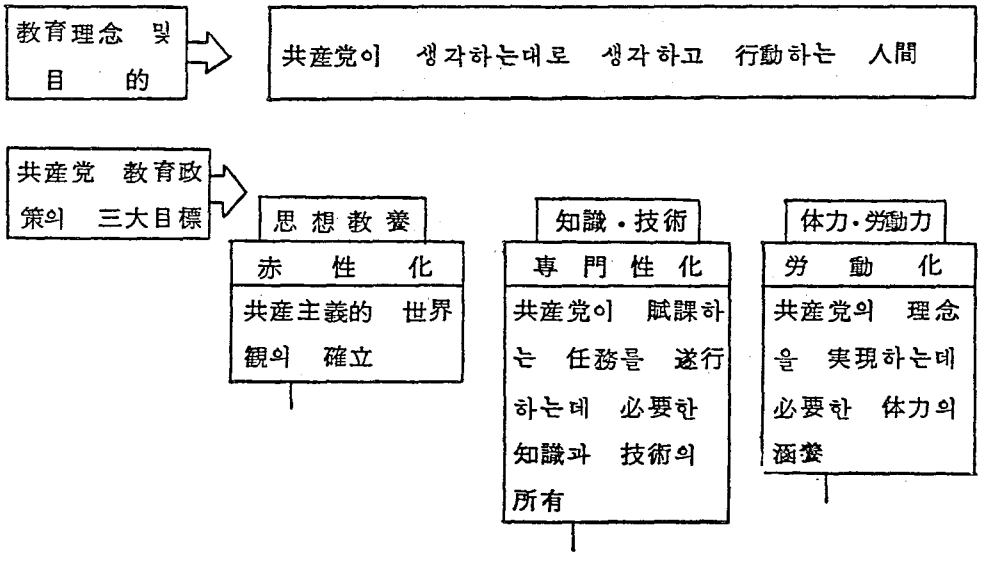
1) 階級性, 思想性 教養: 思想教養은 政治와 密接하게 関聯되어 있으며 그 方向은 ①一般教科를 通한 思想教養, ②革命伝統学習 및 共産主義 道徳을 通한 思想教養, ③労動을 通한 思想教養, ④学校에서의 団体生活을 通한 思想教養으로 定立되어 있다.

2) 革命伝統 教養: 金日成의 抗日 빨찌산 闘争을 中心으로 한 内容으로 이를 教育하기 為한 方針으로서 ①革命伝統 研究室의 設置와 ②革命伝統 研究의 날을 設定하고 있다.

3) 思想検討会: 所謂 自我批判으로서 群衆의 審判을 받게 한다.

以上과 같은 北韓教育의 政策, 目標 및 教育理念을 公式化하면 다음과 같이 整理될 수 있다.

北韓政治思想教育體系図



나. 北韓 教科書 内容

北韓教科書内容을 보는 것은 보는 사람의 関心 領域에 따라 各様各色일 것이나 여기에서는 主로 思想教育의 側面에서 検討하기로 하되 国語科의 一学年 教材에 致重하겠다.

国語科를 全体的으로 보면, 教育目標로서 金日成 偶像化, 反美 反日意識 鼓吹, 党과 国家와 全体의 優先意識, 社会主義 讃揚, 革命精神 鼓吹, 그리고 国家에의 参与意識 鼓吹 等을 들 수 있다.

于先 金日成 偶像化를 為한 그들의 教育目標는 金日成의 人品과 行動이 훌륭함을 認識시켜 그에 対한 尊敬心을 갖게 하고 그의 行動을 模倣케 하는데 두고 있다. 金日成의 人品과 関聯되는 表現을 보면 「어린이 사랑」 「부하사랑」 「나라사랑」 「근면」 「면학」 「효성」 「자애」 「친근감」 「인자함」 「슬기로움」等을 그 主要内容으로 하고 있으며 마치 카리스마적 救世主로 讃揚하고 있다. 特히 金日成의 行績이 越等함을 認識시키기 為해 提示한 内容의 例를 보면, 「解放과 独立의 実現을 為해 闘争한 行績」 「北韓의 建設者, 労動党의 指導者며 領導者」 「北韓住民의 幸福의 源泉」으로 浮刻시키고 있는 事実들을 볼 수 있다.

둘째, 反美·反日意識의 境遇를 보면 韓国의 貧困의 原因이 美国의 侵略때문이라는가 하면 韓国의 「蛮行은 美国이 主導한다」 「統一의 妨害者는 美国이다」는 것등을 強調하고 있다. 例컨데 「권총으로 그 놈들의 대가리를 까다」 「美国놈들의 기관총을 까주다」는 것 등이다.

셋째, 全体의 優先을 為한 内容으로는 党과 祖国을 為해서는 生命도 불사한다는 犠牲精神이 그 主된 目標이며,

넷째로, 社会主義의 優越性을 讃揚키 為한 内容의 例로는, 韓国의 貧

特히 算数科의 境遇에도 思想教育을 実施한다는 事実에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算数科中 思想教育의 内容要素는 総43個 項目인바 그中 金日成 偶像化가 39.7%로서 그 比重이 가장 높고 其他의 思想教育 徳目도 빼지않고 있는 実情이다. 特히 応用問題는 韓国의 実情 날조비난이 그 大部分이고 그 例로 「南朝鮮에서 피를 팔러오는 사람은 46名이고, 눈을 팔러오는 사람은 14名이다. 모두 몇名인가?」 하는 것이 그 좋은 例이다.

끝으로 「음악」 「글써」 「공산주의 혁명활동」등의 교과에서는 全部가 金日成 偶像化의 内容으로 構成되어 있다는 것에는 더욱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다. 北韓住民의 性格 및 行動特性

以上과 같은 共産主義的 社会化 過程을 거친 北韓住民의 性格과 行動特性을 推定해 본다면 大体로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가 考慮된다.

各種 組織生活의 強要, 党政策의 強要, 餘他 全体主義的 傾向으로 말미암아 住民들의 性格特性은 ①内政的 性向에 따른 自己喪失性과 ②強要의 生活化에 따른 性格의 単純化 ③그리고 集団生活 내지 全体主義의 生活로 말미암은 権威主義的 性格으로 変化되어 있지 않나 判断되며 그 結果 住民들의 一般的인 行動特性은 다음表와 같은 内容들로 構成되어 있을 것으로 豫見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진데 北韓教育은 金日成의 一言之下에 움직이는 道具로 転落되었거나 아니면 体制守護의 方便으로 活用되는 것 外에 아무것도 아님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南北対話를 즈음하여 学制의 改編은 勿論, 教科書까지를 改編하므로써 思想教育을 強化하였다는 事実은 우리에게 重大한 示唆点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와 関聯하여 우리가 択하여야 할 思想教育의 方向은 무엇이며 이에 対処하여야 할 教育対策은 무엇인가를 다음에서 言及해 보기로 하겠다.

第 2 章　南北対話와 政治教育의 方向

8.15宣言, 南北赤의 会談, 7.4共同声明 등의 南北対話가 進展됨으로써 韓国에서 政治教育을 支配하는 環境에 重要한 変化가 일어나고 있다. 従前에는 北韓을 볼 수 있는 門이 完全히 닫힌 채 反共教育을 実施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対話와 接触을 通해서 어느정도 그 門이 열려 있으므로 해서 従来와 같은 反共教育을 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운 点이 随伴되고 있다.

南北赤会談이나 南北調節委員会 会議와 関聯하여 北韓에 対한 取材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報道를 通하여 北韓에 対한 새로운 情報가 普及되고 있다. 여기에다 7.4声明을 通한 南北相互 誹謗을 中断키로 合意했기 때문에 갑자기 相対方에 対한 否定的인 報道가 制約되고 있어서 市民에 対한 政治教育에 断切現象이 일어나고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그러나 北韓은 南北対話와 関聯하여 報道의 制限은 勿論 教科書까지를 改編하여 教育의 断切現象을 最少化 하고 体制守護를 為한 教育内容을 強化하고 있는 実情이다.

얼핏 생각하면 共産主義 내지 北韓에 関한 教育의 現実化란 観点에

体制의 相보다 理想的인 民主主義가 났다고 해 보았자 現体制에 対한 支持가 增大되는 것은 아니다。왜냐하면 情報가 統制되지 않은 状況에서 学生들은 理想的인 民主主義가 実現되지 않다는 것을 쉽게 알 것이기 때문에 事実 教科書에 그려진 民主主義는 美国이나 英国에서는 実現되고 있지 않다。 学生들은 이런 教育의 結果로 韓国体制에 対해서 必要以上의 不信感과 不満感을 얻게 될 可能性이 더욱 커질 것이다。

経験的 事実로서 民主主義를 가르치고 民主主義의 実現을 為해서 먼저 있어야 할 条件이 무엇이라는 것을 認識시킴으로써 韓国의 現実에서 実現可能한 政治建設의 限界를 알게 하여야 한다。

또한 韓国의 政治教育에서 強調되어야 할 것은 国民의 民族意識이다。解放後 韓国은 学問的으로 理念的으로 西欧民主化 된 点이 적지 않다。그래서 現在意識面에서 韓国人을 支配하는 価値体系는 充分히 西欧的인 것이다。 이의 부수적인 事実로 韓国的인 것에 対해 消極的 내지 否定的인 態度를 가지게 된것이 事実이다。 그래서 韓国的인 것은 부끄럽고 못낫고 그래서 버려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풍조가 強한것 같다。必要한 것은 韓国的인 것을 国民이 멋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発展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民族的 矜持를 가지게 하는 教育的 努力이 切実히 要望된다고 하겠다。

한편 政治教育에서 重要한 것은 国民모두의 国際的 眼目이다。 오늘날은 世界가 一日生活圏으로 바뀌는 傾向마저 없지 않은 現実인 만큼, 国際潮流의 変化에 敏感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에 賢明하게 対処할 수 있는 能力이 必要함은 勿論 韓国의 統一問題도 이와 関聯지워 解決하려는 努力이 随伴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政治教育에서 考慮되어야 할 事項으로는 南北会談의 展望과

X. 統一을 위한 指導層의 使命

第 1 章　統一政策의 方向
第 2 章　国際政治的 制約
第 3 章　北韓의 挑戰
第 4 章　10 月維新의 綜合的 意義
第 5 章　指導層의 使命

第1章 統一政策의 方向

우리의 統一方案은 武力에 의한 方法을 排擊하는 平和統一이며 유엔監視下의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自由総選挙에 基礎를 둔 統一이 統一政策의 基調로 되어있다. 朴正熙大統領은 해마다 政府의 이러한 統一方針이 確固한 것이고 그밖에 다른 어떤 統一方案도 있을 수 없음을 確言하였다. 또한 北韓의 「어떠한 方式의 統一方式에 대해서도 即刻的으로 対処하고 対応할 수 있게끔 北韓에 比해 絶対優位의 힘을 恒常確保해야 할」것과 「政治·軍事·経済·文化·社会 모든 分野에서 高地를 먼저 占領코 統一에 대한 主導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朴正熙大統領에 의하여 強調되었다. 따라서 우리는「感傷的인 空論과 非現実的인 統一論議」로써는 統一을 이룩할 수 없고, 統一에의 過程에 놓여 있는 수많은 課業에 充実하여 「着実하고 꾸준한 統一의 努力」을 다할 때 所期의 成果를 争取할 수 있는 것이다.

朴大統領의 平和統一에 대한 積極的인 意志는 70年 8·15慶祝辞에서 더욱 具体的으로 表明되었다. 여기에서 朴大統領은 同族相残의 戰争을 피하면서 平和的 方法으로 統一을 이룩할 것과 北韓이 武力赤化統一의 野慾을 버리고 国民을 잘 살게 하는 善意의 競争에 나설 것을 促求하였던 것이다. 当時 緊張된 韓半島情勢에도 不拘하고 北韓에 対하여 緊張緩和와 善意의 競争을 促求한 것은 統一에 대한 長期的 眼目에서 나온 英断이었다. 이어 71年 8月 大韓赤十字社가 南北離散家族찾기 会談을 提議하여 北韓이 이에 同意함으로써 分断 27年만에 南北간의 첫 接触이 이루어졌다. 이는 우리民族의 自主性을 内外에 誇示한 一大快事였다. 그 뿐만 아니라 朴大統領의 冒険的인 決断으로 72年 7月4日에 発表되기에 이른 南北共同声明은 平和統一을 위한 政治的 南北対話의 첫 開始로서 南北関係에 新紀元을 劃하게 하였다.

国民들도 躁急하거나 性急하게 생각하지 말고 団結과 総和로써 政府의 統一努力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統一을 切実히 念願하고 또 우리 政府는 与件이 許与하는 限 最善의 努力을 기우리고 있지만 우리의 念願과 努力만으로 統一이 이룩될 수 없다는데 우리의 悲哀가 있다. 統一에 대한 障碍要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国際政治的 制約과 北韓의 挑戦이 가장 큰 試練으로 되고 있다.

第2章 国際政治的 制約

70年代에 들어와서 심한 激変을 겪고 있는 韓半島周辺의 国際情勢는 우리의 安保와 統一에 至大한 影響을 미치고 있다.

오늘날 多極化, 列強為主의 実利主義라는 国際情勢의 趨勢속에서 信義와 道義는 흐려지고 弱小国의 運命이 強大国에 의해 一方的으로 犠牲될 可能性이 커지고 있는데, 이는 美·中共和解와 日·中共修交의 過程에서 台湾이 겪은 運命에서 如実히 立証되었다. 이러한 状況中에서 強大国들이 그들의 더 큰 実利를 追求하기 위해 韓半島問題도 우리 民族의 意思와는 関係없이 処理하려들 可能性을 결코 軽視할 수 없게 되었다.

더 直接的으로 우리에게 衝激을 준 것은 닉슨·독트린에 따른 美国의 아시아에서의 役割縮少이다. 美国은 이에 따라 駐韓美軍을 減縮시키고 軍援도 줄여가고 있다. 이때까지 韓国安保를 위해 発進基地·補給基地로 役割해 오던 沖縄基地가 사이판·마리아나 群島로 撤収되었다. 이와 아울러 美·中共和解, 日·中共修交와 같은 韓半島周辺 列強들간의 既存勢力関係의 一大変化는 既存安保体制, 특히 美·日安保条約의 性格을 変化시켰고 이에 따라 韓国의 安保도 影響을 받게 되었다.

또한 最近 日本은 今後 「두개의 韓国」을 固定化시키려는 政策을 採択하게 될지도 모르고 특히 7·4共同声明 以後 北韓과의 交流를 急速度로

命」을 통한 그들 主導下의 赤化統一론인 것이다. 「이 南朝鮮革命에서는 결코 平和的인 길이 있을 수 없으며 오직 暴力的 方途가 있을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主張이다. 이리하여 北韓共産集団은 平和的인 統一口号를 前面으로 強力히 提起할수록 内面的으로는 武力을 強化하고 「民族解放闘争」이라는 戰争可能性을 模索해 왔다. 北韓은 60年代 初期부터 全体人民의 武装化, 全国土의 要塞化 等 所謂 4大軍事路線에 立脚하여 戰力増強에 注力하고 60年代 後半期에 들어서서는 軍事費를 大幅 増額하여 戰争準備에 狂奔해 왔으며 70年 11月 5次党大会에서는 戰争準備를 完了했다고 豪言壯談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武力統一方策은 68年 1.21武装共匪의 侵入, 同年10月 울진·삼척 事件등 大小 武力挑発行為에서 実証되었거니와 5次党大会에서 金日成이 「南朝鮮革命」을 「民族解放革命」인 동시에 「人民民主主義革命」이라 規定한 바에 의해 再確認되었다. 이는 70年代의 国際緊張緩和趨勢에 迎合하여 美国을 為始한 自由友邦의 韓国支援力量을 弱化시키는 한편, 軍事的 手段에 의한 南韓共産化의 機会를 捕捉할 때까지 모든 対南工作을 南韓内部에서 自然発生的으로 일어난 「愛国運動」으로 仮装시키고, 外部로부터 南韓의 内部 矛盾을 刺戟하여 大大的인 革命気運을 高潮시켜 南韓의 共産化를 促進시키자는 底意였다. 또한 72年7月에 開催된 労動党5期 4次 全員会議에서도 그러한 底意를 分明히 드러내었다. 즉 이 会議는 「南朝鮮革命」이란 統一의 先決条件으로서 南韓人民 自身이 反帝·反体制階級闘争을 強化하여 이를 暴力闘争으로 拡大, 政権을 奪取해서 「人民民主主義革命」을 達成하는 것이고, 統一問題란 分断된 領土와 人民을 도로 찾는 問題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그들의 旗幟下에 遂行되어야 하는 것이라 断定的으로 規定하였다. 이러한 그들의 底意는 우리의 未熟한 自由民主主義体制가 産出해 놓은 内部矛盾인 分裂과 混乱을 利用하여 上下反目을 造成하고 이른바 階級闘争의 可能에 불을 질러서 窮極的으로 反美·反政府 統一戰線을 形成하려는 것이다.

서와 같은 歷史的 恥辱을 되풀이하지 않고 또 戰爭再發로 인한 同族相残의 悲劇을 거듭하지 않기 위해 歷史的 決断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서 美·日의 対韓政策 変化를 비롯한 国際情勢 変動에 의해 우리의 国益이 犠牲되거나 南北勢力 均衡이 우리에게 不利하게 기우러져 金日成이 또 情勢를 誤判해서 戰爭을 挑発하기 전에 有備無患의 対備策을 講究할 必要가 있었다.

다른 한편 北韓의 끈덕진 多角的 挑戰에도 不拘하고 우리의 꾸준한 忍耐와 平和統一念願의 結果로서 南北対話의 문이 열리긴 했으나, 이를 契機로 南北対決은 思想·政治·経済·軍事·社会文化등의 모든 部面에서 더 直接的인 優劣競争으로 바뀌었고, 이 総合的 体制競争의 勝利者에게 統一의 栄光이 안겨질 것으로 展望되는 時点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南北対話를 主導的으로 이끌어 나가고 또 그러한 体制競争에서 이겨 平和統一을 達成하기 위해서는 우리 体制의 脆弱点을 補完하고 国力培養을 加速化하여 南北対話를 굳게 뒷받침할 수 있는 体制를 時急히 갖추지 않으면 안되었다. 10月維新에 의해 우리는 南北対話를 굳게 뒷받침할 수 있는 平和統一指向의 憲法을 갖추게 되었고 이 南北対話를 통한 平和統一에 있어 共産主義者들에게 有利한 高地와 「決定的 時機」를 許与하지 않는 反面, 우리가 主導権을 掌握할 수 있는 与件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10月維新은 韓国民主主義를 土着化·昇華시켜 나간다는 本来의 内部的 課業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民主発展의 沮害要因이 되는 不条理現象을 抜本塞源하고 果敢히 体制를 改革하여 새 憲法秩序를 세우는데도 동시에 目的이 있었다. 体制改革의 具体的 方向은 먼저 憲法構造面에서 従来의 収復統一型을 平和統一型으로, 西欧民主主義追従型을 独自的인 韓国民主主義型으로, 그리고 政府牽制型을 政府支援·能率提高型으로 改革하였다. 또한 北韓의 全体主義的 組織性에 対応할 수 있는 民族主体勢力을 国家指導者를 求心点으로 하여 形成하고 이리하여 이룩된 国民総和体制 위에 国力을 組織化할 수 있게 하였다. 다음 政治面에서는 党利党略 為主로 弊端을 가졌

位置와 方向을 定立함으로써 우리의 運命을 스스로 開拓打開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제 先進強大国들의 恩慧와 慈悲에 依存하던 時代는 지나가고 自主·自立·自助의 時代가 到来하였다. 世界史를 통해 볼 때 主体性을 確立하여 自主的으로 努力한 民族은 스스로 歷史를 創造할 能力을 갖지 못한채 他民族에 隷属하여 가까스로 延命한 나머지 衰亡하고 말았다. 오늘날과 같이 内外의 試鍊이 거셀 때일수록 우리는 大国主義의 犠牲이 되거나 大国便宜主義의 祭物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우리의 国家利益을 最大限으로 守護伸張해 나가기 위하여 健全한 自主精神을 原動力으로 한 民族主体性을 確立하여야 할 것이다.

안으로는 우리는 韓半島内外의 거센 挑戰을 克服하여 平和·民主·自主統一을 앞당기기 위하여 国力培養을 加速化하고 国民総和와 大同団結로써 国力을 組織化하며 갖가지 社会不条理를 剔抉하여 韓国民主主義를 土着化해야 하는 時急한 課業을 賦与받고 있다. 信義보다 実利主義의 오늘날 国際社会에서는 힘이 없으면 滅亡하고 만다고 하는 歷史的 教訓을 되새기게 하거니와 国力의 뒷받침 없는 統一의 念願은 부질없는 하나의 幻想에 지나지 않는다. 共産侵略에 대한 抑制力, 즉 平和維持力으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南北対話, 나아가 平和統一을 主導的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도 国力増強은 時急히 要請된다. 우리가 80年代 初까지 1人当 国民所得 1,000弗과 輸出 100億弗을 이룩하여 우리의 国力이 北韓을 圧倒的으로 凌駕할 때 統一主導権은 저절로 우리 손에 쥐어지게 될 것이다. 이와 아울러 農漁村所得増大와 均衡있는 国家発展에 目標로 두고 全国 各地에서 燎原의 불길처럼 일고 있는 새마을運動이야 말로 国力増強에 큰 役割을 한다는 것은 再言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放慢하고 흩어진 国力으로서는 共産主義者들의 戰争挑発 및 反体制顚覆 策動을 防止하기 어려우므로 国力의 組織化로 우리의 国力을 総集結해서 一旦 有事時에 即刻 動員할 수 있는 総力安保体制를 時急히 다져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朴正熙大統領은 総力安保体制란 『国民

다。 統一은 결코 남에 의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贈物이 아니며 우리 스스로가 能動的으로 歷史와 環境에 挑戰하여 克服함으로써 爭取되는 努力의 代価이어야 한다。 이러한 努力없이 統一을 바라고 期待한다는 것은 한낱 幻想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要컨대 유엔 監視下의 土着人口比例에 의한 自由総選挙라는 우리의 統一方案에는 조금도 変함이 없다。 南北韓이 窮極的으로 政治的 統合을 이룩하는 것은 여러 難関과 試鍊을 克服해야 하는 먼 将来의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窮極的 目標를 達成하기 위한 努力을 결코 抛棄할 수 없으며 長期的인 眼目下에 꾸준한 努力을 傾注하여야 한다。 近来 유엔周辺에서 普遍主義라는 이름 아래 分断国 同時 加入論이 없지 않으나 이는 統一을 抛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現在 우리 政府의 確固한 立場이다。 우리 政府는 一次的으로 南北対話를 통해 緊張을 緩和하고 戰爭을 防止하며 南北韓이 合意하기 쉬운 問題부터 段階的으로 그리고 着実히 解決해 나감으로써 窮極的 統一에 接近하는데 最善의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南北対話의 문이 열렸다고 해서 곧 統一이 이룩될 것이라 錯覚을 해서도 안되겠거니와 統一은 서둔다고 해서 解決될 수 있는 性格의 問題도 결코 아니다。 統一을 達成하려면 먼저 우리 自身의 内実을 키워야 하고 客観的 与件이 成熟되어야 하며 客観的 与件이 成熟되었을 때 우리가 機会를 機敏하게 포착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北韓共産主義者들은 무작정 어려운 政治問題를 들고 나오면서 모든 것을 一括하여 処理하자고 主張하며 宣伝하지만 우리는 그 底意가 어디에 있는가를 注意 깊게 検討하여 아직도 変함없는 그들의 韓半島赤化野慾을 隠蔽하기 위한 偽装平和攻勢에 말려들지 않도록 이에 対処해 나가야 한다。 우리가 勝共統一教育을 과거 어느 때 보다도 強化하여 国論統一과 国民緩和를 時急히 이룩해야 하는 所以도 바로 여기에 있다。

（附　　錄）

南北韓統一方案　変遷過程（比較図表）

1. 韓国 및 北韓의 提案

韓国			北韓		
年月日	機関	内容	年月日	機関	内容
48. 6.12	制憲国会	北韓人口数에 比例할 議席 約100席을 남겨두고 北韓地域에서 国会議員을 選挙하여 合流토록 呼訴	48. 3.25	民主主義民族統一戦線中央委員会	UN決議와 単政을 反対하며 統一的 自由独立 実現을 위해 全 朝鮮政党·社会団体代表者会議 提議
48. 7.17	李承晩 国会議長	北韓同胞에게 그들의 代表를 위해 空席으로 100餘席이 保留되어 있음을 想起시키고 北韓도 UN決議에 順応하여 自由選挙実施, 選出된 代表를 国会에 보내도록 要請.			
			49. 6.28	祖国統一民主主義戦線結成大会	① 統一事業은 朝鮮人民自身이 解決 ② 美軍 및 UNCURK 即時 撤去 ③ 立法機関選挙 위해 総選 ④ 南北의 政党·社会団体代表로 選挙委員会 構成 ⑤ 総選의 自由保障 위한 諸対策 実施

年月日	韓国 機関	韓国 内容	年月日	北韓 機関	北韓 内容
					에 서울에서 召集. ③ 平和統一에 必要한 条件과 手続을 討議決定하기 위해 南北諸政党・社会団体代表者会議를 海州 또는 開城에서 6.15~17에 걸쳐 召集. ④ 李承晩・李範奭등 民族反逆者와 大韓国民党・民主国民党은 協議対象에서 除去, UN韓国委의 関与排除
			50.6.19	最高人民会議(常任委)	統一実現을 위해 北韓最高人民会議와 韓国国会를 統合하여 単一立法機関으로 함.
54.5.22	제네바会議에서 卞栄泰外務長官의 提議	① 統一独立된 韓国을 樹立할 目的으로 UN決議에 의거, UN監視下에 自由選挙実施 ② 北韓에서 韓国憲法節次에 의거, 自由選挙의 実施. ③ 本提案이 採択된 후 6個月内에 選挙	54.6.15	제네바会議에서 南日提議	① 韓国에서 可能한 한 速히 外軍撤収를 위해 該当国政府에 建議. ② 1年内 双方軍 10万以下로 減縮. ③ 戦争状態의 漸次的 解消, 및 双方軍隊의 平和的 転換条件.

韓国			北		韓
年月日	機関	内容	年月日	機関	内容
		UNの保障。			
54.10.2	国会決議	UN監視下에 北韓全域에서 全北韓軍이 撤退後 選挙를 実施하여 大韓民国의 主権을 拡張하는것만이 国是다。	54.10.30	最高人民会議(1기8차)	① 南北各政党, 社会団体連席会議 또는 北韓最高人民会議와 韓国国会의 共同会議를 平壌 또는 서울에서 年内 召集。 ② 前記 会議召集에 관한 問題와 南北間 経済。文化。通商。通行・書信往来問題의 討議를 위해 代表者会議를 55.2에 板門店 또는 開城에서 召集。 ③ 南北各正党・社会団体 및 各界愛国的 人士는 平和統一을 위해 相互接触해야 하며 南北当局은 自由活動 保障。
			55.8.15	金日成	① 南北韓의 平和保障을 위해 国際会議 召集。 ② 南北에 駐屯하고 있는 外軍撤収。 ③ 南北間 武力不行

韓国			北韓		
年月日	機関	内容	年月日	機関	内容
					経済・文化・科学・芸術・体育・其他部門의 相互交流実施 ⑦ 于先 南北経済発展 및 交流의 常設委員会 組織.
60.8.27	張勉総理	① UN路線에 의한 民主平和統一 ② UN監視下 南北総選挙実施	60.8.14	金日成	① 外勢干渉없는 南北自由総選挙 ② 過渡的措置로서 南北聯邦制実施(最高民族委員会組織)
60.9.10	鄭一享 外務長官	① 平和的統一 ② UN監視下 大韓民国憲法節次에 따른 南北韓総選挙実施			③ 上記提案을 同意치 않으면 南北経済委員会라도 組織
60.11.2	国会(5代)	① 統一·独立·民主韓国을 樹立한다는 UN基本原則에 따라 国民의 自由, 国家의 安全에 대한 保障措置 講究 ② 韓国憲法節次에 의한 UN監視下 人口比例에 따른 自由選挙実施	60.11.19	北韓最高人民会議(2기 8차)	① 南韓当局은 UN監視下 総選挙라는 立場을 抛棄할 것. ② 이를 諾할 수 없을 때는 南北聯邦制의 過渡的措置를 取할것. ③ 聯邦制조차 할수 없다면 南北純粋実務者로 構成되는 経済委員団 設置 ④ 南韓의 土地改革実施

韓国			北韓		
年月日	機関	内容	年月日	機関	内容
					電気・化学・繊維・セメント・木材・機械等提供用意。 ⑧ 南韓失業者 받아들여 生活保障。
64.11.3	朴正熙大統領의光州学生事件記念諭示。	① UN監視下의 南北自由総選挙 以外에는 어떠한 統一方案도 있을 수 없다。	64.11.1	洪命희(祖国平和統一委員長)	① 人士交流 ② 経済協助 ③ 単一体育팀 構成하여 올림픽 出戦。
66.10.8	21次UN総会에 보낸 政府의統韓覚書	① UN監視下総選挙 ② UN韓国統一復興委員団과 駐韓UN軍의 任務 継続。	66.7.21	UN備忘録(21次총회)	① 外軍撤収 韓国問題는 韓国人自身에게 맡길것。 ② 南北諸政党・社会団体代表連席会議 또는 其他 形態의 南北連席会議召集。 ③ 南北代表包含, 南北当局이 各各 指命하는 同数国代表로 構成되는 韓国問題의 平和調整을 위한 関係国会議 召集。
			69.10.8	UN備忘録(24차総会)	① 南北 各 政党・社会団体会議를 서울이나 平壌에서 実施。 ② 南北経済 및 文化

韓国			北韓		
年月日	機関	内容	年月日	機関	内容
				4기5차)	또는 그以下로 減縮。 ③ 韓美相互防衛条約, 韓日条約등 隷属的条約·協定의 廃棄 또는 無効宣言。 ④ 自由総選挙에 의한 統一中央政府樹立。 ⑤ 政治運動의 完全自由保障, 政治犯의 無条件 釈放。 ⑥ 南北間 通商·経済協調·科学·文化·芸術·体育등 相互交流와 協調実現 및 書信去来。 ⑦ 過渡的措置로서 聯邦制의 実施。 ⑧ 以上 問題를 協議키 위해 各 政党·社会団体들과 全体人民的性格을 가진 사람들로서 南北韓政治協商会議를 進行。
71.8.12	崔斗善韓国赤十字社総裁	① 南北間의 家族찾기運動을 具体的으로 協議하기 위해 가까운 将日内에 南北赤	71.8.6	金日成의 시아누크 歓迎大会時 演説	① 政党·社会団体·民主人士들의 平和統一主張에 대한 弾圧中止。

韓国			北韓		
年月日	機関	内容	年月日	機関	内容
	外務長官記者会見	로 解決方案 提示. ① 人道的 問題 ② 非政治的交流 ③ 政治的 問題			
72.2.12	金溶植外務長官	平和統一을 위한 4個先行条件 提示. ① DMZ의 平和的利用. ② 武装間諜 南派中止. ③ KAL機 乘務員 및 機體速還. ④ 全国土 要塞化등 武力赤化統一野慾抛棄	72.1.10	金日成 요미우리記者와 会見	① 現停戦協定을 南北間의 平和協定으로 바꾸는것이 必要. ② 美軍을 撤退시킨 条件에서 南北間의 軍隊를 大幅 減縮. ③ 統一問題의 解決을 위한 政治会談(北韓労動党과 韓国의 民主共和党, 新民党등 모든政党·社会団体들과 双務的 多務的会談)
72.3.20	朴正熙大統領의諭示(陸士卒業式)	① 4大軍事路線의 武力赤化統一野慾 抛棄. ② DMZ内 軍事陣地撤去. ③ 赤十字会談에 誠意보여 韓赤提議 受諾할 것. ④ 武装間諜南派 中止.			

韓国			北韓		
年月日	機関	内容	年月日	機関	内容
		暴力을 永遠히 行使하지 않겠다는 明示的이고 真摯한 태도를 表示할 것.			⑤ 南北聯邦制実施로 最高民族委員会 構成.
72. 7. 4	李厚落情報部長記者会見(南北共同声明)	① 自主的인 平和統一. ② 中傷誹謗하지 않으며 軍事的인 衝突防止. ③ 諸般交流 実施. ④ 南北赤十字会談協調. ⑤ 直通電話 架設. ⑥ 南北調節委員会構成. ⑦ 合意事項履行 約束.	72.7.4	朴成哲記者会見(南北共同声明)	左와 同一
			73.4.16	金日成演説(시아누크환영)	① 政治協商会議 召集 -調節委併行- ② 調節委 改編 -各政党・社会団體代表 및 各界 各層 人事参加-
			73.4.22	許貞淑祖国統一書記局長	① 軍事的対峙状態解消. ② 政治協商. ③ 多方面的合作交流

2. UN을 통한 提案 및 諸決議

年月日	韓国의 提案	UN의 決議
47.11.14		제2차 UN総会 決議 ① UN総会는 韓国国民의 時急하고 正当한 独立要求를 認定하고 選挙의 公正을 監視하기 위하여 UN臨時軍 韓国委員団을 構成한다. ② 同委員団의 監視下에 秘密投票에 의해 人口比例로 総選挙를 実施하여 政府를 樹立한다.
48.2.26		UN小総会 決議 ① UN韓国委員団과 協議할 수 있는 韓国民의 代表를 選出한다. ② UN韓国委員団이 接近할 수 있는 韓国内地域에서 総選挙를 実施한다.
48.12.12		제3차 UN 総会 決議 ① UN韓国臨時委員団이 監視와 協議를 할 수 있었던 地域에 大韓民国政府가 樹立됐음을 宣言 ② 占領軍은 早速히 撤収해야 하며 同団과 大体로 同一한 範囲의 UN韓国委員団을 設置할 것을 決議.
50.9.1	林炳稷外務部長官의 安保理에서의 演説.	

年月日	韓国의 提案	UN의 決議
54.7.30	李承晩·아이젠하워 共同声明 우리는 UN憲章 및 韓国問題에 관한 UN総会의 決議에 따라 統一·民主·独立韓国을 達成하기 위해 継続해서 行動하려는 우리의 意図를 再確認한다.	
54.10.30	第3代 国会의 決議 UN監視下에 北韓全域에서 全共産軍이 撤退한후 選挙를 実施하여 韓国主権을 拡充하는것이 国是이다.	
54.12.11		제9차 UN総会 決議 ① 제네바에서 開催된 韓国政治会議에 관한 보고서를 承認하고 ② UN의 目的이 代議政治下에 平和的方法에 의해 統一·独立·民主韓国을 樹立하고 同地域에 있어서의 国際平和와 安全을 回復하는 것임을 再確認하며 ③ 이러한 目的에 대한 進展이 멀지않아 可能하게 되리라는 希望을 表明한다.
55.11.29		제10차 UN総会 決議 ① UN의 目的과 符合되는 方向에서 韓国問題의 早速한 解決을 継続 追求할 意思를 再確認하고 ② 이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계속적인 努力이 傾注

年月日	韓国의提案	UN의決議
		政体下의 統一·独立·民主韓国을 樹立할것과 同地域에서의 国際的인 平和와 安全의 完全回復을 達成하는데 있음을 再確認하고 ② 関係共産当局에 대해 1954年 제네바政治会議에서의 UN을 代表하여 参加한 国家들에 의해 提議됐고 総会에서 再確認된 統一에 관한 基本原則에 立脚한 韓国問題解決을 위해 이와 같은 UN의 既定目的을 受諾할 것과 総会에서 通過된 原則에 따라 純粋한 自由選挙의 施行에 早速히 同意할 것을 要求하며 ③ 언커크에 대해 総会의 関係決議에 따라 그의 任務를 継続할 것을 要請한다.
60. 8.27	張勉総理의 施政演説 UN의 路線에 의한 民主平和統一을 主張, 그 方案으로 UN의 決議를 尊重하고 UN監視에 의한 南北韓을 통한 総選挙実施.	
60. 9.10	鄭一亨外務長官의 言明 ① 平和的統一을 実現. ② UN監視下에 大韓民国憲法節次에 따른 南北韓을 통한	

年月日	韓国의提案	UN의決議
		完全回復에 있음을 再確認. ② 이 目的達成을 위해 継続努力토록 促求하며 ③ 언커크가 総会의 決議에 따라 그任務를 계속토록 要求한다.
62.12.15		第17次 UN 総会의 決議 ① 第15次 総会決議를 再確認한다. ② 韓国代表만을 投票権없이 招請할것을 決定한다.
63.11.26	第18次 UN 総会에 提出한 統韓覚書. ① 韓国은 平和的方法을 통한 国土統一을 追求하고 ② 韓国의 統一은 民族自決原則에 따라 原住民人口에 比例하여 代表가 選出되는 全国的自由選挙에 立脚하여 ③ 平和와 安全의 公正한 保障機関으로서 UN의 이러한 全国的選挙를 監視할것을 要求한다.	
66.10.8	第21次 UN 総会에 提出한 統韓覚書 ① 韓国은 UN監視下의 総選挙를 支持한다. ② 統一問題를 UN으로부터 分離하려는 北韓의 主張은 欺瞞이며 不法이다.	

3. 南北対話를 통한 提案

가. 南北赤十字会談 (本会談)

回数	日字	場所	雙方提議事項		備考
			韓赤	北赤	
1次	72.8.29 ~ 9. 2	平壤			○ 合議書 朗読 (雙方代辯人) ○ 合議書署名交換 (20次豫備会談時 採択) ①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의 所在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리는 問題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自由로운 訪問과 自由로운 相逢을 実現하는 問題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自由로운 書信去来를 実施하는 問題

回数 日字 場所	雙方提議事項		備考
	韓赤	北赤	
		를 떠난 人道主義는 있을 수 없음. 会議에서 가장 重要한 것은 民族的인 問題를 밑바탕으로 한 愛国愛族 精神임다. 南北共同声明은 自主的 平和統一을 実現하기 위한 南北의 共同綱領이며 雙方赤十字 代表団의 所願을 集約한 共同의 基礎가 됨. 라. 우리의 事業	22. 서울에서 進行키로 함.

回 数	日 字	場 所	雙 方 提 議 事 項		備 考
			韓 赤	北 赤	
3 次	72.10.23 ~ 10.26	平 壤	1. 議題 1 項의 具體的節次 및 樣式 討議	1. 法律的·社会的 障碍除去 2. 赤十字共同委員会 構成.	合意事項 。 第 4 次 会議時부터 南北으로 往来記者 雙方 各各 5 名을 늘이기로 合議
4 次	72.11.22 ~ 11.24	서 울	1. 議題 1 項 妥結 위해 事業節次 事業機構 設置 開始時期 등 具體的 提案 提議	1. 法律的·社会的 障碍除去 条件과 環境造成 問題 討議 2. 対象範囲에는 朝総聯傘下 「在日朝鮮公民」包含	合意事項 1. 南北赤十字共同委員会 南北赤十字 板門店共同事務所 設置 2. 上記 委員会와 事務所의 機能 運営節次 및 構成은 따로 討議決定

回 数	日 字	場 所	雙 方 提 議 事 項		備 考
			韓 赤	北 赤	
				要求하는 間接的 補 充的 方法 들도 適用	
7 次	73.7.10 ~ 7.13	平壤	1. 秋夕省墓 訪 問団 交驩		

나. 南北調節委員会 (委員長会議)

区 分	日 字	場 所	討議事項 및 会談結果	備 考
1 次	72.10.12	板門店 (自由 의집)	1. 討議事項 가. 7·4共同声明에 基礎한 南北間의 関係改善 나. 調節委員会 構成 2. 合議事項 가. 第2次·3次 会談場所 日 字 決定 2次 : 72.11.20 平壤 3次 : 72.11.30 서울 나. 南北赤十字会談 支援	
2 次	72.11.2 ~ 11.4	平 壤	会談結果 가. 共同発表文 発表 나. 南北調節委員会 構成運営 合議書署名 다. 11.11.0時를 기해 対南 対北放送中止	

区 分	日 字	場 所	提 議 事 項		備 考
			韓 赤	北 赤	
			物資交流 ㅇ 科学・技術交流・資源共同開発 ㅇ 商品展示会의 交換開催 ㅇ 商社의 交換・相互常駐 나. 社会文化分科委 ㅇ 記者常駐・学術映画交流 ㅇ 固有語研究競技単一팀構成 ㅇ 考古学・民族史研究 ㅇ 電信・電話交換, 観光 2) 南北調節委構成 및 運営合議書에 따른 運営細則	한 한 広範囲한 政治協商 3) 5個分科委員会 回付	

10月維新 앞장서서 平和統一 앞당기자

＜禁無斷轉譯載＞

民 主 統 一 論

1973年 9月 1日 印刷
1973年 9月 5日 發行

發行處: 統 一 硏 修 所
電話 ㊷ 4547
印刷處: (株) 新 進 商 事
電話 {㊹5584•1344 / ㊸1344

＜非 賣 品＞